

제39장

2011년 동두천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 제 1 절 동두천 사람들
- 제 2 절 동두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
- 제 3 절 동두천 사람들의 말과 주장
- 제 4 절 동두천의 시장 풍경
- 제 5 절 동두천 신앙 현장
- 제 6 절 동두천 배움의 현장
- 제 7 절 동두천의 노포
- 제 8 절 동두천의 기행문
- 제 9 절 동두천의 쟁점들
- 제10절 동두천의 축제
- 제11절 동두천에서 사라져버린 것들
- 제12절 동두천 사건 · 사고
- 제13절 동두천 무속신앙

DONGDUCHEON HISTORY OF





장소: 중앙시장 주차장임구 주최: 중앙시장상인회 후원: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동두천시



30 YEARS 1981-2011

東豆州市30年史

제1절 동두천 사람들

1. 일자리 발굴의 달인을 만나다

홍도의 | 동두천일자리센터 센터장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다기에 입소문을 따라 찾아가 보았다. 누구든 찾아가 하소연해도 말 없이 웃으며 귀담아 들어주고 해결까지 해주는 다정한 이웃 같은 곳, 바로 동두천일자리센터다.

동두천일자리센터는 2010년 4월 동두천중앙역사 내로 이전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노인, 장애인 등 일자리 지원기관 연계 및 네트워크 관리를 통한 상담,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자 사후관리 등 일자리 종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인·구직자들의 휴식처 역할 등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다.

그곳에서 유난히 맑은 미소로 구직자들을 맞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홍도의 센터장이다. 그를 아는 모든 이들은 그를 ‘일자리 발굴의 달인’이라고 부른다. 왜 그가 달인으로 불리는지 명함첩만 봐도 알 수 있다. 그 안에는 동두천·양주 관내 기업체 인사담당자 200여 명의 명함이 꽂혀 있다. 홍 센터장이 구직자들의 빠른 취업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받은 명함들이다.

홍도의 센터장은 1989년 9급으로 공직에 첫발을 들인 뒤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시의회, 동사무소 등을 거쳐 2010년 3월 일자리센터장으로 부임해 현재 구인·구직자들의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센터장 부임 후 취업상담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취업실적도 2009년 9월 65명에 비해 2010년 9월은 237명으로 4배 가까이 올랐다. 이 밖에도 기업체와 개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229명의 일자리 발굴, 134명의 구직자 동행면접도 실시했다.

홍 센터장은 “기존 방식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접근 및 다양한 홍보, 업무 분담을 체계적으로 수행한 것뿐이다.”라며 직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를 충실히 잘해준 덕분이라고 실적상승의 공을 직원들에게 돌렸다. 때론 구인·구직자 간에 원하는 조건이 맞지 않아 취업이 성사되지 않을 때에도 그는 안타까움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고 다짐하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자리센터에 긍정과 열정을 쏟아내는 홍 센터장에게도 고민이 생겼다. 경기도에서 선발해 지자체에 배치된 프로시니어(50세 이상 전문직 은퇴자)가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상담 및 동행면접 업무를 담당하며 홍 센터장에게 큰 힘을 보태주고 있는 실정에서 이들이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 명의 프로 시니어도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에는 프로시니어 배치 여부까지 불투명해 걱정을 쏟아내는 홍 센터장의 얼굴에 그늘이 진다.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맡은 업무에 충실하며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공직에 임해 온 홍도의 센터장,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인 그의 성실함과 일에 대한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부디 동두천시일자리센터에서 희망을 찾는 구직자들을 위해서라도 프로시니어들의 배치가 절실함을 관계기관이 깨달아주길 소원해본다.

2. 동두천의 꺼지지 않는 등불

김영희 | 방법기동순찰연합대 부대장



1995년부터 어머니자율방법대에서 활동을 시작해 15년간 지역의 구석구석을 돌며 범죄 예방 활동과 각종 봉사를 펼치고 있는 동두천시 방법기동순찰연합대 김영희 부대장을 만나 쉽 없이 달려온 그녀의 자율 방법에 대한 애정 섞인 철학을 들었다.

경기도 연천 출신의 김영희 부대장은 1995년 동두천으로 내려와 상패동에 정착해 살다가 지인의 권유로 방범대 활동을 시작했다. 그가 자율방범대 활동을 시작할 당시 동두천의 지역 치안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책임감이 발동해 망설임 없이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방범대는 방범순찰은 기본이고, 각종 안전캠페인, 불우이웃 연탄 배달 및 방문 봉사, 행사 지원 등 많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성이 참여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뿐 아니라 특히 주부라면 더욱 어렵다. 그녀도 여느 주부와 마찬가지로 한 남편의 아내이고 아들과 딸을 둔 어머니이다. 김 부대장은 15년 동안 방범활동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가족이라고 했다. 특히 “남편은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오히려 방범대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라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김 부대장은 대원으로 한창 활동할 당시 겪은 일화 중 하나를 들려줬다. “순찰 활동 중 가출한 여학생을 만난 적이 있었다. 보통 이런 학생들은 경찰에게 인도하거나 ‘청소년 쉼터’로 보내는 것이 맞지만 이 학생은 눈에 선할 정도로 엄마의 사랑에 굶주린 티가 나 딸을 키우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한 달 가량 우리 집에서 딸처럼 보살피며 대화를 통해 마음을 열어주고 올바른 길로 지도해 지금은 어여쁜 아가씨가 다 됐다.”라며 뿌듯함을 나타냈다.

꾸준한 자율방범대 활동으로 동두천에서는 이미 유명해진 김 부대장은 연합대 소속으로 활동하던 중, 2005년 부대장으로 위촉됐다. 지인의 권유로 열떨결에 시작한 자율방범대 봉사활동이 이제는 상패동 남산모루지대를 거쳐 동두천 전역까지 확대된 김영희 부대장.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의 등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을 그녀의 건강을 기원하며 김 부대장의 열정이 있어 다가오는 겨울은 따뜻하지 않을까 싶다.

3. 천사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러브홀릭



김규웅 | 천사운동본부 본부장

2002년 척박한 동두천에 나눔의 씨앗을 심어 다음해 10월 4일 ‘천사데이’를 제정하면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때론

난치병 환우들의 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등 제도권 안팎을 넘나드는 봉사로 우리 사회를 미소짓게 만드는 천사들의 집합체, 소외 계층의 수호천사 천사운동본부가 걸어온 지난 9년간의 족적과 성과는 수치로 잴 수 없는 사랑의 가치를 담고 있다.

현재 천사운동본부는 김규웅 본부장을 위시한 13명의 이사진과 서길정 국장이 이끌어가는 2명의 사무국 직원이 고작이지만 뒤를 받쳐주는 2,800여 명의 천사들이 러브홀릭에 빠져 든든한 지원군처럼 힘을 실어준다. 이들 2,800여 명의 천사들이 매월 1만 원씩 운동본부에 기부하면 이 품앗이 기금을 소년소녀가장, 난치병 어린이,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등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곳에 귀하게 쓴다. 일례로 7년간 희귀난치병 환우 29명의 치료비로 1억4,666만 원을 지원했으니 십시일반의 정성으로 우공이산의 기적을 일군다는 표현이 제격이다.

그동안 운동본부는 심장병, 간대성 발작, 외배협성 장애, 경피증, 백혈병, 성문하 협착증, 대퇴경부 골절, 폐동맥 폐쇄, 소아암 등 병명도 생소한 희귀 난치병 아이들을 제보받아 적게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수술 비용을 지원했다. 생후 6개월의 여아(폐동맥 폐쇄증)를 둔 다문화가정, 치료가 불가해 평생 소리를 잃고 살아가야 하는 아이 등 그들의 사연도 구구절절 애잔하다.

두 번의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해 씩씩하게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하라는 서길정 국장은 “자칫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는 어린 환우가 초기에 치료되어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좀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라고 말하며 제도권 밖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요즘 운동본부 사무실은 오는 10월 3일 종합운동장에서 거행될 천사마라톤대회 준비로 부산스럽다.

KBS가 ‘대국민 나눔과 소통’을 기치로 10월 4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80일 동안 벌인 천사 캠페인에서 천사운동의 발원지인 동두천에서 펼쳐지는 천사마라톤대회가 비중 있게 다뤄지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는 운동본부의 부담이 여느 때보다 컸다.

KBS는 9월 27일 자사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사회통합수석, 서울시장, 7대 종교장 등 50여 명의 사회 저명 헤드들이 참여해 ‘천사데이’ 선포식과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10월 3일 동두천 천사데이마라톤과 서울 청계광장 워킹페스티벌이 동시에 열렸고 10월 4일 경희궁에서 대국민 천사 캠페인 발대식을 생중계했다.

80일의 여정의 끝은 화재로 소실됐다가 새롭게 단장한 경복궁에서 12월 24일 대장정의 마무리를 맺었다. 김규웅 본부장은 “외부에서 오는 참가자들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당일 녹화해 다음날 전국에 방영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며 “동두천의 좋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멋진 나눔행사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시민사회에 전했다.

특히 “천사운동본부가 독자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 시민 모두가 천사의 날개를 다는 데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며 “이날 하루만큼은 나눔의 봉사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동두천 전역에서 펼쳐졌으면 좋겠다.”라고 ‘천사데이’ 동참을 주문했다.

김 본부장은 회원 정제 휴면계좌로 고민이 깊다는 속내도 털어놴다. 2,800여 명의 천사 중 1,000여 개의 계좌가 휴면상태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입금이 중단된 상태이고 이 중 동두천시민은 500여 명이 채 안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매월 100만 원의 월급을 수령하는 직장인이 급여 중 1%인 1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고 그만큼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가 성숙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차원에서 누군가의 아픔을 공유하고 싶은 시민이라면 천사데이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아이의 손을 잡고, 친구의 손을 잡고 희망의 질주를 하는 것은 어떨까!

어려운 이웃과 가려린 난치병 아이들에게 소중하게 사용될 수익금은 오늘 우리의 이름으로 가득 넘쳐나길 기대한다.

4. 활력과 긍정의 여인, 인생사의 감동을 연극 무대 위로



김정자 | 극단 동두천 대표

동두천에서 열리는 ‘제20회 경기 연극 올림피아드’ 준비에 한창 열정을 쏟고 있는 김정자 ‘극단 동두천’ 대표를 만났다. 민선 4기 동두천 시의원이자 감수성 풍부한 시인 김정자 대표.

동두천의 번영이라는 소박한 소망으로 오늘도 양지와 음지를 가리지 않는 김정자 대표는 바야흐로 동두천을 경기북부 예술문화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섬 없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잘 쉬고 있어요.”라며 화사하게 웃는 그녀는 무언가를 위해 열정을 쏟고 일하는 것이 잘 쉬는 것이라고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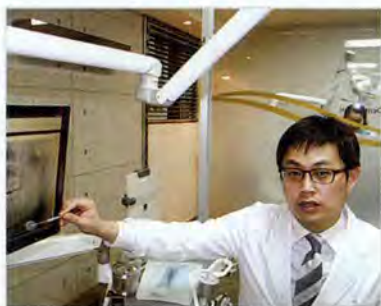
그녀가 대표로 활동하는 ‘극단 동두천’은 동두천에 거주하는 직장인 주부들이 의기투합해 결성한 순수 아마추어 예술단체다. 결성된 후 꾸준히 연극 공연을 펼쳐 그 예술성을 키웠고, 작년 ‘경기 연극 올림피아드’에서 ‘미학상’을 수상했다.

김정자 대표는 “‘춘천마임축제’와 ‘거창국제연극제’ 등 도심공동화 위기에 놓인 지자체가 연극이라는 종합예술을 성공적으로 유치시켜 나가면서 지역경제 회생은 물론이고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면서 “연극은 상권회복과 지역민의 화합에 시너지 효과를 이룬다.”라고 설명했다. 김관목 예총 회장과 더불어 ‘경기 연극 올림피아드’의 동두천 유치 성공 이후 “매년 도시를 옮겨가며 대회를 펼치는 ‘경기 연극 올림피아드’를 동두천에 정착시켜 문화관광 육성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 내내 즐겁게 활동했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며 주민을 위해 일했던 것이 여태껏 살아오면서 가장 큰 보람이었다는 김정자 대표는 그 에너지를 지금 동두천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쓰고 싶다고 전했다.

극단 동두천은 이번 ‘경기 연극 올림피아드’에 ‘여자’라는 작품으로 무대에 오른다. 김정자 대표의 활력과 긍정의 힘이 단원들의 몸짓, 대사, 연기에 그대로 전이 돼 그 감동이 고스란히 관객들에게 선사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5. 훈남 의사의 친절한 치과 치료법



이지훈 | 동두천 중앙성모치과 원장

치익~, 찌리릭~, 고막을 찌르는 듯한 소리에 온 몸에 소름이 돋는 곳, 예약을 하고도 한참 망설임 끝에 찾게 되는 곳, 바로 치과다.

예민한 치아와 잇몸을 치료받는 일이기에 치료를 받기 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훈훈한 미소로 달래주는 이가 있으니 바로 동두천 중앙성모치과 이지훈 원장이다.

이 원장은 경상남도 울산이 고향으로 올해 31세이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에이는 아픔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북적북적한 병원을 맡아 이끌어 나가는 이 병원 원장이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의료원장이 되고 싶었다고 한다. 외과, 내과, 흉부외과 등 다양한 의료분야 중에서도 세밀하고 정교한 치과의술이 그의 다정다감한 성격 과도 잘 맞아 천직처럼 치과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보철과 전공의로 수련했으며 현재 경북대학 치위생과 보철과 외래교수를 겸하고 있다.

고향은 경남이지만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 환자들을 주로 만나다보니 자연스럽게 경기북부와 인연이 닿았고 지역민들이 지역 내의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3차 병원인 대학병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컸다고 한다. 그래서 열악한 의료 환경을 해결하고자 동두천에 개원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동안 의정부성모병원, 여의도와 강남에 위치한 치과의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쌓은 경험을 발판으로 동두천에 자리 잡은 지 이제 1년 6개월이 되었다.

처음에는 나이도 어리고 친인척도 없어 터 잡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40~50대 중년층이 많아 가깝게 지내기 어려웠으나 아들처럼, 조카처럼 지내기로 마음먹고 환자들을 대하다보니 오히려 그의 친절하고 구김살 없는 태도에 방문 환자들이 더 많아져 지금은 웃으며 진료도 가능해졌다고 한다.

동두천 중앙성모치과는 무통마취기를 비롯한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앙성모병원과 협진이 가능한 이점과 보철과, 치주과, 보존과, 교정과의 각 분야 전문의사와 7명의 전문 치위생사들이 원칙을 갖고 진료한다는 점,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야간 9시까지 진료가 가능한 점 등이 환자들이 이 병원을 안심하고 찾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가 처음 개원하면서 삼은 원칙은 '가능한 진료는 최대한 해낸다.'였고 지역민들의 시간과 돈을 아껴주고 싶었던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 지금은 지역민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얻고 있다.

그의 아름다운 정신은 봉사활동으로도 이어져 파주 교남 어유지동산 지체

장애우와 동두천 신체장애우 가족들의 무료 스케일링, 잇몸 치료 봉사를 하고 있고, 동두천 초중고 2/3의 구강건강주치의를 맡고 있다. 현재 동두천 청소년 육성회원인 그는 “더욱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벌여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싶다.” 라고 말했다.

“금전적으로 판단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은 통한다.” 라는 그의 정직한 소신은 앞으로 더욱 빛날 것으로 보인다.

6. 동두천의 진정한 ‘봉사왕’

윤옥자 | 소요8통 새마을부녀회 회장

동두천여성봉사상 수상-14년 억척 봉사... 일주일에 3~4일은 남을 위해



동두천여성상 수상자 중 봉사상을 수상한 윤옥자(50) 씨.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기에 ‘봉사왕’의 닉네임을 얻었을까. 그 물음에 정작 주인공은 “부족한 저를 뽑아줘 영광스럽다.”라며 답답해 했다.

동두천의 몇 안 되는 자연부락 안흥동주민자치센터에서 만난 윤옥자 씨는 안흥동 25년지기로 소요8통 새마을부녀회장을 맡고 있다. 200여 가구가 채 안 되는 작고 고즈넉한 마을에서 그녀의 역할은 막중하고 컸다.

첫 대면부터 수상 소감을 묻자 “늘 부족한데, 이렇게 상까지 받으니 책임감이 더욱 든다.”라고 겸손해 했다. 1994년 지인의 권유로 새마을부녀회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지 어느덧 15년째. 그녀의 성품을 잘 아는 동네 어르신들의 추천으로 소요8통의 부녀회장을 맡으면서 억척스러운 그녀의 봉사일기가 시작됐다. 일주일 중 3~4일은 봉사에 나선다고 하니,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지경.

동두천시는 그녀의 봉사 공적서에 “15년 동안 거르지 않고 김장을 담가 저소득 가정 100여 가구에 공급했다.”라고 썼지만 이는 그녀의 봉사이력을 보면 빙산의 일각이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부녀회에서 나서서 휴지도 팔고, 빈병과 박스를 모아 돈으로 바꾸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모금운동을 전개, 거액을 쾌척한 일은 그녀의 억척스러운 베품의 삶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윤 회장은 “1990년대 말만 해도 사회복지 제도가 미흡해 어렵게 사는 노인과 가정들이 많았죠. 그때는 부녀회에서 미역도 팔고, 빈병도 모아 자금을 마련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했는데, 지금은 사회가 잘 발달돼 봉사의 형태도 많이 바뀌었죠.”라고 봉사의 격세지감을 설명했다. 한때 문의가 폭주하던 연탄무상 서비스도 지금은 정부와 자치단체, 각종 봉사단체에서 많이 해서 잠시 미웠다고 한다.

그렇다고 봉사를 줄일 수는 없는 일. 지금은 복지 사각지대의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가정을 위해 김장을 담가 나눠주고, 도시락 밑반찬을 만들어 배달해주는 등의 밀착형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행여 어르신들이 입맛을 잃을까, 또는 싫은 기색이라도 할까, 반찬거리에 신경쓰다 보면 하루 만나절이 훌쩍 가 버린다.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들의 문안을 살피는 일도 그녀의 몫이다. 그래서인지 임기 3년의 부녀회장직을 15년 넘게 해도 누구 하나 시기하는 이도 없고 오히려 동네사람 모두 “그녀가 최고”라며 응원해준다.

“봉사활동이 쉽게 보일 수는 있어도 참 어려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기쁨보다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매사에 조심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대가 없이 하는 봉사. 그래도 식구들 모두 후원해줘 정말 고맙다고 한다. 어려울 때면 오히려 남편과 남편 친구들이 기꺼이 성금을 내놓을 때도 많아 자기 스스로를 채찍하고 나태함을 반성하게 된다고 한다.

새마을부녀회 동두천지회 부회장과 소요8통 회장을 맡아 어느덧 새마을부녀회 산증인이 된 윤옥자 회장. 그녀는 “봉사는 좋은 것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만이 진가가 발휘된다.”라며 젊은 사람들의 봉사참여를 권장했다.

“돈을 조금 더 벌어 공기 좋은 시골에 땅 조금 사서 오갈 곳 없는 노인들 모시며 살고 싶다.”라는 고운 바람을 전해온 윤옥자 회장, 비단결같은 고운 마음씨를 지닌 그녀는 진정 동두천의 여성 봉사왕임이 틀림없다.

7. 토박이 못지않은 동두천을 향한 무한애정

소원영 | 한북대 최고지도자과정 8기 원우회장



아침 6시 서울시 은평구 집을 나섰다. 동두천 공장서 오전을 보냈다. 각급 사회 단체장들과 점심식사를 했다. 신문사 기자와의 인터뷰에 이어 곧장 종로6가에서 저녁 약속... 그는 수첩 빼곡하게 적힌 일정을 꺼내 보였다. “나만큼 바쁜 사람 있을까요?” 짐짓 푸념하는 듯하지만

만 그는 자신의 일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었다. 표정, 행동, 말투에 그를 증명하는 자신감이 흠씬 묻어났다.

경남레이스 소원영 대표는 직함이 여러 개다. 명함 가득 동두천기업인협의회 부회장, 재경 음성군 등산회장,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석사 85기 회장(전), 한북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 8기 원우회장 등이 적혀 있었다. 갓 군대를 제대한 20대 젊은 나이에 의류 부자재 사업에 뛰어들어 지금의 경남레이스를 꾸려 왔다. 그 과정에 ‘동두천시’를 빼놓을 수 없다. 그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장된 곳이 바로 이곳, 동두천이기 때문이다.

그의 사업은 동두천시 세수에 ‘꽤’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그는 동두천 관광소득에 일조하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긴다. 재경 음성군 등산회장을 맡은 그는 회원들을 모두 모아 소요산역을 자주 찾는다. 올라갈 때도 내려올 때도 지역 상인들의 매출에 톡톡히 한몫한다. 산에 올라서서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동두천 구석구석을 설명해주느라 바쁘다. 회원들은 “올 때마다 저 소리”라며 핀잔을 주기 일췌지만, 그는 지칠 줄 모르고 침을 튀겨가며 설명한다.

그가 동두천에 온 지 벌써 20여 년. 자신을 가리켜 ‘준’토박이라고 부른다. 동두천기업인협의회 부회장을 맡은 것도 지역에 대한 애정 없인 가능하지 않았다. 부회장직을 맡고 3번 국도 대체우회도로며 각종 도로사업 등 동두천 기업인의 애로사항-교통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부회장직을 여럿 맡든 것도 그의 제안이다. “식사비 내가 다 낸다고 불러 모았어요. 그만큼 모임에 대한 결속력이 높아졌습니다.” 덕분에 기업인협의회가 잘 돌아간다고 소문이 났

다. 회장 역시 그에 대한 신임도가 높아서 타 모임에 대신 참석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다.

그는 “서울엔 서울대가 있고, 한수 이북엔 한북대가 있다.”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산다. 이 말은 그가 원우회장을 맡은 한북대학교에 대한 애정표현이고 사랑고백이다. 그는 원우회를 모아 전방 안보체험도 다녀왔다. 회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일에 손수 나서 군일들을 처리했다.

“사실 직접 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그는 고민 끝에 자신이 가능한 봉사를 택했다. 익명의 장학회에 장학금을 기탁한 것. 지역 인재들을 키워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지론을 그대로 실천했다.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틈틈이 도울 생각”이라는 소 대표. 지역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고향이 천두동’이라던 토박이들에 비하면 그의 애정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지역이 무엇을 주었는가 이전에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긍정적인 자세가 오늘의 그를 만들지 않았을까. 서둘러 다음 일정을 위해 자리를 옮기는 그를 보며 보다 많은 ‘소 대표’가 등장한다면 지역의 ‘기지촌’ 이미지도 금세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8. 꿈을 향해 내딛는 절룩거림

임호진 | 소요동주민센터 장애인행정도우미



추적추적 내리는 봄비를 맞으며 소요동주민센터에 들어섰다. 입구를 통과하자 바로 그를 볼 수 있었다. 임호진(33) 장애인행정도우미. 그를 처음 본 것을 올 1월이었다. 동장실을 물어보는 기자에게 그는 약간 더듬거리는 말투와 손짓으로 한 곳을 가리켰다. 그의 장애를 의식하지 않고 물었던 터라 그가 힘겹게 팔을 들어 올리는 모습에서 조금 놀랐다. 그리고 그를 기억해 두었다. 다음

에 취재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꼭 3개월 만에 다시 찾은 기사를 호진 씨는 기억하고 있었다.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신체장애가 불편하지는 않을까 싶어 조심스럽지만 그것부터 물었다. “반신마비예요. 4살 때 쓰러진 오토바이 손잡이가 제 머리를 쳤어요. 지금도 여기는 뼈가 없어요.” 머리 한 곳을 가리키며 호진 씨는 말을 이었다. 그는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해 중증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로 계속해서 몸을 쓰지 못해 다리가 짧아진 ‘변형장애’마저 갖게 되었다. 기자의 눈빛에서 어줄지 않은 동정을 읽었을까. 그는 “바로 앞에 역이 있어서 출근하는 데 10여 분밖에 안 걸린다.”라며 환하게 웃음지었다.

호진 씨에게 정작 힘든 것은 업무 파악이었다. 작년 한 해 업무 보조를 시작하면서 서류 정리와 전산 작업 등을 했지만, 집에서 틈틈이 해오던 ‘공무원 시험 준비’와는 모든 면에서 다른 경험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실수가 많아서 내심 불안했지만 장애인 행정을 담당하는 ‘주사님’이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고, 덕분에 1년 계약직으로 시작했지만 2년째 일하게 되었다며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자주 입에 올렸다. 그만큼 주위 직원들에게 불편을 끼쳐 미안하단 마음의 표현이었다. 그의 말처럼 ‘가족 같은 분위기’가 참 좋다고 했다.

장애인행정도우미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동두천시가 2007년 12월 소요동을 비롯해 5개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할 인원을 모집했다. 장애인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다. 장애를 갖고 있는 당사자인 만큼, 비장애인들이 갖지 못하는 감수성이 기대됐다. 호진 씨는 공고를 보고 “조금이라도 집에 보탬이 되려고” 신청을 했다. 평소 장애인복지에 대해 갖고 있던 관심도 한몫했다. 업무 초기에는 실수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단점을 보완했다며 담당계장이 귀땀해주었다.

“20대 초반엔 ‘장사’를 하려고 운전면허를 땀다.”라며 수줍게 고백한 호진 씨는 이후 여건이 되지 않아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초등학교 시절 글을 써서 몇 차례 수상하고, 선생님께 글을 잘 쓴다며 칭찬받았던 기억이 그를 국문과로 이끌었다. 그는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송통신대에 입학했고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다. “요샌 주말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졸업 논문과 중간고사 준비를 한다.”라며 새로 생긴 취미인 사진찍기도 마다하고 공부를 한다고 했다.

업무를 맡고 “사회경험이 부족했다.”라는 반성을 많이 한다는 호진 씨. “여기서

일하게 된 것이 영광이라 생각한다. 사람들 알게 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좋다. 일할 수 있는, 내가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준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했다. 그가 느끼는 ‘부족함’은 비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에서 오는 건 아닐까 싶어 속으로 뜨끔했던 기사를 배웅하던 호진 씨. 그가 새긴 경험들이 한 편의 멋진 글로 태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9. 가상인터뷰/동광극장이 말을 걸다



50년째 그 자리, 동두천의 산 증인 ‘동광극장’

안녕. 요새같이 어려운 때엔 인사 건네기도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글을 통해서만 말을 걸 수 있는 내 사정상 평범한 인사를 하는 걸 이해해 주렴. 근데 왜

반말이냐고? 내가 태어난 지 벌써 50년이 되었잖니. 너희와 같이 나이를 먹어 가니까 꼭 친구 같은 기분이라 그래. 불편해도 듣다보면 익숙해질 거야. 하하.

아직도 기억난다. 내 무릎 위에서 까까머리, 단발머리 한 너희들이 졸업장을 받고 같이 사진을 찍던 거. 그때는 꼭 영화를 상영하지 않아도 너희를 자주 볼 수 있었지. 그런 너희가 자신을 꼭 빼닮은 자식들 손을 붙잡고 와서 영화를 보더라. 속으로 얼마나 웃었던지. 너희 어릴 적 모습을 기억하던 내겐 그보다 기쁜 일이 없었어. 참 그립다. 요새는 좀 어떠냐고? 지하철이 연장되고 다들 나보다 더 비까번쩍한 친구를 찾아 떠나서 그런지 조금 쓸쓸해. 새로 생겨나는 애들은 상영관도 여러 개고 깔끔한 옷을 입었어. 나도 부럽기는 하더라.

하지만 아직 영화 상영하는 힘은 개네들 못지않아. 나만큼 큰 스크린 갖고 있는 애들 별로 없을걸. 너희들 배려하려고 팔걸이도 두 개씩 만들어 놓았잖아. 1993년일 거야. 네 달 정도 꽃단장하고 너희 앞에 나선 건, 스크린 앞에 무대를 없앤 건 내가 최초였어. 그때만 해도 날 따라올 애들이 없었는데 요새는 구닥다리라고 구박을 많이 받아.

주위에선 날 두고 ‘옛날 극장’이라고 놀리더라.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지 않아. 50년 동안 한 자리에서 버텨온 내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이야. 주변 가게들과 길도 다들 내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걸.

가끔 아들 면회를 온 부모들이 들릴 때도 있는데 “이런 극장 오랜만이다.”라며 감탄할 때는 한껏 우쭐해지기도 해. 단관극장이 전국에 몇 개 안 남았거든. 조금만 꾸민다면 동두천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날 내세워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어. 옆에 사는 ‘생연음식문화거리’나 ‘보산관광특구’와 함께 다녀도 꽤 어울리지 않나 싶어.

그런데 현실은 냉혹하더라. 우리 사장도 지쳐 보여. 부쩍 허탈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바라보는 일이 늘었어. 그치도 30년째 영사기를 돌렸잖아. 아버지 뒤를 이어 받은 일이라 포기하고 싶지 않다며 내게도 더 멋진 옷을 입혀 주고 싶다는데, 손님이 줄어드는 현실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나 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로선 좋은 것만 찾아다니고 추억의 가치를 쉽게 치부해버리는 요즘 세태가 아쉬울 뿐이야.

그래서 요새 들어 이런 생각을 해. 더 크고 화려한 극장이 나타나면 나는 없어지겠지? 그러면 너희와 내가 함께한 추억들도 모두 잊히겠지. 너희 손을 붙잡고 온 아이들이 다시 자신의 아이 손을 붙잡고 날 찾는 그런 행복한 순간도 다시 맞을 수 없어. 해해, 조금 슬프네. 우냐고? 아냐 아냐. 하품해서 그래.

아무튼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간간이 찾아주는 친구들에게 충실해야지. 바쁘겠지만 날 잊지 않고 찾아와준다면 좋겠다. 언젠가 다시 날 찾을 너희를 볼 수 있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칠게. 안녕.

10. ‘즐겁게, 건강하게’ 내건 토박이 교육자



이광훈 | 지행초교 교장
동두천 · 양주교원총연합회 회장

때 아닌 함박눈이 ‘핑핑’ 내리던 26일, 지행초교를 찾았다. 입구에서 구두를 벗어야 돼서 짐짓 당황했지만, 한창

자랄 아이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신경 쓴 마음에 얼른 실내화로 바꿔 신었다. 들어서자마자 기자의 눈을 사로잡은 건, 아기를 업고 있는 여성이 아이의 손을 잡고 거니는 도서관이다. '반딧불도서관'이라 이름 붙은 곳엔 이미 수업이 파했음에도 10여 명의 아이들이 저마다 자리잡고 책을 읽고 있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새삼스레 격세지감을 느끼며 교장실 문을 두드렸다.

두 팔을 벌려 환영해주는 모습이 옆집 할아버지 같은 인상이다. 곧장 인터뷰 준비를 마친 이광훈 지행초교 교장의 얼굴은 약간 상기되어 있었다. 감기 기운이 있다고 했다.

“잠시 병원에 다녀오느라 업무를 보지 못했다.”라며, 인터뷰 중간에 급한 업무라고 찾아온 직원의 서류를 검토하며 처리하는 모습은 수더분해 보이던 첫 인상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동두천·양주교원총연합회 회장직은 단순히 인맥이나 나이로 임명되는 게 아니니 당연한 일이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내내, 지행초교 2대 교장으로서의 책무뿐 아니라 지역 교육 현실에도 따끔한 분석을 내렸다. 며칠 전 정진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지행초교를 직접 방문해 동두천 지역의 초등교육 현실에 대한 의견을 묻고 갔다. 이 교장은 당시 자리에서도 ‘듣기 좋은 보고’보다는 냉정한 현실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성적 일변도의 교육보다는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주장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각기 다른 재능을 발굴하고 키워주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고 했다. 지행초교는 현재 11개의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며 특별활동과 연계해 사물놀이, 영어, 연극 등 다양한 소질을 계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학업 증진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다. 지역 내 영재학교를 담당해 기존의 교과목과 연계한 심화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공동 학급이기 때문에 인근 보산초교, 생연초교 등에서 10여 명의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호응도 대단하다. 소금 결정체를 만드는 과학 실험이나 모형비행기를 만드는 등의 활동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면서 동시에 현상을 넘어선 본질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현재 지행초교는 또 하나의 실험을 앞두고 있다. 교육청과 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개설한 영어 체험실이 그것. 원어민 교사와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활용하는 기회를 높이고, 각종 학습지원 등을 통해 제2외국어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하게 된다.

다양한 학습과 성과는 그가 말하는 교육의 본질과는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교장이 주장하는 바는 하나다. “오로지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고, 즐겁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이것 밖에 바랄 게 없다.”라는 이 교장.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정치논리에 교육이 희생되는 현실을 경계한다.”라는 따끔한 말을 하다가도 ‘동두천 토박이’로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바란다.”라는 그로 인해 지역의 교육현실에 대한 우려를 잠시나마 불식시킬 수 있었다.

11. 낮에는 기상대원, 밤에는 선생님

김종우 | 하늘봉사동호회 창립인



동두천시청 맞은 편, 하늘을 향한 꼬불꼬불한 계단길 끝에는 구름과 맞닿은 동두천기상대 건물이 홀로 서 있다. 자동차에 익숙해진 게으른 몸을 이끌고 올라간 보답으로 맑은 공기를 들이킬 수 있었다. 매일 이 맑은 공기를 마시는 동두천기상대에는 10명의 대원이 있

고 그 중 7명이 선생님이다.

경기가 어려워 기상대원들이 부업으로 과외라도 하는가 생각하셨다면 오해를 밝힌다. 이들은 며칠 전 본지에 소개된 동두천야학의 든든한 버팀목인 하늘봉사동호회 야학 교사들이다.

하늘봉사동호회는 지난 2004년 동두천기상대원 김종우 씨가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열정으로 설립한 봉사단체이다. 기상대는 국가중앙기관으로 해당 시 또는 도에서 각각 자체적으로 뽑는 지방직 공무원과 달리 순환보직제를 시행하는 국가직 공무원들이 부임하게 된다. 대부분 몇 년마다 이동하게 되므로 각 근무 지역에 대한 애정이 깊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동두천에서 나고 자란 김종우 씨는 고향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고 동료들에게도 동두천 지역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또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애정을 갖고 지역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

봉사 동호회를 창단하게 되었다.

유난히 반듯한 성정을 지녔다고 소문난 그는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지역사회 환원과 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공무원이 되고 싶었다.”라고 했다.

하늘봉사동호회 회원들은 초기 몸을 쓰는 ‘노력 봉사’로 시작했는데 그러던 중 동두천야학에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당시 야학 사정은 매우 열악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인력 부족도 심각해서 야학 교사는 겨우 둘뿐이었고 그나마도 한글반이 전부였다. 종우 씨는 “스스로 이렇게 말하기엔 민망하지만 기상청에는 우수한 실력을 가진 분들이 많다. 기상청 직원들의 고급 두뇌를 활용하여 검정고시반을 창설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동두천야학의 중학과정 전 과목과 고등학교 과목 절반을 하늘봉사 동호회 회원들이 맡고 있다. 수업은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일주일에 다섯 번이다. 검정고시를 앞두고는 주말에도 보충 수업이 이어져 봉사대원들은 거의 쉬지 않고 일하는 셈이다.

“처음에는 업무가 끝나자마자 강단에 서야 해 직원들이 개인시간이 없어서 힘들어 했다.”라는 한마디만 하고 웃는 종우 씨. 그러나 힘들었다는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지난 4년간 봉사대원들의 수고가 매우 컸다.

매해 4월과 8월에 있는 검정고시 시험에서 동두천야학의 합격률은 80~85% 정도. “학력 콤플렉스를 갖고 계시던 분이 많다 보니 학구열이 대단하다. 검정고시 자격을 반드시 따야겠다는 각오로 공부하시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며 종우 씨가 귀띔했다.

하지만 힘들기만 한 건 아니다. “무미건조한 공직 생활에 활력소가 된다. 야학 봉사를 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라 어떤 단합대회를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친목을 다질 수 있다. 업무성과와 봉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기가 힘들지만 기상대와 동두천야학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어 보람차다.”

종우 씨는 마지막으로 야학 교사로서가 아닌 기상대원으로서 한마디 덧붙였다. “동두천기상대 예보 정확률은 타 지역 기상대와 비교해서 전혀 뒤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정확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보라는 것은 100%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시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칠 때도 있어 죄송하게 생각한다.” 좀 더 정확한 예보를 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 하고 있으니 너그럽게 바라봐 달라는 종우 씨. 앞으로 동두천기상대와 동두천야학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원한다.

12. 괴짜 CEO 동두천 한켠 마법의 성 탐험기

김에녹 | 슈어샵 대표



동연사거리 한 구석, 아는 사람만 아는 특별한 옷가게가 있다. ‘짧은 사장님’ 김에녹(26)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슈어샵’의 오프라인 매장, 일명 ‘버섯 옷가게’.

특이하게 간판이 달려 있지 않다. “아는 분들이 다 ‘버섯 옷가게’라고 하셔서

굳이 이름을 따로 정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라며 그는 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고마움을 표현했다. 외양이 특이해서 들렀다고 말하자 작년 7월에 오픈했다는 에녹 씨의 답에 기자 스스로 주변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겸연쩍었다. 애칭이 붙은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버섯 모양의 지붕 디자인은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한다.

‘버섯 옷가게’는 겨우 두 평 남짓한 면적에 에녹 씨가 일어서면 천장에 머리가 닿을 듯한 작은 가게다. 하지만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한눈에 들어오는 알록달록한 후드티셔츠들을 비롯해 아기자기한 디자인이 도안된 옷들이 구석구석 자리잡고 있다.

주 구매층은 중고등학생들이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어머님’들이 많이 찾아 온다. 어린 친구들의 입소문을 무시 못하는 까닭이다. 마침 한 손님이 들어왔다.

“이런 건 얼마예요?” 한 옷을 만지는 손님에게 “1만 원에서 1만5,000원 선이에요”라고 친절하게 대답하는 에녹 씨. 옷을 둘러보고 그냥 나가는 손님에게도 공손하게 배웅을 한다.

에녹 씨는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다. 하지만 학비가 너무 올라 제대 후 바로 복학을 할 수 없었다. 학비를 마련할 겸 의류쇼핑몰을 창업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애니메이션을 꿈꾸는 ‘아는 형’의 도움이 컸다. 형은 홈페이지 구축을 비롯해 사업 외적인 측면을 도맡았다. 아기자기한 디자인 덕에 바로 입소문을 탔다.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관리를 소홀히 했어요. 쇼핑물을 통해서 구매를 하면 제가 직접 배달을 해주는 시스템이었는데, 디자인이나 게시판 관리 등에 집중을 못 했죠.” 라고 말을 하는 에녹 씨의 얼굴에 잠깐 그늘이 드리웠다.

가끔 아들을 도와주러 나오는 어머니는 그런 에녹 씨가 안쓰럽다고 했다. 스스로 학비를 버는 아들의 모습이 대견하지만 그만큼 당신의 미안함은 커져만 갔다. 에녹 씨도 어머니의 걱정 어린 시선을 안다. 사업 초기에 실수를 해서 어머니를 정면으로 볼 낮이 없었다. 하지만 홈페이지 재구축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틈이 없다. 특히 “형이 모든 것에 완벽을 추구해서 리뉴얼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며 그만큼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쇼핑물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에녹 씨는 현재 특별한 작업을 구상 중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슈어샵’을 일반 쇼핑물과 달리 동두천 학생들의 커뮤니티로 완성하는 것이다. 회원카드도 만들었다. 얼떨결에 기사도 한 장 받았다. 슈어샵 홈페이지에서 회원카드에 적힌 회원번호를 입력하고 가입하면 자신만의 페이지를 갖게 되고 정보공유 뿐 아니라 오프라인 모임 등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에녹 씨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예술 분야의 교류를 이끌어내려 한다. 그 첫걸음은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면 가게 앞 공터에서 하게 될 음악공연이다. 벌써 앰프 등 기자재 준비도 끝냈다.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지만, 완벽한 홈페이지 구축에 여념이 없는 형 때문에 날짜를 확정짓지 못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물론 그날 오는 손님들에게 가게 홍보도 하게 되겠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는 기회가 되기에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남들이 보기엔 학교에 다닐 젊은 나이에 옷 장사하는 모습이 안타깝게 보일겠지만, 에녹 씨는 스스로에게 당당하다. 경기불황 등 외부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만의 걸음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청년 사장 김에녹 씨가 살고 있는 마법의 성, 버섯 옷가게를 방문해보자.

13. 숯검댕 묻은 ‘까만천사’

오성환 | 동두천연탄은행 대표



해마다 겨울이 되면 근심 걱정이 앞선다. 평소엔 아무 생각 없다가도 막상 어려운 때가 와야 주변을 돌아보는 나 뿐 습관 때문이다. 하지만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 하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그런 도움이나마 절실하다.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란 광고

고 문구에 공감할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차상위계층에게 어려움은 더하다.

다행히 요즘 날이 풀려서 한시름 놓았을 거라 짐작했다. 한편 ‘벌써 2월 중순, 겨울도 다 지나갔는데 언제 적 이야기?’란 마음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절실하게 주위의 도움을 바란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 한해 부지런히 겨울 날 준비를 하고도 4월까지의 ‘아직 춥다’며 안절부절못하는 사람. 주일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자상하고 근엄한 ‘목사님’이지만 항상 얼굴에 숯검댕이 가득 묻히고 연탄 걱정인 동두천연탄은행의 ‘까만 천사’ 오성환 대표다.

그를 만나는 일은 어려웠다. 지난 12월 본격적인 연탄은행의 활동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접하곤, 몇 번의 전화통화 끝에 약속을 잡았다. 하지만 지난 두 달간 했던 치열한 고민과 준비 때문일까. 몸이 아파서 취소, 해를 넘기고 다시 찾았을 때, 당일 나온 자원봉사자들에게 자리배치 및 연탄 나르는 방법 등을 가르치느라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해 보이는 모습 때문에 말을 붙일 엄두를 못 내고 돌아왔다. 한창 날이 추울 때라 잠깐의 짬을 낼 시간도 없을 것만 같았다.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도 연탄은행을 잊을 만할 때, 문득 그가 생각났다. ‘요즘은 덜 바빠졌지’ 싶어 찾아간 교회에서 그는 환한 얼굴로 기자를 맞았다.

“지난번엔 한창 바빴어요. 요새 자원봉사자들이 뜸해졌네요.”

하지만 짐짓 꾸짖는 투로 들린 건 착각일까. 이어서 그의 말을 들으니 확연히 이해가 됐다. 꾸중 맞다. “아직 날이 추운데 자원봉사자들의 관심이 줄었어요.”라는 그의 얼굴이 시무룩하다. “연말연시에 기자 분처럼 다양한 곳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봉사자들도 많았지요. 연탄은행은 4월까지 연탄을 나눠주는데 인력이

모자랍니다.”라며 관심을 호소하는 그의 얼굴을 보기 부끄러웠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 겨울의 유행과도 같다는 사실.

현재 전국에 24개의 연탄은행 지점이 활동 중인데, 동두천연탄은행은 2004년 12월 아홉 번째로 시작했다. 그만큼 아직 주변에 ‘연탄을 때’ 집이 많다. 게다가 경기북부엔 동두천 한 곳뿐이라 초반엔 연천, 양주뿐 아니라 멀리 하남까지 연탄을 배달했었다. 하지만 거리와 인력 등 여건이 좋지 않아 현재 동두천에만 집중하고 있다.

“작년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서울에 위치한 한 건설업체가 종무식을 겸해서 연탄을 나르던 모습이에요. 단순히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직원들 간에 봉사를 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갔다며 좋아하시더군요. 이런 생각은 널리 퍼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비록 가장 추울 시기는 지나갔지만 요새가 가장 힘들 때예요. 자원봉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상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절실합니다.”

연탄은행은 말 그대로 연탄을 보관하는 은행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접 와서 연탄을 가져가는 가정도 있지만, 사정상 배달이 필요한 곳에는 자원봉사자가 나서야 한다. 인력이 부족해 창고에 그대로 쌓인 연탄을 볼 때면 오 대표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초기 3만 5,000장이 올 겨울엔 10만 장 가까이 모였지만 뿌듯한 만큼 아쉬움도 크다. “연탄은행이 없어지는 게 제 소원입니다.”라며 여전히 어렵게 사는 이웃들의 모습을 보는 오 대표의 속은 마치 연탄을 닮은 양 오늘도 하얗게 타들어간다.

14. ‘동두천 6산 종주’의 완성

남상만 | 농업녹지과 산림담당



수십 차례 산에 오른 동두천의 ‘김정호’

‘동두천 6산 종주’. 웬만한 경기도 산 악인치고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다 할 만큼 그는 이미 유명해졌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동두천 6산 종주’를 입력하면 나오는 관련 블로그와 사진자

료만 해도 수십 개에 이른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대개 연령대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다. 6산 종주를 다녀와서 올린 후기부터 특정 지점마다 사진을 찍어 올린 기록 외에도 각종 산악 동아리에서 6산 종주에 함께 등반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들도 올라와 있다.

지하철엔 소요산역이 아니라 지행역과 동두천중앙역에 내리는 등산객들도 눈에 띈다. 6산 종주에 나서는 산악인들이다. 덕분에 등산로와 시가지에 위치한 음식점들도 신이 났다. 산기슭에 위치해 차량을 지원하는 음식점들은 전화를 받으면 지정된 곳으로 ‘썸~’ 하니 모시러 나간다. 업주들도 신이 났다. 침체된 지역 경기에 신선한 청량제다.

이 같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한 장의 지도에서 비롯되었다. 지난해부터 동두천 시청에서 배부한 ‘동두천 6산’ 지도가 그 주인공이다. 동두천을 둘러싼 6개의 산인 ▲칠봉산 ▲해룡산 ▲왕방산 ▲국사봉 ▲소요산 ▲마차산(종주 방향순)을 하나로 이어 종주를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동두천 6산 종주’란 이름이 튀어 나왔다. 그 뒤로는 일사천리였다.

직접 GPS를 들고 확인한 셋길과 등산로를 확인하고 소요시간과 거리, 각종 시설물들을 기록했다. 마침내 지도 제작업체에 자료를 넘겨 첫 결과물을 받은 것이 2007년 10월경. 그 감동의 순간을 함께한 남상만 농업복지과 산림계장은 “마치 자식을 받는 느낌이었다.”라고 당시의 느낌을 표현했다.

지도의 높은 완성도에 전문가들도 감탄을 금치 못한다. 웬만한 용역업체에 맡긴다고 해도 수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을 지도 제작에 뛰어든 것은 남 계장을 비롯한 동두천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산사랑 동아리’다. 당시 홍재설 세무과장을 중심으로 뭉친 동아리는 9명의 인원에 불과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무얼 할까?’ 고민하다가 타 지역의 지도처럼 세세한 지도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모두 대찬성, 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4월 20일 최초 모임을 시작으로 정례모임 1회, 단합대회 1회, 실태조사 2회를 했고, 그 외에도 수시로 모임을 가져 산에 올랐다. 하루에도 수십 번 산에 오르고 또 올랐다. 작은 셋길 하나도 빠뜨릴 수 없었다.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길을 가다보면 또 다른 셋길이 나왔다.

남 계장은 그 때를 떠올리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란 생각이 절로 들었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하지만 “누구라도 지도만 들고 산에 오를 수 있게 하고 싶었다.”라며 두 다리를 부지런히 움직였다. 남 계장에게 실태 조사는 ‘지도 제작의 백미’였다. 아침 7시부터 동아리 회원이 모두 모여 6산 종주의

첫발을 디뎠다. '일련사 코스'라 불리는 길로 들어선 회원들은 칠봉산, 해룡산, 왕방산, 국사봉을 넘어 소요산 동막골 약수터 공터에 안착했다. 장장 13시간의 행군. 이미 한 시간 전 해가 저물어 캄캄해진 후였다. 머리에 달아맨 전등을 켜고 좁은 등산로를 걸어서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텐트를 치고 잠을 청했다.

다음날 일찍 귀가한 동아리 회원들은 2차 실태 조사를 위해 다시 약수터에 모였다. 6산 종주를 끝내기 위해서였다. 남은 산은 마차산 하나뿐. 마침내 모든 종주를 마치고 동광교에 이르렀을 때를 남 계장은 잊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해냈으니, 누구나 지도 하나만 들면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가슴 깊이 차오르는 뿌듯함에 동아리 회원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얼싸안고 좋아했다.

총 7개월의 제작기간에 걸쳐 완성된 6산 지도는 곧 6산 종주 코스 부근에 위치한 관련 업소들과 서울 도봉산역, 수락산역 등 등산객들이 몰리는 곳에 집중적으로 배부되었다. 효과는 금세 나타났다. 배부를 시작한 후 지도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과엔 지도를 신청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도 지도 발송을 바란다는 글이 수시로 올라온다.

이를 바라보는 남 계장은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당시엔 힘들었지만 그 결과물이 이렇게까지 사랑받고 시에도 공헌한다는 생각에 '정말 잘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올해는 "새목고개~칼바위 등산로에 설치된 철망 등으로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안전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중"이라는 계획을 밝힌 남 계장.

대규모 개발 사업만이 시를 발전시키지는 않는다. 산사랑 동아리와 6산 지도는 작은 것도 충분히 전문성을 갖춘다면 큰 성과를 낸다는 것을 보여준 실례다. 공무원이란 신분을 떠나 산과 자연을 사랑하는 남 계장의 마음이 시 전체 구성원에게 큰 공헌을 하고 있다.

김정호가 직접 발로 뛰어 그린 '대동여지도'와 같이 남 계장과 산사랑 동아리의 '동두천 6산 지도'가 오늘도 동두천의 미래를 두드린다.

15. '우리 형'의 두드림(Do Dream)

김대훈 | 한북대학교 컴퓨터정보학과 3학년

친형처럼 따뜻한 멘토...성적표 앞엔 엄한 과외선생님



작은 눈, 무표정한 얼굴.... 그의 첫인상은 약간 차가워 보였다.

“제가 웃는 모습이 좀 별로예요.”

기자의 눈을 의식했을까. 그가 먼저 이야기를 건넸다. 그러고는 웃는다. 하나 둘 기억을 더듬으며 상민(15·가명)이와 함께한 시간을 말하는 그의 눈은 빛났고,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머금었다. 눈부셨다. 과외 봉사활동을 하는 한북대 컴퓨터 정보학과 3학년 김대훈(23) 군을 만난 오후의 풍경.

과외 봉사활동은 동두천시청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 중 하나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과 관내 대학생을 연결함으로써 과외학습을 넘어 멘토링 서비스로 유도하고 있다. 현재 관내에 20여 가정의 청소년들이 한북대 대학생들과 멘토, 멘티의 관계로 이어져 있다.

김 군이 과외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작년 4월, 아는 후배를 통해서였다. 신청한 후에도 바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물다는데, 그는 다행히 금세 연락을 받게 되었다. “상민이집을 찾아가길 때만 해도 큰 걱정은 없었다. 단순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영어, 수학을 가르쳐 주면 되는 줄로만 알았다.”라는 김 군은 “처음 상민이집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며 당시의 충격을 전했다. 이어 “TV에서만 보던 ‘달동네’에 온 느낌이었다. 무엇보다 집 안에서 만난 상민이가 굉장히 낮을 가렸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상민이의 쓸쓸한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김 군은 주 1회 상민이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시에서 지원받는 소정의 금액을 이용해, 무엇보다 먹을거리 걱정이 앞서는 아이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가 안 계시고 두 동생과 함께 있는 상민이기에 매주 간식을 사들고 오는 대학생 형의 방문은 무엇보다 반가웠을 것이다. 어느새 상민이도 형이 오는 날이면 축구공을 들고 문 밖에서 뛰놀며 기다리게 됐다. 김 군은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여는 상민이가 대견했고, 어느새 그를 친동생처럼 여기는 자신을 발견했다. 몇 달이 지나고 며칠간 상민이와 연락이 끊긴 때가 있었다. 그는 실례를 무릅쓰고 상민이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런데 신호음이 울리고 전화를 받은 것은 상민이었다. 의정부의 한 장례식장이라고 했다.

“정말 눈앞이 깜깜했어요. 당장 그 곳으로 달려갔지요. 한테 생각보다 상민이의 표정이 답답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상민이 아버지의 술버릇이 나빴대요. 그 얘기를 할머니를 통해 들었는데,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아직 어린 애인데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을 걸 생각하니까...”

몇 개월 전의 일인데도 씁쓸해하는 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며칠 안 된 일만 같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쪽으로만 향한 것 같아 얼른 과외를 하면서 보람을 느낀 때를 물었다.

“스승의 날이었어요. 상민이가 제게 책 한 권을 건네더라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인데, 형편도 어려운 녀석의 마음씀씀이가 고마워서 얼른 받았어요. 알고 보니 2권을 갖고 있다고 한 권을 준 거였어요.” 김 군이 “제가 칭찬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걸 눈치챈 거겠죠.”라며 웃는 걸 보니 아무래도 상민이가 나뭇머리를 쓴 게 제대로 먹힌 것 같다.

“아쉬운 건 거의 8개월 동안 과외를 했는데요. 상민이 성적이 생각보다 안 오르더라고요.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일수록 공부보다도 주위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민이네 동네가 거의 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봉사단체나 후원 단체들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과외 지원활동에도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저도 열심히 할 겁니다.”

교육현실은 결코 사회와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사회 문제다. 단순한 과외 활동은 한 대학생의 시선이 현상 너머를 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상민이가 대학생이 되면 매주 찾아오던 ‘선생님’을 기억할 것이다. 상민이는 또 어딘가의 ‘상민이’를 찾아 나설 지도 모른다. 그때쯤이면 김 군은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질 것이다.

조금씩, 조금씩. 세상은 그렇게 따뜻하게 변한다.

16. 영하의 날씨에도 아랑곳 않는 사랑전도사

임혁재 | 군복 입은 산타클로스, 동두천 구세군교회 사관



내리는 눈발에 마음이 설레었을까. 거리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경쾌하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는 모든 이에게 웃음과 행복만을 주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소외받는 이웃들이 있다. 그리고 그 이웃들을 위해 추운 겨울 거리에서 눈을 맞는 사람들이 있었다.

빨간 냄비 앞에서 종을 치고 있는 동두천 구세군교회 임혁재 사관을 만났다.

흔히 구세군은 '봉사단체'로 오해 받는다. 매년 12월이 되면 빨간 냄비를 두고 종을 치며,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을 하기 때문이다. 임 사관은 “그것은 구세군에 대한 아름다운 오해”라며, “구세군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무엇보다 이웃 사랑에 힘쓰는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세군은 1865년 7월 2일 당시 런던의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William Booth)와 그의 부인 캐서린 부스(Catherine Booth)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교 전도회(Christian Mission)’라는 명칭으로 동부 지역 빈민가 등을 찾아가 노방(路旁)전도를 한 데서 비롯된 것. 이후 그리스도 신앙의 전통을 따르는 교리를 가지고 선도와 교육, 가난구제, 기타 자선 및 사회사업을 통해 전인적 구원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군대식 제도를 모방하여 1878년 구세군으로 개칭하였다.

한국 구세군의 역사는 19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에서 파견된 로버트 호가트(Robert Hoggard) 정령(正領)이 이끄는 10여 명의 사관이 선교 사업을 시작한 이래, 그 교세를 확장하는 한편 의료선교 및 고아원·양로원·육아원 등을 경영하며, 그밖에도 교육기관을 통해 포교에 힘쓰고 있다. 동두천 지역에 구세군 교회가 세워진 것은 24년 전. 임 사관은 본래 다른 교파의 목자였으나, 구세군의 이웃사랑 활동을 “참된 교회의 활동”이라 생각해 오늘에 이르렀다.

모금 마지막 날인데도 성금을 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었다. 어려운 경제 사정이 시민들의 마음을 단게 하진 않았을까. 조심스레 물어봤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하루 연장한 결과 예년과 비슷한 모금액이 모였다.”라며, “어려운 때일수록

시민들도 어려운 사정을 공감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임 사관은 “실제로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이 모금에 힘쓴다.”라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 묻자, 임 사관은 “박스를 줍는 할머니가 계셨다. 형편이 많이 어려워 보여서 도와줄 마음에 사는 곳을 물어봤는데, 오히려 성금을 내고 가셨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또한 “길 건너편에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힘들게 횡단보도를 건너오시더니 성금을 내고 다시 건너갔다.”라는 사연도 전했다. 아름다운 일에는 아름다운 사람이 따르기 마련이다. 문득 지갑을 꺼내려다 두고 온 사실이 생각나 주춤했다. 부끄러웠다. 임 사관은 다 안다는 듯이 환하게 웃어 보였다.

구세군의 역사에 대해 설명할 때는 갑자기 코트를 벗었다. 그 속에는 군 제복이 감춰져 있었다. 새삼스레 ‘군(軍)’의 의미가 다가왔다. 그는 “구세군이 겨울에만 활동하는 줄 아는 한 시민이 여름에 이 제복을 보고 가짜라며 의심했다.”라고 웃지 못할 사연도 전했다.

그는 내년 소원을 묻는 질문에 “시민들의 가게 살림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며, “그래야 이웃을 돕는 손길도 늘어나지 않겠나?”라며 소원에 담긴 속뜻을 밝혔다. 또한 “이런 취재가 진작에 이뤄져야 동두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성금을 하지 않겠나?”라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네 기자를 부끄럽게 했다.

딱딱해 보이는 제복 속에 숨겨진 아름다운 마음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군대, 구세군의 실체다. 임혁재 사관을 만난 오늘이 새삼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큰 축복으로 다가왔다.

17. 젊은 소방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장기용 | 도지사 표창 수상한
동두천소방서 소방사**

장기용 소방사는 5년 경력의 젊은 소방공무원이다. 32살의 나이에 결혼 1년 차 신혼부부인 장 소방사는 2005년 소방계에 입문했다. 그런 그가 지난 9일

열린 '제46주년 소방의 날' 행사에서 당당하게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수상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본인이 혼자만 잘해서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자기 임무에 최선을 다한 동두천 소방서를 대표해 받은 상이라 생각하고 있다."라며 동료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2005년 소방계에 입문 후 3년의 시간 동안 많은 화재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의 선봉에 서다 지난해부터 건축팀에서 건축물 소방점검반으로 활약하고 있다. 5년여의 소방관 생활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묻자, 그는 "특별한 것이 없다."라며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곧 첫 출근과 동시에 생겼던 일화를 설명다.

그는 "첫 출동을 나갔는데 활활 타오르는 건물 앞에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칫거렸다."라며 "그러나 화재진압을 위해 거침없이 건물로 진입하는 선배들의 뒷모습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본인도 다시 용기를 내 건물로 진입해 화재를 제압했다."라며 첫 출동에서 느낀 소감을 전했다. 특히 첫 화재현장 출동에서 본인의 안전도 쉽게 장담할 수 없으면서도 다른 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신적인 소방사의 삶에 큰 매력을 느꼈다고 전한다. 물론 많은 직업 중에서 소방관을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는 절대로 없다며 오히려 지난 5년 동안 큰 보람을 느끼며 더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다른 이를 돕는다는 일 자체가 행복한 일이며, 특히 그들이 전해주는 감사의 인사는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계기가 된다."라며 "솔직히 남을 돕는 좋은 일을 하며 월급도 받으니 정말 행복한 직업"이라며 소탈하게 웃었다.

이런 그의 행복한 생활에도 물론 어려움은 따른다. 바로 부족한 소방인력. 현재 건축팀에 근무하고 있는 그는 매일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이틀에 하루 쉬는 시간이 있다고는 하나 그날만 되면 몸이 심하게 아프거나 바빠서 집안 경조사로 인한 휴가는 힘들다고 말한다.

그는 "내가 아프다고 하루 쉬는 것은 다른 동료에게 내 책임을 전가해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일하는 수밖에 없다. 사실상 인력 충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다.

또 부상을 입었을 때 전문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소방병원의 부재가 아쉽기만 하다. 최근에는 경찰병원을 함께 이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용이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 많은 위험요소가 산재한 최일선의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복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소방관에 대한 처우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근무환경은 부상이나 순직 등 2차 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며 “2교대의 힘든 근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절실하지만 지역 예산으로만 운영되는 현실에서는 개선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처우개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는 현장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이야기했다. “특히 노약자나 독거노인, 형편이 어려운 가정 등에 대한 보살핌이 더욱 절실함을 느낀다.”며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위해서라도 많은 소방인력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 녹장 출동에 대한 민원이 종종 제기되는데, 소방관들은 비상시 1분 1초도 지체하지 않고 현장으로 달려간다.”며 “신고자들에게는 1초가 한 시간 같이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다. 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관들은 신고자들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두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항상 구슬땀을 흘리는 장기용 소방사 외 동두천소방서의 소방관들.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주는 만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관심이 필요한 때다.

18. 고향지기 축제 전문가 피터 팬 아저씨

서정식 | 천사운동본부 기획팀장 이사

동두천시에 축제가 한창인 10월, 대규모 행사들이 열리는 곳에는 반드시 그가 나타난다. ‘천사데이’를 시작으로 자원봉사축제, 소요맛자랑경연대회, 전통문화 예술제, 소요단풍축제 등 굵직굵직한 행사에서 그는 언제나 중심에 있었다. 그가



바로 천사운동본부 기획팀장 서정식 이사다.

서 이사는 현재 천사운동본부 기획팀장은 물론 동두천라이온스클럽 이사, 생연중학교 운영위원, 서울강동청년회의소 상임부회장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벤트 기획사인 B&F

커뮤니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서 이사는 스스로를 축제전문가라 소개한다. 생소한 단어지만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 이사는 경력 15년의 노하우가 쌓인 현장 전문가다. 다수의 경력과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지만 행사를 책임지는 그 순간부터는 절대 긴장을 풀지 않는다. 프로는 역시 프로다.

서 이사의 경력은 지난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레크리에이션 강사로 활동하던 그는 특히 어린이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고, ‘피터 팬 아저씨’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렸다. 1995년 서 이사는 피터 팬 아저씨를 그만두고 전문적인 이벤트 기획에 도전장을 내민다. 서 이사는 “레크리에이션의 한계를 느꼈다. 그러던 중 기획에 대한 매력을 느꼈고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들게 됐다.”고 전한다.

서 이사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동두천으로 이사와 현재까지 살아온 준토박이로, 동두천의 과거와 발전을 모두 목격했다. 이벤트 기획사를 차리고 동두천시의 모든 행사를 뛰어다니는 서 이사를 본 사람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 이사는 “당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객지사람 같은데 동두천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네.’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며 “한 번은 동두천시가 주관하는 행사 책임을 맡자 ‘무슨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서 이사의 이런 노력은 동두천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인한다. 그런 마음은 그를 천사운동본부로 이끌었다. 천사운동본부에서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2008 천사데이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일궈내기도 했다.

서 이사는 “항상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며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기도 하지만 나를 믿어주는 많은 사람들의 눈빛에서 힘을 얻어 더욱 노력하게 된다.”고 말한다.

최근 축제의 계절을 맞아 양주·동두천에서 많은 대·소규모의 축제들이 열렸다. 서 이사는 이런 축제 몰림 현상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축제가 한 번에 몰리는 것은 주관사나 시민들에게 좋은 점이 아니다. 각 계절과 월 특성에 어울리는 축제가 이어지는 것이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성공적인 마무리가 가능하다.”

축제전문가이자 문화전도사인 서정식 이사 그는 “문화는 느낌이다. 주관처와 주관 담당자의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감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래야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며 “보여주기와 나열하기 식의 구태의연한 축제 형식을 벗어나야 비로소 진정한 어울림과 즐거움의 축제가 탄생하는 것이다.”라며 양주, 동두천시의 축제 주관에 대한 소회를 나타냈다. ‘피터 팬 아저씨’에서

‘축제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는 서정식 이사. 앞으로도 무수히 그의 손을 거쳐 탄생할 축제들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인물이다. 그의 행보를 주목해 본다.

19. 잊혀져가는 옛 놀이문화 되살리는 현대판 온고이지신

박현희 | 〈백중 상머슴놀이〉 한마당 운영위원장



우리는 도시화의 편리함 속에 얼마나 많은 옛것을 잃어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반박이라도 하듯 옛것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발굴을 통해 도시화 과정에서 피폐해진 우리의 정신을 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백중 상머슴놀이 한마당 박현희 운영위

원장이다. 29일 박현희 위원장을 찾아 방문한 운영위원회 사무실은 다가오는 행사준비로 정신없이 바빴다. 박 위원장은 “행사가 코 앞으로 다가와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전한다.

박 위원장은 60여 년을 지행동에서 살고 자란 지행동 토박이로 현재 지행 향우회 회장도 함께 역임하고 있을 정도로 인근 주민들의 신망이 두텁다.

“평생을 지행동에서 살았다. 그러나 최근 도시화를 통해 과거의 유물들이 사라져가는 것이 안타까워 옛것을 되살리는 노력의 하나로 백중 상머슴놀이 한마당을 계획하게 됐고, 지난해 그 첫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올해도 이어가게 됐다.”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백중 상머슴놀이의 역사는 1950,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가 기억하는 지행동은 동두천의 곡식창고였다. 현재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신시가지의 경우 20여 년 전만 해도 온통 논밭으로 둘러싸인 동두천의 대표적인 곡창지였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 속에 논밭은 모두 아파트 단지로 변했고, 동두천의 농업은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걸었다.

박 위원장은 “〈백중 상머슴놀이〉라는 것이 전반기 농사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농사를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전반기에 사용했던 농기구들을 손질하고 함께 수고한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아름다운 자리였다.”며 과거 백중 상머슴놀이의 모습을 전했다.

음력 15일이 되면 마을 주민들이 한 곳에 모여 맛난 음식을 준비해 함께 나눠 먹고, 전통주인 누룩술(농주)도 마시며 즐거운 하루 잔치를 벌이면서 마을 잔치를 지냈다. 쌓인 피로를 풀고 다가올 후반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백중 상머슴 놀이의 하이라이트인 상머슴 뽑기 겨루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상머슴 놀이의 핵심이다.

박 위원장은 “과거 상머슴놀이에서는 농기를 이용한 다양한 겨루기 행사가 있었다. 지게놀이, 낫 던지기, 호미걸이 등 다양한 놀이를 통해 동네 최고 일꾼, 즉 상머슴을 뽑는 행사를 진행했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는 이런 풍습을 점점 밀어냈고, 결국 일부 작은 마을에서 소규모로 진행될 정도로 축소됐다. 박 위원장은 이런 점이 안타까웠다고 전한다.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아름다운 풍습인지 알 것이다. 농업사회가 그렇듯 두레와 품앗이 등의 공동체적 성향의 풍습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동안 도시화를 통해 들어온 개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정신은 더욱 피폐해져 가는 것이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모여 지난해 큰일을 해냈다. 바로 ‘제1회 지행민속축제 상머슴놀이 한마당’이 펼쳐진 것이다. 당시 박 위원장은 행사 주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내며 과거와 현재를, 또 원주민과 이주민의 화합을 도모했다.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 행사였지만 박 위원장은 아쉬움을 전한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행사는 공연 위주의 행사로 진행됐다. 시민들의 호응은 좋았으나, 본래 취지인 함께 하는 민속체험이라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올해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함께 즐기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상머슴 및 상살림꾼 선발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많이 준비했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백중 상머슴놀이 연구회〉는 〈동두내 옛소리보존회〉 등과 함께 지속적인 민속 자료 연구와 개발을 통해 상머슴놀이를 현대 사회에 어울리는 민속놀이 체험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동두천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발전시켜, 기지촌 등 낙후된 이미지 제고에도 한 몫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전한다.

“옛것을 기억하는 노년층에게는 향수를 돌려주고, 바쁘게 살고 있는 청년층에게는 재미를 제공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옛것을 알게 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바람을 전하는 박현희 위원장. 그는 무조건적인 과거 회기가 아닌 과거의 좋은 점을 현대에 접목시켜 한 단계 발전시키려는 현대판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선구자다.

20. 벽과 편견 허문 아름다운 자립

박성호 · 이은숙 | 뇌병변 1급 부부



여기 조금은 ‘특별’한 부부가 있다. 동두천시 상패동에 1,000만 원 남짓하는 작은 단칸 전세방에 살며 금슬 좋기로 소문난 박성호(46), 이은숙(47) 씨 부부가 그 주인공이다.

두 사람은 모두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주위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

든 것이 사실이며,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인들의 눈에는 그들의 삶이 너무 힘겨워 보이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박성호 씨는 “장애인이지만 독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며 “당연한 반대지만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장애인도 할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더욱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주위의 우려와는 달리 당찬 모습을 보였다.

두 사람은 1990년대 중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처음 만났다. 10여 년 동안 함께 지내며 애뜻한 사랑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하였으나, 큰 벽에 부딪히게 된다. 주변 모든 사람들의 우려와 반대, 특히 당시 시설장은 입소자 간 혼인을 금지하는 시설자치 법규를 들며 극렬히 반대했다. 또 가족이 없는 박성호 씨와는 달리 가족이 있는 이은숙 씨는 온 가족의 반대에 시달렸다.

결국 두 사람은 모든 우려와 반대를 뿌리치고 결혼에 골인했으나 시설과는 작별했다. 시설을 나와 새로운 시설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지만 열악한 환경에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곳이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함께 있었기에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고 부부는 회상했다.

“당시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지극히 낮은 시기였기 때문에 환경이나 처우

가 미흡해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 있을 수 있었고 독립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고 말하는 박성호 씨의 얼굴이 살짝 상기되었다.

부인 이은숙 씨는 “2000년 초 장애인시설에는 고질적인 악습과 불법이 존재했다. 당시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일하는 기계일 뿐이었다. 하루 8시간, 한 달을 꼬박 봉투를 접어 손에 쥐는 봉급은 3~4만 원 정도였으니 얼마나 억울했는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우리 같은 지체장애인은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지 알고 있었으나 딱히 저항할 방법이 없었으며,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부당함도 모르고 살았다.”며 고통스럽던 당시의 생활을 전했다.

박 씨 부부는 고통스러운 시설에서의 독립을 위해 지난 20여 년 동안 독립자금을 착실하게 모으며 인내했다. 정부가 지급하는 장애수당과 일한 수당을 착실하게 모아 800만여 원을 손에 쥐었다. 주위에 독립 의지를 알렸으나 역시 반대와 만류에 부딪혔고, 간절한 마음으로 장인, 장모에게 부탁한 결과 1,000만 원 남짓한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방을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으나, 고마운 지인을 통해 현재의 집을 구할 수 있었고, 지난 2007년부터 상패동의 단칸방은 두 사람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현재 두 사람은 장애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독립한 자신들의 삶을 본보기로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하길 바라고 있다.

박 씨는 “장애인이라고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의 도움만 받으며 살 수 있겠는가? 도움만을 바라는 생각은 장애인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 뿐이다. 한 사람으로서, 인격체로서의 삶을 위해서는 스스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물론 불가피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마저도 도움을 받는다면, 결국 사람으로서의 기능은 망가져버린다. 장애인 스스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부인 이 씨는 “장애인 가족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장애가 부끄러움이 아님을 알고, 장애인에게도 발전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제공해 장애인도 한 사람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얼마 전 박 씨 부부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 박 씨가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허리와 목의 통증이 심해 수술이 필요하지만 장애인이기에 전문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고가의 수술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

보다 큰 문제다. 하지만 일을 할 수 없는 두 사람의 현재 처지를 생각하면 수술비 마련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박 씨 부부는 행복한 지금의 생활이 말할 수 없이 좋다고 한다.

박 씨는 “물가는 오르는데 장애인 수당은 변화가 없다. 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이 필요한데,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도 같은 돈을 받는다. 이런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현재의 복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꼬집었다.

동두천지체장애인협회 최하석 총무는 “두 사람의 삶은 많은 장애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어렵게 몸을 움직이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부부의 노력하는 모습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들 모두가 배워야 할 덕목이다. 특히 두 사람의 금슬이 워낙 좋아 소문이 자자하다.”라며 곁에서 지켜본 부부의 삶을 전했다.

여전히 비장애인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편견에 당당하게 맞서는 박 씨 부부에게 가장 큰 벽은 바로 무심코 만들어지는 도로의 턱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벽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높은 턱이다. 이런 턱들이 사라지는 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편견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이라는 박 씨의 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정책과 복지사업이 행여 비장애인의 시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반추하게 된다.

21. 삶과 감성으로 엮은 신천 찬가

양윤덕 | 동두천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인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 신천이 내려다보이는 송내동에서 양윤덕(49·여) 시인을 만났다. 1994년 문단에 등단해 한국문인협회, 경기도문인협회, 안양문인협회 등의 문인단체 회원으로, 청다문학회 이사로 문학 활동을 펼쳐온 그녀는 남편 이재성 씨와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용인에서 거주하던 지난 2005년 동두천에 대한 동경으로 이사를 결심,

현재까지 살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출간한 그녀의 첫 시집 『흐르는 물』에는 동두천에 살며 느낀 신천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두 편의 시가 실려 관심을 끌고 있다.

〈신천 역세〉, 〈신천 왜가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두 편의 시는 신천변에 살고 있으면서, 신천을 거닐며 느낀 시인의 감성이 꾸밈없이 묻어난다.

그녀는 “김명인 시인(동두천 출신의 시인)을 평소 많이 동경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동두천으로 이사했지요. 동두천에 살면서 신천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신천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요. 매일 아침 왜가리가 날고 역세가 일렁이는 신천을 바라보면 그 아름다움에 저절로 시상이 떠올랐어요.”라며 신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다.

왜가리가 가진 자유로움과 역세가 가진 아름다움이 동두천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 그녀는 “앞으로도 꾸준히 동두천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시를 발표해 동두천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목표를 밝혔다. 이어 “무작정 이사 온 후 초반에는 신천 악취와 교육문제 등으로 고심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하루 하루가 행복이 넘치는 아침별장 같아요. 동두천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라며 동두천에 대한 무한한 찬사를 보냈다.

또 “시는 독자의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동두천에 관한 시들은 쉽고 편하게 썼기 때문에 많은 독자들이 크게 공감하고 감동받기를 바라고 있어요.”라며 자신의 시적 관점을 이야기했다. 이에 시집을 읽은 독자들이 ‘따뜻하고 감동이 깊은 시’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제 시를 읽음으로써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으면 좋겠어요.”라며 환하게 웃는 그녀 얼굴에는 봄보다 화사한 기운이 넘쳐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느낀 동두천은 아름다움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최근 방과 후 특기적성 논술교사를 겸하며 느낀 동두천에 대한 개선점도 이야기했다.

“동두천의 외부 인구 유입과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적인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부모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아이의 교육문제인데 이러한 점에 개선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질 좋은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외부 유입 인구가 저절로 늘어나지 않겠어요? 정치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라며 교육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운동가이자 그녀의 열렬한 팬인 남편 이재성 씨와의 생활이 행복하기만

하다는 그녀는 늘 긍정적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오랫동안 살았지만 느끼지 못했던 동두천의 아름다움을 문학작 감각을 통해 일깨워준 그녀를 보며 어찌면 우리는 소중한 것을 바로 곁에 두고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22.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남택윤 | 세상에 한없는 사랑을 심는다



“내가 죽은 후 ‘이런 사람도 이웃을 위해 봉사를 했구나’ 하는 느낌만이라도 사회에 남아 있었으면...”

“고통을 분담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그 꿈을 위해 살아왔지요. 하지만 이제는 나이

들어 병도 들고 힘도 없어요. 아마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공수래공수거’란 말이 있지요.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이제 나의 인생을 마감하는 종착역이 머지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가진 것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전세금(1,350만 원)을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해 써주십시오.”

당뇨, 고혈압, 협심증, 만성 기관지염, 치매 초기 증상까지 보이는 남택윤 씨는 젊은 시절 하사관으로 전역, 퇴직금으로 생선 장사를 하다 실패한 후 1985년 3월 동두천시에 정착하게 된다. 당시 거주할 곳이 없어 일명 자활근로대라는 곳에 거주하였다. 피혁공장 생활을 하다가 자활근로대에서 함께 생활하던 김 모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고 자신의 돈 100만 원으로 손수 장례를 치룬 후부터 이웃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다진 게 봉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2년 남택윤 씨는 자신의 시신을 해부용으로 써 달라며 서울의과대학에 시신을 기증서약했으며, 1993년 6월에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장기를 기증서약했고, 그동안 헌혈(24번)을 통해 받은 증서를 백혈병환자와 헌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

이밖에도 모기가 발생하는 하천 및 취약 지역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손수 6년간 방역활동을 해왔으며, 재활용품을 모아 번 돈과 자신의 기초생활 수급으로 받는 돈을 모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해왔다.

또한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인 '어린 목자의 집'과 '애심보육원'을 20년간 다니며 연료와 장학금 등을 지원했으며, 최근에는 장애아들과 보육원 아이들에게 역사·안보 탐방의 기회를 제공했고, 호적이 없는 자활근로대원을 위해 경찰과 법원을 수십 차례 찾아다니며 호적을 만들어주어 지금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독거노인에게 쌀과 연료를 지원하였다. 지난 6월 17일에는 지역의 어려운 학생 10명에게 2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여 힘과 용기를 주기도 했다.

남택운 씨는 1962년부터 환경감시요원, 청소년선도위원(4년), 경기도 민원 모니터요원(13년)으로 활동해왔다. 1985년부터 이웃과 사회를 위해 자신의 생활 없이 살아 온 남 씨는 시장, 국회의원, 도지사 등에게 수십 차례 표창을 받았고 신문과 방송에 그의 봉사생활이 소개된 일도 120회나 된다. 남택운 씨는 이러한 언론의 보도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는 것 아니냐는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도 받았다.

이에 남택운 씨는 “나는 세상에 혈육도 친척도 없습니다. 명예도, 누구에게도 내 모습을 자랑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내 스스로 언론에 보도를 요청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좀 있는 자들이 이웃에 나눠주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작은 밑알의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나뿐입니다.”라며 “인생의 종착역에 서서 내가 죽은 후에 이런 사람도 이웃을 위해 봉사를 했구나 하는 느낌만이라도 사회에 남아 있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라고 말했다.

23. 미군부대 ‘깡통소년’... 날 키운 아린 기억들

이강석 | 어학학원 운영하는 소설가

그는 의정부고에 차석 입학하고, 카투사 시험에 전국 수석으로 합격한 ‘동두천이 낳은 수재’다. 한때 대기업 기획실에서 국제변호사와 지적재산권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출세가 보장된 서울 생활을 마다하고 마흔의

인생 동안 군대 생활 3년을 빼곤 늘 동두천을 지켰다. 그는 왜 동두천을 떠나지 않을까.

새벽 5시. 잠에서 깬 그는 가벼운 운동복 차림으로 아직 어두컴컴한 집을 나섰다. 오늘은 어느 쪽으로 갈까. 아직 밟아 보지 못한 동두천 땅은 어딜까. 창말 고개를 넘던 그는 문득 어린 시절, 깡통을 주워 손수레에 싣고 이 고개를 힘겹게 넘던 기억이 떠올랐다.

법대를 나온 그의 아버지는 '좌절한 인텔리'였다. 한국전쟁 때 총에 맞아 숨진 큰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아버지는 자포자기 상태로 전북 부안에서 동두천까지 흘러들었다. 그리고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깡통을 모아 보일러 연통을 만드는 일을 했다. 그래서 그의 집은 '흥신상회'라는 멀쩡한 이름을 놔두고 항상 '깡통집'으로 불렸다. 2남 3녀 중 장남이던 그는 완고한 아버지 때문에 방과 후에는 창말 고개 '오물장' (쓰레기 집하장)에 가서 깡통을 골랐다. 온 몸이 깡통에서 묻어나온 케첩과 버터 찌꺼기로 범벅이 되기 일쑤였다. 깡통을 뽀뽀션(전선줄)으로 묶어 손수레에 잔뜩 싣고 보산동 미군기지촌을 지날 때면 미군들이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깡통을 툭툭 쳤다. 주말이면 그의 집이자 작업장이던 생연동 '깡통집' 앞을 지나던 미군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트리곤 했다.

어느새 그는 봉암저수지 둑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둑 오른쪽 강을 보며 자연에 겸손해하고, 왼쪽 마을을 보며 일상에 빠지지 말자고 다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스친 카투사가 그의 또 다른 과거를 들춰냈다. 대학 2학년 때 세상을 비판하던 아버지가 싫어 집을 뛰쳐나온 그는 학교 벽보에 붙어 있던 카투사 모집공고를 보고 시험에 응시했다. 결과는 수석 합격. 하지만 입대일이 불과 엿새밖에 남지 않았다. 마음의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그는 501 정보대에 배치받았다. 미군에게 지기 싫어 부대 마라톤대회 때마다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집 근처 골목을 접어 든 순간, 그의 눈에 비친 담벼락은 온통 붉은색 반미 반독재 구호로 도배질 돼 있었다. 청년 시절의 아픈 기억인 '스프레이 사건'이 되살아났다. 1983년 '동두천시대학생회' 부회장을 맡으며 한국 현대사에 눈을 뜬 그는 복학을 앞두고 있던 1986년 8월 의정부경찰서로 연행됐다. 자신도 모르는 스프레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것이다. 그곳에서 만난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첫마디는 "너, 이 × ×, 빨갱이 맞지?"였다. 그리고 물고문, 척추고문, 날개쥘이 등이 이어졌다.

고문 후유증으로 한동안 '동두천문학회'에서 창작 활동에 전념하던 그는

졸업과 함께 1990년 현대전자에 입사했지만 1992년 4월 정주영 씨의 국민당 창당과 함께 사원들에게 강요됐던 입당원서 확장, 지구당 창당대회와 유세 동원을 거부하고 사표를 던졌다.

오전 10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지요? ‘scarf’라는 단어에 ‘f’하나를 떼면 ‘scar’(상처), ‘스카프’로 ‘상처’를 가리다가 되겠죠?”

사무실을 겸한 30평 남짓한 강의실에서 그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오늘은 일요일인데도 그는 주말반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생연동 일터에 나왔다. ‘이강석 어학원’. 3년 전부터 그가 출퇴근하는 곳이다. ‘일, 삶, 꿈’. 사무실과 강의실을 갈라놓은 칸막이에 적힌 글귀가 보였다. 얼마 전부터 주말반을 만들어 휴일도 없이 일하고 있지만 “일하는 게 삶이고, 치열한 삶에서 꿈을 실현시키는 것”이란단다.

어린 시절, 미군 캠프에 적힌 영어에 호기심을 가졌던 그는 영문학을 전공하고 카투사에 근무하면서 ‘영어의 달인’이 됐다. 회사를 그만둔 뒤 그의 생계를 책임져 준 것도 출판사와 영어학원 강사였다. 1999년 6월 『컨추리 보이 영단어』(사계절)라는 책을 내 공전의 히트를 친 그는 내친김에 자신의 학원을 차렸다.

강의실은 1천여 개의 영화 비디오와 1천여 권의 ‘문사철’(문학, 역사, 철학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다) 책이 꽂힌 책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비디오는 돈 안 들이는 영어 학습을 위해, 책은 맹목적인 미국 문화에 젓지 말라고.

오후 5시. 강의를 마친 그는 오랜만에 소요산을 찾았다. 자운서원이나 화석정, 반구정, 승의전, 경순왕릉처럼 이야깃거리도 많고, 울곡 선생이나 황희 정승 같은 인물도 많은 인근 파주나 포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애절한 사랑을 간직한 곳, 여진 정벌에 앞장서고 성종 때 병조 판서까지 지낸 어유소 장군의 생가가 있는 곳이다.

그는 어느 때처럼 자재암보다 험난한 공주봉을 택했다. 공주봉에 서니 동두천 땅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미군부대 430만 평이 내려다 보였다. 자재암의 ‘전설’보다 공주봉 쪽 ‘현실’이 그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군기지는 ‘천혜의 요새’다. 포탄이 날아오면 모두 민가에 떨어지기 마련이다.

9·11테러 당시 동두천은 미군들의 외출·외박이 금지돼 보산동 업소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그만큼 미군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다. 때문에 1981년 양주군 동두천읍에서 동두천시로 승격될 때 7만여 명이던 인구가 한 때 약 6만 7천 명으로 줄었던 적도 있었다.

산에서 내려온 그는 생연동 집으로 향했다. 거리에는 기지촌 '양공주' 자리를 차지한 러시아와 필리핀 여성들이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생각해보니 동두천은 어느새 '인종 전시장'으로 변했다. 동두천 가죽공장과 염색공장에는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가나,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온 외국인들이 즐비하다.

생연동에서는 어제 미군과 한국인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다. 특히하게도 이번엔 한국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미군기지가 자리한 보산동에서는 한국인이 조심하지만 생연동이다보니 분노가 폭발한 모양이다.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이 생생하게 적용되는 곳이다보니 합리적 사고가 아쉬울 뿐이다.

밤 10시 그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slenglish.com)를 열었다. 이 홈페이지는 책, 문화, 인물, 소설 등을 소개하는 곳이다. 이 게시판에 올라온 학생들의 질문에 그는 일일이 답변했다. 그의 꿈은 동두천의 체험을 영어와 한국말 소설로 한미 두 나라에서 퍼내는 것이다. 그리고 훗날 동두천 미군기지가 물러난 뒤 그 자리에 평화운동의 상징으로 셰익스피어, 빅토르 위고 같은 세계적인 작가들의 흉상과 작품을 전시해 동두천이 간직한 현대사의 아픔을 아름답게 승화할 생각이다.

미군도시, 마약, 폭력, 혼혈아, 양공주...

이강석 씨가 경험한 동두천에 대한 외지인의 이미지다. 그는 대학 신입생 시절 자기소개를 하면서 "고향이 동두천"이라고 말하자, 모두들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던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곳, 휴전선과 맞닿은 지역으로 인식하면서 어떻게 그런 곳에서 공부하면서 대학에 들어올 수 있었냐는 눈치였다고 그는 전했다.

지난해 그의 여제자가 맞선을 봤다. 어느 한군데 나무랄 곳 없는 신부감이었지만 남자 쪽 부모는 그녀가 동두천 출신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다.

얼마 전 시트콤 드라마를 보던 그는 등장인물의 한마디 대사가 폐부를 깊숙이 찔렸다. 우스꽝스러운 영어를 쓰던 인물에게 상대방이 "넌 왜 발음이 동두천 발음이나?"라는 말을 던진 것이다. 드라마 작가도 무의식 중에 동두천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반증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심지어 그는 인근 도시조차 동두천을 애물단지 취급한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동두천시와 양주군 통합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양주군 쪽에서는 “이미지 상실 때문에 득이 될 게 없다.”라며 “통합은 같은 군사지역인 연천군 쪽과 의논하라.”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는 “동두천은 한국 현대사와 한반도의 온갖 시련을 상징적으로 받고 있는 곳”이라며 “광주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듯이 동두천도 편견 없이 민족의 상징으로 승화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24. 빛은 여기에도

타므랏 더팔 | 콘솔라파선교수도회 신부



동두천으로 가는 길은 멀다. 서울 명동에서 전철로만 69분이나 걸린다. 4호선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보산역까지 1시간 30분이 훌쩍 넘는다. 금세 비라도 내릴 듯 어느새 우중충 흐려 가라앉은 하늘이었다. 거리는 황량했다. 미 2보병사단이 주둔한 캠프 케이시 정문 앞 외국인특구지역에 내려서자 영어 간판이 줄지어 눈에 들어온다. 마치 ‘작은 이태원’같이 이국적이다.

콘솔라파선교수도회 선교사 타므랏 더팔 신부가 동두천에 자리를 잡은 것은 2007년 10월이었다. 당시 수도회가 이주사목을 하고자 동두천시 생연동에 동두천 분원을 개설하자, 그는 기꺼이 동두천으로 왔다. 2001년 9월 1일 고국 에티오피아에서 사제품을 받고 6개월 만에 국내에 들어와 6년간 한글을 열심히 익히며 빈민사목을 해온 터라 한국어 구사도 익숙해져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자신이 붙은 상황이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동두천성당에서 더팔 신부를 만나 수도원으로 향했다. 일반 주택을 고쳐 지은 수도원은 아담했다. 수도원에 들어서니 방 한 칸을 개조한 경당이 맨 먼저 눈에 들어왔다. 한옥 모양 감실에 아담한 제대, 아늑한 전례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숙소와 주방 등도 한 공간에 다 들어 있다. 2층은 쉽터다. 이주노동자들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이 오갈 데 없으면 몇 달씩 머물다가 떠난다고

한다.

마침 더팔 신부가 아프리카공동체 마이클 애덤(41) 대표를 만나러 간다기에 우산을 들고 급히 따라나섰다. 이동차량은 배기량 1.4리터짜리 국산 소형차였다. 빗길을 뚫고 고층 아파트단지로 접어드는 운전 솜씨가 여간 능숙한 게 아니다. 동두천에서 다져진 운전 솜씨란다.

그런데 골목에서 만난 애덤 대표가 아프리카 출신 이주 노동자를 데려온다. 마침 보문역 근처에서 우연찮게 만났는데, 더팔 신부에게 인사를 시키려고 데려왔다고 한다. 특유의 제스처와 함께 영어로 나누는 짝막한 대화를 들으니 여간 반가워하는 기색이 아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족을 둔 채 10년째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애덤 씨는 자신의 조국 나이지리아 등지로 중고차 등을 수출입하느라 늘 바쁘지만, 이주노동자들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아프리카공동체에 함께 하며 더팔 신부를 돕고 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로 사는 아프리카인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신부님, 요즘 들어서는 서울에서도 여기까지 연락이 와요. 연락할 데가 없나 봐요. 어쩌면 좋지요?”

“언어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 임금이 체불되어도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답답해요.”

요즘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 단속 때문에 아프리카공동체 모임에 나오는 이주노동자도 20명 안팎에 그친다며 애덤 대표는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아프리카 형제들에게서 도움 요청이 오면 애덤 대표는 더팔 신부와 함께 팔을 걷어부친다.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적 연대를 위한 가교가 되기 위해서다.

낮설고 물 선 한국 땅, 그것도 최전방 군부대 접경지에서 이주노동자로 힘겹게 사는 형제들과 함께 하고픈 마음만으로 더팔 신부는 이아일 이드로보 신부 등과 함께 수도원을 세우고 뿌리를 내렸다. 더팔 신부는 아프리카공동체를 비롯해 영어권 이주민을, 이드로보 신부는 남미공동체와 비영어권 이주민을 각각 보살핀다.

평일엔 공장으로, 병원으로 봉사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며 임금 체불 문제를 상의해 해결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주느라 애를 쓴다. 성가 복지병원이나 도티기념병원같은 무료 병원에 데려가거나 입원 중인 이주노동자들을 보살피기도 한다.

주말은 더 바쁘다. 첫째 주엔 남양주 마석성당에서, 둘째 주엔 의정부 녹양동 성당에서 이주민을 위한 미사를 집전해야 하고, 셋째 주엔 가정 방문을, 넷째

주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에서 미사를 집전해야 한다. 틈틈이 노동문제 상담에 의료지원 활동까지 하다 보면 눈코 뜰 새가 없다.

이처럼 수도자들은 이주민들을 돌보는 데 힘을 쏟지만, 원래부터 이주민 사도직에만 전력투구한 것은 아니다. 1988년 1월 한국에 처음 파견됐을 땐 빈민사도직에 주력했다. 1992년 인천 만석동 팽이부리말에 들어가 주민들과 함께 살며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을 열어 가르쳤고, 1999년 재개발로 빈민촌이 사라지자 서울 구룡마을 판잣집에서 6년 동안 살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 호흡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선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가난하고 힘겹게 살고 있다는 생각에 2007년 말 동두천으로 향했다.

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에는 인천분원인 '위로의 샘터'를 세워 타 종교와 만남을 통해 서로 친교를 나누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매달 신앙교육 모임과 영성 모임, 종교 간 대화모임을 갖고 복음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격월간 선교잡지인 『꼰솔라따』를 통해 선교 사명을 나누고 있다.

꼰솔라따선교수도회 한국지부장 디에고 카쓰라토 신부는 "선교사도 부족하고 일의 한계도 느끼지만 우리 선교활동의 모범이자 영감을 주시는 꼰솔라따 성모님을 따라 앞으로는 가장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라는 우리 소명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25. 거칠고 굴곡 많던 삶, 랩으로 한풀이

취랩 | 젊은 래퍼



가수 중 이처럼 '거친 삶'을 살아온 이가 있을까? 최근 첫 솔로앨범 〈중요에서 삶으로〉를 발표한 래퍼 취랩(33·본명 김대룡)에 대한 얘기다.

앨범 발매 전 '조폭출신' 래퍼로 화제를 모았던 그는 "이같은 얘기들이 부담이 됩니다."라고 했다. 과거보다는 현재

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도 했다.

하지만 폭력혐의로 3년간의 수감생활을 하던 중 세상을 떠난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담은 타이틀곡 '이터널 러브 포 그랜드 마' 등 앨범에 수록된 노래들에는 거칠고 굴곡 많았던 그의 과거가 고스란히 묻어 있다.

취랩은 힙합 1세대다. 1994년 무렵 고향 동두천의 미군부대 앞 클럽에서 DJ로 활동하며 음악의 매력에 빠졌고 1998년 즈음해서 홍대 부근의 클럽에서 언더 그라운드 래퍼로 활동했다. 당시에도 동두천 삶의 애환을 담은 랩을 토해냈다. 2000년 동두천의 얘기를 담은 'TDC 앤 미'라는 곡이 힙합 프로젝트앨범 <2000 대한민국>에 수록되면서 가수로 입문했고 CB매스 등의 앨범에도 참여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가수로 활동했지만 고향 부근의 '조직' 사람들과 친분은 여전히 갖고 있었고 순간의 실수로 2005년부터 3년여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부모님의 이혼 후 할머니 품에서 자란 그가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 취랩은 "할머니가 걱정하실까 봐 '중국에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상하게 할머니가 꿈에 보이더니 그만..."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새 앨범을 발표하게 된 것은 MC스나이퍼와의 인연 때문이다. 둘은 10여 년 전 홍대클럽에서 만나 서로의 남자다움에 끌려 친분을 나눴다. 출소 후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할 때 그의 실력을 알고 자연스럽게 손을 내민 것도 MC스나이퍼였다.

총 20트랙이 담긴 수록곡들에 대해 그는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의 내 삶, 꺼내기 힘든 기억 등 한마디로 제 삶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솔직히 아직도 삶이 행복하고 아름답게만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차근 차근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네요."라고 말했다.

26. 살아 온 날들이 질편한 한 소리였네

이재혁 | 동두천의 소리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농촌마을에서 어른들이 모여 농사일, 집터 닦는 일, 상가 일, 놀이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옛 소리를 보면서 들으면서 살아왔다.

그러다가 농사일을 할 적에 한마을에 사는 황응기(黃應基) 씨와 두레를 같이 하면서 소리를 배우게 되었다. 황응기[甲子生] 씨를 소개한다면 같은 마을(동두천

시 지행동 사당골) 태생인으로 경기민요, 농요, 속요를 유창하게 잘했다. 물론 목청도 남달랐으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찬사가 자자하였다. 그분과 같이 두레를 만들어 일하면서 농요를 주거나 받거나 하다가 어느 날 황응기 씨가 “여보게, 채혁이 자네, 목청도 괜찮으니 이 농요 소리를 좀 배워보게.” 하면서 선소리, 발음 소리는 이러니저러니 하면서 문서 없이 구전으로 가르쳐주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선소리든 후렴이든 남들이 잘 알아듣게 발음을 똑똑히 해야 한다.”

나는 그분이 어디서, 누구한테서 전수를 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른다.

하지만 나는 지행리에서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소리임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다. 음울이나 발음, 그리고 문서에도 없는 선소리 가사이지만 많은 것을 배웠고 놀이마당에서 부르는 니나노 방아타령도 함께 배웠던 것이다.

마을에 초상이 나면 나는 상갓집을 비롯한 큰 일을 치르는 집에 가서 봉사하는 것을 좋아했다. 어른들이 부르는 상여소리는 상여를 메고 가면서 같이 불렀다. 그러고는 이때금씩 선소리꾼이 없을 때에는 내가 직접 요령을 흔들면서 해보기도 하면서 익혔다.

동두천에서 상여 소리를 잘하는 사람은 고옥복(高玉福) 씨다.

이 사람은 포천 영평 태생인데 한두 살 적에 부모님의 등에 업혀 동두천으로 이사했다고 한다. 언젠가 고옥복 씨가 “자네, 젊은 사람이 상여 소리에 소질이 있어 보이니 내가 좀 가르쳐 줘세.” 하면서 상여 소리를 배우라는 것이다.

“상여 소리는 즐거울 때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슬플 때 부르는 소리니 가급적이면 처량하게 부르면 좋고 소리를 높이고 낮게 부르는 것은 선소리꾼의 재량이다.”

이렇게 문서 없이 가르치며 고옥복 씨는 반드시 호상(好喪)과 애상(哀喪)을 구분하여야 한다며, 덧붙여서 애상에는 장난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동두천의 옛 소리의 명인들이라면 큰 명인들은 아니지만 각 마을에 한두 분씩은 있었던 것으로 안다. 내가 알고 있는 분들을 꼽는다면 지행리의 황응기, 박태만, 이용우 씨, 송내리의 윤자빈, 한석태, 조인득(상쇠), 채수원 씨, 광암리의 정정성, 김수근 씨, 생연리의 홍귀섭, 허인수, 김봉천(상쇠), 이복함(호적) 씨, 동두천장터의 고옥복, 홍대순 씨 등이다.

‘동두내 옛소리’는 1994년 6월에 당시 양주군 은현면 상패리에서 동두천시와 양주군에 있는 옛소리와 경기민요 동호인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모임은 동두천시국악협회 회장 고(故) 이윤희(李允濬) 씨와 부회장이었

던 내가 마련하였으며 나는 그 모임에서 동두천의 모내는 소리인 '휘나기 타령'을 MBC 라디오 방송의 '전국의 농요'를 방송하는 프로그램에 신청해보겠다는 의견을 내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데 이 말을 들은 양주군 사람들이 서둘러서 한발 먼저 방송을 하고 말았다. 그야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격이 되고 말았다. 그 후 2000년도 초에 문화재청의 전문위원으로 있는 이소라(李素羅) 박사가 전국적으로 두레소리 농요를 녹취할 때에 덕거리에 사는 김수근 씨와 같이 녹취를 제공한 것이 인연이 되어 여러 사람들이 동두내옛소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2004년 5월 1일 동두내 옛소리 동호인 1차 모임을 가지면서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었고, 2005년 제15회, 2007년 제16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참가하여 두 번이나 3위 입상을 하면서 문화재의 꿈을 한걸음 앞당기게 되었다.

그 후 동두내옛소리보존회의 전 회원이 노력하고 단합한 결과 드디어 2008년 5월 15일 동두천시 향토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이 되었음은 큰 자랑거리라 아니할 수 없다.

2008년 6월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중양]문화재로 가는 심사를 받았으며 2009년에 '동두내 옛소리'는 '물까부리'라는 새로운 예술 작품을 창출하여 전 회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뜨거운 삼복 더위에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연습한 결과,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한 제17회 경기도 민속 예술축제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는 개가를 올리면서 2011년 전국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연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였다.

이제 우리 목표는 대통령상 수상이고 중앙문화재(中央文化財)이며 최소한 경기도문화재로 지정을 받아 동두천시에도 '동두내 옛소리 무형문화재'라는 전수 회관이 건립되어 희로애락을 같이하던 옛소리 동호인들이 부담 없이 편안하게 동두내 옛소리를 부르면서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동두천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아무 때라도 동두내의 민속문화재인 '동두내의 옛소리', 그리고 옛 농경문화를 체험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또한 간절하다. 그로 인해 온 시민들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옛 놀이 문화인 팽과리와 징, 북, 장구 외에 모든 재비를 두드리면서 세시 풍습으로 <정월 대보름 집불 태우기>, <지신밟기> 놀이부터 시작하여 <사월초파일>, <오월단오>, <칠월백중 놀이> [호미씨세놀이] 등의 놀이마당이 다달이 전수관에서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한다.

27. 이곳에서의 삶이 바로 시(詩)입니다

최수경 | 동두천 문학의 대모



그녀를 만나려면 소요산으로 가야 한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으로 오르는 비탈길에는 그녀가 세운 동두천 시인들의 시비가 한 줄로 늘어서서 길손을 맞이한다. 그녀가 노래하는 시의 주제처럼 '기지촌이 아닌 시의 고향 동두천'이

관람객을 맞고 있는 것이다. 한 때는 부인할 수 없었던 현실로서의 '기지촌'조차 그녀의 시에선 이름답고 파스한 애정의 시각으로 재창조되어 모두의 감성에 다가서게 된다.

동두천

최수경

소요산, 왕방산, 해룡산, 칠봉산, 마차산
사철 절경으로 둘러싸인
꽃술터
별, 나비처럼 꿈을 나르며
실향민도 이방인도
오순도순 모여 사는 곳.

청산이 순연의 빛살로 펼쳐지는
화창한 유혹에
구름처럼 밀려와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애절한 흔적에 앉아 있노라면
나그네의 꺾가에 맴도는
아름다운 사랑이야기

전철1호선 끝점에
두근거리는 약속
아, 소요산

최수경 씨의 가슴에는 그녀의 삶터 동두천을 바라보는 파스한 애정이 충만하다. 그녀는 양주군 은현면에서 태어났다. 말이 양주이지 기실 그녀의 고향은 동두천에서 고개 하나를 넘으면 닿는 곳으로 동두천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녀는 옆 동네 동두천으로 시집 와 동두천 사람이 되어 이날 이때까지 동두천에 사는 동두천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문학 입문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졌다. 1991년 동두천시에서 주최한 주부 백일장에 수필을 써서 입선하고 이어 경기도 백일장에서도 상을 받는데다, 1993년에는 역시 동두천 주부 백일장에서 시(詩)로 입상하게 된 것이 그 계기였다. '아, 내가 글 쓰는 데 소질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그녀는 1996년 『해동문학』으로 등단하고 내친김에 아예 경희대 평생교육원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하여 전문적인 글쟁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 이후 그녀의 삶은 온통 동두천을 노래하는 글쓰기의 외골수 한 길 여정이었다.

동두천 주부백일장에서 입선한 주부들과 함께 <사임당회>를 만든 그녀는 이를 <소요문학회>로 발전시키고 이어 광세근 동두천소방서장과 함께 <동두천 문인협회>를 정식으로 발족시키게 된다. 문학에 대한 열정과 동두천 사랑의 접목은 동두천문인협회의 회장을 3차례나 역임하며 모임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동시에 그녀를 동두천의 대표 문인으로 인식시키는 등 동반 성장을 이루게 된다.

소요산 기슭에 동두천 시인들의 시비를 만든 일은 특히 시민들과 관계자들의 주목과 치하를 받아 결국 신시가지에도 시비의 거리를 만드는 일로 연결되었고, 전체 회원들이 노력한 결과 『동두천문학』을 월간지로 발간하여 지금까지 한

호도 빠짐없이 발간하고 있기도 하다. 전국의 수많은 문학단체 가운데 회원들의 작품을 월간지로 발행하는 곳은 동두천문인협회가 유일하다.

최수경 시인의 본명은 최영숙이다. 그가 최수경이라는 필명을 사용하게 된 데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문인협회의 인준을 받을 당시 최영숙이라는 이름의 선배와 겹쳐서 문제가 되자 그가 자신의 이름을 과감히 뒤집어 최수경이라고 등재하고 이후 이 이름을 필명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전국에 '기지촌'으로 각인된 동두천을 '문학의 도시' 동두천으로 바꾸려 한다. 그것이 그녀가 글을 쓰는 가장 주된 이유이다. 지금까지 3권의 시집과 1권의 산문집을 내었고, 한국문인협회 전국대표자대회에서 가장 성공적인 문인협회로 동두천문인협회가 선정되어 사례를 발표하는 한편, 제주도 세계예술공원에 동두천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그의 시비가 서게 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삶의 터전 동두천의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여긴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더 많은 과정이 남아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아울러 그녀는 그 길을 멈춤 없이 행진해나갈 것이다.

조용히, 그러나 쉬지 않고 그녀의 시샘은 맑은 샘물을 토해내고 있다.

28. 나이들수록 젊어지는 색소폰 소리

김형식 | 동두천 연예계의 영원한 현역



그에게 나이를 묻는 것은 큰 실례다. 그에게 있어서 나이란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고회를 훨씬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색소폰을 불며 묵묵히 동두천의 감성을 연주하고 있다.

안성 출신으로 공군 군악대에 들어가 유격부대인 켈로부대에서 근무한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가 군 생활을 마치고 처음 동두천에 들어온 것은 1960년대 초반이다. 당시 동두천은 한국전쟁을 끝낸 후유증을 가장 최전선에서 앓고 있는 군사도시였고 미군부대 주위에

펼쳐진 삶을 살아내는 아픈 현장이었다. 아직 방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텔레비전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의 연예계는 미8군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고 동두천은 그 중심 가운데 하나였다. 뛰어난 연주 실력을 바탕으로 그는 이곳에서 본격적인 연주인의 삶을 시작하였다. 국민가수 조용필이 밤무대에서 노래하고 인순이, 유현상 등 이제는 내로라하는 국제 연예인이 된 가수들이 무대를 향한 꿈을 키우던 당시의 동두천에서, 그는 중심에서 활동하는 무대인이었지만 단순한 연예인으로 끝나지 않았다. 함께 활동하는 연예예술인들의 권익과 보다 나은 연주 여건, 그리고 무엇보다 예술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터전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느낀 그는 이 일에 앞장섰고, 그 결과는 1968년 연예협회 동북지부를 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이 만들어지던 당시의 회원이 500여 명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였고 그만큼 영향력도 컸다. 그는 자신이 앞장서서 만든 연예협회 동북지부의 초대부터 8대까지 지부장을 맡으며 특유의 지도력을 발휘하여 동두천 연예예술의 대부로 확고히 서게 된다. 그 후 연예협회 동북지부는 동두천의 변천과 의정부 등 각 지역 연예협회의 분립으로 비록 전성기보다 위축되기는 하였지만 이제는 동두천연예협회로 거듭나며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아울러 그 역시 이제 후배들과 시민들의 존경을 받는 원로가 되어 현대일보의 동두천 주재기자이자 경찰서와 같은 여러 시민단체의 고문을 맡는 지역사회의 어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결코 양보하지 않는 것은 연주인으로서의 삶이다. 여전히 현역이며 결코 은퇴를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도 각종 단체의 봉사활동에 앞장서며 아직도 전혀 녹슬지 않은 감성과 연주 기법으로 청중의 가슴에 스며드는 색소폰 선율을 빚어낸다.

영원한 무대의 현역 김형식 씨는 사랑스럽고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후배 연주인들을 바라보며 당부한다. 자존심과 긍지를 지니고 꾸준히 자신의 기량을 향상시켜나가는 자랑스러운 무대인이 되어 달라고.

29. '예쁜 동두천'을 짓는 광주 출신 동두천 사람

김백남 | 동두천에 뿌리내린 타향인

김백남 씨의 고향은 호남, 전라도 광주의 양동이다. 누구나 그랬겠지만 모든 한국인의 핏줄에는 고향의 숨결이 흐른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곳을 꿈꾸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우리네의 심성이다. 해마다 추석이 되면 그 지옥 같은 아비 규환을 치르면서도 단 하루밤, 고향에서의 휴식을 기대하며 국토의 모든 도로를 달리는 귀향 행렬이 바로 그 한국인의 향수를 입증한다.

그러나 고향을 떠나 동두천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지 어언 30년, 김백남 씨는 이제 이곳 동두천이 그의 고향이라고 말한다. 단지 수사(修辭)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진심으로 동두천 사람이기를 바라며 동두천을 위한 일에 누구보다 앞장을 서고 있다.

서울에서 경영하던 작지 않은 규모의 직물업을 정리하고 경원선 열차를 탄 이유는 그의 아내의 신병(身病) 때문이었다. 그의 아내는 모직물 공장의 분진 탓에 폐를 앓기 시작하였고 그는 부득이 잘 나가던 공장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공기 좋은 곳을 찾아 무작정 기차를 탄 그가 동두천역에 내려 자전거를 빌려 찾아 간 곳이 백의리였고 거기에서 차린 폐기물 처리업체는 소문이 날 정도로 크게 번성하였다. 그러나 그도 잠깐, 뜻밖의 물난리로 애써 일군 업체는 다시 진흙에 묻혀버렸고, 할 수 없이 친지의 소개로 여수에 내려가 공장 건설을 담당하는 업체에 취업하게 된다. 이 일이 결국 그를 평생 건설업에 몸담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거기에서 건설의 기초부터 모든 것을 익힌 후에 동두천에 올라와 건설회사를 차린 것이 벌써 30년 전의 일이다.

그는 건설업자다. 그의 회사 이름 '원우건설(媛宇建設)'에는 글자 그대로 '예쁜 집'을 짓겠다는 그의 소망이자 건설 철학이 담겨 있다. 그 이름 그대로 그는 예쁘고 쓸모 있는 집들을 지어왔다. 그리고 격동의 세월을 보내며 이제는 동두천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로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동두천과 동두천 사람들은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의 동역자가 되었다. 물론 건설업은 이문을 남기려 하는 기업체이지만 그는 가능한 그것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동두천 시내의 우수한 학교들인 신흥, 보영 등의 학교 건물은 그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동두천이라는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지어낸 나름대로의 경영

철학의 산물들이다.

그의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그는 동두천이라는 이 정착지를 또 다른 고향으로 삼고 여기에 이바지하는 방법을 찾아 매진하게 된다. 그는 호남향우회 활동을 통하여 동두천에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인 호남향우회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고, 회장을 지내면서 호남인의 결속과 친교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제 고향을 떠나 이곳 동두천에 정착한 동향인들이 고향과 다름없는 동두천을 위하여 무엇인가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서와 지역 행정기관을 후원하는 각종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금까지 봉사와 협력의 삶을 지속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나이를 먹어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경험이 더 풍부해져 간다고 생각하고 할 일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한다. 한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 1기로 입학하여 공부하고 총동문회장을 맡아 애쓴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젊은 생각의 한 가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그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으려 하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내려 한다. 그에게는 요즘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 아내가 많이 아프다. 병석에 누운 지가 꽤 되었는데 차도가 없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뒷모습이 전보다는 조금 쓸쓸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모임에 나가며 이제는 동두천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일을 줄이려 하지 않는다.

이곳에 터 잡은 지 어언 30년, 동두천의 물을 마시며 살아온 그는 이제 동두천 사람이 되었다. 그의 텃자리 고향 광주와 마찬가지로 그의 삶의 고향 동두천도 그의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며, 결국은 그의 인생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30. “이제는 동두천 사람이 되어야지요”

이헌구 | 생연음식문화거리의 지킴이

많은 사람들이 동두천의 현재는 음울하다고 말한다. 미군의 동두천 철수가 본격화되면서 상당 부분 경제운용의 근거를 그들 주둔군의 존재에 두었던 기존의 동두천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은 데다 그나마 동두천 상권의 중심이 지행역중 심의 신시가지로 옮겨가면서 “구 시가지 상권은 심각하게 타격받아 거의 소



멀지경에 이르렀다”고까지 말한다.

이헌구 씨는 생연음식문화거리에서 족발집 ‘유림할머니보쌈’을 운영하는 젊은 경영주다. 동시에 그는 생연음식문화거리에 대한 강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사력을 다해 뛰는 동두천 지킴이의 한 사람이다.

그가 동두천에 들어와 자리잡은 것도 이제 10여 년이 넘어간다. 몇 군데에서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후 그는 족발요리를 배웠고 젊음과 기술을 밀천삼아 미지의 땅 동두천에 들어와 정착했다. 연고가 없었던 이곳에서의 정착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이곳에서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목표로 자신의 삶을 가꾸는 일에 열정을 쏟아부었다. 여전히 그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정진 중이지만 가게를 열고 사업에 열중한 지난 시간을 통해 강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얻게 됐다. 그리고 어느 사이 그는 이곳 동두천에 든실하게 뿌리박은 동두천 사람이 되어 있다. 그는 현재 생연음식문화거리운영위원회의 사무국장이다. 사무실도, 급여도 없는 순전한 날품팔이 봉사직이지만 그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벌써 여러 차례 ‘생연음식문화거리 축제’를 치러냈고, 거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일이라면 굶은 일을 마다않고 뛰어다니고 있다. 그는 동두천시가 음식문화거리 지정만 해놓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억울해한다. 그리고 함께 장사를 하는 사람들 역시 단결심과 개발마인드가 심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걱정을 한다. 그러나 그는 이 불평과 불만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다. 무엇인가 모자라는 점을 해결하고 이를 극복하여 정말 음식문화거리가 동두천의 명소로, 흥대거리나 청담동처럼 많은 사람들이 애정을 갖고 찾아오는 문화거리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꿈꾼다.

물론 자신의 가게도 몹시 어렵다. 불황을 타고 있고, 재료값은 다락처럼 오르고 있고, 인건비는 치솟는 데다 그나마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다. 매출은 해마다 전 같지 않게 떨어지고 어떤 날은 아예 낮 손님은커녕 저녁 손님조차 얼굴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꿈꾸며 뛰어 다닌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요즘 그는 한북대학교의 학교버스 정류장이 동두천중앙역으로 옮겨진 것을 활용해서 문화거리 발전의 모티브로 삼아보

고자 애쓰고 있다. 음식문화거리 입구에 한북대학교 버스 정류장 팻말을 세우고 학교와 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걸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메뉴 개발과 접대 마인드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그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그는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꿈꾸는 사람은 실망이나 좌절을 하지 않는다.

“좋은 날이 있겠지요, 그렇게 믿고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진지함과 정열이 묻어나는 얼굴로 그는 이마에 번지는 땀을 닦아낸다.

제2절 동두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

1. [르포] ‘보산동 관광특구’ 비극적 역사의 산물

생활고로 투잡 상인 증가… 하루 연탄 2장 때며 겨울 보내

2010년 저물어가는 겨울 어느 날, 보산동 관광특구를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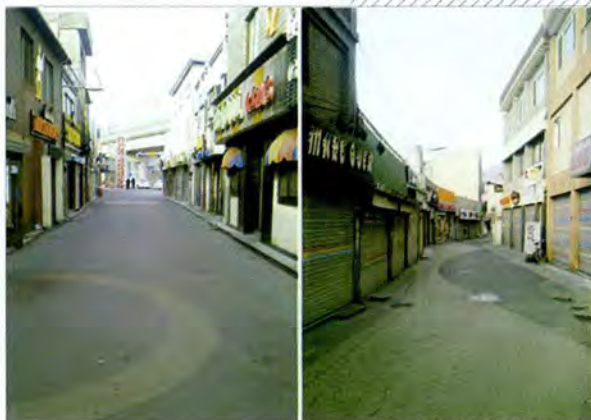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 의류점, 공예점, 클럽 등 250여 곳의 상점들이 모여 있는 관광특구지만 그 말이 무색할 만큼 거리는 쓸렁했다. 저녁에 문을 여는 클럽을 제외해도 셔터가 내려진 상점들은 상당히 많았다.

한때 이곳은 지나가는 개도 달리를 물고 다닌다는 농반진반의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상권이 번성했고 IMF 경제위기도 비껴갔던 곳이다.

30년째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상가변영희 박영호 회장은 “예전에는 하루에 맥주 300짜를 팔기도 했지만 지금은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허탈해했다. 1990년대 1만 2,000명에 이르던 미군은 2004년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계속 줄어 현재 5,000여 명만 주둔하고 있다.

그나마 남아 있는 미군도 2007년 전철 개통과 주말 복귀 시간이 없어지면서 용산과 이태원 등으로 나가 소비하는 추세다. 박 회장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폐업한 상점만 100여 곳에 이르고 투잡을 하는 상인들도 늘고 있다.”고 했다.

그의 소개로 보산동을 잠시 떠나 지방에서 일을 하다 다시 복귀한 상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곳에서 15년째 의류점을 운영하는 지승환 씨는 “과거에는 생계 걱정 안 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벌이가 안된다.”라며 “장사가 안 돼 매장을 아내에게 맡기고 지방에 내려가 막노동을 했었는데 겨울이 되면서 일거리가 없어 다시 올라왔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미군이 2016년 평택으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 상인들 대다수가 반환 시점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씩씩한 미소를 지었다. 동두천시는 보산동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한미 우호의 밤, 루미나

리에, 전선 지중화 사업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상인들은 “시의 노력에 발 맞춰 나가지 못하는 상인들의 의식 부족도 문제다.”라며 “개혁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입을 모았다.

보산동 관광특구는 미군공여지가 42%를 차지하는 동두천의 비극적인 역사의 산물이다. 관광특구 대다수의 상인들은 기름난로는 부담되어 엄두도 못 내고 하루 종일 1장에 400원 하는 연탄 2장으로 적막한 거리를 지키고 있다.

생활고와 막막한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관광특구 상인들...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2. [르포] 아늑하고 때 묻지 않은 ‘걸산마을’을 가다

육지 속 규제의 섬...진입로 신설에 주민들은 시큰둥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 미 2사단 후문으로 김광수 통장이 마중을 나왔다. 외부인은 통행증을 가진 주민들의 에스코트를 받아야만 미군부대를 통과해 마을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중을 나와도 경비실에 기자의 신분증을 맡기고 몇 가지 절차를 거친 후에야 캠프 케이시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말로만 듣던 미군부대 내 걸산마을을 향해 출발했다. “절차가 은근히 까다롭네요?”라는 기자의 말에 “지금은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 예전엔 오후 10시 이후로는 통행이 제한됐고, 손님들이 찾아와도 세대주만 에스

코트해줄 수 있었다. 불과 몇 년 전부터 '24시간 통행, 전 주민 에스코트 가능'으로 바뀌었다. 외부 손님은 72시간 머물 수 있다. 휴가 때 집을 찾은 자녀들도 사흘 머문 뒤엔 형식적이거나 부대를 나간 뒤 다시 들어와야 한다. 병사들의 체력단련 시간인 오전 6~7시에는 차량운행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람 발길이 잦지 않았던 좁은 길은 외부인이 온 걸 알아차린 것처럼 반기는 듯했다. 그렇게 30분가량 달리자 맑은 공기와 아늑함을 느끼게 하는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바로 걸산마을(또는 걸산동이라 부른다)이다.

이 마을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주둔하면서 집과 땅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주민들이 부대 뒤에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형성된 육지 속의 섬이다. 주한미군 2사단의 주력부대가 주둔 중인 경기도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 14.15km(여의도의 1.7배) 규모의 기지 깊숙한 곳에 60가구 주민 120명이 살고 있다.

주민들은 1970년대 중반까진 3시간 걸리는 산길을 타고 외부로 나갔다. 57년간 이어진 불편한 생활의 끝자락, 주민들은 오히려 미군 기지가 떠난 뒤 번잡해 질 세상을 걱정했다. 아픈 역사의 상징, 걸산동은 간혀서 더 평화로워진 것일까.

오래 전부터 이 곳에서 생활한 120명의 걸산동 주민들은 피를 나눈 한 가족보다 더 친한 인간애를 가진 식구, 때가 묻지 않은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동두천초등학교 걸산분교장 터'에서 김광수 통장과 70대의 원주민노인과 잠깐 인터뷰를 나눴다.



도로 내준다는 시청, 시큰둥한 주민들

주민들은 2013년 이후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반신반의했다.

70대 노인 한 명은 "연평도 사건도 있고 국가 안보상 동두천에 일부는 남겠지. 모두 이전해도 외부 손길이 뜸해 잘 보존된 이곳을 잘 살리는 방도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최근 날아든 희소식에 대해서도 불만이 쏟아졌다. 시가 반세기 넘게 불편을 겪어온 걸산마을 주민을 위해 외부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를 내주겠다고 발표한 게 그것이다.



시는 지난 19일 산림청으로부터 6억 원을 지원받아 결산 마을과 쇠목사격장을 잇는 산림 도로 3km를 내년 3월에 착공, 7월 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숙원이 해소되는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지만 주민들은 시큰둥했다.

김광수 통장도 격양된 말투로 “신설되는 진입로의 일부 구간은 비포장에 차량이 다닐 수 없을 만큼 폭이 좁다. 이 마을엔 어른들이 대부분인데 걸어서 그 길을 이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다르게 진입로

를 완공해도 주민들이 편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한 “진입로가 완공되면 미군부대 측이 진입로 신설을 이유로 출입증 발급을 중단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이처럼 우려하는 이유는 오히려 불편이 커졌기 때문이다. 새로 계획된 산림도로의 경우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유로 종전 미군부대 통로마저 폐쇄하면 걸어서 그 먼 거리를 다녀야 할 판이다.

자전거 도로가 신설됐을 때도 미군부대는 마을로 연결되는 길이 생겼으니 그 길을 이용해 통행할 것을 요구해 미군부대를 설득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한다. 주민 A씨는 “MTB코스로 만든 자전거도로를 일부 진입로로 변경해 만드는 것이다.”며 “외부인들이 출입하기에는 편해지겠지만 주민들은 외부인이 출입을 해 온화한 마을을 망가뜨리거나 오염시키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동두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한 미군부대가 관내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을 초청하여 함께 송년행사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KSC 제1중대(관리장 김영수)는 지난 23일 오전 11시에 동두천컨벤션웨딩홀에서 송년행사를 개최하면서 생연1동 새마을협의회(협의회장 윤광희, 부녀회장 안경자) 회원들과 생연1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 15가구를 초청, 점심식사를 함께하고 농협상품권 및 정성을 담은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 부대는 평소에도 생연1동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사랑의 밑반찬 행사에 매달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각종 행사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주한 미군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송년행사에서 생연1동 새마을협의회는 이런 봉사활동에 대한 봉사정신을 기리고자 감사패를 만들어 부대에 전달하였다.

점심식사 후에는 추첨을 통한 경품권 행사가 있었는데 이날 초청받은 어르신 한 분이 자전거 1대를 상품으로 받았지만 자전거는 관내 저소득층 아동에게 기증하겠다고 밝혀 훈훈한 정을 더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생연1동 새마을협의회 회원 중 한 명은 “올해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사랑의 밀반찬 행사시 어려움이 많았는데 KSC 제1중대에서 이를 알고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덕분에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노인 가구에 밀반찬을 전달해 줄 수 있었다. 이번 행사에도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비록 국적은 다르더라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사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3. ‘빨난’ 동두천 시민 2천 명 꺾기대회

경기도 동두천 시민 2,000여 명은 27일 오후 동두천시 중앙로 일대에서 동두천 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꺾기대회를 열었다.

꺾기대회를 준비한 동두천지원특별법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동두천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별한 보상과 지역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대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년 12월 입법 발의된 <주한미군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동두천지원특별법)>이 원안대로 조기 제정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동두천 시내를 행진하며 동두천지원 특별법 제정 및 미군기지의 신속한 반환, 기지 반환 후 경제 지원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동두천지원특별법은 반환공여구역 매각대금(국방부 추산 7,100억 원)의 30%를 동두천시 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특별회계 설치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대상에서 동두천 배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는 현재 재정상황으로는 반환공여지의 직접 매입이 어렵고 민자 유치 여건도 좋지 않아 반환미군기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별법이 무산될 경우 반환미군기지 개발계획을 포기하고 공원시설로 지정하겠다고 지난 8월 밝힌 바 있다.

4. 동두천·양주 45수능시험지구 완벽 운영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1.2%의 응시율 보여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일순)은 지난 18일 동두천, 양주, 연천 등 6개 시험장에서 처음 치러진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운영하였다.

양주시 및 연천군의 재정 지원과 동두천·양주·연천경찰서의 철통 보안 경비와 호송, 한전 및 소방서의 시험장 설비 안전 점검, 모범운전자회의의 교통 안전지도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 속에 2011 수능시험이 무사히 치러졌다.

한일순 교육장은 수능 하루 전날 본부 상황실을 방문한 경기도교육청 이기준 부교육감을 비롯하여 오세창 동두천시장, 현삼식 양주시장, 오동욱 동두천경찰서장, 임상오 동두천시의회 의장, 이종호 양주시의회 의장 등에게 직접 브리핑 하며 6개 시험장의 수능 준비상황을 안내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동두천, 양주, 연천 지역에서 치러지는 수능시험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우려 속에 지난 8월 중순에 수능 TF팀이 구성되어 교육지원청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능 완벽 대비 작전을 벌였으며, 특히 20여 명의 교사진으로 짜여진 수능 TF 팀의 활약이 눈부셨다.

시험 전날, 박의동 교수학습과장을 책임자로 하는 문답지 인수단이 저녁 6시경에 도착하자 교육지원청 직원을 비롯하여 20여 명의 TF팀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문답지를 보관 장소로 이동하였고, 시험장별로 분류작업을 마무리한 후 보관 장소에 밀봉하여 경찰과 함께 교대근무자가 철야로 경비를 섰다.

동두천시의 생연중과 송대중, 양주시의 덕정고와 덕계고, 연천군의 전곡고와



전곡중 등 6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이번 수능은 2,195명 접수자 중 1,992명이 응시하여 91.2%의 응시율을 보였다.

교과부에서 파견 나온 정구용 중앙협력관과 경기도교육청 강인수 도감독관은 문답지 수송에서부터 문답지 분류 및 이송과정을 지켜보면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한 치 오차 없이 진행되는 수능 준비 과정을 높이 평가하였다.

5. “다시 찾고 싶은 동두천, 산악레포츠로 우뚝 선다”

경기도 동두천시는 수도권에 접근성이 좋고 소요산을 비롯해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이러한 환경을 활용해 인프라를 확충해 특성 있는 관광·레저·산악레포츠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동두천시 방문객들의 필요경비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상승과 현장체험 욕구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인기는 동두천시가 산악레포츠도시로 급부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산악레포츠 활성화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동두천시가 추진 중인 대표적 사업으로는 △전국산악자전거대회(MTB) △산악레포츠 체험단지 조성 등이 있다.

■ 전국 산악자전거(MTB)대회 = 동두천시는 우수한 자원인 소요산 산길을 활용해 산악자전거(MTB) 코스를 조성했다.

산악개발을 통해 산악레포츠단지 조성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이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MTB 왕방산 챌린저 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다. 올 대회에는 전국 1,500여 명의 MTB 애호가들이 참석, 많은 관심을 모았다.

동두천시 MTB대회는 출발지의 선수 수용공간이 충분하고 수도권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서울 성북역에서 동두천 소요산역까지 자전거와 함께 탑승할 수 있는 ‘자전거 테마 전용열차’ 운영을 국내 최초로 이뤄냈다. ‘자전거 테마 전용열차’는 동두천시





와 코레일이 협약(MOU)을 체결하고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자전거 전용 칸은 4량 1편성으로 이뤄졌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사계절 내내 MTB 애호가들을 이끌 수 있도록 공직자들과 산악안전요원들이 직접 탐방해 임도를 정비하고 나무를 심는 등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며 “지속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왕방산 임도를 꾸준히 정비,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했다. 전체 코스 대부분이 싱글과 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전거 종목은 크로스컨트리, 다운 힐, 트라이얼 등 다양하다.

MTB 대회코스는 초급자 34.7km와 중상급자 35km로 △초급자 코스 : 종합운동장 주경기장-부처고개-장림-회암터널 위-해룡산-오지재-왕방산-공원묘지-동점-쇠목-어등산-종합운동장 △중상급자 코스 :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제생병원-칠봉산-장림-해룡산-오지재-왕방산-공원묘지-동점-쇠목-어등산-종합운동장 구간을 돈다.

■산악레포츠 체험단지 조성 = 동두천시는 산악레포츠도시 구축의 일환으로 134만 평 부지에 민자 2천억 원을 투자해서 산악레포츠 체험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산악레포츠 조성사업은 MTB자전거, 산악경마, 서바이벌 경기장, 산악 ATV코스, 유스호스텔, 암벽등반 체험장, 계곡습지 생태 체험장 등 산악레포츠 시설과 골프장, 콘도, 워터파크 등 체육 및 휴양시설 등이 조성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토지개발 기준을 완화한 개정안을 마련해 산악레포츠체험 조성사업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정책에 따른 규제기준에 의해 임상도 4등급 지역으로 책정, 개발 불가 판정을 받은 동두천시는 자율적 단지 조성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와 연계사업을 통한 공론화 작업을 추진, 지난 4월 비로소 규제완화의 결실을 맺었다.

오 시장은 “산악레포츠 체험단지는 동두천의 꿈과 희망을 상징한다.”며

“관광명소인 소요산을 적극 활용해 산악레포츠 메카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 동두천시의회 “대통령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열악한 동두천 현실 개선촉구 건의서’ 청와대에 발송

동두천시의회(의장 임상오)가 동두천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대통령과의 대화를 건의하고 나섰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9월 28일 임상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 7명이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채택했으며 지난 10월 1일 우편으로 건의서를 청와대에 보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서에서 “동두천시는 60여 년간 국가안보의 최전방에서 시 면적의 절반 이상을 미군공여지와 군사시설로 빼앗겨 시 승격 30년이 지난 지금도 기본 인프라마저 열악한 실정이다. 기지 이전 예정지역들은 막대한 국가예산을 지원받지만, 동두천시는 단 1원도 지원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현실에 비통함을 느낀다. 대통령과 대화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눈물로 호소한다”고 끝맺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앞서 2008년에도 청와대에 시의 힘든 상황을 설명하는 건의서를 보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화된 게 없어 다시 한 번 건의서를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 대통령 대화 호소 원문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먼저 역사 속에 길이 빛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각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4대강사업 등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우리 9만 5천여 동두천 시민의 뜻을 모아 전폭적인 지지를 드립니다.

9월 들어 연이은 태풍과 폭우로 우리나라 전역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만, 요즈음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맑



고 파란하늘이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비 오고 흐린 날이 있으면 맑고 청명한 날씨가 있듯이 자연의 이치도 이러하건데 어찌 우리 동두천시는 계속된 시련만 있는지 신이 있다면 묻고 싶은 심정이 간절할 뿐입니다.

각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008년에도 우리 시의원들이 시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건의문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크게 변화된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육지속의 섬 '걸산동'을 아십니까? 텔레비전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동두천시 미군부대에 둘러싸여 있어 미군의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는 지역, 내 집을 드나들어도 미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 바로 우리 동두천시의 현실입니다.

시 전체 면적의 42%가 미군공여지역이며 2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시 승격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변한 산업기반 시설조차 없이 인구는 정체되고 도로, 교통 등 도시기본 인프라도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기지촌이란 오명을 가슴에 묻은 채 온갖 냉대와 멸시를 참아가며 국가안보의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텅빈 도심 속에 탱크의 굉음소리만 요란한 국적불명의 도시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심한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최근 몇 년간 우리 동두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의 이전과 관련한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서 우리 시민들은 형평성을 잃은 정부정책에 극도의 좌절을 느끼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지이전 예정지역인 평택시엔 18조 8천억 원, 용산공원 1조 5천억 원, 그리고 군산직도사격장에도 3천억 원의 국가예산이 지원되면서 지난 60여 년을 눈물과 한숨 속에 국가방위의 일익을 담당했던 우리 동두천시에는 단돈 1원도 지원되지 않는 현실에 비통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국가의 존립기반과 존재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음지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국민이 아닐까요? 수도권이지만 전혀 수도권답지 않은 이곳 동두천시에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

가는 소시민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강한 대한민국, 다 같이 잘사는 위대한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소시민에게도 자랑스러운 조국이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대통령님과 대화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9만 5천여 동두천 시민의 가슴 속에 진심으로 존경하고픈 대통령님으로 남게 되기를 바라면서 국정업무수행에 놀라운 성과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0. 9. 28

동두천시의회 의원 일동

7. 동두천시 소요동을 찾는 이름 없는 천사



동두천시 소요동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독지가가 말없이 성금을 기탁하고 가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었다.

지난 16일 소요동주민센터를 찾은 신원미상의 독지가가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저금통을 맡겨놓고 갔다. 독지가는 동 직원이 쫓아가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거절하고 소요산에서 음식점을 하는 시민이며 장사를 하다 모아온 동전을 들고 왔을 뿐이라고만 밝히고 사라졌다.

소요동주민센터 관계자는 당일 성금을 정리해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동두천시 민의 따뜻한 마음이 널리 전파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8. 동두천시-예총 '2010 송년음악회'

동두천시와 동두천예총에서는 27일 월요일 동두천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오후 7시부터 <2010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송년음악회는 동두천예총과 음악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며 이번 행사는 1·2부로 나뉘어 개최된다. 1부 공연은 동두천윈드오케스트라와 28사단 군악대 'Buffalo Dance', Encanto, 테너 김형찬, Pop Medely special 등의 공연과 2부에서는 'Phil Pop Orchestra와 박상민 콘서트'를 열어 동두천 시민과 함께 할 예정이다.

동두천예총(회장 김관목)과 음악협회(회장 김경식)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음악을 통해 꿈과 희망을 얻고 삶에 활력을 찾아 시민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송년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1년에도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연주회를 기획해 시민에게 폭 넓은 음악세계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9. 동두천시, 수도권 최대 볼거리 '소요산 국화전시회'

소요산과 국화가 조화를 이루는 전시회가 11월 1일까지 열려



동두천국화사랑연구회(회장 최금순)와 동두천중앙고등학교 4-H회 등 3개 학교는 지난 20일 소요산에서 오세창 동두천시장을 비롯한 박현희 시의회부의장 및 시의원, 농업관련 단체장, 학교 4-H 관련 학교장 및 담당교사, 연구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요산 국화전시회 개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화전시회 개최에 공이 큰 국화사랑연구회 황인철, 이영희 회원에게 오세창 시장이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생활개선회 윤경자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김○○ 학생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

금 30만 원을 전달했다.

국화전시회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농업전문교육 및 학교4-H 과제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국화사랑연구회와 동두천중앙고등학교 4-H회 등 3개교에서 <제25회 소요 단풍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축제 분위기를 높이고 학생들과 시민들의 취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국화전시회를 열고 있다.

매년 가을철이면 전국적으로 국화전시회를 많이 개최하지만 동두천시와 같이 순수하게 학생들과 시민들이 직접 땀 흘려 재배한 국화로 전시를 개최하는 곳은 드물어 더욱 뜻 깊은 전시회로 평가받고 있으며, 소요산 모양 형상작을 비롯한 자전거, 하트 등과 다룬대작, 현애작, 분재작, 입국 등 다양한 작품 4,200여 점을 11월 1일까지 전시한다.

10. 동두천시립이담풍물단 송년 공연

동두천시립이담풍물단은 지난 13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오세창 시장, 임상오 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립이담풍물단 송년음악회를 개최했다.

오세창 시장과 임상오 의장의 대고 타고를 시작으로 동두천시립이담풍물단원과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두천시립이담풍물단 동호(일반)회원 5개지부 163명 회원들이 함께 신명나는 풍물공연을 펼쳤다.

1부 공연에서는 일반(동호)회원으로 구성된 을지로지부, 동두천지부, 성여대지부에서 준비한 영남사물놀이, 삼도사물놀이, 사철가 등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2부 공연에서는 동두천시립이담풍물단원들이 꾸미는 타악 두드림 공연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펼쳐졌다.

무대 뒷편 중앙에 대북이 위치하고 그 앞쪽으로 구정놀이 북이 자리 잡고 좌우로는 장구를 배치한 무대는 공연장의 분위기를 한층 높였다. 웅장한 대북 타고를 시작으로 경쾌하고 신명나는 타악기 공연이 펼쳐져 관람객들을 압도했다.

특히 대북과 구정놀이 북, 장구의 합동연주는



공연 장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관객들은 웅장한 북소리와 장구의 리듬이 어우러져 어깨를 들썩였으며 신명나는 북소리에 맞춰 상모돌리기와 버나돌리기 공연도 함께 즐겼다.

전통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연말을 맞아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동두천시립이담풍물단은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하였다. 동두천시는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분야의 장르 개척을 통하여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1. 동두천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 확정

동두천시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지식경제부의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동두천LNG발전소 건설계획이 포함돼 발전소 건립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소 건립을 추진해온 한국서부발전(주)과 삼성물산(주)은 광암동 캠프 호비 외곽 20만㎡ 땅에 1조 3,440억 원을 들여 1,500MW(750MW×2기)의 가스터빈 복합발전 방식의 동두천 LNG발전소를 건설한다.

시는 발전소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2009년 시작한 환경영향평가를 오는 5월 마무리한 뒤 설계와 부지매입을 시작해 2012년 착공, 2014년 6월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인원 90만 명과 150여 명의 상주인력이 생기는 등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위해 행정력을 쏟겠다.”며 “발전소가 건립되면 안정적 전력 공급으로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 등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2008년 5월 한국서부발전(주)과 동두천시가 에너지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본격 추진되어왔다. 한편 발전소 유치를 추진해온 광암동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경제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12. 생연1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간담회 개최

동두천시 생연1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학)는 신묘년 새해를 맞아 오세

창 동두천시장, 김흥기 생연1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프로그램 강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그램 강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도 강사들의 남다른 열정과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격려하고, 주민자치센터 발전 방향 및 동정 협조사항 등을 전달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개최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강사들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오늘은 시장님께서 참석해주셔서 더욱 더 뜻깊은 간담회였다.”며 “앞으로 강사 및 회원들은 프로그램 및 동정 발전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학 주민자치위원장은 “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쓰는 강사들에 대한 격려와 의견교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수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3. 지역주민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중앙동 단체장협의회



동두천시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5일에 단체장 월례회의를 가졌다.

이번 월례회의에서는 시정홍보 사항으로 2011년 주민과의 신년 인사 회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했다.

단체장들은 2010년에 지역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나름대로 회원들 간에 보람 및 성취감을 느낀 바, 2011년 1월 중으로 각 단체별 월례회의에서 사업계획을 처리안건으로 제출하여 기존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지, 신규 사업을 발굴할지 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재난으로 선포된 가운데 동두천 지역의 구제역 확산을 막아보고자 현재 군인, 경찰, 공무원 등이 이동 통제초소에서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단체장들이 시 대책본부와 협의하여 1월 중으로 구제역 근무지에 위문방문을 가기로 결정하였다.

김재두 중앙동장은 “우리 지역을 위해 항상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단체장들에게 감사드리며, 동에서도 단체별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4. 동두천도 구제역 확진, 소 돼지 7천 두 살처분



인근 지자체인 양주시에서 구제 역이 발병해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왔던 동두천시도 방역망이 뚫렸다.

동두천시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상패동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이 접수 돼 정밀 조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 명됐다고 4일 밝혔다. 이 농가는 한우 37두를 사육하는 곳으로 침 흘림과 수포 등의 증상이 포착되어 농장주가 신고했다.

해당 농가 외에 상패동에서는 돼지 1,000마리를 키우는 농가 두 곳에서 의심 증상이 추가 접수되기도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들 농가에서 의심증상이 접수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29일부터 해당 농가와 반경 500m 내 16농가의 소 189두와 돼지 6,994두를 살처분 중이다.

시 관계자는 “검역원에 혈청검사 의뢰가 밀려 최종 결과가 늦게 나왔지만 구제역이 확실해 살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3일까지 동두천 전역에서 한우 농가 6곳 등 모두 14개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신고돼 역학관계를 파악하고,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의과학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구제역 유입을 사수해오던 동두천까지 구제역이 번지면서 규모가 작은 지역의 소, 돼지 등 우제류의 씨가 마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91개 농가 1만 7,000여 두를 사육하는 동두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살처분 규모가 벌써 40%에 육박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편 동두천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생연1동과 지행동, 송내동 등 모두 66개 농가의 소와 돼지 1,663두에 대해 수의사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접종팀을 파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15. 한미안보협력 60주년 기념 타임캡슐 설치

1) 타임캡슐(Time Capsule) 의미 및 유래

한 시대의 문화, 산업, 사회적 유산을 특수용기에 넣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후손들이 이를 개봉하여 선조들의 지혜와 삶을 확인하고 활용케 하는 의미 있는 문화유산 전수방법이다.

최초 1938년 뉴욕만국박람회 때 웨스팅하우스전기회사에서 특수합금 용기에 만년필, 시계, 담배, 각종 곡물, 공업 재료, 책, 백과사전 등 마이크로필름 등을 넣었다. 6939년이 개봉 예정시기, 한국은 중앙일보사에서 1985년 제작한 타임캡슐이 남산 정상 지하에 묻혀 있으며 2485년이 개봉 예정 시기이다.

2) 한미안보협력 60주년 기념 타임캡슐 설치 배경

동두천시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것은 1951년 7월이며, 2011년이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였다. 타임캡슐 개봉은 한미안보협력 100주년이 되는 2051년 9월 3일 개봉 예정이다.

한미안보협력 60주년을 기념하는 대단위 축제 행사를 계획하였으나, 2011년 7월 말에 발생한 엄청난 수해로 인해 동두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시민이 고통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미 2사단과 협의하여 축제행사 대신 우리의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전달하는 새로운 문화 전달 형식인 '타임캡슐'을 설치하게 되었다.

3) 타임캡슐 매설식

일 시 : 2011. 9. 3(토) 14:00

장 소 : 동두천시외국인관광특구 내(방법초소 앞)

주 관 : 동두천시

참석대상

－ 한국 측 :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도·시의원, 경찰서장, 소방서장, 한미친선단체장, 각 사회단체장 등

－ 미국 측 : 미 2사단장, 작전부사단장, 1여단장, 포병여단장, 주요지휘관 등

개봉시기 : 2051년 9월 3일(한미안보협력 100주년이 되는 해)

수 장 품 : 동두천시정백서 등 총 89종 143점



오세창 시장과 미 2사단 테일러 작전부사단장



타임캡슐 매설



매설식(단체사진)



타임캡슐 매설

4) 타임캡슐 개요

규 격 : 지름 800mm, 두께 30T

보존처리 : 진공처리, 멸균처리, 알곤가스충전 등

제작업체 : 한국이미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 126)

사 업 비 : 2천만 원



타임캡슐 디자인

제3절 동두천 사람들의 말과 주장

1. 오세창 동두천시장 취임사



오늘 취임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우리 시정의 동반자로서 끝까지 저와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형남선 전 시의회의 장님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가슴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선거 때 보여주셨던 동두천에 대한 사랑과 열정 변함 없이 동두천

을 위해 힘써달라는 뜻으로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와 우리 동두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각계각층의 귀빈 여러분!

지난 6·2지방선거에서 100수의 어르신부터 몸이 불편하신 분들, 바쁘고 바쁜 삶의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 투표하시면서 저에게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기대를 저는 절대 잊지 않고 항상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 4년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앞으로 제가 시장으로서 동두천시를 한 번 더 이끌어 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은, 자신의 건강은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늘 봉사활동으로 분주하면서도 옆에서 제게 많은 조언을 해주는 제 아내, 동두천에서 모두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지

금은 국영기업체와 외국계기업에서, 그리고 한양대에서 조교로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세 아들놈들, 그리고 지난해 새 식구가 되어 이번 선거기간에 제게 손자를 안겨준 며느리까지, 이런 화목하고 든든한 후원자들이 항상 옆에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 힘입니다. 정말이지, 팔볼출이지만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를 사랑으로 아껴주시는 시민 여러분!

그러나 저에겐 더 강하고 큰 힘과 용기를 주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항상 질책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 여러분들이시며 9만 5천 우리 동두천시민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엿그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사실(우리의 치부이고) 우리의 슬픈 역사를 담은 비디오풀을 보여드렸는데 새삼 “가슴 찡하게 봤다.”고 깊이 공감하고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멀리받고 아파온 고통만큼 대한민국 모두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뛰어야 합니다.

모르고 이해 못하면 알려주고 인식을 바꿔줘야 우리의 규제도 풀리고, 지역발전의 토대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우리의 꿈과 희망을 담은 ‘동두천의 비전’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비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비전’이란 담배를 이름이 좋아서 보궐선거 이전부터 노상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비전’이란 단어는 아주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천 방안 5가지를 우리 동두천호(號)에 싣고 9만5천여 동두천시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비전을 향한 힘찬 항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레포츠 관광도시를 신겠습니다.

우리 시의 천혜적인 자연조건을 갖고 있는 탑동 일대에 자연휴양림, 그린관광 테마파크, 드라마 오픈 세트장을 비롯하여 수도권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전국왕방산MTB대회>를 세계대회로 업그레이드시키며 소요산 입구에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조성, 동막골에 소요산수목원 조성, (휴전선)접경지역 자전거길과 연결하는 신천자전거길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둘째,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무엇보다 신시가지와 동두천역 공단 일대의 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경기도, 양주시와 공조체계를 완벽하게 갖추 것이며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스포츠파크, 잔디광장, 경관광장 등을 갖춘 신천을 생태하천으로 바꾸고 EM 체험특구 조성, 원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비전 있는 미래도시 실현을 위해 구리~동두천 간 고속도로, 광암~마산 간 도로의 조기개통, 송추~상패동 간(국지도 39호선) 도로 확장, 대학교, 공원, 체험시설을 두루 갖춘 UN평화센터를 적극 유치할 것이며 반환공여지인 남불에는 어린이직업테마파크 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산역을 연결하는 보행전용 상징다리 설치, 그리고 상패동 일원에 지원 도시건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교육·문화도시도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추진해오고 지난 선거 기간 중에 확정되어 올해부터는 우리 지역에서 수능시험을 보게 됐으며 친환경무상급식과 교육인프라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어린이 보호시스템 도입 추진, 시립도서관 365일 운영, 어린이 영어교실 등과 동두천중앙역에서 일자리센터와 야간민원실을 운영할 것입니다.

끝으로 복지·행정도시의 보따리도 빠짐없이 실행하겠습니다.

여성의 취업과 여가활동 지원에 무엇보다 우선해 힘쓰고 7월 16일 개관할 노인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관리,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노인 일자리센터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저상버스, 콜밴의 안전한 운행과 편안하고 부담 안 주는 빨래방 운영으로 불편과 고통, 소외의 아픔을 한발 더 다가가서 확실히 보듬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9만 5천 동두천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의 바람, 희망, 꿈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항하는 이 배는 우리의 비전을 찾아 떠나는 것이며 '두드림 항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선장인 저와 노를 젓고 각 분야의 기능을 담당할 우리 시청 가족 모두는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긴장하고 창의적

인 사고로 더 변화하여 시민 모두의 얼굴에 환하고 행복한 비전을 담아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폭풍과 엄청난 파도와 격랑이 밀려와도 우리의 동두천호는 절대 두려워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과 희망이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나운 파도와 엄청난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는 9만 5천여 시민의 한결같은 사랑과 단합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두천호는 제가 앞장서고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앞과 뒤를, 사랑으로 좌우를 감싸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때론 선장을 믿고 따라야 배가 제대로 목표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항해가 어렵고 힘들 때 저는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 것이며 9만 5천여 시민 모두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매사가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 지역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많이 배우고 비전의 뱃길을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는 저와 우리 500여 공직자는 우리 동두천호를 비전의 항구에 편안하고 환한 모습으로 반드시 도착시켜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9만 5천여 시민 여러분!

정말이지 <비전>은 추상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하나하나 현실에 잡아 대령하겠습니다.

이제 동두천은 이념, 정치, 해묵은 감정을 뒤로 하고 모두 상생해야 합니다.

저부터 하나하나 털어내겠습니다.

동두천은 꿈을 꾸고 그리는 곳.

동두천은 꿈을 움켜쥐고 비전이 현실화되는 곳이 되도록 모든 정성과 강력한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를 아껴주신 여러분의 모든 마음, 오늘 이취임사에 담아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 7월 1일

제17대 동두천시장 오세창

2. 형남선 전 동두천시의회회장 신년사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희망찬 2010년 경인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시의회에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때론 따끔한 충고와 정성어린 질책에 우리 의원 모두 겸허한 자세로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지역일꾼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
겠습니다.

지난 한해에도 우리 시의회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조례안 재개정은 물
론, 수도권규제철폐 완화와 동두천특별법 제정추구 등을 위한 성명서 발표와 건
의문을 채택하여 정부 각 부처에 직접 방문하고 전달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
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외에도 민생고충 해결을 위한 현장민원 확대와 교육한
경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대민봉사활동, 불우시설 위문, 자연정화캠페인전
개 등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지방의원의 자질함양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해는 전 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서 매
우 어려운 한해를 보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면
서 금년도에는 약 4.3% 안팎의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인년 새해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해가 될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하나된 마음으로 새롭게 응비할 21세기 위대한 동두천시의 탄생을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주한미군 주둔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 의해 개발이 원천 봉쇄됨으로써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동두천 시민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특별법 제정은 아직 요원한 실정입니다.

경인년 새해에는 우리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동두천지원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다함께 노력하여주시고 성원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금년 한해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사업과 시책들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을 위하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동두천시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와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는 의회, 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주는 의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3. 시민 안전 최우선, 올해도 불철주야

오동욱 동두천경찰서장 신년사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출발을 가져다 줄 뜻 깊은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동두천 지역은 전국챌린지대회, 소요산록페스티벌, 드림택시노조 집회 시위, 2011년 수능시험 실시 등 다양한 행사로 인해 경찰의 치안업무 수행에 그 어느 해보다도 관심을 쏟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의 치안업무 수행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올립니다.

새해에도 내 아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동네, 밤에도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한 동두천을 위해 불철주야 땀 흘릴 것입니다.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4. [성명서] “동두천시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2010년 12월 14일(화)까지 진행된 동두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동두천부영연대모임은 매우 심각한 안타까움을 표명하는 바이다.

동두천시 건축과에 대한 감사 시 시의회 전문위원이라는 자가 조례를 이유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로 부영아파트 관련 동두천시청 행정에 대한 감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당대의 희극이 연출되었다.

현재 행정소송 중인 3단지 분양전환건이나, 수사 중인 9, 1단지의 건축과 관련 공무원 형사고소건(분양전환사전절차 중지건)에 대하여 시의원들께서 형사 소추를 목적으로 감사하려한 것이 아니라 행정적 목적(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원인규명 및 감사)일 텐데, 그마저도 실시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됐다. 더욱이 조례 8조와는 무관한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 문제와 부영 3,1단지를 포함한 부영 5, 6단지의 매년 보증금 임대료 5% 인상 문제까지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문위원 스스로 조례를 확대해석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동두천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 고유의 업무인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한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동두천부영연대모임은 동두천시의회에 강력히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동두천시의회는 전문위원의 감사방해 행위를 자체조사 및 처리한 후, 동두천시의 주인인 시민에게 보고하라!
2. 동두천시의회는 부영아파트 임대 및 분양전환 관련(보증금 임대료, 특별수선충당금, 9, 1단지 분양전환 반려처분, 하자보수 실태 등) 사항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라!

‘동두천 3, 9, 1단지 부영 연대 모임’

5. 칼럼/ ‘풀뿌리 권력’ 절반은 성공!



동두천에도 한나라당이 독점했던 풀뿌리 권력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교체됐다.

밤샘 개표결과를 보면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동두천뿐 아니라 전국을 강타하였고, 유권자들의 표심도 독점 권력에 대한 견제와 심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부패한 풀뿌리 권력이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을 예견했다. 기초단체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원들마저 한나라당이 독식한 결과 무능 행정이 의회의 일당 독식으로 인한 결탁과 독선과 부패를 낳았고, 반성조차 없이 이번 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얼마나 시끄러웠던가! 제왕적 권력 행사도 이제야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후보자 공천이 아닌 그들만의 공천 잔치는 약발이 안 먹혔고, 제도적 공천 무법천지 속에서 무능 행정에 대해 민심이 좋지 않았던 것이 뿌린 대로 심판을 받은 것이다.

절반의 후보자가 당선 됐지만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동두천 시민중심 정책 안에서 무엇을 해낼 것인가? 무상급식 등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칠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이니 행정의 우선순위가 개발에서 복지로 중심축이 이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동두천 발전을 위해 올바른 비전, 그리고 실현 가능한 공약과 정책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명실상부하게 주민을 위한, 주민에 위한, 주민의 자치가 될 수 있도록 당선자들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두천 특성과 조건에 의거한 특색 있는 지방자치가 되도록 해야 하고, 동두천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우선 먼저 진정한 동두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유권자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난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름진 자양분이 돼야 할 것이다. 편 가르기를 종식 시켜야 할 것이며 소외계층의 양극화 해소와 소수의 부자가 아니라 시민에게 자원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고, 성인지 예산정책으로 양성평등 방향과 내용을 세우고, 각계의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당선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군기지촌의 역사성을 배경으로 현대문화적 감성요소들이 연계되어 부활한 희망과 꿈의 도시로 만들어가고, 오래됐으면서도 낡지 않은 평화의 도시, 전쟁 없는 문화 감성 도시를 만들어 주길 바랄뿐이다. 평화롭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모두가 살맛나는 편안한 동두천을 건설할 동두천 일꾼들 말이다.

차별화된 동두천시로 퓨처마크이고 글로벌(global)한 동두천시를 넘어, 메가(mega)적인 동두천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바람과 지역 거버넌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지역 발전 육성을 요구하는 작은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주는 효율적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동두천 지역의 참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한완수(동두천시민연대공동대표/동두천여성상담센터소장) [2010-06-04]

6. 드림택시사태 102일을 맞이하며 보내는 논평

드림택시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지 100일이 넘었다.

당면한 사태에 대해 오세창 시장과 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번 사태는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미군부대 측에서 17-i 조항에 근거, 부대출입을 봉쇄하여 해고를 촉진시킨 것이 본질적인 이유이다.

이 조항은 '어떤 종업원이 더 이상 근무조건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 관으로부터 통지받을 시 영업권 소유자는 계약관의 서면 승인 없이는 당해 종업원을 여타 AAFES 계약이행을 위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이다.

이는 부대출입의 유무에 있어서 드림택시의 사태에서 보듯이 한국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권리를 진행했다 하여 부대출입을 금지한 일로 상호 간의 권익침해 및 친선의 저해를 촉진한다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드림택시 노동자들의 해고라는 특수성으로 표출이 됐으나,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해 이런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동두천시한미친선협의회(협의회)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협의회위원장인 시장은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협의회를 소집하라!
- 시장과 시의장은 4조 2항 6번에 기초하여 이번 사태가 기타 상호 간의 권익침해 및 친선 저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라!
- 시장과 시의장은 권익침해 조항인 17-i 조항을 전면 개정하라!

민주노동당 동두천시위원회 [2010-12-24]

7. 산행의 즐거움은 '사람' 때문이다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인생에서 길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좋으면 힘든 일도 즐거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다.

지난해 제주도 올레길을 시작으로, 지리산에는 둘레길 등 전국에 많은 길이 관광명소로 개발되었고, 동두천에도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과 함께 산자수명(山紫水明)한 6산길이 있다.

동두천 6산은 칠봉산(518m), 해룡산(660.7m), 왕방산(737.2m), 국사봉

(754.0m), 소요산(587m), 마차산(588m)을 일컫는 말이며 6산 종주는 동두천을 둘러싸고 있는 6개의 산이 이어진 50km를 등반하는 산행코스를 말한다.

필자가 속해 있는 공보전산과는 전 직원이 '6산 종주'라는 목표로 지난 9월 18일 칠봉산을 시작으로 11월 27일 마지막 산행인 마차산 정상을 넘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장기간 산행은 각오가 필요한 법인데, 여러 가지 일정으로 산행이 지연되면서 3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6산 종주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해냈다'는 큰 성취감과 함께 사무실에서 느끼지 못한 진한 동료애를 얻은 값진 산행이었다.

특히 첫째 날인 9월 18일, 아름다운 단풍을 벗 삼아 칠봉산, 해룡산과 국사봉 정상을 오른 후 '비박'을 하면서 동료 직원들과 평소엔 나누지 못했던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산행 전의 어색함 대신 '형', '동생'으로 좀 더 가까워졌다. 이튿날 아침식사를 마치고 소요산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했다.

우리 일행은 산행을 계속하기로 하고 출발했지만 결국 소요산 끝자락까지 계획된 산행을 중단하고 칼바위, 자재암으로 하산하게 됐다. 갑작스러운 비로 산행을 중단하는 등 4회에 걸친 종주일정이었지만 오랜 일정만큼이나 조직과 동료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쌓인 소중한 체험이었다.

이번 6산 종주는 힘든 고비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겠지'라는 동료의식과 함께 산을 등반했다는 성취감을 넘어 조직과 사람에 대한 조화로운 관계를 생각하는 계기였다. 힘든 고갯길을 넘어가야만 상쾌한 바람이 부는 산의 정상을 만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심호흡을 크게 쉬고 여정을 즐겼다. 즐거운 한 발 한 발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산의 정상이 펼쳐지고 함께 웃는 동료의 모습에서 힘든 산행도 말끔히 잊게 됐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조직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다. 조직생활이 힘들고 규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며, 능력 있고 행복한 조직 또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할 일 이라면 즐겁게 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도 행복의 바이러스가 된다.

우리가 산행을 하면서 즐거운 것은 산 정상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나 산 아래에서 정상을 바라보는 사람보다는 산 중턱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웃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전진하는 사람에게 앞서간 사람으로서의 따뜻한 격려와

뒤따르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 때문은 아닐까.

홍천의 동두천시 공보전산과장 [2010-12-17]

8. 붕괴된 광암동 상권, 둘레길로 회복



동두천시 광암동은 예전에 꽤나 번성한 동네였다. 그러나 주변에 상업적인 요인이 사라져 번성했던 상가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이젠 10여 곳의 업소만 남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광암동 상권을 부활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환경적 요인을 활용해 지역 경제활성화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광암동에는 성공적인 대회로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동두천 MTB대회 코스가 잘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와 접목을 시키지 못하고 대회를 위한 코스에 머물러 활용방안이 요구 된다.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는 마니아들도 드물게 오지만 행하니 타고 지나갈 뿐 지역경제와는 아무런 영향도, 도움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시는 MTB코스 또는 그 주변 산을 이용한 둘레길을 조성해 지역 상권과 연계시키는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더불어 소요산과 광암동을 잇는 둘레길 조성도 검토해보길 바란다.

현재 중앙역에서 버스(대양버스 50번, 60번)를 타고 5분 정도 가면 광암동 시내버스 종점이 나온다. 거기서부터 걸산동까지는 약 12km.

걸산동은 동두천에서 소외된 오지마을로 60여 년 동안 아무런 관심도, 혜택도 받지 못했다.

이런 걸산동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둘레길 조성을 제안한다.

1) 소요산 칼바위길(4.7km)→백운대→자재암→광암동 버스 종점→동두천이라는 하천을 지나→쇠목길→왕방산길

2) 걸산동(3.9km)→종합운동장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둘레길을 찾는 사람이 하루평균 100명이라고 하고 1인이 2만 원 정도의 경비를 지출한다고 가정한다면, 1개월이면 6천만 원, 1년이면 7

억 2천만 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제라도 녹색성장 인프라를 구축해 낙후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 수 있도록 둘레길 조성을 긍정적으로 연구할 때다.

동두천시 애항동지회 기획실장 오기춘 [2010-12-03]

9. 동두천시 자원봉사축제를 마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느껴지는 선선한 날씨와 높아가는 파란 하늘이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감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지난 10월 9일(토) 신시가지 차없는거리에서 개최된 제6회 동두천시 자원봉사축제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나눔의 온정을 베풀어 주신 기관, 단체, 기업체 등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축제는 '사랑의 비로 마음을 적시다'라는 주제 아래 동두천시 자원봉사 단체의 봉사활동을 홍보하고,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 공연, 노래한마당 등 봉사자와 우리 시민이 서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축제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생활은 우리에게 큰 행복입니다.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곁에 많이 계시다는 사실에 그저 행복함을 느낍니다.

현대사회는 핵가족화와 노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수많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끼리 서로 돕고 의존하며, 연대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켜 주는 자원봉사의 참여와 활성화한 한 가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동두천시민들이 나눔, 봉사, 기부라는 것이 부담이 아닌 진정한 행복임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를 위하여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번 축제행사를 치르면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서 불편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느끼셨다면 전화나 혹은 우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 해주신다면 2011년 자원봉사축제는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번 축제에 함께하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재삼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홍현구 [2010-10-15]

10. 가을철 산불을 예방합시다



가을! 단풍의 계절이 왔다. 산과들은 이제 등산객들로 넘쳐날 것이다. 좋은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풍을 보고 있으면 막혔던 가슴이 눈 녹듯 사라지고 모든 시름과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무념무상의 세계로 빠져든다.

모든 사람들이 단풍과 좋은 경치를 보며 마음이 넓어질 때 소방관들은 걱정이 앞선다.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화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만 되면 소방서 전화통에 불이 난다. 다름 아닌 산불 때문이다.

산불은 대개 강풍을 타고 빠른 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자칫 대피를 잘못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산불이 발생하면 먼저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불길은 바람의 방향을 따라 번지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불길에 휩싸이면 당황하지 말고 주위를 확인해 불길이 약한 지역으로 몸을 낮춰 이동한다.

대피장소로는 저지대 바위 등 불에 탈 만한 것이 적은 곳을 택해야 한다. 복사열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얼굴 등을 가리고 손수건으로 입을 막아 연기에

질식되지 않도록 한다.

산불 발생 지역의 주민들은 비상방송 등을 통해 시시각각 들어오는 화재 상황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며 주택으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불씨가 집안이나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제거한다.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 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등 공터로 대피한다.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우리나라의 산불은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 봄, 가을에 등산을 가거나 단풍놀이를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가스레인지 같은 화기를 절대로 가지고 가지 말아야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수백 년 지켜온 숲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남는 것은 새까만 잿더미뿐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숲,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 예방이다.

동두천소방서 생활안전담당 권순성 [2010-10-01]

11. 기상예보의 수준을 높여줄 친구, 천리안위성



지난 6월 27일, 우리 대한민국의 시선이 남 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꾸르 발사장으로 향했다. 네 차례의 발사 시도 끝에 하늘 높이, 우주공간까지 치솟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상위성 천리안은 현재 적도 약 36,000km 상공에서 본연의 업무에 돌입했다.

드디어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기상위성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중심의 위성영상을 손에 넣게 된 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에 이어 일곱 번째로 대한민국은 독자 기상위성 보유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천리안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 통신·해양·기상 위성으로 개발되었기에 3가지 탑재체별로 활용하는 주관국 역시 3군데(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위성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통신위성센터)에 이른다. 이

중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지난 7월 12일, 천리안으로부터 첫 가시영상을 수신하는 데 성공했고, 8월 17일에는 첫 적외영상까지 수신함으로써 본격적인 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섯 채널의 모든 영상을 획득하였다.

안개, 황사, 태풍의 바람 정보, 구름의 온도와 높이와 같은 대부분의 기상 요소는 두 개 이상의 채널을 동시에 이용해야만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외 영상 수신에 성공은 그 의미가 크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한다. 다른 동물들은 누가 이기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늘을 날 수 있는 부엉이와 참새가 이 둘의 경주 상황을 중계해준다. 그런데 게으른 부엉이는 30분에 한 번씩 날아올라 경주를 중계하고, 부지런한 참새는 8분에 한 번씩 날아올라 경주를 중계한다고 한다.

과연 누구의 중계가 더 빠르고 정확하며 도움이 될까? 정답은 당연히 참새다. 30분보다 8분 간격으로 중계하는 참새가 부엉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그것도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현재 기상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기상위성자료는 30분 간격으로 수집되는 외국의 기상위성자료이다. 앞서 말했던 이야기 속의 부엉이와 같은 존재이다. 하지만 천리안은 30분 간격이 아닌 15분 간격, 위험기상 시 8분 간격으로 위성자료를 제공해준다. 천리안은 바로 참새와 같은 존재가 되는 셈이다.

장미는 물론 태풍,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안에 국지적으로 많은 비를 내려 우리나라 곳곳에 재해를 야기한다. 바로 이러한 위험기상이 도래할 경우 천리안은 기존의 외국 기상위성보다 빠르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정확도 높은 기상예보를 가능하게 함은 물론, 국민들이 기상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드넓은 우주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통신과 해양, 그리고 기상분야의 각종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외로운 친구, 천리안. 이를 운용하는 각각의 위성센터와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수혜자인 우리 국민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제2호, 제3호의 천리안이 발사되는 그 날까지 이 시각에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천리안위성이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해본다.

동두천기상대장 김병규 [2010-09-03]

12. 지금이 바로 그때



‘지금이 바로 그때’란 유머가 있다. 하루는 강물이 넘쳐 마을이 물바다가 됐다. 독실한 신자는 지붕 위로 올라갔다. 보트를 탄 사람이 오더니 신자에게 타라고 했다. 그러자 신자는 “고맙지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겁니다.”라고 말했다.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또 보트를 타고 지나

가다가 신자를 보고 타라고 했다. 그러자 신자는 또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겁니다.”라며 사양했다. 마침내 수위가 너무 높아져 신자는 익사하고 말았다.

천당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자 신자는 “저를 돌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니까?”라며 불평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다.

“내가 보트를 두 번이나 보내줬잖아!”

이 유머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이 바로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인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그때 무엇을 할 것을...’하고 후회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나서 뭘 할까?’ 생각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노후 생활을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에만 머물러 있고, 공부를 하고 싶으나 나이 탓만 하다 한 살 더 먹은 후 지나간 시간을 다시 후회하고, 친구와의 갈등에 있어서도 먼저 말을 건네지 못해 더욱 더 골이 깊어지는 등 정말 중요한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학생으로 계속 남아 있어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폭삭 늙기 시작한다.”라고 한 셰익스피어의 명언을 되새기며 2010년, 어느새 50대 중년의 나이로 들어선 나는 인생의 새로운 준비를 시작했다.

작년 수능의 고배를 마시고 재수를 하고 있는 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랑스러운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나만의 인생 내비게이션을 달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로 마음을 먹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내비게이션은 처음 가는 길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설사 가는 길이 틀리더라도 재수정 안내를 해 안심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듯이 나도 나만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달고 달리다 보면 좁은 도로도 만나고

딱 막힌 길도 만나겠지만...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열심히 달려갈 것이다. 나만의 내비게이션은 공직생활 30년 동안 갈고 닦은 업무의 노하우를 밑거름 삼아 감성 서비스 분야를 전문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며 강의하는 모습이다.

인생의 목표, 꿈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내딛는 사람과 무작정 살아가는 사람과는 분명 차이가 날 것이다. 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 채워가는 사람에게는 훗날 행복한 가정, 여유로운 삶이 보장되지 않을까 싶다.

혹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한 톨스토이의 명언을 간혹 잊고 사는 것이 아닐까?

바로 지금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혹은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진정 참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도 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점검해 본다.

동두천시청 가족여성담당 최복순 [2010-08-20]

13. 개고기 미식(美食)인가? 야만인가?



개[犬]들에게 수난의 계절인 초복(初伏)에 이어 중복(中伏), 말복(末伏)이 되면서 뜨거운 여름의 더위는 절정에 달할 것이다.

복(伏)자를 살펴보면 사람 인(人)자에 개 견(犬)자를 같이 붙여놓은 것이 었드릴 복(伏)자가 됐다. 복날은 뜨거운 열기에 눌러 음기가 었드려 있는 것이며 오행설에 따르면 여름은 불

화(火)의 기운이며 가을은 곡식이 익어가는 무계로 금(金)의 기운이다. 화는 천간 지지(天干地地)로 병(丙)과 정(丁)이 금은병과신이다.

가을은 금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려다 더위에 못 이겨 었드려 복종하는 때가

삼복더위인 것이, 만물이 자라고 영글게 하는 계절인 것이다. 여름에 땀을 흘려야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이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겨울에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전해오고 있다.

인류역사 자료에 의하면 인간은 구석기부터 사냥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개와 가장 친하게 지내왔다. 개만큼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동물은 다시 없다. 개는 사람을 배신하는 법이 없고 한 번 주인을 섬기면 부족해도 주인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개를 언제부터인가 인간들이 잡아먹기 시작함으로써 보신용으로 둔갑했다.

우리의 개고기 식용 유래는 고구려 벽화에 등장하는 개 잡는 장면을 역사적 근거로 삼아 짐작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결같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인 것이다.

고대 중국 진나라의 황제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사신들을 우리나라에까지 보낸 적이 있다. 우리 생활의 기본은 먹는 문제다. 먹는 문제는 사람의 육체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인류 초기에는 원시인들이 산과 들 그리고 강에서 식물채집과 물고기 사냥과 같은 방법으로 자연에서 생산되는 것을 먹고 살았으며 그 후 신석기시대에 소, 돼지, 닭, 개를 키우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기서 얻어낸 축산물을 음식으로 사용하여 익혀 먹기 시작했다. 음식과 식생활 풍습은 지리적 기후에 따라 생산종류가 다르고 입맛의 느낌은 생활풍습이 된다.

복날에 개고기를 먹는 까닭은 여름철에 더운 기운이 강렬하기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엎드려 기운이 쇠하기 쉬운데 이때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 개장국을 먹었다 한다.

기를 돋운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더위를 이기고자 하는 뜻으로 보신을 했다는 것이다. 조선 후기 『동국세시기』에는 개를 삶아 파를 넣고 푹 끓인 것을 구장이라고 하며 여기에 죽순을 넣으면 더욱 좋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먹고 나서 땀을 흘리면 허한 기운을 보충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외과 의사들도 수술한 환자에게 개고기를 권한다. 회복기간이 빠르다는 것이다.

개고기는 무기질 가운데 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한다. 인이 근육이나 간, 내장 순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어 당 대사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비타민의 보조 효소 역할에 칼슘 함량은 다른 고기에 비해 세 배나 높다고 한다. 중국교포들은 개고기가 중풍을 예방한다고 해서 즐겨먹고 있다.

개고기에 대해서는 한국인 사이에도 찬반양론으로 각기 입장 차이를 현저하게

보인다.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개고기를 전통 보양식이나 식육으로 인정하는 반면 개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먹어야 할 이유가 없는 혐오식품으로 이해한다.

예부터 내려오는 한국의 식용개는 애완견이 아니다. 식용견이며 비육견이다. 한국에는 본래 애완견이 없었으며 개 역시 가축의 하나로 인정하고 살아 온 것은 한국이나 중국 등 동양인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생활 습성이었다.

정부에서는 한때 88올림픽을 치르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에 따라 개고기를 팔지 못하게 했고 보신탕이란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보신탕'은 일단 사라졌다. 다만 보신탕이 사라진 대신 영양탕과 사철탕이란 이름이 등장한 것이다. 그만큼 개고기 먹는 관습이 집요하게 살아남아 어쩌면 그 이후로부터 해마다 개고기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운용지침에는 개고기와 개소주가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조리 판매를 금지하는 식품군에 들어있으나 그것은 조항 속의 사문서일 뿐 단속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허가 없이 소·도매상에 공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람의 항고심 공판에서 현행 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사회 통념상 개고기도 식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개고기 도매업자들이 신고 절차 없이 영업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만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1999년 9월 17일 김홍신 의원을 포함한 17명은 개를 축산물가공법상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켜 개고기 유통을 합법화하고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공급하게 하라는 축산물가공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같은 해 9월 27일 국정 감사 자료에서는 개고기는 혐오식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농수산부 역시 개고기 식용 법제화는 외국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대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시 88올림픽에 이어 2002년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 여론 무마용 차원에서 법제화를 막았다.

그리고 월드컵 이후에 그에 대한 재검토를 할 것이라고 미적지근하게 미루어 줌으로써 시행 10년이 넘도록 미해결로 방치한 셈이 되고 말았다. 농림부 관계자는 개고기가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가축의 도축과 가공 등을 규정한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개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몸에 좋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오늘날의 뱀, 개구리, 노루 보신탕에 이르기 까지 건강하고 오래 사는 문제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지 않는 한 개고기 식용

문제는 논쟁거리로 언제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이명수 동두천시사 편찬위원, 전국문화원 경기지회 향토문화 연구위원 [2010-08-13]

14. 여름에는 마차산이 몸살을 앓아요



우리 동네 상봉암동(上鳳岩洞)은 본래 양주 이담면(동두천시의 옛 이름)의 지역으로 봉바위 위쪽이라 하여 웃봉바위, 윗새바위, 웃사야위 또는 상봉이라 불렀다. 우리 동네 앞산은 잘 알려진 소요산이고 뒷산은 마차산이다. 마차산은 감악산의 능선으로 동두천시의 서북쪽을 감싸고 동두천시와 연천군 전곡읍의 경계

를 가르며 솟아 있다. 마차산의 유래는 산꼭대기에 세운 정상석 뒷면에 잘 설명되어 있다. 다산(多産)과 풍요로움을 베풀고 하룻밤 사이에 돌로 성을 쌓기도 하는 삼신할머니(마고할매)는 세상만사를 어우르는 분이다. 실 때는 이곳 수리바위 위에 앉아 옥비녀와 구슬을 갈고 매무새를 고쳤다는 전설에서 갈 '마(磨)', 비녀 '차(叉)'를 붙였다고 한다. 그리고 정상에는 산성 흔적이 있고, 봉화대로 쓰였다 하며 주변에는 군사시설이 있어서 예로부터 군사 요충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여기까지는 밖에서 정리해 본 우리 뒷산 이야기이다.

내게 마차산은 말 그대로 동네 뒷산이다. 마음만 먹으면 아이들 손 잡고 금방 갈 수 있는 가깝고 편안한 곳이다. 오가는 사람이 적어 아직 자연 그대로의 모습 많이 남아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봄이면 오동나무, 등나무, 밤나무 꽃 대궐을 이루고 가을이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밤이 떨어지는 먹을거리 많은 산이다. 금방 정다운 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품이 넓은 산, 흙(살)이 두툼한 산, 계곡 물이 얼음처럼 시원하고 맑은, 물이 깊은 산이다. 이런 마차산이 전철이 소요산까지 들어오면서 외부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인터넷을 열어 '마차산' 하고 찍어 보니 여러 산악회나 산을 소개하는 잡지에 갈 만한 산으로 얘기를 많이 해놓았다.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어지간히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다 다녀가는 것 같다.

사실 점잖은 등산객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름 한철 막무가내인 피서객

들은 말릴 수가 없다. 지난 주 일요일에 모처럼 아이들과 마차산에 갔는데 계곡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꼭 들어차서 시끄러웠다. 계곡 옆에 텐트를 치고 아예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며칠씩 묵어가는지 줄을 쳐서 이불이며 옷가지를 널어놓고, 큰 양은솥을 걸어놓고 보신탕을 푹푹 끓이고 있었다. 물가 바위 위에는 치약, 비누, 샴푸, 주방세제 등을 다 늘어놓고 쓰고 있었고 그 아래 조금 한적한 숲에는 여기저기 퐁 투성이었다. 위쪽에서는 삼겹살을 굽느라고 냄새가 진동하고 옆쪽에서는 라면을 끓여서 맛있게 먹고 있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옆에는 쓰레기더미가 쌓여서 썩는 냄새가 많이 났다. 마차산이 사람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오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 내가 힘 없는 방관자여서, 큰 소리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없어서였다. 그러나 내가 힘이 없더라도 힘을 쓸 수 있는 곳에 말을 하고 싶다. “우리 뒷산을 좀 살려주세요! 산이 힘들어해요.”라고, “부디 공중화장실이라도 몇 개 설치해서 관리해주세요!”라고, 야영할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만들어 달라고, 소요산만 산이 아니라고, 눈에 보이는 곳만 단장하지 말고 속에서 끓고 있는 상처를 좀 돌봐 달라고 마차산을 대신해서 말하고 싶다.

세상에 마차산이 알려지는 속도에 발 맞추어 10분의 1이라도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양주 · 동두천신문사 문두래 주부명예기자 [2010-08-13]

15. 동두천, 이동신문고를 다녀와서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8일 오세창 시장님과 시청 직원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이동신문고를 잘 마칠 수 있었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이하 동두천시 여러분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행사를 원만하게 치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양주시 하폐리 환경오염(악취) 문제는 동두천시는 물론이고 경기도, 양주시 등 관계자, 동두천시 아파트 피해 주민, 양주시 양돈농가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해 얼굴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서로 간의 고충을 이해하고
상생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
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몸이 힘들기는 했지만, 자그마한
지역 현안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도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는 지역 주민들을 대하니
행사 내내 마음이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시장님께서 이동신문고를 통해 문제 제기를 잘
해주시고 사전에 주민들을 이해·설득하신 것이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
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국민들의 고충이나 이 사회의
부패 문제의 예방과 해결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과 철학을 갖고 많은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이번에도 생활현장의 고충을 몸소 이해하고 이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열망하며, 동두천시 주민 여러분들의 고충을 듣고자 지역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동두천시에서 제기된 건의나 민원 사항은 관심을 갖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두천 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인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볼 생각입니다.

아울러 양주시 하패리 환경오염(악취) 문제는 우리 위원회가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하패리 양돈농가, 동두천 신시가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 밖에 다른 건의나 민원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오세창 시장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 [2010-07-09]

16. 우리의 요구

친애하는 오바마 대통령께

여성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당신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당신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들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미군기지촌에서 성매매를 경험했던 여성들입니다. 우리들은 인신매매되어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수십 년간의 이러한 경험은 우리들의 삶에 가난과 질병을 남겼습니다.

동료들이 질병과 자살, 범죄 등으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수없이 지켜보면서 결국 우리들은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겪었던 고통의 이유를 밝히고, 정당한 사죄와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기지촌의 군대 성매매에 직접 개입하여 기지촌여성들을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억압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까지 주한미군 당국은 '미군의 건강과 안락함'을 위해, 직접 기지촌성매매에 개입했고, 기지촌여성들의 몸과 자유를 억압했으며, 합부로 우리들을 감금하고 강제로 치료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 범죄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이고, 그 고통은 명백하게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우리들은 미군을 상대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지촌여성이라고 불리면서 지금까지 소외되고 외면당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우리가 당한 고통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통령께 다음과 같이 호소하는 바입니다.

첫째, 미국정부와 미군당국은 우리들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며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정부와 미군당국은 우리들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셋째, 미국정부와 미군당국은 우리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넷째, 다시는 이러한 고통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당신의 노력과 연대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한국 기지촌 성매매 생존 여성 73명의 메시지[2009-12-11]

17. 공정한 분양 전환을 위한 청원서를 접수하며

동두천 신시가지는 현재 1만 658세대의 아파트 중 약 80%인 8,424세대가 주공과 부영의 임대아파트입니다. 그 어느 도시보다 임대아파트의 비중이 높고, 그만큼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부영 임차인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싣고, 2003년에서 2004년 청약 통장을 쓰면서까지 입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부영은 2008년 9월 부영 3단지(32평형)에 대한 분양전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1억 4,000만 원의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도 없이 동두천시에 신청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주공 5단지는 9,600만 원 전후로 분양전환되었습니다. 3단지를 비롯한 2009년 중하반기 분양전환 예정인 9단지, 1단지 부영 입주민들은 어안이 병병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이 없는 법이 만들어지고, 임대주택 활성화라는 이름 아래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 완화조치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영 임차인들은 2003년, 2004년 입주계약 시 이런 내용은 듣지도 알지도 못했고, 또한 분양전환가격에 대해 그 당시 부영 직원들에게서 단지별로 약간 상이하지만 “주공보다 많아야 몇 백만 원 또는 초기 예정분양가보다 몇 백만 원 높을 수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부영에서 감정평가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지난 10월 7일 대통령께서는 결연한 의지로 “서민과 집 없는 사람을 위한 서민주택을 투기에 이용한다면 그는 사회적 공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임대주택법의 맹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임대사업자 또한 우리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공적이 될 수 있기에, 그 행위를 방지시킬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동두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에 산재한 임대 아파트 (소위 분양전환가 산정 완화조치 단지)들이 내재한 시한폭탄과도 같은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고, 5년 후 10년 후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 임대주택법인데, 어찌하여 그 법으로 인해 우리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고, 가정의 행복을 위협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에 분양전환 예정인 동두천 부영 입주민 1,892명의 서명을 담은 진정서를 청와대, 국회, 국민권익위, 국토해양부에 2009년 10월 16일자로 발송하였습니다.

분양가 산정에 최소한의 기준도 없는 이런 비현실적인 현실에서 분양전환가 산정 완화조치 단지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에서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가장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행복과 건강권 수호를 망각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심동용 '공정한 분양을 위한 동두천부영연대모임' 9단지 회장 [2009-10-30]

18.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행복한 송내동



청명하고 푸른 하늘과 맑고 상쾌한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 이제 계절은 가을의 문턱을 지난 것이 완연하다.

우리 송내동은 택지개발과 전철개통 등으로 빠르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7년 5월 14일 불현동에서 지행동의 일부와 송내동

전체를 관할하는 행정동으로 분동되었다. 이후 11개 아파트 단지에 25,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교육청, 소방서, 각종 금융기관, 각급 학교가 밀집되어 있다. 또한 대규모 상업지구가 형성되어 지금은 동두천시 발전에 큰 축을 담당하면서 우리 동두천시 발전에 상징적인 지역이 되었다.

하지만 주민 대다수가 외지에서 이주해온 분들이고 도시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로 인한 행정의 어려움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 송내동주민센터 직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7개 산하 단체와 함께 주민과 동주민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함께 호흡하며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행복한 송내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16개 과목 21개 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매월 1회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마을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수잔치를 열어드리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무료 영어교실 운영과 여름방학 체험캠프 참가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다만, 주민들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하면서 단결된 마을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준비해온 마을축제가 신종 플루의 영향으로 최근 무산된 점은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은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봄과 가을에 감자와 배추, 콩 등을 재배하여 이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에서는 휴일 가로청소 활동을 통해 지역의 거리를 밝게 만들고 있다. 이밖에도 모든 단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 송내동은 주민과 동주민센터, 그리고 7개 산하단체 모두가 합심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송내동 최만옥 동장 [2009-10-16]

제4절 동두천의 시장 풍경

1. 쇠락의 길 걷는 동두천 ‘양키시장’

보산동 관광특구도 내리막..미군들은 줄고 시대도 달라졌다.

“수입제품을 시중에서도 손쉽게 구하게 되면서 미군용품이나 미제가 갖는 메리트가 확실히 줄었죠. 시대적 흐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습니다.”

18일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양키시장으로 더 잘 알려진 애신시장을 찾았다. 한국전쟁 후 미 2사단이 동두천에 주둔하면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미군용품 매매시장이다. 100여m 되는 시장길 양쪽으로 ○○주류, △△만물과 같은 간판을 단 상점 10여 곳이 띄엄띄엄 있었다.

가게 바깥 진열대에는 미군이 신을 법한 베이지색 군화와 군복을 비롯해 야외용 바비큐 그릴과 아이스박스 같은 캠핑용품, 수입 맥주 박스가 눈에 띄었다. 한 상점에 들어가니 간이집대, 야전삽, 수통, 군용식량 등 각종 군용품부터 수입 양주와 맥주, 향수, 로션, 초콜릿, 스낵, 통조림, 머핀까지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다양한 품목이 뽁뽁하게 진열돼 있다. 상점을 8년째 운영 중인 주인 김병하(83) 씨는 “평일에는 손님이 많이 오면 20명 정도인데, 주로 식품류를 찾는다.”라며 “이제 수입식품 코너와 마찬가지로”라고 말했다.



1960~1970년대 이곳은 미군이 내다 팔거나 부대에서 흘러 나온 물품들로 가득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라 미제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물건을 사고자 찾아온 내국인들로 시장은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공산품 수입이 자유롭게 되면서 상황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미군의 물품관리시스템도 엄격해져 부대에서 나온 물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많이 줄었다.

또 다른 상점 주인 황재환(47) 씨는 “수입이 다변화되면서 대기업들이 웬만한 수입품을 다 취급하다보니 가격 경쟁에서 밀린다.”며 “매출이 5년 새 급격하게 떨어져 이제 20~30% 수준을 밑돈다.”고 말했다.

주인과 말을 나누는 동안 손님이 간간히 들어와 군용침대나 아이스박스 같은 제품 가격을 묻고 나갔다. 황 씨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양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여기 있는 가게 대부분이 앞으로 3~4년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씩씩한 미소를 지었다.

양키시장은 미군 공여지가 43%를 차지하는 동두천의 비극적인 역사의 산물이다. 마땅한 생산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불법인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장사에 나선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런 사정은 캠프 케이시 앞에 있는 보산동 관광특구도 비슷하다. 이곳에는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클럽과 의류점, 음식점 등 업체 350여 곳이 모여 있다. 미군기지 이전이 확정되면서 흥망의 갈림길에 놓였다. 지나가는 개도 달리를 물고 다닌다는 농반진반의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한동안 번성했던 이 지역 상권은 미군들이 빠져나가면서 쇠퇴하기 시작했다.

1만 2천 명에 이르렀던 미군은 2004년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계속 줄어 현재 4천~5천여 명 가량이다. 2007년 경원선 전철이 개통되고, 평일과 주말 귀대시간이 사라지면서 그나마 있는 미군들도 이태원이나 용산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허모(53) 씨는 “여기는 IMF 경제위기도 비껴갔던 곳”이라며 “환율이 1달러당 1,900원까지 치솟아 한 달 장사만으로 두세 달 치 가게 세를 벌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허 씨는 “지금은 매출이 5년, 6년 전보다 10분의 1 수준”이라며 “생계유지가 어렵지만 자본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기지가 반환되어 개발되려면 최소 5년이 걸릴 텐데 그때까지 상인들의 생계는 막막할 것 같다.”라며 “그렇지만 기지 이전은 빨리 돼야 한다.

그동안 동두천의 희생이 너무 컸다.”라고 말했다.

옛 명성이 바랜 생연동 양키시장과 보산동관광특구는 역사의 흐름을 타고 있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중대한 기로에 선 동두천의 현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2. 동두천 ‘큰시장’



“통 크게 갑니다.”

동두천 큰시장 상인들은 5일마다 마음이 더 바빠진다. 5·10·15·20·25·30일에 5일장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이날은 아침부터 난전이 열리고, 큰시장 입구에서 동두천농협 사거리, 인근 중앙시장까지 좌판이 자리를

잡는다. 장이 개설되고 나서부터 습관처럼 반복되는 일이라 상인들은 물론 시민들에게까지 익숙한 풍경이 된 지 오래다.

지난 1960년 동두천시 생연동 698-1번지 일대에 조성된 큰시장은 부지면적 9,113㎡, 건물면적 4,860㎡, 매장면적 2,810㎡에 달해 경기북부에서는 의정부제일시장 다음으로 규모가 큰 전통시장 중 하나다. 매장 90개에 5일장까지 합치면 대략 260여 개 점포를 거느리는 셈이다.

큰시장은 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인근 지역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물물교환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설된 곳으로 현재는 채소, 과일, 고기 등 농·축산물 도소매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1차 산업의 집결지’다. 물물교환도 이어지고 있다. 큰시장과 가까운 농산물 취급 상인과 식당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물건을 가져간다. 신발, 옷 등 각종 생활용품도 취급하고 있다.

이처럼 오랜 전통의 큰시장도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시장 활성화 사업을 펼쳐왔다. 23억 3,800만 원을 투입해 진입로를 확충하고 시장 입구 쪽에 54면 크기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했다. 주차장 옆에는 2억6,500만 원을 들여 60여 평짜리 저온창고를 건립했다. 저온창고는 상인들의 공동물류창고로,

상품 특성에 맞게 6개 구역으로 나눠 자동으로 온도를 맞춘다.

또 8억 원을 들여 아케이드 사업을 했는가 하면, 입구에 대형 아치간판을 설치하여 ‘큰시장의 위상’을 뽐내고 있다. 40여 평 규모의 고객사랑방을 어린이놀이방, 유아수유실, 수다카페 등으로 꾸며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소기업청, 경기도, 동두천시, 상인 자부담 등 총 36억 3,300만 원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쓰였다.

올해는 20억 원으로 폭 15m 크기의 반아케이드를 큰시장 입구에서 동두천농협 앞까지 뻗곡히 들어선 상점가 200m 거리에 설치한다. 지금은 설계 중이며, 오는 11월이면 공사가 끝나 새로운 거리 풍경을 연출할 계획이다. 상점을 리모델링하고 간판을 정비하며 새롭게 디스플레이 작업을 덧붙여 한다.

11년째 ‘과일촌’을 운영하며 2008년 4월 큰시장상인회 회장 겸 동두천시 전통시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백광현 씨(49)는 “다른 전통시장의 경우 먼저 간판 등 겉을 바꿨지만, 우리는 상인들이 꼭 필요한 저온창고나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주차장 등 내부를 우선적으로 마무리했다.”라며 “올해 반아케이드가 설치되고, 시장에 아치형 고객 쉼터를 조성하면 머지않아 큰시장은 과거처럼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광현 회장은 시설현대화 말고도 상인들의 의식개혁에 열정을 쏟고 있다. 상인회 사무실에 상인들을 위한 컴퓨터교육실을 상설 운영하는가 하면 3월 11일, 17일 등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상인회 사무실이 곧 교육장이다. 이어 4월에는 시장경영지원센터 도움으로 제2기 상인대학을 진행한다. 의욕적인 신청으로 까다로운 상인대학에 선정된 것이다.

“동두천 큰시장, 이름값 하겠습니다.”

큰시장은 이름처럼 통 크게 나가고 있다. 빼박하게 보면 경쟁상대이겠지만, 바로 옆 세아프라자(상가회장 양순중/의류, 완구, 전자, 신발, 문구, 식료품, 화장품, 제과, 스포츠용품, 수입상품 등 각종 생활용품)와 공설시장(상인회장 홍만표)을 시장활성화를 위한 진지한 동반자로 삼는다.

특히 공설시장은 세아프라자가 1993년 설립되면서 그 자리에 있던 상인들이 옮겨 개설한 곳으로 과일, 채소, 건어물 등을 취급하여 품목 경쟁이 되는데도 식구처럼 손을 잡았다.

여기저기 공동상권임을 홍보하고 있고, 더 나아가 공동쿠폰(고객센터 031-859-1233)을 발행하여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 쿠폰은 점포에서 물건

을 사면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배부하는 것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상인회에 서는 현금으로 바꿔주기도 한다. 공영주차장 이용료로도 사용한다. 쿠폰에 고객이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놓으면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열어 경품을 나눠준다.

여기에 5일장까지도 아우른다. 품목이 상당히 겹치지만, 5일장 상인들의 생존도 중요하다. 백 회장은 이를 두고 '적과의 동침'이라고 했다. "경기북부 최대 규모의 5일장이 큰시장을 알리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두천시가 구역을 정확히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아프라자든 공설시장이든 5일장이든 마찰이 생기면 다 죽는 거예요."

경칩인 3월 5일. 봄을 재촉하듯 낮 1시경부터 비가 내렸다. 오전 10시 30분경 첫 개시를 한 5일장 신발 상인 강용희(52) 씨는 "이 시간이면 예전에는 10결레 정도는 팔았어요. 비 오기 전에 많이 팔면 좋겠는데..., 우리네는 잘 될 때도 몸으로 받아들이고, 안 될 때도 몸으로 받아들이요. 매사 낙천적으로 살아야죠. 어느 전통시장이건 상인회와 5일장 노점상들이 마찰을 빚으면 장사가 잘 안돼요." 라고 말했다.

3. 활기가 넘치는 '중앙시장'



중앙시장은 그 이름 그대로 동두천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 동두천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재래시장이다.

교통과 상권의 요지인 중앙시장은 1967년 하나둘씩 모여들여 장사를 시작한 상인들을 주축으로 자연스럽게 형

성됐다. 지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민들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일상터전인 셈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유지해온 만큼 한 차례의 위기도 있었다. 당초에 (주)삼화의 조용호 사장이 시장을 개설해 운영해오다가 지난 1994년 전기누전에 의한 대

형화재로 인해 중앙시장 전부가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으며 그 사건 때문에 (주)삼화는 시장 허가를 취소해 그 후 10여 년간 무허가로 운영해오다 2002년 중소기업청의 시장경영지원센터 개설과 각종 지원을 계기로 2005년 10월 동두천시로부터 재래시장 인정을 받게 됐다.

중앙시장은 정부로부터 수십억 원의 지원을 받아 캐노피 공사, 고객사랑방, 주차장, 물류창고, 화장실, 회의실 등을 새로 개설하고 한마당 축제를 여는 등 현대식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했다.

현재 200여 개의 상점이 들어서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175개 상점이 운영되고 있다. 또 비, 눈이 오나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장꾼들의 활기가 가득한 중앙시장이다.

시장에는 길이 330m의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주부 수다가페, 수유시설, 어린이놀이방, 무인 민원발급기, 컴퓨터 등을 갖춘 고객사랑방이 운영되고 있다. 동두천중앙시장상인회는 재래시장상품권 발행(연 2회), 경품행사 개최(연 6회), 한마음축제 등의 고객유치 이벤트행사(연 6회), 무료 법률·세무상담 활동과 무료 컴퓨터강좌 등을 여는 등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06년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전국 1,700여 개 재래시장 중 시장의 위치, 상인들의 시장 살리기 노력, 공동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해 성적이 우수한 시장 25곳을 시범시장으로 선정했는데 이때 동두천 중앙시장도 시범시장으로 지정되었다. 시범시장 선정 혜택으로 상인대학 교육경비를 지원받았고, 상인들은 유통환경변화, 의식혁신, 친절서비스, 상품디스플레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상인대학 경영혁신교육을 받은 바 있다.

중앙시장 주변에는 생연로 '음식문화거리'가 있으며, 전통 깊고 입소문 난 순댓국거리, 만둣국거리가 생겼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품목을 만나 볼 수 있다.

4. 동두천 세아프라자

“우리도 할 수 있다.”

‘상인회 주축 상인대학 운영 등 상가 부흥 매진’



지난 1993년 3월 19일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809번지에 매장면적 1만 7,461㎡, 점포 수 364개에 이르는 경기 북부 유일의 현대식 최대 복합 상가로 문을 연 세아프라자.

개장 당시 의류, 완구, 전자, 신발, 문구, 식료품, 화장품

등 거의 모든 일상 용품을 취급하는 생활백화점으로 동두천의 유통 현대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세아프라자가 요즘 ‘옛 영화 부흥’을 꾀하고 있다.

시설 노후화, 인근 중대형 할인마트 등장,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2009년 3월 20일 현재 점포 수가 60여 개를 넘지 못하고 있지만, 상인들의 바람은 한결 같다. “과거처럼 잘 나가던 세아프라자의 명성을 되찾겠다.”라는 의지가 바로 그것.

올해 2월 17일 세아프라자 상가상인회 회장으로 취임한 양순중(65) 씨는 “어려운 경제 여건이 우리 상권까지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영향을 미쳐 상인들의 고통이 많지만 이제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연천군 초성리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때 동두천으로 피난해 성장한 뒤 ‘홍신상회를 차려 20여 년째 고추를 팔고 있는 양순중 회장은 현재 경기도의용소방대연합회 부회장, 경기도의용소방북부연합대 회장, 동두천시의용소방대 대장까지 맡고 있다. 양 회장은 지난해 12월 사단법인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로부터 봉사 5만 시간을 달성한 인증서를 받기도 했다.

이같이 몸에 밴 봉사정신을 통해 다른 시장과 차별화된 ‘세아프라자 상가봉사단’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에 동참하고 있다. 또 인근 모랫말경로당, 신천경로당, 세아경로당, 건영경로당 등을 찾아가 선물도 드리고 시장 이용을 부탁한다. 20% 할인쿠폰을 경로당에 3천여 장 배부할 계획도 세웠다. 빈 점포에는 학원이나 휘트니스센터 등을 끌어들여 고객 유치를 유도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1993년 개장 때부터 지하 1층에서 널찍한 수입상품전문점인 ‘하경수입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설광숙(60) 사장은 “개장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문을 열지 않은 적이 없다.”라며 “이전에는 정말 잘됐는데 요즘은 경기가 너무 침체됐다.”라고 힘들어했다. 수입산 식품, 그릇, 술 등을 취급하는 설 씨는 “지하

빈 점포에 헬스장을 만들면 좋겠다.”고 시장 활성화 방법을 제안했다.

2층 대부분을 가구전시장으로 사용하며 핀란드아, 쏘미테, 상일리베가구 등을 취급하는 ‘월드선가구’ 최현철(40) 사장은 “이제 봄이 되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좋아지겠죠.”라고 말한다. 1년 6개월 전 세아프라자에 입점하면서 동두천에서 제일 큰 전시매장을 운영하게 된 최 씨는 “우선 고객들의 소비심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며 “이사가 많으면 장사가 잘된다.”라고 설명했다.

세아프라자 개장 때부터 가전제품과 유아용품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은정사’ 유옥례(57) 사장은 “언제까지 견디느냐가 문제”라면서도 “언론 등에서 힘들다 힘들다 떠드니까 경기가 더 위축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 씨는 “더 무너지지 않았으면 한다.”며 “언론이든 정부든 서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달라.”고 당부했다.

시설이 낡아 아무래도 세아프라자 내부는 어두운 느낌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은 친절을 승부수로 띄운다. 11년째 화장품매장인 ‘지선화장품’을 운영하는 이영숙(51) 사장은 “같은 상품이어도 시설이 어두워 다른 곳보다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단점이 있다.”며 “그러나 점포주들이 아주 친절하고, 다양한 물건을 원스톱으로 쇼핑할 수 있는 우리만의 장점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려 한다.”고 말했다.

6년 전 세아프라자에서 우수 중소기업·벤처기업 상품전을 진행하다 고무장갑, 그릇 등을 단돈 900원에 파는 ‘DC마트 천냥코너’를 차린 엄재경(44) 사장은 “상인들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상인회 총무이기도 한 엄 씨는 “상인 간 화합과 신뢰가 세아프라자 발전의 밑거름”이라며 “세아프라자 상권 부활에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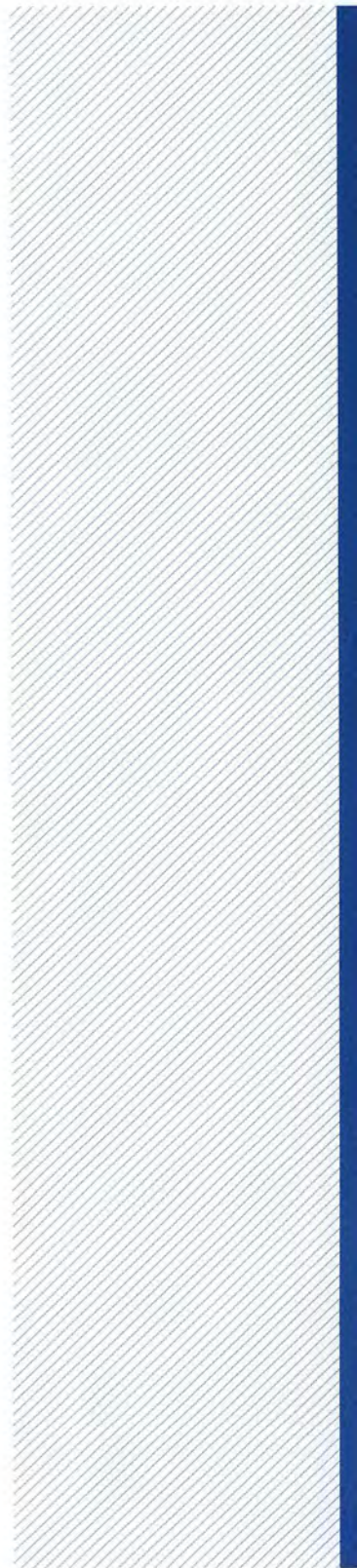
세아프라자상가상인회의 화두는 ‘변화’다. 상인회는 시설 현대화를 위해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급한 대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해 동두천시를 통해 9억 7천만여 원을 신청했다. 고객들에게 여유로운 쇼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생활백화점’이라는 ‘권위’를 버리고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바로 옆 큰시장, 공설시장 등과 손을 잡았다. 동두천시전통시장협의회에 가입하여 할인쿠폰을 공동 발행·사용하고 있다. 4월 13일부터 6월 말까지는 큰시장, 공설시장 상인들과 함께 시장경영지원센터 도움으로 제2기 상인대학을 운영한다. 상인들의 경영마인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또 지역사회와 문화예술로 함께 호흡하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3월 5일 1층에

세아갤러리를 오픈했다. 세아갤러리는 한국장애인미술협회 고문, 한국미술협회 서양화 이사, 경기미술협회 남북교류위원장, 동두천예총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는 방두영 화백이 운영하는 동두천 최초의 미술 전문 전시장이다.

양순중 회장은 “인근 300여 세대 해가인아파트가 완공되고, 시설 현대화가 진행되면 상권이 살아날 것”이라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제5절 동두천 신앙 현장

1. 행복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신광교회'

동두천에서 최고의 교회라는 명성을 가진 신광교회 이현구 목사와 3,500여 명의 등록교인들은 성실하게, 된 것보다 될 것을 바라보며 지역사회에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그 현장을 찾았다.

지역의 소외계층에 봉사활동 펼쳐

신광교회가 소외된 노인 등 이웃 돕기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항상 준비된 신광교회 식구들은 매주 화요일 '사랑의 무료식탁'을 열어 지역의 모든 이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머무를 곳도, 직업도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고 의료비를 지원하며 직장도 알선해주는 외국인근로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미용 및 의료 봉사, 명절에는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민속잔치 등 한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낯선 타국의 생활이 외롭지 않도록 형제가 돼주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는 신광교회

신광교회 내부적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호사와 요양사 등 7명으로 구성된 노인보호센터 '행복한 사랑방'은 19명의 노인을 매일 모셔오고 모셔다주며 건강관리와 더불어 적적함을 덜어주고 있다. 이뿐만이 아

니다. '사랑부'는 50명의 교인들이 맨투맨 형식으로 거동이 불편한 발달장애인들을 자식 같은 마음으로 돌보며 늘 함께 지내고 있다.

또한 장애인쉼터 건립을 위한 '열린음악회'도 매년 12월 개최하고 있다.

지역 초·중·고교에 장학금 전달, 해외선교사업 활발히 진행

2010년 전반기에는 청소년선도와 올바른 교육을 위해 지역의 20여개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후반기에는 타 교회와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신광교회는 세계에 예수의 사랑과 따뜻한 한국의 정을 알리기 위해 중국, 필리핀, 러시아, 폴란드, 코스타리카 등 전 세계에서 선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매년 선교사들을 파견하고 있다.

올해 3월 양주 새 성전으로 이전

신광교회는 양주와 동두천 두 지역을 아우르기 위해 양주시 은현면으로 동지를 옮긴다.

이현구 목사는 “성전의 규모가 지금보다 커지는 만큼 더 넓은 지역의 많은 소외계층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에 굶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 교회 책임이다”는 신념과 열의를 지닌 이 목사와 식구들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이란 모토에 걸맞게 오늘도 몸예뻔 나눔과 섬김 실천으로 이웃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전하고 있다.

2. 새한교회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대한예수교장로회 새한교회는 지난 13일 상패동주민자치센터를 방문,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한 성금은 새한교회의 교인들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지난 1년여간 동전모으기운동을 통해 틈틈이 모아온 것으로, 크지 않은 교세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이날 성금을 기탁한 윤장한 목사는 “유난히 추운 올 겨울이 어려운 이들에게

더욱 부담이 될 것 같아 걱정이다.”며 “크지 않은 나눔이지만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패동주민자치센터는 이날 기증받은 성금을 전액 재래시장상품권으로 교환, 어려운 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3. 동두천경찰서, 성탄 축하 예배 드려



동두천경찰서는 12월 23일 3층 강당에서 직원 및 경목위원회(위원장 소망교회 권순익 목사) 위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성탄절 축하예배를 드리고 지역치안 안정을 도모했다.

이날 행사는 지승우 목사의 기도를 시작으로 사인중창단의 특송, 권순익 위원장의 ‘큰 기쁨, 좋은 소식’이라는 주제의 말씀과 윤동석 목사의 축도로 이어졌으며, 좋은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오동욱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탄절을 맞아 민·경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며 앞으로의 더 큰 발전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며, 2011년에도 동두천의 치안과 발전을 위한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였다.

북부시민신문 2010-12-28

4. 동두천경찰서 경승위원회 1주년 기념 법회 개최



동두천경찰서는 9월 9일 3층 강당에서 각 과장, 계·팀장, 파출소장 등 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승위원회 1주년 기념 법

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법회는 용하스님의 개식을 시작으로 경승위원회 위원장인 헤름스님의 축사, 발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오동욱 서장은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활동으로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민·경이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북부시민신문 2010-09-10

5. 행복전도사 '동두천시 교동협의회'

동두천시에는 민(교회)과 관(동)이 협력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교동협의회가 행복전도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교동협의회란 동두천시 70여 개 교회와 8개 동주민센터가 동별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2009년 4월 구성한 단체이다.

특히 위기가정 무한 돌봄과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지속적인 발굴과 지원은 교회를 통해 관내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기독교 정신의 이웃사랑 실천을 동주민센터와 힘을 합쳐 체계적이며 규모 있게 추진, 주민 화합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동두천시에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교동협의회는 시민과 관이 함께 노력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단체로 자리잡았다.

주민센터별 교동협의회의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올 2월 회의를 통하여 지원 결정된 대상자 32가구에 사랑의 쌀 2kg 1포씩을 설 명절에 이웃돕기 물품으로 지원하였으며, 또한 사랑의 자장면 나누기 행사,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 시에도 물품 및 식사접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주민센터와 화합하며 상생하는 협의회가 되고 있다.

올 3월 생활이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허00 씨(청각장애 3급)를 위해 교동협의회와 연계하여 쌀과 생필품 등을 우선 지원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책정 시까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서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



협약식



지난 2월 3일 생연2동 교동협의회 회의 장면



보산동 교동협의회



송내동 교동협의회

시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10가구에 매달 쌀 1포, 라면 1박스, 계란 1판, 김 1세트씩을 사랑과 함께 전달하고 있다.

경로당 6개소와 자매결연을 맺은 보산동 교동협의회는 올 2월 설 명절에 물품을 지원하고 매월 1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사랑의 빨래봉사, 해충 방제소독, 어버이날 행사,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마을축제 등 주민 복지서비스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또한, 매월 독거노인 5세대를 선정해 매월 2회씩 가정을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드리고 청소 등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교동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10일 41년 만의 폭설로 도로에 눈이 쌓여 교통이 혼잡할 때 도로 및 보행로에 쌓인 눈을 제거하기 위하여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동협의회 회원들이 앞장서 구슬땀을 흘리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 2월에는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에게 20kg 쌀 61포 등의 물품지원도 함께하였다.

이와 같이 각 동 주민센터별 교동협의회는 2009년 4월 구성 이후 동별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종교단체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산발적, 개별적 지원 형태를 정기적이며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으며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쉽 없는 사랑의 행보를 늦추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동협의회가 생활이 어려움에도 행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웃과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주어 행복한 동두천시를 만드는 데 민과 관이 함께하는 롤 모델이 되어 지속적인 활동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와 동(洞)이 함께 이웃사랑 실천을’

북부시민신문 2010-09-08

6. 동두천 사동교회, 성금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쌀 전달

동두천시 사동교회(담임목사 임병우)는 지난 3일 성도들이 모은 성금으로 어려운 이웃돕기 성품을 구입하여 생연2동교동협의회 회의시 생연2동장에게 홀몸노인 및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달라며 성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품은 300,000원 상당의 쌀(10kg) 12포로 생연2동주민센터에서 홀로 쓸쓸하게 설을 맞이하는 홀몸노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사동교회 임병우 담임목사는 “많지는 않지만 성도들의 작은 정성이 담겨있는 만큼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적으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민선식 생연2동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민선식 동장은 “최근 경기가 어려워 이웃돕기 성금이 줄고 있으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며 생연2동교동협의회 참여 교회인 중부성결교회에 이어 이번 사동교회의 성품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북부시민신문 2010-02-08

7. 동두천시 제일감리교회, 저소득장애인에게 백미 전달

동두천시 제일감리교회(담임목사 권태호)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12월 25일 관내 어려운 장애인 50가구에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백미 20kg 50포를 기탁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제일감리교회는 동두천의 장애인협회에 요청된

명단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백미쿠폰을 배부했다.

이날 권태호 담임목사는 “교회의 작은 정성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점심을 대접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보람된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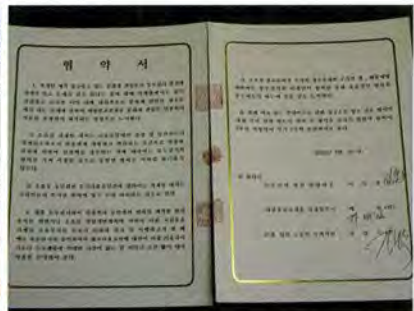
8. 자재암 문화재 관람료 폐지

동두천시 소요산 안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자재암이 소요산 등산객들에게 받아온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기로 해 3년여의 법정 공방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12일 이번 협의를 중재하고 입회한 김성수(한, 양주·동두천) 의원에 따르면 자재암과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동두천시발전연합회 관계자 20여 명은 10일 문화재 관람료 폐지 등 6개 사항에 합의했다. 협약서에는 ▲관람료 폐지 위한 조계종의 자문 요청 및 폐지 노력 ▲소요산 일대의 관광 및 등산코스 개방 ▲소요동동민회관 영구 무상 대여 ▲소요산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시설물 설치 시 공익 목적일 경우 대지사용 승낙 ▲유료주차장 주차비 징수 및 개폐문제 시와 협의 ▲부당이익금반환 청구소송 항소건 취하 등이다.

이에 따라 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자재암과 소요산 주변 상인들의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며 전국적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시 발전연합회 지득용 회장은 자재암 해림 스님의 용단에 감사함을 전했고, 해림 스님은 “관람료 문제로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도 “종교적 갈등으로 변질될 수 있었던 사건을 봉합하는 데 단초를 제공해 준 조계종과 협의회의 힘든 결정에 감사드린다. 시 발전에 모두 힘을



모으자.”고 격려했다.

관람료 문제는 2007년 1월 자재암이 소요산 등산객들에게 받는 관람료를 1,200원에서 600원을 더 인상하면서 불불기 시작해 상인들과 시민단체에서 “법적 근거 없는 부당 징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법적 공방이 오갔다. 자재암은 소요산 면적의 95%가 사찰 소유라며 입장료가 필요하다고 맞서 갈등이 고조됐다.

자재암은 보물 제1211호로 지정된 반야심경 언해본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두천시와 관리협약에 따라 1,000원의 관람료를 징수해 왔다.

북부시민신문 2009-12-28

9. 캄보디아 왕사 텡봉 대종정, 시청 방문



캄보디아 왕국 왕사인 텡봉 대종정 스님이 24일 동두천시청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한국·캄보디아 불교협회의 발족에 노력해 온 동두천 불자들의 노력에 감사하고 동두천시와 문화교류 등을 하기

위한 것이다. 텡봉 대종정 스님은 “동두천시 방문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양국 간 교류증진에 가교역할을 하겠다.”며 “동서독이 통일됐듯이 남북한도 반드시 통일이 되도록 기도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한·캄 불교협회의 관계자와 함께 환영식 및 다과를 나눈 후 방문 기념 식수를 했다.

텡봉 대종정 스님은 2006년 4월 캄보디아 왕국의 최고 종정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10. “소요사 터 찾았다” 주장 제기 - “구 절터 인근 평평한 터가 소요사 추정지”

소요산 구 절터 아래에 있는 평탄한 터가 역사실록에 나와 있는 소요사 절터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세종지리지>상에는 자재암 근처에 조선 태조가 즐겨 찾았던 백운대(白雲臺)와 폐정(廢井)이 있으며, 백운대 밑에 있는 폭포는 원효대사가 노닐던 곳이라고 하여 원효대(元曉臺)라고 부르는데, 옛날 이곳에 소요사(逍遙寺)라는 절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동두천문화원 이명수(54) 부원장은 “산세에 가려서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신경 쓰고 본다면 식별이 가능하다. 축대와 기와 등이 발견되고 있고,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분명히 소요사 절터”라고 주장했다. 세종 경술년에 불교의 혁파를 위해 난립한 종파를 선종과 교종으로 통폐합하고, 36개소의 절만 남겨두자는 <세종지리지> 예조의 계에서 계획이 제시됐으나, 전국에 있는 절이 합쳐지거나 없어질 때에도 소요사는 교종의 사찰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소요사는 크기 면에서도 속전이 150결이고, 거승은 70명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합천 해인사가 속전이 200결이고 거승이 100명이라는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큰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종 148지리지> 양주도호부(楊州都護府)에 의하면 ‘소요사는 소요산 허리에 있다. 태종 3년 임오에 태조가 절 남쪽 행전에 머물러 여러 달을 두고 온갖 그림을 새롭게 하였으며, 금상 6년 갑진에 태조의 원당으로 하여 교종에 붙이고 밭 150결을 주었다.’고 전하며, 태종 임진년 기록에 태상왕이 소요산 아래에 별전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태상왕이 경기도 도사 이명덕에게 말하기를 “전을 하나 지어 손님을 대접하려고 한다.” 하니 이명덕이 의정부에 고하고, 의정부에서 임금에게 아뢰어, 바로 경기의 백성들을 동원해 역사에 나가게 하였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그러나 이 별전이 소요사인지는, 아니면 다른 사찰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소요산 아래에 지어진 이 별전은 결국 큰비로 인해 산이 무너져 내리자 같이 사라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결국은 자연재해로 인해 소실되고 만 셈이다. 소요사 절터의 발굴과 복구를 위해 사비를 들여 조사에 나서고 있으며,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는 이 부원장은 “개인의 힘으로 밝혀지지 않은 문화재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담당관청에 자료를 제출해보기도 하지만 개발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하며,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시

청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관내에 절터가 여러 곳 있지만 아직 터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발굴하기 난처하다. 자재암이 소요사라는 추정과 500평 남짓 되는 구 절터가 소요사 자리라는 추정만 있을 뿐이다. 현재 구 절터에 주춧돌이 남아 있어 분명한 건축물이라 보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요사 추정지가 사라진 소요사 옛터라는 것이 밝혀지면 동두천 관광지 개발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숨겨져 있는 문화재를 정부 차원에서 빨리 발굴한다면 동두천이 어느 지역에 못지않게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부원장의 입장이다.

11. 동두천 제생병원



동두천의 시급한 의료현실과 달리 장기 표류하고 있는 동두천 제생병원이 ‘의과대학’ 설립 추진과 맞물려 개원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순진리회 종단이 추진한 제생병원은 동두천 지행동 산

27번지 일원 11만 2,419㎡ 부지에 분당제생병원(670병상)의 두 배가 넘는 1,500병상 규모로 추진 중이며, 2006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2005년 첫 삽을 떴다. 의료진 200여 명에 관련 종사자만도 3,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순진리회 교주 사망 후 종권 분쟁이 불거져 2004년 법적 송사에 휘말리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 현재는 골조와 외벽공사만 마무리된 채 내부 공사는 30%의 공정률을 보인 채 수 년째 방치되고 있다.

분당제생병원 채병국 신임 원장이 의과대학 설립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채 원장은 5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서울대병원과 맞먹는 규모의 동두천 제생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선 전문 의료진 확보가 필수조건인 만큼 의과대학 설립 후에 개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과대학 신규 인가가 병원개원의 선결 조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채 원장은 “동두천의 지리적, 교통적 여건상 의과대학 설립 없이는 200여 명이

넘는 전문 의료진을 확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질 높은 의술을 펴기 위해선 의과대학 신설은 필수이며 의과대학 없이 개원할 경우 의료진 영입 경쟁에 밀려 결국 의료 환경이 후퇴해서 만성적자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동두천 시민에게 오히려 민폐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대학설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채 원장은 특히 의과대학 설립추진의 근거가 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과대학 추진팀을 확대 편성한 후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특별법 입법에 따라 대학 이·증설 방안도 제시됐지만 신설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예산부담에 따라 논의 자체가 제외됐으며 포천 대진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추가 인가해 동두천에 캠퍼스를 두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과대학 신규 인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해야만 그나마 근거가 마련되는데다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과대학 특성상 교육부와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의 합의와 인가를 얻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산재해 병원 개원 시점만 수 년 더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권한을 유지하려는 건설교통부의 논리와 한나라당의 비수도권 법사위원들의 부정적 견해가 맞물려 결국 법안 자체가 무기한 표류돼 17대 국회 통과도 불확실하다.

동두천시 관계자 역시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의과대학 특성상 인가받기까지는 절차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쉽지 않다.”며 “지금도 의사 수가 많아 감축하자는 지적이 많아 의과대학 신설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회의적 시각을 나타냈다.

결국 내년 2월 재상정이 계획된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여부가 10년째 답보 상태인 동두천 제생병원의 개원 명운을 기를 키로 부상하게 됐다.

제6절 동두천 배움의 현장

1. 혼혈아를 꺼안은 혼혈아 교장 록키

그를 찾아간 날은 마침 동두천학교의 하계 졸업식이 열린 날이었다. 졸업생은 단 3명. 그는 품 안의 자식을 떠나보낸 기분에 멍하니 앉아 컴퓨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 띄워놓은 아이들의 졸업장을 더듬으며 그동안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락기(44). '양공주'였던 엄마와 흑인 미군 아빠가 그에게 남겨준 것이라곤 검은 피부와 발음도 어려운 이름 석 자뿐. 사람들은 그를 그냥 '록키'라 부른다. 흑인계 혼혈아, 전혼이 자육하던 그 시절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그가 '아메리칸 드림'의 대명사 '록키'라 불리게 된 것은 역설적이다.

닷새 후면 6·25전쟁이 터진 지 55년이 된다. 전쟁은 록키에게도 많은 생채기를 남겼지만 상처가 깊을수록 순결한 새살은 빨리 돋았다. 록키는 다른 상처들도 보듬어야 했다. 그렇게, 거칠고 외로운 시절의 사랑은 품을수록 커졌다.

1) 록키, 빛바랜 아메리칸 드림

록키의 하루는 비밀스러운 이중생활의 연속이다. 비록 학생은 65명 밖에 안되지만, 그는 어엿한 '동두천 아카데미 학교'의 교장선생님. 오전엔 근엄하게 교장실을 지키다가도 오후가 되면 야구모자를 눌러쓴 스쿨버스 운전사로 변신한다.

“오늘 제가 발표를 제일 많이 했어요, 저 잘했죠?” 하얏길, 재잘대는 아이들의 수다 상대가 되어주다, 밤이 되면 미군들이 자주 오는 학교 근처 호프집에서 자정까지 맥주를 나른다.

“무슨 선생이란 사람이 호프집에서 술을 서빙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거린다. 그러나 어찌겠는가. 그의 학생들은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 한국과 미국의 사생아, '혼혈아'들인 것을. 그래서 그의 학교엔 제때 학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수도룩한 것을. 그 옛날 자신의 모습과 겹쳐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임신한 아내가 학교 청소부를 하고 자신은 밤에 식당일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학교를 꾸려나가야 하는 것을...

2) 돌아온 고국, 또 한 번 버림받다

미국에 입양된 후 회계사라는 번듯한 직장까지 가진 그가 1991년, 아무도 기다리지는 이 없는 한국에 돌아온 것은 엄마를 찾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곧 그 꿈을 접었다. 미군부대 회계사로 일했던 그는 다른 미군 동료들과 함께 후원금을 모아 고아원에 보내주곤 했었다.

그때 처음 알게 됐다. 종전 52년인 지금도 여전히 혼혈 고아들은 자신처럼 외국에 입양 보내질 운명이란 걸. '한국 사람들은 몹시도 혼혈아를 싫어하나 보다.' 충격이었다.

그즈음 사귀게 된 한국인 여자 친구의 말은 결정타였다. 재혼해서 잘 살고 있을 엄마에게 흑인 혼혈 자식이 나타난다면 넌 엄마에게 폭탄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을 거란 충고. 그건 절대 그가 바라는 게 아니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TV 아침프로그를 챙겨보며 훌쩍거리는 정도로 마음을 달랠 수밖에.

그는 엄마를 찾는 대신 새로운 꿈을 키웠다. 한국에 귀화해 행복한 가정을 꾸려 정착하기로 한 것. 그러나 그 꿈도 결혼한 지 5년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한국인 아내는 양부모가 물려준 재산 10만 달러(약 1억 원)를 들고 백인 남성과 도망쳐 살림을 차렸다. 딸아이와 헤어지는 건 죽기보다 싫었지만, 엄마에게 버림받았던 자신의 고통을 자식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딸아이를 잘 키워달라며 전 재산을 몽땅 아내에게 넘겨주고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언제든 딸아이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내는 또다시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쯤 13살이 됐을 텐데, 예쁘게 컸겠죠?” 그의 검은 피부 위로 흐르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눈물방울이다. 돌아온 고국, 그는 또 한 번 버림받았다.

3) 졸업식, 안타까운 기쁨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동두천 혼혈아들이었다. 1999년 영어강사를 해서 번 돈으로 조그마한 터전 '동두천 아카데미 학교'를 냈다. 비록 동두천 외곽, 허름한 건물 한 층을 월세로 빌린 보습학원 수준이지만, 이곳 아이들에겐 유일한 희망이다.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은 한국 학교에 어울려 다닐 자신도 없다. 미군 장교 자녀들이 다니는 의정부의 외국인학교는 학비가 너무 비싸 엄두도 못 낸다. 혼혈아들 대다수는 아빠가 없거나 엄마가 없다. 그래서 동두천엔 학교를 포기한 혼혈아들이 넘쳐난다.

“이건 게리의 성적표예요. 거의 다 A학점이지요? 게리는 수학을 좋아하는데, 미군부대 비행기 기술자가 될 거예요.” 그의 표정에 어느덧 자랑스러움이 넘친다.

미 군속이었던 게리의 미국인 아빠는 한국인 엄마의 등골만 파먹다 판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그는 게리가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해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그저 학교에 성실히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웠다.

“엄연히 이 땅에서 태어나 존재하는 생명들인데,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아요. 마치 투명인간인 것처럼 아무도 신경써주지 않아요. 저라도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어요.” 기지촌에 필리핀·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쪽 혼혈아들도 학생의 30%를 차지한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던 그는 러시아 여성과 만나 새 가정도 꾸렸다.

마침내 찾아온 영광스러운 졸업식. 그에겐 기쁨이자 안타까움이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혼혈아가 한국사회를 살아간다는 게 녹록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그, 아이들을 환한 웃음으로 떠나보낸 후, 기도하는 심정으로 졸업장만 더듬고 있다.

2. 동두천외고, 증권경시대회 수상 휩쓸어

8회째를 맞은 전국고교생증권경시대회에서 동두천외고 재학생들이 발군의 실력을 과시하며 상위 수상자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지난해 22일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1위를 차지한 2학년 권순형 군이 금융위원장상을, 2학년 이경한 군과 김유섭 군이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동두천외고는 지역성적



우수학교상을 수상했다.

고교생증권경시대회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에서 고교생의 경제·증권 관련 학습을 진작하고 청소년의 금융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의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경제학과로 진학을 희망한 권순형 군은 평소 경제신문을 구독하면서 교실에서 배운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특히 실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증권 시장에 흥미를 갖는 등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열심히 준비했다.

권 군은 “지난해 대회는 아쉬움이 컸지만 이번 대회에는 증권 관련 도서를 읽으면서 폭 넓은 이해를 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 온 것 같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학년 권순형 금융위원장상, 이경한·김유섭 장려상

3. 건전한 학원문화 앞장, 자율정화위원 위촉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학원자율정화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동두천양주학원연합회장과 학원정화위원 7명이 참석했으며 한일순 교육장은 학원자율정화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관내 학원발전을 위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2010년 12월까지 교육지원청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율정화를 위한 지도 및 자료조사와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식에 참석한 위원들은 앞으로 동두천, 양주 지역에 건전하고 투명한 학원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4. 한국문화영상고 창업동아리 수익금 이웃돕기 쾌척

지난 6일 한국문화영상고 창업동아리(아플리에 외 4개)에서는 1년간 창업활동 수익금으로 벌어들인 금액 중 50만 원을 동두천시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학생들이 주축이 된 아플리에에는 머그컵 제작 및 도자기류를 판매하는 동아리로 1년 매출액이 1,000만 원에 이르며 동두천 최초로 학생이 사업자 등록을 내어 영업하는 청년CEO창업동아리이다.

정기숙 교장은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돕기를 실천하는 동두천시 한국문화영상고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5. 동두천경찰서, 수능 후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 실시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경찰, 교육지원청, 협력단체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시가지 일대 및 큰시장 사거리까지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수능이 끝나고 긴장

이 풀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음주 등을 통한 범죄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귀가를 촉구하는 의미로 이루어졌으며 아동성범죄 예방 홍보도 병행했다. 한편 동두천경찰서는 12월 12일까지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6. 동두천시 생연1동주민자치센터 어린이 영어 뮤지컬 자체 발표회 개최

동두천시 생연1동주민자치센터(동장 윤경원, 주민자치위원장 김용학)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뮤지컬 영어 수강생과 학부모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영어 뮤지컬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생연1동 어린이 뮤지컬은 유아 1개반, 초등 1개반 등 2개반 40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발표한 영어 뮤지컬은 '피노키오'로 어린이 영어교실 프로그램을 수강 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그동안 배운 영어와 율동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뮤지컬 공연이 끝난 후에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 노래에 맞춰 율동을 따라 하는 공개 수업이 진행되었다.

김용학 자치위원장은 “영어 교육이 강화되는 시대에 맞춰 앞으로는 영어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유아부터 노인층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다.” 고 말했다.

북부시민신문 2011-01-03

7.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2011년 1기 교육프로그램 개강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센터장 석영희)에서는 3일부터 오는 3월 25일까지 2011년 제1기 프로그램 8개 분야 43개 과목에 대해 1,000여 명의 제1기 교육생과 함께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분야는 한식조리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등 17개 과목의 자격증 대비반, 실내원에 및 조경, 옷 만들기, 예쁜 손글씨POP반 등 10개 과목의 기술·기능 교육 분야, 기타, 바이올린, 가야금, 한국무용(작품반) 등 9개 과목의 문화 예술 분야, 엄마랑 아가랑 과목의 가족 문화 분야, 웰빙 가정 요리, 웰빙 댄스 2개 과목의 요리·건강분야, 컴퓨터 주말반, 실버노래교실, 실버영어(2) 3개 과목의 실버 분야이다.

이날 개강식은 교육생들에게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센터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당부사항 전달과 강사소개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동두천시장

(오세창)은 앞으로 3개월간 센터를 이용할 교육생들을 격려하였다.

북부시민신문 2011-01-03

8. 동두천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및 '문화인의 밤' 개최

동두천문화원(원장 안민규)에서는 지난 12월 22일 동두천농협 하나로웨딩홀에서 오세창 시장, 임상오 시의장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계자, 문화원 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동두천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과 '문화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문화학교 수료식에 이어 '문화인의 밤' 행사로 진행되었다. 문화학교 수료식에서는 동두천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예교실 등 6개 강좌 수강생 120명에 수료증을 수여하였으며, 우수 수강생에 대한 상장 수여와 문화학교 운영 활성화에 공이 많은 일본어반 오상은 강사 등 유공자에 대한 시장 표창과 감사패 등이 수여되었다. 또한 동두천문화원의 1년 주요사업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상영하는 시간을 갖고 앞으로 지역문화진흥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을 다짐하는 뜻 있는 행사로 개최되었다. 이어 수강생들이 1년여를 성실히 배우고 익힌 수강생 발표회를 가졌다.

2부 행사에서는 문화퀴즈 쇼,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1년여간 고생한 수강생과 문화원 가족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동두천시와 동두천문화원에서는 “이제 문화는 단순히 보고 즐기고 느끼는 대 상에서 한 국가의 경쟁력과 브랜드까지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점점 증 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보 다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발굴·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 혀다.

북부시민신문 2010-12-27

9. 제3기 동두천시민예술대학 수강생 발표회

동두천시민예술대학은 지난 18일 시민회관 내 청소년회관에서 오세창 시장, 임상오 시장의장, 문화 예술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시민예술대학 발표회를 개최했다.

각 부문별로 지난 1년여간 성실히 수강한 분야의 성과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예술대학은 동두천예총에서 시민의 문화예술 교육 참여를 통한 창조력, 이해력, 비평능력 등을 제고하고 문화예술 소양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이 날 발표회는 문인협회의 시 낭송과 동두천청소년오케스트라의 악기교실 수강생의 연주, 국악협회의 경기민요, 연예협회의 그룹사운드 공연으로 이루어졌으며, 문인협회의 시화전과 동두천사진동우회의 전시회 등이 함께 열렸다.

시민예술대학은 국악협회(경기민요 및 장구 강습), 문인협회(시 창작, 문학평론), 미술협회(미술기초), 연예협회(그룹사운드), 동두천청소년오케스트라(악기교실), 봉산탈춤보존회(우리춤), 규중칠우회의 전통공예인 천연 염색과 한지공예 등 7개 강좌에 대하여 시민예술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동두천시와 동두천예총에서는 2011년 시민예술대학 운영에 따른 시민과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 동두천시민예술대학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문화적 감성을 높이고 지역문화의 저변확대를 추구할 계획이다.

북부시민신문 2010-12-22

10.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2011년 강사 위촉식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12월 20일 오후 5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2011년 아름다운문화센터 교육강사 위촉식'을 갖는다.

2010년 11월 공개선발을 통해 위촉되는 강사는 교육강사 28명과 특별강사 5명을 포함, 33명의 강사들이 2011년 1년간 아름다운문화센터에 소속되어 동두천 시민을 위해 성심성의껏 교육을 지도하게 될 것이다.

특히 2011년도 특별채용된 강사들은 센터에서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자원봉사를 통해 강의 경험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아 특별 채용되었다.

이번 위촉식을 통해 1년간 위촉된 강사들에게 우리 시에 대한 애향심과 소속감을 고취하여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강의를 유도하며 동두천시와 교육생들을 위하는 마음과 센터 직원들과 함께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대해 서로 토의하며 서로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북부시민신문 2010-12-16

11. 동두천시 학원연합회 결식아동 후원금 전달

동두천시학원연합회(회장 김명석)에서는 10일 송년의 밤 행사를 통해 관내 4개 초중등학교에 모금액 4백만 원을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후원금은 동두천시 지행동 송내컨벤션센터에서 보산·생원초등학교와 동두천·송내중앙중학교에 각 100만 원씩 전달되었고 이는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용도로 쓰이게 된다.

동두천시 학원 원장 및 강사들로 구성된 학원연합회에서는 올해 결식아동돕기 수학경시대회와 음악회를 개최하여 참가비와 기부금 등으로 후원금을 마련한 바 있다. 각각 4회와 17회를 맞은 이 대회들은 학생들의 실력향상과 동시에 불우 아동을 돕는 바람직한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동두천시는 수학경시대회와 음악회에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여 결식아동을 돕는 행사의 취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하여 축사의 말을 전한 동두천시 오세창 시장은 이러한 후원에 발맞추어 동두천시에서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을 통한 비용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북부시민신문 2010-12-14

12. “이제, 찾아오는 교육도시 동두천”

2010년 11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집계 분석한 평가 결과, 2005년 3월 개교한 동두천 외국어고등학교가 전국 외고 중 국어, 영어, 수학 3개 과목에서 보통 이상 학생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전경

비율이 98.9%로 전국 14위, 경기도 내에서는 안양외고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또한 2011학년도 신입생 경기도 내 9개 외고 경쟁률을 보면, 자율고로 전환한 용인 외고를 제외하고 접수율이 평균 3.6에서 2.3 정도로

낮아졌다고 하는데, 동두 천외고는 3.1:1의 경쟁률로 지속적인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경쟁률을 반영하는 인기도는 동두천외고가 기숙사 형의 공립외고로 학부 모의 교육비 부담이 적고, 2010년도 대학입시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떠나야만 했던 과거를 뒤돌아 볼 때 동두천시의 교육 환경은 이제 찾아오는 곳으로 변모 했다는 평가다.

이번 평가는 국가차원에서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모든 학생들이 기초학습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생 중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2010년에는 7월 13~14일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고등학교 2학년은 국어, 수학, 영어 3개 과목)에 대해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동두천시의 교육복지서비스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 봤다.

1) 진화하는 교육복지서비스

첫째,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다. 2010년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이 이루어졌고, 2011년에는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 급식비 체납으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아이들이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지원이 기대되는 서비스다.

둘째, 사교육비 부담 없는 영어교육 도시다. 관내 초등학교 4개교에 영어 체험교실 구축과 운영비를 지원하여 '원어민 교사와의 네이티브 영어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내 미군부대-학교의 자매결연으로 외국인에 대한 두려

움을 해소하고 자신감 있게 영어를 표현할 수 있는 '미군장병과 함께하는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동두천외고에서 운영하는 언어영재교육원과 동계어학캠프에 각각 시비를 지원하여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동두천외고에서 친밀감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주고 있다. 향후 언어영재교육원과 동계 어학캠프에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모교가 될 수 있는 꿈을 어려서부터 키워주는 셈이다.

이밖에도 동두천시의 영어교육은 중학교의 '청소년 꿈타래 영어캠프'와 시청 특별대책지역과에서 운영하는 '좋은 이웃 영어캠프',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영어교실' 등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경제적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는 영어교육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셋째, 영어에 재능 있는 학생들의 어학연수 지원이다. 시에서는 2007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3주 또는 4주 동안 해외 어학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 선발은 각 학교에서 외국어에 재능이 있으며 모범적인 학생을 추천받아 학부모로 구성된 협의회를 거쳐 교육기관을 선정, 전액 시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2009년도 교육대상자 6명 중 4명이 2011학년도 동두천외고에 합격한 결과를 보고 인적자원이 되는 교육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할 계획이다.

2) 다져지는 교육인프라

동두천시는 지난 11월 22일 교육도시 기반을 견고히 하는 대학유치 작업에 첫발을 내딛었다. 침례신학대학교와 동두천캠퍼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진 것이다.

상패동 소재 반환공여지인 캠프 넘블 약 7,500평에 침례신학대 동두천캠퍼스를 2013년 개교하여 2017년까지 4학부 7전공의 1,300여 명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 삼아 동두천시는 제2, 3의 대학 캠퍼스 유치로 활기와 경쟁력 넘치는 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동두천외고와 성장하는 동두천 교육환경'

북부시민신문 2010-12-13

13.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촉식 개최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일순)은 12월 6일 오후 2시 교육지원청 2층 제3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자율정화위원 위촉식에는 동두천양주학원연합회장, 양주학원연합회장과 학원정화위원 7명이 참석하였으며 한일순 교육장은 학원자율정화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정화위원으로서 관내 학원발전을 위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2010년 12월까지 교육지원청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율정화를 위한 지도 및 자료조사와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식에 참석한 위원들은 앞으로 동두천, 양주 지역의 건전하고 투명한 학원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할 것을 다짐하였다.

북부시민신문 2010-12-07

14. 동두천·양주 학생 시 낭송대회 및 시민 시 낭송회 개최

동두천문화원(원장 안민규)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아름다운 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오세창 시장과 임상오 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동두천·양주 학생 시 낭송대회와 시민 시 낭송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학생 시 낭송대회는 제564돌 한글 반포기념으로 동두천·양주 소재 초등학생과 중학생 33명이 참여하여 아름다운 우리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 평소 갖고 있는 특기와 적성을 마음껏 펼쳐 보였다.

학생 시 낭송대회 이후에는 학생과 문예단체 회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 낭송이 이어졌다. 동두천문화원에서는 시민들의 문화적 감성을 키우고 폭 넓은 문화 향유를 위하여 매년 시 낭송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다.

한편, 오세창 시장은 동두천의 아픈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을 향해 함께 가자는

내용의 자작시 '아시나요'를 낭송하였다.

북부시민신문 2010-12-01

15. 동두천외고 신입생전형 합격자 중 동두천 출신 학생 증가

동두천외고는 16일 2011학년도 신입생전형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총 8개 학급 200명 모집에 612명이 지원해 3.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신입생 전형에서 동두천 출신 학생의 수는 33명으로 작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동두천 출신 학생 합격자수 33명은 재학생 비율로는 15.42%로 작년도 20명 및 재학생 비율 7.81%보다 무려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학교별로는 송내중앙 중학교가 12명으로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했으며 보령여중 6명, 동두천중 4명, 동두천여중 4명, 생연중 4명, 신흥중학교 3명의 순이다.

외국어고에 동두천 출신 학생비율의 증가는 동두천시 학생들 전반적인 학력 수준의 향상과 함께 동두천시에서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우수한 질의 교육기회 부여와 함께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인재의 육성이 기대된다.

16. 제5회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졸업식 개최

오는 18일 오전 11시에 제5회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부설 노인대학(학장 배문평) 졸업식(2년 과정)이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대강당(4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제5회 노인대학을 졸업하는 어르신은 총 47분이다.

이날 졸업식 내빈으로는 동두천시장, 시의장 등 10여 명이 참석하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 어르신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존경심과 축하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북부시민신문 2010-11-15

17. 동두천중앙고, 관내 중학생 대상 '제5회 한얼백일장' 개최



지난 10월 16일 동두천중앙고등학교 교정 및 '얼관'에서 깊어가는 늦가을의 단풍을 감상하며 관내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얼독서백일장'을 개최하였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한얼독서백일장' 당일에는 20,000여

개의 도서와 비도서를 비치한 도서관을 개방하여 역대 수상작들을 전시하였고 학교 대표로 나온 50명의 관내 중학교 참석 학생들이 타고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더욱 성숙된 백일장의 면모를 보였다.

참가 학생들은 사전에 읽은 선정도서를 바탕으로 그 느낌을 운문, 산문, 회화 부문으로 나누어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최우수 운문은 생연중 황지연(3-3), 최우수 산문은 동두천여중 박하영(3-5), 회화 최우수는 생연중 한소진(3-4) 학생이 선정되어 상장과 각각 7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부상으로 받았다.

그 외에도 각 부문별 우수 3명(5만 원 상당), 장려 6명(3만 원 상당)을 선발하여 심도 있는 독서와 우수한 창의적 표현을 격려했다. 해마다 참가 학생들의 문학적 기량과 회화 솜씨가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북부시민신문 2010-11-08

18. 동두천시 '학교급식용 쌀 자동화 포장 시연회' 열어

동두천시 미작작목반(반장 정순강)은 지난 10일 라이스 센터에서 오세창 동두천시장을 비롯한 임상오 의장 및 시의원, 농협중앙회 동두천시지부 배정선 지부장, 동두천 농협 정진호 조합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용 고품질 쌀 자동화 포장 시연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오세창 시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지역농업을 책임지고 묵



은 쌀을 공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북부시민신문 2010-09-13

묵히 벼농사를 하고 있는 미작 작목반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방에서는 쌀 소비 부진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시 작목반원들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관내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하고 있어 판로가 확보된 만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19. 2학기 동두천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 “이상무”



동두천경찰서(서장 오동욱)는 8월 31일 경찰서 3층 강당에서 오동욱 경찰서장, 각 과장, 녹색어머니회·어머니폴리스 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두천경찰서 2010년 하반기 녹색어머니회·어머니폴리스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교통사고와 범죄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교통사고와 각종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 자모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11개교, 590명), 어머니폴리스(9개교 309명) 단체가 합동으로 2010년 하반기 초등학교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활동을 해나가기 위함이다.

오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경찰서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초등학교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관리’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어린이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어린이를 상대로 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도 녹색어머니 임종숙 회장과 어머니폴리스 이인숙 단장은 경찰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어린이 안전활동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반기 활동계획을 설명했다.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활용 초등학교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활동 강화 방침’

북부시민신문 2010-08-31

20. 2010년 동두천꿈나무정보도서관 여름독서교실 성황리에 종료



동두천꿈나무정보도서관에서 지난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던 여름독서 교실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여름독서교실은 “애들아! 우리 함께 숲에서 놀자”라는 주제로 관내 초등학교 1~6학년

생 60명을 모집하여 진행되었으며, 독서교실 둘째 날에는 포천에 위치한 국립수목원을 방문하여 숲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국립수목원 내의 숲에 대한 설명과 동물, 식물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숲의 중요성과 숲을 보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노력, 숲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 등에 대해서 해설을 듣는 등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매년 진행되는 방학독서교실은 이번 겨울방학에도 계속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꿈나무정보도서관 전화 (860-3286)나 도서관 홈페이지(<http://dream.ddclib.net>)를 참고하면 된다.

북부시민신문 2010-08-03

21. 동두천경찰서 인권 침해 예방 교육 실시

동두천경찰서는 7월 27일 나영희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장을 초빙하여 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인권보호를 위해 개정된 사례, 경찰수사 시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적법절차와 상대를 배려하는 업무실천 등의 내용이 다루어졌다.

오동욱 서장은 “인권보호 강화와 수사의 중요 원칙 등을 정확히 준수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인권보호를 수사경찰의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북부시민신문 2010-07-28

22. 동두천외고, 중화민국 대만 성연고교와 교환교류 학습 진행



지난 5월 20일 동두천외고(교장 김윤수)는 중화민국 대만 성연고교(교장 조아영)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5월과 7월 상호 교환교류학습을 진행하여 오고 있다. 5월 17일부터 22일까지는 동두천 외고의 학생들이 대만의 성연

고교를 방문하였고 7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대만 성연고교가 본교를 방문하여 교환교류 학습을 진행했다.

본 교환교류학습은 일반 학기 중에 이루어지며 실제 양교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수업에 참여하며 토론, 문화공연, 체육활동, 양국 전통문화체험 및 영어, 중국어, 한국어 수업에 직접 참여, 양국의 문화와 언어를 체험하고 실습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본 교류는 학교와 학교의 교류로 학생들은 항공료만 부담하고 기타 경비는 홈스테이를 통하여 해결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서 알찬 교환교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 실천하여 왔다.

최근 문화체험 활동은 학교마다 실시하고 있지만 교환교류학습은 동두천외고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학습교류를 통하여 영어와 중국어 두 가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교환교류학습에 참가한 최유내 양 소감: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해준 소중한 시간”

7일간의 까오슝고 자매학교 문화체험을 마무리했다. 상장 수료식과 함께 7일간 우리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다 같이 보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을 보며 ‘저 때는 저랬지’ 하며 그 때의 기억을 회상했다. 점점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많은 친구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친구’ 배경음악과 함께 마지막에는 코끝이 아려오게 만드는 감동적인 멘트들이 흘러나왔다. 끝에는 나도 눈물을 글썽였다. 이 학교를 뒤로 마음 정리를 하고 짐을 모두 챙겨 공항으로 향했다. 짐 수속하고 갈 준비를 하는 동안 친구들과 사진 찍으면서 작별을 준비했다.

마지막에 자매 친구와 함께 포옹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Tina의 몸이 들썩이며 뜨거워졌다. 결국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꼬옥 안아주며 “Tina, don't cry” 하면서 달래주고 다음 번에는 한국에서 꼭 만나자고 약속했다.

비행기에서 우리는 대만에서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즐거운 추억으로 저장했다. 습도가 높아서 힘들었던 것을 제외하면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모두 만족해하며 한국을 향했다.

북부시민신문 2010-07-12

23. 동두천 지역 ‘다문화 가족을 위한 범죄예방교실’ 실시



동두천경찰서는 관내 다문화가족을 위해 6월 24일 지행동 소재 아름다운문화 센터 3층 돌음터에서 국내 생활에 필요한 범죄예방교실을 실시하였다.

이날 강의에는 경찰서장과 정보보안과장, 김민화 다문화지원센터장, 다

문화지원센터 교사 3명, 중국인 10명, 베트남인 2명, 나이지리아인 1명, 아르메니아인 1명 등 25명이 참석했다.

강의내용은 외국인들이 범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및 외국인 체류지 이탈범죄 예방, 교통사고 예방, 법률기초상식 뿐만 아니라 응급질병 상담 및 병원 안내, 여성긴급전화 등 국내 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동두천경찰서는 국내법률 상식이 취약한 외국인에 대한 법률 지원에 앞장서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경찰상 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부시민신문 2010-06-29

24. 동두천 송내동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활력 가득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가 인기를 얻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물론 가격도 저렴해 많은 주민들이 여가활동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을 비롯해 아동과 어르신들을 위한 강좌도 마련해 이용 기회를 넓혔다. 한해 천오백 명의 주민이 이용한 문화프로그램의 인기비결은 무엇이고 어떤 강좌가 있는지 들여다봤다.

동두천시 송내동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에서 흥겨운 가락을 타고 신명나는 난타 교실이 열렸다. 20여 명의 주부가 북채를 들고 난타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고양옥(32) 강사의 ‘신나는 난타’ 강좌에 참여한 회원들 대부분은 50~60대 주민들이다. 서승희(55) 씨는 “마땅한 여가생활이 없어 고민하다 친구 소개로 강좌

에 참여했다.”며 “장단에 몸을 맡기다보면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씨는 “수강료도 월 1만 원으로 저렴하고 집과도 가까워 취미활동에 제격”이라고 덧붙였다.

송내동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는 17개 프로그램 21반으로 요가, 헬스 등의 건강 부문,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교육 부문, 찾아가는 국수잔치, 별밤시네마 등 봉사 부문을 포함해 자치센터 단위의 동호회 활동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모든 강좌는 지방조례에 의해 월 2만 원을 넘지 않는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사진도 실력이 검증된 인물을 선정, 강좌의 질을 높였다. 여기에 직장인을 배려해 야간반을 개설, 주민 참여를 유도했다. 야간강좌는 7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어, 난타, 요가, 헬스, 댄스스포츠 등 다양하다. 야간 요가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퇴근 후 집과 가까운 곳에서 요가를 즐길 수 있어 시간활용도가 높다.”며 “더욱 다양한 강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쓱쓱체조, 클레이 점토, 영어, 일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강좌마다 15~20여 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다. ‘영어회화’ 강좌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는 “수업 내용도 알차고, 요즘 같은 불황에 수강료 부담도 없어 만족스럽다.”면서 “이곳저곳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어 더욱 좋다.”고 덧붙였다.

송내동 담당공무원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면서 “주민 간 유대와 화합의 공간으로도 사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65세 이상 어르신은 수강료 50%가 할인된다.

북부시민신문 2010-06-15

25. 동두천열린아카데미 ‘건강한 자산관리의 원칙’ 강좌 진행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는 9일 ‘2010년 동두천 열린 아카데미’ 첫 번째 무대를 가졌다. 『시골의사의 부자 경제학』으로 널리 알려진 박경철 원장이 ‘건강한 자산관리의 원칙’이란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강좌를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서 박 원장은 부자의 기준, 부의 형성 과정, 투자 원리에 관한 경제이론과 투기와 투자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참석한 시민들에게 전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맞물려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은 평소 접하기 힘든 명사의 강연에 대단히 만족하는 표정이었다.

박 원장은 영남대 의대를 졸업하여 외과 의사로 활동 중, 『시골의사의 부자 경제학』,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등 경제 관련 서적을 출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로서, 현재는 KBS 라디오 '박경철의 경제 포커스', MBN '박경철의 공감 80분' 등 경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차례는 3월 23일 10시 30분 여러분병원 김정수 원장이 '허리 좀 안 아프고 살 수 없나요?'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 북부시민신문 2010-03-09

26. 동두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개강



동두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민화)는 지난 2일 아름다운문화센터 미래터에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개강식을 개최했다.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시작한 한국어 교실은 첫걸음, 기초,

초급, 중급반 등 총 6개 반을 신설하여 수준별 편성을 통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이번 한국어교실은 국내 생활의 빠른 정착을 도모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설명했다.

2010년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병합하여 새롭게 신설·운영되는 동두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실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통합교육, 한국생활 조기적응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다문화가정의 국내 조기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에 앞장설 예정이다.

북부시민신문 2010-03-05

27.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동두천, 양주 유일의 영어리더학교 '상패초등학교'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한 영어교육리더학교 공모에서 경기도 동두천양주 교육청 상패초등학교(교장 정규수)가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학교는 지난해 12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예선을 거쳐 올라온 134개교가 겨룬 본심에서 총 52개 초등학교가 선발되었는데 그 중 동두천, 양주에서 유일하게 선발되었다.

이 학교는 1999년부터 시작된 미군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원어민과의 다양한 체험 활동 위주로 교육과정을 진행하였고, 2008년 원어민 교사가 배정된 후 체육, 미술, 음악 등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 위주로의 특기적성 과목 편성과 영어캠프 운영 등을 실시하였고 음식 만들기, 영어뮤지컬, 영어동화책 읽기 등 다양한 틈새영어 강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영어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등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인재 육성 등의 주제가 높게 평가받았다.

이현(36) 담당교사는 “영어리더학교에 선정되어 정말 기쁘고, 앞으로도 학생들이 영어를 좋아할 만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 적용해나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상패초등학교 2009학년도 교과부 영어리더학교 선정 쾌거’

북부시민신문 2010-03-05

28. 동두천시, 양초공예 체험교육 실시

동두천시는 지난 24일 농업인회관(상패동 소재)에서 생활개선회(회장 윤경자)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진화 강사를 초청해 양초공예를 이용한 실내 분위기 연출과 양초공예의 특징 및 이용방법 등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2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천일 농업복지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활개선회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전통 장 담그기, 쌀음식 품평회,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회원들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촌주부로 구성된 회원들은 온갖 정성을 다해 양초공예 체험교육에 임하였으며, 윤경자 회장은 “양초공예를 통하여 가정의 실내분위기 개선과 정서함양의 계기가 되고 은은한 양초의 향기가 다가오는 봄 분위기와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양초가 새로운 꿈과 희망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부시민신문 2010-02-25

29. 동두천 한·미 영어마을 ‘2010년 영어회화반’ 운영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사장 오세창)는 지난 12일부터 2010년 영어회화반 운영을 시작했다. 연일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지만 수강생 60여 명이 참석하는 열의를 보여 영어의 높은 관심도를 알 수 있었다.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06년 12월 미 2사단 포병여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동두천 시민을 대상으로 영어회화반 운영, 미 2사단 영내 초청 바비큐 파티, 미군강사 한국문화 체험활동, 미군강사와 시청 공무원 친선 축구 대회 등 미 2사단 포병여단과의 협력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한·미 간 우호를 증진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자원봉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동두천 한·미 영어마을 영어회화반은 연중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10기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으며, Level Test를 통하여 그룹별로 운영되고, 1그룹 1명의 미군 자원봉사교사가 배치되어 기초적인 Listening부터 Free talking까지 체계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기수당 3개월 과정이며, 매주 2회(화, 목 오후 7시~8시 30분) 신시가지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수업을 받는다. 영어회화반은 원하는 사람은 모두 신청 가능하고, 현재 신청하면 3개월 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미군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좋은 이웃 재미있는 영어'

북부시민신문 2010-01-15

30. 동두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지난 7일 친환경 채소반을 시작으로 2월 3일 친환경 벼농사반, 4일 친환경 축산반, 5일 국화 취미재배반 등 4회에 걸쳐 시민회관과 청소년문화회관에서 농업인 5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돈 버는 농업을 실현시키기 위한 교육이란 뜻으로 1969년 '겨울농민교육'으로 시작해 '새해영농설계교육',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등의 명칭으로 변경되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년 교육은 영농현장에서 직접 접목하여 실천가능한 현장위주의 교육에 역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며 지난 7일 실시한 친환경 채소반 교육은 한국삼공 마케팅팀 김한수 팀장이 십자화과 채소의 뿌리혹병 예방 및 방제법에 대하여 농업인의 눈높이와 지역실정에 맞도록 강의하여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 브랜드인 '소요산 자연다믄' 육성과 비료 등 지원사업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북부시민신문 2010-01-08

31. 경기북부 아동과 동두천외고 학생의 ‘아름다운 동행’

경기도 제2청사는 12월 26일~27일(1박 2일) 파주영어마을에서 경기북부 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양육시설)의 저소득층 아동 90여 명과 동두천외국어 고등학교 학생 20여 명이 함께 하는 영어마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06년부터 실시해온 이번 행사는 영어문화권의 접촉기회가 적은 아동들이 영어마을 체험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동두천외고 학생 2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아동들의 체험활동을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담당하는데, 멘토로 참여하는 박승(고2, 남) 군은 “아동들을 친동생처럼 보살피겠다.”며 다짐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따뜻한 가슴과 관심을 나누어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관리해야 하는 청소년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지역복지공동체 구축 모델이라고 생각하며, 행사 후에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복지시설 아동과 외고 학생들 간에 좋은 인연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어마을 체험을 통한 시설아동과 외고학생의 ‘지식 및 사랑 나눔’ 멘토링 (후견인 활동) 실시

북부시민신문 2009-12-28

32. 동두천문화원 부설 예절원 1주년 기념행사 개최



동두천문화원 부설 예절원 (원장 김임순) 설립 1주년 행사가 지난 11월 25일 오세창 시장과 형남선 시의장, 각급 사회단체장, 문화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동두천문화원 부설 예절원은 2006년 3월 전통예절을 배우고 익히며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동두천 문화원의 전통예절반으로 시작되어 2008년도 9월 구 광암동사무소 건물을 리모

텔링하여 동두천문화원 부설 예절원으로 개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예절원에서는 전통 성년례, 예절반, 다도반, 청소년 교육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교육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각 기업체 등을 찾아가 일상생활에서의 예의 등에 대한 강습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외국이주민 대상으로 한복 입기, 차례 지내기, 인사법, 다도생활예법 등 강습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정착을 돕고 있다.

예절원 김임순 원장은 “내년도에는 시의 지원을 받아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통혼례를 치러주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북부시민신문 2009-11-27

제7절 동두천의 노포



1. 진미옥

1) 창업주와 소재지 최홍식 대표가 동두천 생연동에 정착 '진미옥 설령탕'을 창업하였다.

2) 창업 연도 1984년 1월

3) 창업 동기 어릴 적부터 음식에 관심이 많아 배우고 익힌 것 중에 하나가 설령탕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꿈을 키우고 우리의 전통음식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창업을 하게 되었다.

4) 영업 방침 향시 변함없는 맛을 내기 위해 품질 좋은 국내산 재료를 사용, 앞으로 나아가는 진미옥의 브랜드를 발전시킬 것이다.

5) 유지 비결 좋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해 맛을 내는 것은 기본이며 남다른

장인정신과 친절한 매너로 매사에 정성을 담는 것이 고객들의 사랑을 받는 길이라는 생각이다.

6) 전망 설령탕은 한국 고유의 음식이라 보통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만 ‘진미옥 설령탕’은 동두천이란 지역 특수성으로 외국인들도 애호하는 음식이 되었다. 앞으로 세계적인 음식이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7) 비화 또는 에피소드 초창기에는 연탄불로 24시간 끓여도 태우는 예가 없었는데 얼마 후부터는 가스로 바뀌며 가끔 가마솥의 진국을 태워 장사를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8) 하고 싶은 말 음식 장사를 천직으로 알며 남을 속이지 않는 진실함과 정성이 상도의 기본정신이라 생각하며, 맛과 고객은 일체라 하지만 요즘 신세대들의 취향에 걸맞지 않아 낙후될 수도 있는 음식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해본다. 그래도 선농단이란 유래에 걸맞은 한국 최고의 고유 음식임을 자부하며 고집스레 자랑하고 싶다.

2. 호떡집

1) 창업주 홍재승, 오흥자 **소재지** 동두천시 중앙동 573-1

2) 창업 연도 1989년 12월

3) 창업 동기 1986년 직장 퇴직 후 일용 잡부 일을 하다 우연한 기회에 기소재지에서 노점상을 하였고 몇 가지 직종을 바꾸던 중 현재의 직종을 하게 되었다.

4) 영업 방침 재료를 아끼지 말자, 위생 청결 철저, 남을 배려하기, 인사 잘하기

5) 유지 비결 항상 처음 시작할 때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것

6) 전망 터미널도 없어지고 전철도 들어오고 신시가지에 밀려 구시가지는 상권이 위축되어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가 경제가 차츰 활성화되어가고 있으니 시장 경제도 회복될 조짐이 있다.

7) 비화 또는 에피소드 5년 전 의정부에서 전철을 타고 서울로 가는 중 5~6세 되어보이는 어린이가 많은 승객들 앞에 “호떡아저씨다.” 하고 외치는 바람에 곤혹을 치룬 적이 있다. 식용유 타는 연기에 눈이 매워서 물안경을 쓰고 하다 주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적도 있다. 1988년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고양군에 신발, 쌀 10포대(정부미)를 기증하였다.

8) 하고 싶은 말 현재 4명의 학생을 돕고 있는데 앞으로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두어 명 정도 늘릴 예정이다.

9) 숨은 이야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터미널이었던 중앙로를 지날라치면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발길을 멈추게 한다. 제대로 갖추어진 점포도 아닌 빌딩 사이 아주 작은 공간에서 간판도 없이 추울 때는 호떡을 구워 팔고 더울 때는 옥수수를 찌서 파는 다정한 부부가 있는 곳. 언제부턴가 지나는 사람들로 부터 호떡집이라 이름 지어졌고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겨울에는 주인아줌마의 얼굴이 빨갛게 얼어 있었고 여름이면 불 앞에서 더위를 견뎌야 하는 힘든 일상이지만 늘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는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건전한 생활을 하면서 수 년 전부터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을 위해 연탄을 들여주고 쌀을 보내주는 등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는 착한 심성으로 지금도 곳곳을 찾아다니며 따스한 손길로 봉사를 생활화하고 있다. 그들의 숨은 노력이 알려지면서 동두천시에서 사회봉사상을 수여하는 등 시민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3. 이외과의원

1) 창업 연도 1969년에 아버지께서 이외과의원으로 창업하시어 진료를 해 오셨고 1990년에 아들인 제가 대를 이어 이헌정형외과로 개원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곳은 제 본적지이기도 합니다.

2) 창업 동기 아버님께서는 1960년 당시 6·25로 인하여 이곳 동두천으로 오시게 되었고, 가난하고 고달팠던 동두천마을(당시는 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시기 위하여 개원하셨습니다.

그런데 1988년 본인이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아버님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죠. 당시 저는 군 제대 후 공부를 더 계속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반평생을 바쳐 오셨던 이 병원과 동고동락하셨던 고향 분들을 잇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도 내 고향에서 내 고향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작은 인술이라도 나누며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 영업 방침 내 고향 분들과 내 가족처럼 지내고 싶다는 원칙으로 정직하고 친절하게 환자분들을 대한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또한 실력을 갖춘 의사로서 날로 발전하는 새로운 의술과 양질의 의술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4) 유지 비결 아버님 때부터 지금까지 약 50년 정도 되니, 특별한 노하우가 있지는 않습니다. 굳이 생각해보자면 첫째, ‘오랜 유대감’이 큰 것 같고요, 둘째, 이곳은 늘 그 자리에 있는 병원이며, 여기에 오면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친근하고 든든한 지킴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5) 전망 의료 환경, 사회 환경 등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점차 사고와 질병이 줄어들고 있고, 의료목표가 예방 및 조기진단 등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인구도 늘어나면서 의료 기관도 대형화하고 수적으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면서도 동두천 시민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남아 있을 것입니다.

6) 에피소드 아버님이 외과여서, 본인의 이름과 뒤섞어서 ‘이현정 외과’로도 불리는데 실은 정형외과 전문의이기에 ‘이현 정형외과’가 제대로 된 명칭입니다.

다. 이제는 이름마저도 “헌정이”로 불려서 가까운 이들은 농담 삼아서 저를 “헌정이”라고 호칭을 하며 웃습니다.

4. 한일약국

1) 창업주와 소재지 이윤재(72) 약사와 부인 강신복(72). 자녀는 5녀 1남, 동두천시 생연2동 820번지

2) 창업 연도 1965년 3월 15일

3) 창업 동기 서울 약대 졸업. 군 의무관 장교 제대 후 바로 약국을 개업하였다.

4) 영업 방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강록) 만아들로 동두천이 제2고향이라는 신념 아래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하였다.

5) 유지 비결 정직, 성실감으로 책임을 느끼고 선천적으로 친절한 인상과 기독교인으로 불쌍한 환자를 성실하게 봉사하였다. 다년간 환자들의 입소문으로 더욱 약국이 잘 되었다.

6) 전망 46년간 한자리에서 변함 없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봉사했다. 의약분업이 되면서 주위에 큰 병원이 없어서 한때 실망도 했지만 성실한 성격이 인정되어 먼 곳에서도 단골손님이 오셔서 고맙고, 큰 욕심 없이 일흔이 넘는 노인이 되었지만 심심한 대로 보람을 느낀다.

7) 비화 또는 에피소드 1960년대는 딸을 많이 낳으면 여자가 죄인 취급을 받는 시기였다. 우리 부부도 딸딸연년생을 낳아 처가 불행한 여자로 마음이 아플 때 약국은 유명세로 손님이 많아서 점심을 넘길 정도로 바쁘고 장사가 잘되었다.

에피소드라 하면 수천 명의 환자 중에 연천에 사는 한 집안 외동아들과의 인연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못산다고 퇴원해서

관까지 차에 싣고 동두천을 지나는 길에 마지막으로 한일약국이 유명하니 부모님이 하소연이나 하고 가자고 들러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는데 신중하게 약사님이 듣고 결핵성 뇌막염으로 진단하여 물도 못 먹던 환자가 약을 넘겨서 2시간 만에 깨어나서 기적으로 살았다. 생명의 은인이라고 성인이 되어 찾아와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8) 하고 싶은 말 하늘에 별 따온 심정으로 낳은 외동아들을 잘 키워서 훌륭하게 만들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과는 달리 약사님 후계자로 의사나 약사님을 만들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좋은 머리카락이 부족하고 산만하여 지방대학 경영학을 전공했고 어른 섬기는 양반집 가문에 암전하게는 컸으나 군대도 잘 다녀왔고, 아직 뚜렷한 직업 없이 뒤늦게까지 공부한다고 애쓰니 딱하고, 늦게까지 약사직업이 고맙게 70이 넘도록 마음은 청춘으로 하루가 바쁘게 열심히 죽을 때까지 직업을 고마워합니다. 이윤재 약사님은 젊어서 라이온스 회장과 경기도약사회 만 명 대표 부회장으로 봉사정신이 강하고 존경을 받았다. 대한약사회(전국) 대상을 받을 때는 꽃다발 속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감개무량하여 부인 강신복 여사는 다시 태어나도 남편인 이윤재 씨께 시집 오겠다고 다짐하고 현재는 늙어갈수록 큰 욕심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5. 국제광고

1) 창업주와 소재지 김용재,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70-31

2) 창업 연도 1969년도 창업(동두천시 생연4동 한독아크릴 경영)

1972년도 군복무(3년) ~ 1975년 9월 제대 후 보산동에서 새로 시작함

2009년 현재까지 '국제광고' 경영 중

3) 창업 동기 고등학교 3학년(공예과) 제1회 전국기능대회 학교대표선수로 출전하며 선천적으로 재질이 있다고 주위 사람들의 공인과 권유가 있었고 고3학년 2학기 실습 때 서울 명동에서 근무 중 기술을 배운 것이 동기가 되었다.



4) 영업 방침(노하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기술을 발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새로운 디자인으로 항상 신뢰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

5) 유지 비결 무리한 욕심은 버리고 성심껏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신용을 신조로 삼아 항상 새로운 시대에 앞서가는 마음을 갖는다.

6) 전망 어느 사업보다도 광고 사업은 끝이 없다. 항상 추구하는 마음과 자세로 남보다 앞서가며 열심히 일하면 21세기의 자기 소망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다.

7) 비화 또는 에피소드 어느 해 현수막 3장을 주문받았다. 짧은 시간 내에 설치해달라고 해서 부랴부랴 만들어서 동생하고 황급히 전봇대에 올랐다. 급한 나머지 동생이 올라간 사다리가 비틀어지더니 그대로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곤두박질했다. 구급차가 달려오고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동생은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지고 발뒤꿈치가 부서져 근 1년 반 이상을 병원신세를 졌다. 떨어질 때 머리를 들었기에 망정이지 죽지 않아 천만다행이었다. 수술도 몇 번하고 서울 큰 병원에 입원해 돈도 많이 들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8) 하고 싶은 말 35년 동안 한 우물만 파고 살아왔다. 노부모님 모시고 세 자식을 키우며 아내와 함께 사회생활하면서 몸이 아프지 않는 한 단 하루도 이 직업에 손 떼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비록 지금까지 큰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여기에 이르렀다. 모두에게 감사하며 더욱 최선을 다하며 노력할 것이다.

6. 56하우스

1) 56하우스 소개 오륙하우스는 1969년 오충호 대표의 부친 오진우(1977년 작고) 씨가 동두천 미 2사단 주방에서 근무 했던 경험을 살려 문을 연 경양식 전문점이다. 상호는 '오씨 가족 여섯 명(부부와 네 자녀)'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라는 뜻이다.

최근에는 독일 바이마르에 있던 조형학교인 바우하우스가 건축기술과 이념을 전세계에 보급한 것처럼 40년 전통의 조리법과 장인정신을 보급한다는 의미에서 영어명 '56house'를 '56haus'로 바꾸고 로고와 마크를 바꾸었다. 초기 테이블 4개로 시작한 이곳이 동두천을 비롯해 경기 북부에서 최고의 경양식 레스토랑으로 자리잡으면서 고만 고만하게 우후죽순 들어서는 당시 경양식 레스토랑들을 선도했다. 동두천과 이곳 미군기지를 방문했던 국내외 유력인사들이 방문할 때 꼭 빼놓지 않고 들러야 하는 필수코스로, 지금까지도 그 접대 전통은 계속 전수되고 있다. 경양식 레스토랑의 인기가 사그라지면서 많은 경양식 레스토랑들이 문을 닫았지만 결국 오륙하우스는 대대로 이어져온 비법과 장인정신으로 인해 경양식 레스토랑의 산증인이자 정통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요리 개발에도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2) 경양식 선도 경양식(輕洋食) 레스토랑은 1960~1970년대엔 가장 호사스런 외식 장소로, 1980년대엔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1990년대엔 대중레스토랑으로 고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커다란 접시에 함박스테이크, 비후가스, 돈가스, 오므라이

스 등이 나오고, 그 각각의 메뉴에 양배추 샐러드와 동그랗게 얹어진 밥이 담겨 나왔고, 크림수프와 김치 혹은 단무지가 반찬처럼 따라 나왔다. 경양식 레스토랑은 서울의 중심 상권이었던 종로나 명동, 미군 기지 근처에서부터 퍼져나가 30년 이상 인기를 끌다가 부지불식간에 패밀리 레스토랑과 일본식 돈가스전문점 그리고 이탈리아 레스토랑들에 밀려 사라졌다. 하지만 경양식 레스토랑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뇌리에 지난날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의 장소로 각인되어 있다. 그 추억을 그대로 재현하고 싶다면 그런 바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이 '오륙하우스(56HAUS)'다.

3) 오충호 대표 오충호 대표는 조리사 배출의 명문인 경희호텔대학 출신으로 1984년에 롯데호텔에 입사, 잔뼈가 굵었다. 그는 특히 프랑스 식당과 이탈리아 식당을 두루 거치며 양식의 핵심을 체험했다. 양식 주특기 중에서도 이탈리아 식당과 프랑스 식당을 두루 거치면 행운이라고 말할 정도다.

“맛 위주의 이탈리아 요리, 예술성과 모양 위주의 프랑스 요리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지요.”

그는 오륙하우스를 책임지고 있는 CEO답게 일찌감치 퓨전 요리에도 관심을 가져 자주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찬 소스에 간장을 쓰거나 더운 채소 요리에 마늘과 간장을 쓰는 것 따위지요. 참기름의 경우 재료의 순수한 맛을 가리기 때문에 서양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기름도 잘 쓰면 양식 요리와도 아주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요? 참을성 있는 요리사라면 누구나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요리 문화가 보수적인 프랑스에서도 동양적 소스에 대해 많이 연구되고, 실제 응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누벨 퀴진’(Nouvelle cuisine : ‘새로운 요리’라는 뜻으로 살찌기 쉬운 기존의 전통 요리에서 벗어나 건강과 맛을 두루 고려한 새로운 스타일의 요리). 그는 그런 맥락에서 많은 요리와 조리법을 시도하고 있다.

4) 맛과 명성 유지 비결 오충호 대표의 마법 같은 주문은 ‘가장 좋은 것을 먹고 싶은 가족에게 내놓는 음식을 만든다’는 것. 우리가 이곳에 와서 먹는 다양한 요리는 그의 다짐과 실천, 자신감이 바탕이 된 것들이다. 그는 56하우스의 요리들에 대해 “



어릴 적 아버지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숙명처럼 받아들인 조리 인생의 완성이다.”라고 말한다. 행복한 사람이 만드는 음식, 그것은 고객들까지 행복하게 만든다는 장인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5) 메뉴 이곳의 메뉴는 햄버거, 스테이크, 샌드위치, 스파게티, 바닷가재까지 정통 경양식 레스토랑 특유의 다양함을 자랑한다. 수제 햄버거와 샌드위치, 질 좋은 고기로 만든 스테이크는 이곳의 대표주자이다.

단골고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역시 바닷가재 꼬리, 스테이크, 폭찹이 나오는 56하우스 스페셜과 와인으로 숙성시킨 포크커틀릿과 피쉬커틀릿, 햄버그스테이크가 곁들여진 56하우스 정식 그리고 안심스테이크이다.

질기지 않고 부드러운 스테이크와 얇게 튀겨진 커틀릿은 붉은빛이 먹음직스럽다. 수프나 샐러드는 따로 판매하기도 한다. 그리고 메인메뉴를 주문하면 양송이 수프와 홍합스파게티, 샐러드, 마늘빵이 함께 나온다.

2~3명이 서로 다른 메뉴를 주문하면 다양하고 푸짐한 만찬이 된다. 대한민국에 하나 밖에 없는 양송이 수프나 넉넉한 소스, 가니쉬 하나하나에 정성이 느껴진다.

6) 대표적인 일화 오픈된 주방에 있으면 자신이 표현한 요리들을 먹는 고객들의 행복한 표정 하나하나가 거울처럼 보인다. 가족과 친구, 지인들과 음식을 맛있게 즐기는 모습, 잘 자라준 아이들 그리고 늘 함께 음식을 만드는 아내와 가족들이 바로 그가 이루고 싶었던 ‘아름다운 꿈’이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숙명처럼 받아들인 조리 인생의 완성이다.”라고 말한다. 행복한 사람이 만드는 음식, 그것은 고객들까지 행복하게 만든다.

그래서인지 이곳에 오는 고객들은 맛의 감동과 함께 사람들과의 수많은 추억을 가지고 간다. 이곳의 단골인 중학교 교사는 자녀들이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면 온 가족이 이곳을 찾는다. 이 가족들의 고백은 늘 “56하우스가 있어 행복해요.”라고 한다.

용산에 살면서 가끔씩 이곳의 음식을 찾아 일부러 먼 길을 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부산에서 이곳만의 양송이 수프를 먹기



위해 온 열혈 고객도 있다고 한다.

7) 전망 오룩하우스는 1969년 오픈한 이래 2009년 40주년을 맞았다. 오충호 대표는 경기북부를 넘어 국내 최고의 경양식 레스토랑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경기북부를 방문하는 국내외 유력인사들이 방문할 때 꼭 빼놓지 않고 들러야 하는 필수코스로서의 자존심과 부친으로부터 대대로 이어져온 비법, 롯데호텔에서 18년 동안 프랑스, 이태리 등 서양 요리를 익힌 오충호 대표의 장인 정신 등을 하나로 조합해 경양식 레스토랑의 산 증인이자 정통명소로 그 명성을 더해가고 있다.

요리 문화가 보수적인 프랑스에서도 실제 응용되고 있는 동양적 소스를 이용해 이른바 ‘누벨 퀴진’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요리와 조리법을 시도하고 있다.

향후 56하우스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소규모 수제 햄버거 점포나 대형 경양식 레스토랑 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자들과 함께 전국 규모의 56하우스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충해나갈 것이다.

7. 유림관광호텔

1) 창업주와 소재지 김유봉,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728

2) 창업 연도 1977년 1월 13일

3) 창업 동기 고국을 떠나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먼 나라에 와서 고생하는 미 2사단 장병들에게 쾌적한 숙소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여 우리나라를 좀 더 가깝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하며, 전쟁 후 폐허가 된 동두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 싶은 마음에 창업하게 되었다.

4) 영업 방침 ‘고객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호텔에 방문하는 고객의 행복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편안한



호텔의 옛 전경



초창기 호텔 로비



지미카터 미국 전 대통령 방문 시 감사장과 풍경



시간을 위해 객실을 찾는 고객에게는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드리고 즐거운 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으시는 고객에게는 입 안 가득 즐거움을 드리며, 행복한 시간을 위해 연회장을 찾으시는 고객님들께는 기억 속에 오래 간직될 행복함을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5) 유지 비결 1977년에 창업하여 2011년 창업 34주년을 맞은 유림관광호텔



창업자 내외



미담 관련 기사



개업식 초청장

이 동두천에서 지역의 대표 호텔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직원들이 오랜 시간 가족처럼 서로 아끼고 격려하며 호텔을 내 집처럼 사랑하는 애사심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고객의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모든 직원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6) 전망 모든 산업이 그렇겠지만, 서비스업은 유독 경기변화에 민감한 업종이다. 경기가 얼어붙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호텔의 방만객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처음 창업할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그에 따른 소비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지만, 아직도 호텔이라고 하면 일부 부유층만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들이 있다. 그리고 호텔의 매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영업부서의 사업들을 특화하여 영업하는 경쟁업체들이 점점 늘어가는 상황에 있다.

좋지만은 않은 경제 상황과 쉽게 변하지 않는 고객들의 의식, 경쟁업체들의 증가 같은 난제들이 있지만, 유림관광호텔의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우선 전철 개통 후 우리 시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그에 따라 시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 그에 따른 고객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쾌적한 환경이 어우러지는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시 정책에 따라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면, 충실한 관광호텔 본연의 모습을 선보일 수 있다. 그리고 고객의 점점 더 높아져 가는 의식 수준이 전망을 더 밝게 한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감사장과 백악관의 상징인 독수리문양의 액세서리 선물

7) 비화 또는 에피소드

(1)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 방한

우리 호텔의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큰 일은 1979년 6~7월에 있었던 지미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었다. 당시 30여 명의 수행원이 한 달여 동안 유림호텔에 머물렀다.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음식을 대접하고 우리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알려 한국에 대한 친근함과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노력했었다. 수행원단이 귀국하면서 고마움을 표하며 전해준 카터 대통령의 감사장은 지금도 프런트데스크 한쪽에 걸려 있다.

(2)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팀의 징크스

1970년대 말 ~ 198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에 변변한 잔디구장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축구선수들이 훈련을 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았고 청소년 선수들은 더욱 훈련 장소가 열악했다. 평소 축구에 관심이 많았던 창업주 김유봉 사장은 미 2사단 내에 좋은 잔디구장을 섭외하여 사용 허락을 받아 청소년 축구 국가 대표팀을 초청하였고 그 해에 대표팀이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후로도 몇 해 동안 훈련시즌이 되면 청소년 대표팀은 유림호텔에 묵으며 2사단 잔디구장에서 훈련을 하였고 그때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어, '유림 호텔에서 훈련하면 이긴다'는 재미있는 징크스가 생겼다. 그 당시 선수 생활을 하고 지금은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최순호 감독이나 이태호 감독 등은 지금도 근방을 지나치면 꼭 들러 그 시절을 추억하곤 한다.

8) 하고 싶은 말 유림관광호텔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1977

년 지역 최초의 관광호텔로 첫발을 내디딘 유림관광호텔이 많은 고객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어느덧 34년의 세월이 흘렀다.

호텔 개관 이후 34년의 세월 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업소로 동두천을 찾으시는 많은 손님들께 우리 지역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다.

유림관광호텔은 “고객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라는 이념 아래 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고객 위주의 친절한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을 실천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당시 내용이 담긴 신문기사

8. 송월관

1) 창업주와 소재지 송월관 떡갈비 창시자 故 강옥매 님이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리 이담면 197번지에서 시작

2) 창업 연도 및 송월관 역사

1945년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리 이담면 197번지에서 시작

1950년 6월 25일 ~ 1953년 7월 휴전 시까지 휴업

1953년 7월 동두천 이담면 생연2리에서 영업 재개

1976년 故 강옥매님의 자 박용달 영업 승계

3) 창업 동기 송월관은 해방 전에는 한정식집으로 운영하다 해방 이후 시어머니께서 갈비로 메뉴를 바꾸셨고 갈비 생김새가 두툽하니 시루떡과 색깔 크기가 비슷하여 ‘시루떡’처럼 생겼다고 “떡갈비”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떡갈비라는 명칭을 손님들이 붙여줬으니 손님들이 창업을 한 셈이네요. 시어머니는 음식 만드시는 것을 워낙 좋아하시던 분이셨는데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다 보니 지금까지 송월관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영업 방침 음식점의 기본은 음식의 맛과 질이지만 고객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송월관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맛을 추구하며 좋은 품질의 갈비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되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손님을 내 가족같이 생각하며 안전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 유지 비결 항상 초심이란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한결같이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음식을 만들어서 친절하게 대접하였기에 지금껏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6) 전망 송월관떡갈비는 어머니가 최초로 만드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떡갈비집이 있지만 송월관은 송월관만 만들 수 있는 비법으로 음식을 만들었으며 이 맛을 백 년 이상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송월관이 동두천의 명실상부한 명소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7) 비화 또는 에피소드 (1) 동두천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 ‘동두천의 특산물’이 무엇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다들 가우뚱하는 상황에서 어느 학생이 자신있게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답했다고 하네요. “송월관 떡갈비”

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그 학생의 재치에 웃음이 나오더군요.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는 열무 등 엽채류가 특산물이라고 합니다.

(2) 항상 해마다 명절 전날 떡갈비를 포장해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명절 음식도 많을 텐데 왜 이리 해마다 오는 걸까 조금 의아했는데요. 알고보니 손님의 아버님, 어머니가 생전에 떡갈비를 너무 좋아하셔서 설, 추석, 제사 때 상에 올려놓느라 포장을 해가신 거였습니다. 그런 분들 생각하면 송월관 운영하는 보람이 생기더군요.

8) 하고 싶은 말 송월관의 주 고객은 가족 단위 손님입니다. 보통 3대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이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요즘 점점 잊혀져가는 ‘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군요. 가족



들이 함께 모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 이를 바라보는 자식들의 흐뭇한 모습, 할머니가 손주들의 입에 떡갈비를 뜯어 넣어줄 때의 행복한 미소...

송월관 떡갈비의 역사가 2011년 66년째를 맞이하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기 위해 백 년이고 이백 년이고 송월관을 유지시키고 싶습니다. 동두천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신 귀한 손님들이나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유일한 특별음식으로 맛과 친절을 기억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정성도 함께 하겠습니다.



9. '산 아래 쉼터'

1) 창업주 최천례

2) 소재지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135

3) 창업 연도 1968년 3월

4) 창업 동기 아버님이 수년간 마을 이장직을 맡아 봉사만 하는 것을 보시고 어머님은 소요산 자락에 예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세파에 지친 마음과 산행에 흘린 땀을 씻으며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풍성한 먹을 거리를 만들어 허기를 달래주고자 시작하였다.

5) 영업 방침 <산 아래 쉼터>에 다녀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음식점으로 특히,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다시 찾고 싶도록 하기 위해 양심껏 신선한 재료를 구입해 맛을 내고 친절로 정성을 다하고 있다.

6) 유지 비결 <산 아래 쉼터>를 찾는 손님들이 거의 지인이므로 특별히 유지 비결은 없지만 항상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처음 찾아오신 손님에게도 내 집 같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역시 쉼터라는 이름값을 했던 것 같다.

7) 전망 소요산 자락에서 쉴 수 있는 공간, 먹을거리 공간, 즐길 수 있는 공간, 볼거리가 있는 공간, 이러한 문화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소망을 품으며 이제 지하철도 들어오고 등산객들의 유형이 다양하므로 가족 단위나 단체 단위로 대상을 선정하여 계속 노력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사계절 소요산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쉼터가 되리라 생각한다.

8) 비화 또는 에피소드 흐르는 세월 속에 변해가는 우리집의 명칭은 처음엔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황해식당>에서 동생이 물려받아 <짧은 언니>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지금 장녀인 딸이 운영하는 <산 아래 쉼터>로 공식 명칭이 바뀌어 왔다. 명칭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은 어머니가 동네 어르신 강 할머니한테 전수받은 육개장의 양념 비법인데, 지금도 '뚝배기버섯육개장'으로 이어지며 그 인기는 여전하다.

<산 아래 쉼터>가 있기 이전에 <황해식당>을 운영하시던 어머니는 슬하에 3녀 1남을 두셨는데 어머니의 식당 운영을 보고 자라 나름대로 자신을 가지고 <산 아래 쉼터>를 승계했지만 막상 손님을 직접 대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

특히 손님을 대할 때 두려움이나 떨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직접 경영에 뛰어들어보니 생각보다 손님을 모시는 일이 훨씬 어려웠다. 나름대로 손님에게 즐거움과 아늑함을 주기 위해 노력하며 음식 또한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새로이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땀고 새로운 자세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머니가 운영하고 계실 때인 1980년 초에는 한 때 켄터키 프라이드치킨 가게로 영업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튀긴 닭을 사먹으러 오던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지금은 50대가 되어 가끔 우리 가게에 찾아와서 그때의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을 터뜨리곤 한다.

소요산 입구라는 장소의 특성상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오



고 그들의 취향과 식성을 고려하여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도록 노력도 하지만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특히 주정하는 사람, 음식 타박하는 사람, 심지어는 행패 부리는 사람이나 시기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식당을 스쳐간 사람들과 사연들이 식당의 연륜으로 쌓여왔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연들을 만들고 감사하면서 손님들이 편안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9) 하고 싶은 말 〈산 아래 쉼터〉를 단순한 식당이 아닌 모두가 쉬어가는 작은 문화 공간들로 꾸며 지인들과 함께 숨 쉬는 공간으로 꾸미고자 한다. 식당을 처음 시작하던 배고프고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오랜 단골들과 추억을 공유하며 새로이 변화에 적응하고 주도하는 편하고 아늑한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10. 형제불고기

1) 창업주와 소재지 이필성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2동 823-201

2) 창업 연도 1963년

3) 영업 방침 3대를 이어온 가게인 만큼 항상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료의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재료가 그 음식에 맛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닦아놓은 명성을 잇고 맛을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4) 유지 비결 주방과 홀이 이어져 모든 손님이 모든 주방을 보며 믿고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맛과 더불어 청결에 대한 믿음을 드리고 좋은 재료와 좋은 식자재를 이용하는지 모든 손님들이 직접 보시고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 가게에 대한 믿음이 가장 큰 유지 비결인 것 같습니다.

또한 3대째 내려온 형제불고기를 멀리 다른 곳에서도 다시금 찾아오는 단골 손님에 대한 고마움을 알기에 가격도 최소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서 음식을 드시게끔 합니다. 그것이 가게를 물려주신 할아버님의 뜻이라 여겨 그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전망 노포란 오래된 가게의 뜻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래된 속에 존경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음을 알고 있듯이 오랜 역사와 오랜 맛을 지켜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의 작은 화재로 인해 예전의 모습은 지워졌지만 그 맛과 정성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6) 비화 또는 에피소드 할머니, 할아버님과 어머니가 겪으신 많은 이야기들을 다 전해 듣지 못하고 전해드리기에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형제불고기에 담겨져 있겠지만 제가 기억하고 전해드릴 이야기는 너무나도 소소합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가게를 운영하실 적에 동두천에는 고깃집이 이곳밖에 없어서 항상 많은 손님이 북적대는 가게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일하고 또 많은 손님들과 함께 어우러져, 너무 바빠 손님이 직접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드시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과 손님이 거의 경계가 없었다 하니 참 정겹고 훈훈한 풍경입니다. 돈은 받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만 미처 여쭙보질 못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런 일이 있지만 돈은 받습니다. 대신 서비스는 많이 드립니다.

7) 하고 싶은 말 오랜 역사와 오랜 맛을 지켜낸 것을 자랑이라 여기는 만큼 그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옛 기억 속에 형제불고기를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은 계속해서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 그 기억 속에 오래 오래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찾아주심에 마음과 맛과 질로 보답하겠습니다.

11. 삼복횃집

1) 창업주 여기성

2) 소재지 동두천시 중앙동 583-22

3) 창업 연도 1969년 11월 24일

4) 창업 동기 지금부터 42년 전 현재 이 자리인 동두천읍 생연4리 584번지에 터를 잡고 지금의 상호와 똑같은 '삼복'으로 가게를 시작했다. 바텐더 의자 6개와 방 2개, 홀 테이블 2개로 점심시간 메뉴로는 100원짜리 냄비우동과 생선매운탕이었다. 저녁 시간에는 매운탕과 생선회를 전문으로 했고 주류는 거의 막걸리였다. 그 당시 지나가는 손님이 생선초밥이 뭐냐고 물어볼 정도로 회음식(사시미, 복매운탕, 민어탕)이 대중화하지 않았고 동두천에는 유일하게 '삼복횃집' 하나밖에 없었다.

5) 영업 방침 1984년 2월 27일 아들(여인호) 명의로 변경, 삼복횃집을 대물림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아버님의 노하우를 그대로 물려받아 정직하고 청결하게 오시는 모든 손님에게 정성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운영한다.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신선하게 드실 수 있도록 생선과 해물을 그날그날 구입해서 특별한 요리법으로 종업원 없이 식구끼리(부인과 처남)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리를 하고 있다.

6) 유지 비결 4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갖은 희비 곡절이 많았지만 입맛이 까다로운 손님에게는 이해와 설득으로, 그러나 더 많은 손님들께서 칭찬과 격려로 힘을 주셨기에 이제껏 유지할 수가 있었다. 특히 손님들도 대물림으로 할 아버지와 손자에 이르기까지 단골이 되어 찾아주어서 희망과 용기를 얻어 힘든 것도 잊고 살았다.

7) 하고 싶은 말 예전에는 가장 변화했던 거리가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생연로를 찾던 사람들의 발길이 어느새 신시가지로 옮겨가고 자연히 여기 원시가지가 낙후됨을 안타까이 여겨 음식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활성화 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음식점 지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가을이면 문화예술제에 맛자랑을 주관하며 음식점주들과 머리를 맞대고 각자 음식의 특성을 살려 쓸쓸해진 거리를 예전처럼 활기차게 해보고자 '생연로 상가 번영회'를 구성하였고 협력과 창조에 힘쓰는 상인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해보



지만 좀처럼 변화가 없다. 부디 사람들 북적거리는 그 시절이 되돌아 오기를 바랄 뿐이다.

12. 태화관

1) 창업주 곡소남(중국인)

2) 소재지 동두천시 생연동 586-46

3) 창업 연도 1965년

4) 창업 동기 동두천 음식문화거리 중앙동자치센터 앞에 자리하고 있는 태화관은 정통중국요리로 50년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중국인이 운영하고 있었으나 태화관에서 주방 일을 보고 있던 유영조 씨가 인수해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그 이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십수 년 주방에 있던 유영조 씨가 결혼하면서 한 식구처럼 가까이 지내던 정으로 1984년도에 가게를 물려주었다.

5) 영업 방침 예나 지금이나 남편(유영조)이 주방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고 있어서 오랜 세월 고유의 맛을 지키고 있다. 남편은 중국인에게 전통요리를 전수받아 변함없이 옛 맛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6) 유지 비결 아직도 주방장인 남편은 무척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나는 남편을 존경한다. 정말 긴 세월 한결같이 꼭두새벽에 일어나 신선하고 좋은 재료 구입하느라 애쓰며 손님 한 분 한 분 특성에 따라 정성껏 알맞은 음식을 만든다. 태화관 특별메뉴는 '북경면'이다. 물론 양장피, 탕수육도 특유의 맛을 자랑하지만 북경면은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남편이 개발한 특별한 음식이다. 별도의 광고도 없이 입소문을 타서 북경면을 드시러 오시는 손님이 많은 편이다. 앞으로도 그날그날 구입한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하여 남들보다 저렴하고 넉넉한 양으로 손님을 모시려 한다.

7) 비화 또는 에피소드 30년 전만 해도 동두천에는 그다지 큰 식당이 없어서 피로연이나 약혼식 등 큰 잔치나 모임 장소로 이용되었다. 약혼식을 태화관에서 하신 분들이 지금도 가끔 오시어 옛일을 회상하며 식사를 하신다. 그리고 지금은 중년이 되신 분들이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친구들과 자주 들르곤 했다면 음식 값을 안 내려고 도망갔던 일, 또 이 층에서 뛰어 내리던 일, 화장실 천장을 뚫고 도망간 일,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며 옛 추억이 서려 있는 정겨운 곳이라고 한다. 동두천을 떠나 몇십 년 만에 왔는데도 맛있으며 분위기가 그대라라며 감회에 젖곤 하시는 손님들도 있다.

식당을 운영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기 마련이지만 우여곡절도 많았다. 다른 중국집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처음에는 음식배달을 하였다. 배달원들은 무던히도 속을 썩었다. 수금을 하여 도망가고 음식 배달 간 집에서 지갑을 훔치기도 하여 뒷수습을 하느라 곤욕을 치루기도 하였다. 우리 집 특유의 맛을 지키려고 주방에 남편과 나와 둘이서 일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들어 배달 일은 십여 년 전에 그만두고 우리 식당을 찾아주시는 손님만 정성을 다하여 모신다.

8) 하고 싶은 말 특별히 친절하지도 남들이 다하는 서비스도 없는 우리 식당을 여전히 애용해주시는 손님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우리 집이 소방도로 계획으로 추억이 깃들어 있는 옛집을 헐고 신축을 하였으나 옆집과 시 측의 보상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13. '넓은 공간'

1) 창업주 박정희

2) 소재지 동두천시 상봉암동 8

3) 창업 연도 1980년 7월 20일

4) 창업 동기 현재는 커다란 주차장으로 변했지만 1980년 당시 복개 공사 전 소요산 맑은 계곡물이 흐를 때 집 마당에 토종닭을 키우면서 외부손님에게 백숙

을 해드렸더니 맛이 썩 괜찮으니 식당을 해보라는 권유로 식당을 시작하였고 터가 워낙 넓어서 <넓은 공간>으로 이름 지었다.

5) 영업 방침 모든 재료는 신선을 위주로 현지 조달하고 직접 조리하며 화학 조미료를 줄이고 우리만의 노하우로 만든 천연조미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이익보다는 풍성한 서비스에 중점을 둔다. 그리하여 얻어진 것은 30년 단골 손님들이 잊지 않고 찾아주는 것이다. 한 번 오신 분들은 두 번 세 번 소요산을 떠올릴 때마다 <넓은 공간>을 생각하신다고 한다.

여러 사람들의 식성을 맞추느라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여 손님들의 입맛을 충족시키느라 노력하며 모든 재료는 국산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쫄깃하고 담백한 해물파전과 산더덕을 안주로 한 시원한 동동주가 일품이다. 동두천 신시가지가 형성되기 전에는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명소였으며 결혼 피로연 및 각종 생일파티로 유명했다. 소요산까지 전철이 이어지면서 동창회 및 전국에서 모여드는 산악인들의 모임장소로 많이 이용하신다.

6) 전망 부모님이 사시던 그 자리에 그대로 물려받은 가게이기 때문에 아직도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워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위하여 변함 없는 맛깔스런 음식으로 소요산에서의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따스한 미소까지 더불어 선물해 드린다면 두고두고 <넓은 공간>을 기억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7) 비화 또는 에피소드 여기 장소가 경기의 소금강으로 알려져 있는 명산이라 30년 동안 많은 유명인사(연예인, 사회인사) 분들이 다녀가셨다. 기억나는 분들이 있다면 전 MBC 앵커 엄기영님으로 사인과 함께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가시며 꼭 다시 찾겠노라 하셨다. 그리고 코리아나 가족 분들이 토종닭을 맛있게 드시고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신 일이 있다.

8) 하고 싶은 말 소요산입구에 들어서 매표소를 지나면서 눈에 띄는 식당이 바로 <넓은공간>이다. 관광지인 소요산에 대한 좋은 느낌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보이지 않는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손님들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듣기 좋은 컨트리 음악으로 분위기를 살리고 고풍스러운 식탁에 마주 앉아

편안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전국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행락객들에게 동두천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주려 노력하고 있다.

14. 생연칼국수 · 삼계탕

1) 창업주와 소재지 창업주는 장매 김천 초씨이며 소재지는 동두천시 생연2동 823-188번지. 옛 만보당 사거리에는 시외버스가 다녔고 거리가 변화하여 시장이 생겼으며 그곳에 맛있는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서 지금까지 성업 중입니다. 생연칼국수, 삼계탕집, 평남면옥, 형제불고기집, 황주집 등 지금은 이사갔지만 송월관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2) 창업 연도 1966년도(한자리에 45년간 있습니다.)

3) 창업 동기 휴전 후 어수선했던 시기에 집 앞에 시장이 생겨났고 장사꾼들을 상대로 칼국수, 찐빵, 도너츠 등을 만들어 팔게 되었습니다.

4) 영업 방침 처음 그대로의 맛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청결함에 상당한 신경을 씁니다. 오랜 손님을 알아보고 반깁니다.

5) 유지 비결 좋은 재료를 쓰는 것(참쌀-강화도, 인삼-금산, 대추·밤-공주, 바지락조개-전북 고창, 닭-강원 웅추 등) 20년 이상의 거래를 통해 그 맛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6) 전망 전통을 지키는 한국의 특수한 음식으로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음식이고, 특히 동두천의 특성상 외국인들을 접하는 기회가 많으며 그들도 즐기는 음식이기에 발전성이 높아 자랑스런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 비화 또는 에피소드 미군으로 근무하며 우리 삼계탕을 애용하던 분이 본국으로 돌아가며 우리 집





명함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분의 측근이 한국에 업무 차 올 일이 있었는데 꼭 동두천 삼계탕집에 들어서 삼계탕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곳이 하와이여서 먼 거리에 익은 음식을 보낼 수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또 무궁화유지에 일본 바이어가 7~10명씩 2~3개월마다 오시는데 저희 삼계탕을 드신 분이 한국에 오실 때면 인천공항에서 전화로 주문하고 곧장 저희 집으로 오셔서 삼계탕을 드시고 한국 일정을 시작합니다. 또 귀국할 때 꼭 드시고 가면서 일본에서 분점을 내달라고 하셨습니다.

8) 하고 싶은 말 동두천모범음식점 제1호로 1970년도에 지정된 후 계속 매년 갱신하여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손님 반, 타지인 반일 정도로 음식을 먹기 위하여 외지에서 찾아오는 음식점 명소가 된 만큼 자식에게 대물림해도 부끄럽지 않도록 맛과 멋을 그대로 유지 전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근에 주차장이 없어 차량으로 찾아오시는 손님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15. 길손식당

1) 창업주와 소재지 김병영, 동두천시 생연동 615-27

2) 창업 연도 1977년 5월 28일

3) 창업 동기 음식에 관심을 갖고 3년 동안의 포장마차를 졸업한 후 이곳에 동지를 튼 지도 30년이 넘었다. 길손식당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본인의 생일인 5월 28일에 개업하였다.

4) 영업 방침 모든 식당이 마찬가지겠지만 신선한 재료와 정성으로 음식을 만들었으며 길손식당은 30개가 넘는 메뉴로 오시는 고객들이 각자 입맛에 따라 주문을 해도 중식이나 한식 모든 식단이 준비되어 있어 찾는 사람들을 기분

종게 만든다.

5) 유지 비결 길손식당을 찾는 분들은 거의 단골손님들이다. 30년 넘게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주방 일을 맡고 있는 아내와 그의 언니가 오시는 손님들의 입맛은 물론 성격까지 파악해 이웃사촌이 되어 식구처럼 특별한 친절이 없어도 부담 없이 드나들도록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6) 전망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있는 그대로의 음식 솜씨로 찾아주시는 손님들을 맞을 것이다. 다행히 아들이 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해 식당을 물려받을 준비를 해주니 길손식당의 앞날이 더욱 튼튼하고 동두천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7) 비화 또는 에피소드 언젠가 KBS방송국 전국노래자랑 사회자인 송해 씨가 찾아왔다. 촬영 차 다른 스태프들과 같이 들어오셨는데 찾아준 것도 영광스럽 다며 음식값을 사양했는데 정말 잘 드셨다며 음식 값을 놓고 가셨다. 동두천에 많은 식당 중에 길손식당을 찾아온 이유가 있었겠지만 갑작스러운 유명인들의 방문에 놀란 적이 있었다. 아직도 80이 넘는 연세에 방송을 하시는 송해 씨를 닮고 싶다.

8) 하고 싶은 말 경로의 나이에도 꾸준하게 배달 일을 해 주위에서 젊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모자를 눌러쓰고 배달통을 들고 오토바이로 동두천 시내를 하루 종일 휘도는 일이 어떤 운동에 비유해도 뒤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더 젊어 보이고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운이 남아 있는 한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늘도 거리를 힘차게 활보한다.

16. 대풍당

1) 창업주와 소재지 안봉석,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822-74

2) 창업 연도 1971년 6월

3) 창업 동기 1960년 5·16군사혁명 이후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신 아버님이 생계 유지를 위해 숯을 가마니로 파는 도·소매상을 운영하시다 수입이 별로 되지 않자 업종을 변경하여 용기점(항아리)을 차리셨다. 용기점을 하시다가 ‘대풍상회’라는 그릇점을 운영하시던 중 서울 종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시는 친구가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점포 일부에 금은방을 조그맣게 시작하게 되어 1990년부터 아들(안국보)이 부모님께서 지으신 ‘대풍당’ 이름을 그대로 이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4) 영업 방침 옛날에는 금보다 주로 은방이라 하여 은제품 위주로 많이 팔았고 그 당시에는 금 한 돈에 2,500원씩 거래되었다. 그 후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소비가 미덕이 되는 시대로 바뀌면서 정확한 품질과 가격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도의를 이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고 철저한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을 계속해야 됨을 믿고 실천하였다.

5) 유지 비결 과거에는 금은방 도·소매상마다 공장이 있었고 기술자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그 대신 제품의 품질이 각각이었고 이제는 서울의 몇 개 안 되는 공장에서 거의 전국에 동일한 품질과 순도를 지닌 제품이 유통되기에 더욱 철저한 친절 상담만이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 유지하는 비결이다.

6) 전망 사업은 세계를 무대로 볼 수 있듯이 지역 장사는 그 고장의 무대며 얼굴과 같이 정품을 보증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제품을 합성석보다는 원석을 판매하고 개발할 수 있어 노력에 따라 끝이 없는 사업이라 생각한다.

7) 에피소드 신용을 모토로 최소한 지역에서 제일가는 업체가 되기 위해 이익이 없어도 최고의 순도를 지닌 물건을 계속하여 공급하던 중 이상한 소문과 함께 사업의 침체기가 다가왔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찾던 중 종로4가 도매상 친구가 반지를 하나 갖고 오라기에 가져가봤더니 우리 점포에서 믿고 고용했던 기술자가 서울 기준으로 보니 기술이 떨어지고 우리 점포 물건에 한동안 속임수를 써서 일을 했었다. 그 이후 불신을 씻는 과정이 수 년이 걸려야 겨우 신용을 회복할 수 있었다. 믿고 기대했던 많은 분들께 지금도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또한 그 당시엔 전자 손목시계도 밀수품으로 돼 있었기에 그 나름에 고통도 많았다. 지금은 어느 제품이나 수입 관세를 물고 들어와 그 부분은 항상 떼땀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

8) 하고 싶은 말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한 것 같지 않지만 어느 사업이고 좋은 때가 있으면 어려운 때도 있는 것이니 내 사업 안에서 긍정과 희망을 찾아 꾸준한 노력을 한다면 멀리 보아도 녹슬지 않은 세월을 간직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은 예전같지 않고 모든 사업 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이니 저희도 이제 1대에서 2대로 넘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바뀌면 더 어렵고 힘들게 되는 게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이 좋아서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사업은 번창한다.

작으나마 이 지역 사회의 도움이 되고자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하면서 항상 이웃과 함께 하고 이웃이 잘 살아야 내 사업도 잘 된다는 신념으로 함께 하는 믿음과 신용만이 사업의 길이라고 믿는다.

17. 대장간

1) 창업주와 소재지 고인백, 동두천시 생연2동 821

2) 창업 연도 시작은 1963년

사업자등록증 날짜 1975년 3월 31일

3) 창업 동기 남의 사업장에서 직공으로 있다가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하게 됨

4) 영업방침(노하우) 성심성의껏 농민들과 소비자가 원하는 농기구와 연장을 만들었음

5) 유지하는 비결 비결이라고 딱히 말할 순 없지만 예전에는 팽이, 호미, 낫이 없으면 농사짓는 데 어려워 소비가 많았고 또한



농기구 만드는 일이 힘들어 망설였지만 내 손으로 만든 농기구를 찾는 분들이 있어 보람으로 느끼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음

6) 앞으로의 전망 농업도 산업화, 기계화되기 때문에 농기구를 찾는 분들이 줄고 있으며 중국산에 밀려 전망이 어둡다.

7) 비화 또는 에피소드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만 못하고 일거리도 줄어 일을 매일 못하고 모아서 하는데 유난히 내가 만든 농기구를 여러 개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어 왜냐고 물어보면 나중에 대장간이 없어지면 그때는 돈이 있어도 연장을 살 수가 없어 나중에 사용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가슴이 뭉클해 진다.

8) 하고 싶은 말 농기구를 다루고 만드는 일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힘이 부치더라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고 싶다.

9) 숨은 이야기 대장간은 풀무를 차려놓고 쇠를 달구어 온갖 연장을 만드는 곳이다.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작업과 재료를 높은 온도로 가열한 뒤 물에 담가 식히는 담금질 처리로 이루어진다. 화덕에서 벌정계 달구어진 쇠를 집게로 꺼내어 모루 위에 얹어놓고 쇠매를 내리치며 모양을 만들고 쇠매질을 어느 정도 하여 물에 담그고 그것이 식으면 다시 화덕에 넣어 풀무를 돌리고 그렇게 달궈진 다른 쇠를 꺼내어 쇠매질을 반복하여 원하는 모양이 갖춰지면 숫돌에 갈아 날을 세우고 자루를 끼우면 낫이나 칼이나 도끼가 완성된다. 그렇게 쇠를 밀가루 반죽 주무르듯 하는 과정에서 아무 잡념도 없는 무아지경에 빠지는 장인정신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이다. 요즘에는 부업생활이 현대식 주방문화로 개조되고 농기계도 발달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장간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은 만큼 우리 일상과 멀어져 가고 있다. 아날로그를 거쳐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점포가 되었지만 그래도 5일장마다 찾아주시는 시골 어르신들의 푸근한 인심과 따스한 정을 섞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풀어 놓는 곳으로 또 동네에서 대장간에만 있는 기구들을 필요로 할 때마다 선뜻 기구를 들고 나가 고쳐주고 다듬어주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생연2동에 있는 대장간에서는 두 내외분의 힘찬 망치소리가 오늘도 켕! 켕! 켕! 똑딱 똑딱

음악처럼 정겹게 들린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천직으로 알고 대장간을 지키겠다는 투박한 목소리와 순박한 미소가 쓸쓸하지만은 않았다.

18. '시원 한의원'

1) 창업주와 소재지 이운형,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822-16 <시원 한의원>

2) 창업 연도

1961년 상패동 <남산모루> 개원

1970년 현재 <시원한의원> 이전

2005년 8월 18일 작고

2006년 9월 20일 차남 이세규 원장 개원

3) 창업 동기 형제 많은 가족을 부러워하셨던 조부님은 남매를 두었는데 11년 연배 누님 한 분과 2대 독자이신 이운형 옹은 만팔을 어렵게 기르고 그 밑으로 두 형제를 세 살, 네 살에 질병으로 잃으셨다. 그 아픔으로 약초 재배를 하면서 한약 공부를 해 국가고시에 합격, 한의원을 창업하게 되었다.

4) 영업방침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운형 부친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직하게 남의 일도 내일처럼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안타까움에 늘 앞장서서 도움을 주셨다. 한밤중에 우는 아이를 등에 업고 문을 두드리던 동네 어머니들은 할아버님이 계셔서 많은 도움과 의지가 되어 감사했다는 말씀을 하신다.

5) 유지하는 비결 교육열이 높으셨던 조부님은 네 살 때부터 사랑방에 선생님을 모셔놓고 이운형 옹에게 한학을 가르치시며 일생을 책을 가까이 하시도록 실천하셨고 농사처럼 땅을 잘 다듬고 씨를 뿌리며 수확할 때까지 모든 정성으로 가꿔야 한다는 뜻으로 아호를 시원(時園)으로 정하셨다.

6) 앞으로의 전망 한시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느리게 사는 방법으로

시조, 율창, 서당에서 책 읽는 소리를 하루라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 자택 3층에 영풍정(永風亭)이라는 연구실을 마련해 아침 일찍 참새먹이를 주시면서 새들과 같이 옛 선인들의 소리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스로의 행복과 즐거움을 또는 여유로움을 찾으셨기에 우리 자식들도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아주 조금이라도 닮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7) 비화, 에피소드 2007년 초겨울 50대 중년신사가 음료수를 들고 한의원을 방문했다. 찾아온 손님은 고교시절 신문을 돌리던 학생이다. 신문수금을 하러 가면 신문 놓지 말라고 냉대하는 집도 많은데 아버님께서 “쉬었다 가라! 얼마나 힘이 드니!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많을 거다” 하시며 따뜻한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던 어른이신데 별 수 없더니 진작에 찾아 뵈 것을 하고 아쉬움으로 돌아가던 일, 어느 한 분은 허리를 다쳐 업혀 왔다 침 한 방에 걸어갔던 일, 버스가 많이 없을 때 시골에서 오신 분들에게 며칠씩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고 약을 달여 먹이며 치료하시던 너그러움이 많았던 분, 불량한 어린 소년들을 보시면 집이 어디냐 부모님은 계시냐 등 덕이 있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고 용돈을 손에 쥐여서 보내는 인자함도 잊지 않으셨다.

8) 하고 싶은 말 온화한 성품으로 꽃, 국악, 시조, 율창, 책 읽는 소리, 서예를 매일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녹음하고 연구하시어 무형문화재 제32호(2000년)로 지정되시고 후학에도 많은 노력을 하면서 한약방 사랑방에는 좌담으로 꽃을 피우시고 세상 살아가는 향기 주셨던 그때가 그리웁니다.

19. 실비집

1) 창업주 송순덕

2) 소재지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2동 691

3) 창업 연도 1969년

4) 창업 동기 손맛이 특별히 좋다는 주위의 권유로 식당을 시작했고 동두천의 특색을 살려 부대고기를 메뉴로 선택하였음

5) 영업방침 40년 이상 1가지 메뉴로만 특별한 맛을 내는 소스를 개발하여 손맛과 기술로 한자리에서만 영업을 하다 보니 입소문에 의해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셨다. 이제는 아들이 물려받아 계속 영업을 하고 며느리는 분점을 내어 신시가지 메인 프라자 2층에서 같은 이름의 간판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6) 유지하는 비결 간판이름이 실비집이라서 음식 값을 저렴하게 받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최고급 재료를 쓰면서 최고의 맛을 내고 있으며 식당 내부도 깔끔하게 손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어 찾아주는 발길이 꾸준하다고 본다.

7) 앞으로의 전망 우리 실비집은 주 고객이 젊은 층이다. 몇 분이 오셔서 체인점을 내지 않겠느냐고 물었지만 대량으로 만들면 음식 맛이 달라질 것을 우려해서 거절했다. 앞으로도 우리만의 비법인 특이한 국물 맛으로 정성을 다할 것이다.

8) 비화 또는 에피소드 예전에 실비집의 부대찌개를 드셔보신 분이 외국에 살면서도 그 맛을 잊지 못해 한국에 다녀갈 때마다 포장해 해 가는가 하면 국내 전라도나 경상도에서도 주문이 들어와 진공포장해서 택배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영화 '썩' 촬영차 포천에 왔던 영화배우들이 일부러 실비집을 찾아주었을 때는 정말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다.

9) 하고 싶은 말 동두천에 또 하나 사업장을 내면서 사업의 기틀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신 이유가 바로 부모님의 장인 정신이 아닌가 생각하며, 오시는 손님 모두 늘 즐겁게 식사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부대찌개 하나의 메뉴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다. 바라는 건 우리 동두천도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음식에 대해 시에서 많은 홍보 역할을 하여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한다.

20. 황주생고기

경기도 북부인 동두천시에서 지정한 음식문화거리 입구에 위치한 '황주생고기' (대표 김명중, 정윤미)는 국내산 한우와 한돈으로 반백 년 동안 손님들의 입맛을 만족시킨 대물림 식당으로 유명하다.

1) 창업주와 창업 경위 황해도 황주가 고향인 선친(故김용학 씨)께서 6·25 전쟁 때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와 어려운 피난살이를 하던 중 동두천에 자리를 잡아 1967년 고향이름을 따서 음식점을 시작하셨고 마침 터미널 입구라 재래시장 상인들과 터미널 손님을 상대로 해장국과 함께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정육점식당을 운영했다.

1989년 아들인 저희 부부가 물려받으면서 국내산 한우, 한돈, 특수부위를 취급하는 생고기집으로 변화를 주었다.

2) 영업 방침과 특성 판매하는 꽃등심과 차돌박이, 안창살, 제비추리, 치맛살 등은 소 한 마리에서 몇 kg 밖에 안 나오는 특수부위이고 김 대표가 직접 동두천과 양주의 도축장을 찾아가 선별해온 생고기를 냉동하지 않은 신선한 상태로 손님상에 내놓고 있다.

1989년 결혼하자마자 주방을 맡고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를 믿고 모든 일을 물려주신 그때만 해도 특수부위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이라 저렴한 가격에 가져다 쓸 수 있어서 저희도 저렴한 가격에 팔았더니 손님들에게 인기가 대단했다.

테이블이 10개 밖에 없었기에 한 번 방문한 손님은 앉았던 자리와 얼굴까지 기억할 수가 있었다. 자연스럽게 다시 오시는 분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덕분에 손님이 늘어나 동두천에 고깃집하면 “아하, 황주 생고기!”라며 입소문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제비추리, 토시살, 부챗살, 갈빗살, 안창살, 등심, 새치살 등 소에서 귀하다는 고기는 도축장에서 황주생고기 사장이 모두 싹 쓸어간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다.

저희 집 대표 메뉴는 육사시미(치맛살)라는 부위이다. 고추장에 양념을 해서 생고기를 찍어 먹는 메뉴로 육회는 배를 곱게 채를 쳐 파, 마늘, 후추, 참기름, 잣 등을 양념하여 먹음직하게 차려낸다. 숯 값이 비싼 터라 가스로

교체하는 식당이 많아졌다. 숯불장치도 만만치 않아 너도나도 간편한 가스로 바꾼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어머니 때와 마찬가지로 백탄을 고집하고 있다. 요즘은 백탄에 가스를 제거하여 튀지 않는 숯이 나와 그나마 쓰기가 더욱 편해졌다.

3) 에피소드 참숯에 구워먹는 고기는 정말 일품이다. 어느 날 경기도도청에서 취재자 나오셨던 기자 한 분은 황주숯불고기에 반해 이 지역을 지날 때면 꼭 찾아와 숯불고기 맛을 보고 가신다. 그래서 멀리서 찾아오는 단골손님이 또 한 분 늘어난 셈이다.

4) 앞으로의 각오와 비전 우리 식당의 메뉴 중 비빔국수나 동치미국수, 잔치국수, 된장국수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이다. '구제역이다, 불경기다' 하지만 우리 식당을 찾아주는 지인들은 더 먼저 우리를 걱정해주시며 항상 용기와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힘을 주시고 가신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가족은 모든 정성과 친절한 자세로 일할 것이다. 저희 부부가 가업을 이어받은 것처럼 장남(김민화)이 한식, 중식, 일식, 양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복요리는 2번이나 떨어졌지만 다시 도전하고 있는 중이다. 먼 훗날에도 2·3·4대 대대로 선조의 고향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황주 생고기'는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여 더 나은 먹을거리로 손님(이웃)의 건강을 책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희 업장을 믿고 변함없이 아껴주시는 손님(이웃사촌)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21. 흥성면옥

1) 창업주 노중익

2) 창업 연도 1959년

3) 창업 동기 1950년 6·25사변으로 황해도 구월산 땅굴 속에서 6개월을

지내신 후 1951년 1·4후퇴 당시 서울로 남하, 오장동에서 친구 세 분과 냉면집을 경영하시다가 실패를 하시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1959년 동두천에서 혼자 식당을 창업하셨고 1979년까지 경영하시던 중 건강상 이유로 폐업, 1999년 딸(노원애)인 제가 아버님이 지어놓으신 그 이름으로 대를 이어 다시 개업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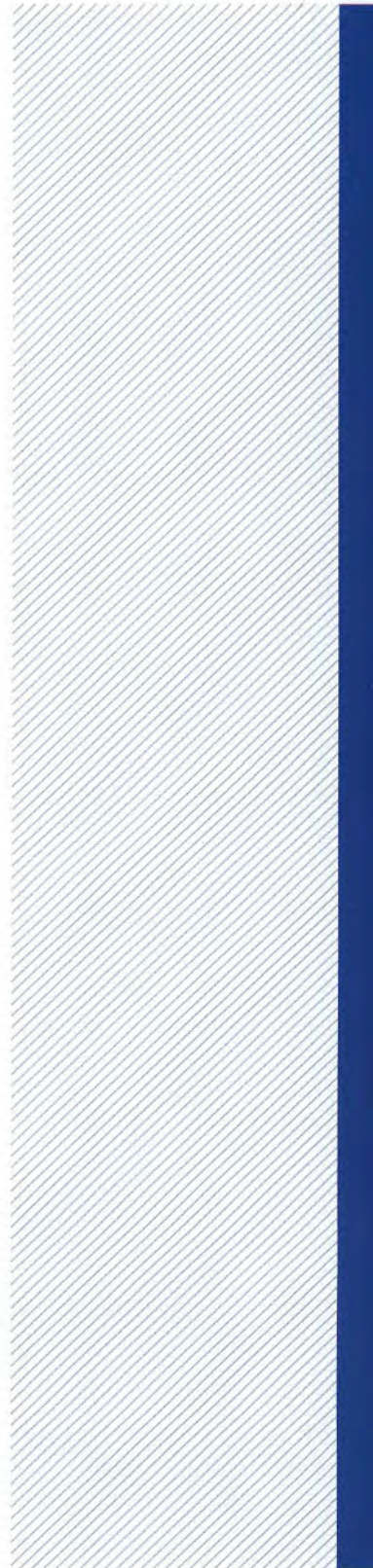
4) 영업방침 옛날 그 시절엔 배고픈 시절이라 우선 배불리 먹어야 한다며 양은 충분히 가격은 저렴하게 많이 팔고자 하는 박리다매(薄利多賣)라는 아버님의 원칙으로 365일 연중무휴와 음식은 주인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그 뜻을 이어받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운 겨울 영하 23도 날씨에 냉면이 몇 그릇이나 팔리겠냐며 제가 문을 닫자고 말씀 드렸더니 아버님께서 몇 그릇일지라도 오시는 손님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하루에 냉면 다섯 그릇을 판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제 와서 아버님의 영업방침이 얼마나 훌륭하셨는가를 알 수 있었기에 그 뜻에 어긋나지 않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5) 앞으로의 전망 동두천이 발전되고 인구 유입으로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절로 식당 문이 바빠지겠지요. 버스터미널 근처에 위치했지만 터미널 폐쇄로 인한 우려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 다행이며 신시가지가 조성되었음에도 꾸준히 찾아주시는 손님들 덕분에 앞으로도 밝은 전망을 기대해봅니다.

6) 에피소드 20년 공백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다 간판을 보고 옛 생각이 나서 들어오셨다고 하시는 분들을 대할 때마다 기쁨 찡함을 느끼며 다시 문을 열길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황해도 사투리를 쓰는 손님들이 오시면 아버님 생각에 눈시울을 적시며 다시 한 번 아버님의 뜻을 새겨보곤 합니다.

7) 하고 싶은 말 옛날 그 시절에는 냉면이 최고 외식음식이었지만 지금은 고기를 드시면 냉면을 공짜로 드리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돌솥밥과 된장찌개, 생선(정식), 갈비탕, 고기류 등 다양한 메뉴개발과 반찬 10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꾸준히 저희 가게를 이용하십니다. 그 분들께 감사하고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부모님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지어주신 '홍성면옥'이 2대에서 끝나지 않고 3, 4대 후손에까지 이어져 그 이름이 영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8절 동두천 기행문

1. 왕방산

일자 : 2006. 10. 14 토요일, 맑음, 무더위, 시야 불량

장소 : 경기도 포천시, 동두천시

인원 : 나+2명

코스 : 왕산사-왕방산-국사봉-새목고개-갈산동

교통 : 갈 때-시외버스(노원역-포천, 3,000원)

을 때-하차(갈산동-동두천2사단 앞), 3300번 시외버스(동두천2사단-노원역 1,800원)

1) 국사봉(國射峰)

조선 세조는 과거를 후회하고 말년에 산수를 벗 삼아 명산대찰(名山大刹)을 찾고 수렵에도 취미를 가졌다. 하루는 신하들과 함께 칠봉산에 사냥을 나왔다. 수렵할 때는 사방위 중에서 어느 한 곳을 정하여 시사(示射)를 하고 그 다음에 사냥이 시작되는데, 이 관례대로 왕은 칠봉산에서 동북방으로 마주보이는 왕방산의 주봉(主峰)을 겨누어 활을 쏘았다하여 그 주봉을 국사봉(國射峰)이라 이름한다.

- 동두천문화원 -



2) 새목고개

동두천시 광암동에 쇠목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 입구에는 그리 높지 않으나 그 밑에 소(沼)가 깊은 폭포가 있으며 이 폭포에 얽힌 이야기가 예부터 전해온다. 오래전 이 폭포 밑의 웅덩이에 이무기가 살고 있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것은 평소에는 이무기가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얄전히 있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밭에서 일을 하던 농부가 소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폭포 밑으로 끌고 왔다. 농부는 소를 웅덩이 옆 나무에 매어 물을 먹도록 한 뒤 자신도 누워서 눈을 붙였다. 단잠을 자고 일어난 그는 나무에 매어 놓은 소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매우 당황하고 말했다. 소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농부에게 있어 생계의 근원이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그는 한참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소의 고삐 줄만이 웅덩이 속으로 드리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고삐 줄을 잡아당겨 보니 소는 흔적조차 없고 한 가닥의 줄만이 올라왔다. 어처구니없는 노릇이었지만 그는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었다. 힘없이 마을로 돌아온 농부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은 별 해괴한 소리를 다 한다며 괜히 소를 잃어버린 핑계를 대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여러 날이 지나 또 다시 비슷한 일이 발생하자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면 우연한 일은 아닌 것 같다.”

“모두 다 웅덩이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혹시 그 웅덩이 속에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해 보자고. 함정을 만들어 걸려들게 하는 거야.” 그들은 이렇게 계획대로 소를 끌고 가 웅덩이 근처에 묶어 놓고 모두 숨어서 기다렸다. 얼마 후 웅덩이 속에서 커다란 이무기가 슬그머니 올라오자 마을 사람들은 너무 놀라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잠깐 사이에 이무기는 소를 끌고 웅덩이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이무기가 사라진 후 한동안 낮이 나갔던 사람들 중의 한 명이 입을 열었다.

“난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그 속에 이무기가 살고 있었다니!”

“이대로 있다가 계속 피해만 보겠어. 무슨 수를 써야지”, “생각해 보게. 이 일은 소하고 연관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 우리가 이 근처에 소를 매어 두지 않으면 이무기도 웅덩이 밖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오랜 의논 끝에 이무기를 이용하기로 하고 그 피를 짜내었다. 가뭄이

들 때마다 이무기가 있는 웅덩이의 물을 퍼내어 징을 두들겨 이무기의 화를
 돌운 후 심술로 비를 내리게 함으로써 아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이무기가 소를 끌고 사라졌던 웅덩이는 그 이후 '송아지 웅덩이'라 불리었으며
 또한 마을의 이름도 '쇠목'이라 부르게 되었다.

※ '송아지 소'의 이무기 전설

광암동 쇠목마을 입구 폭포에는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가 심술로 마을의 소를
 잡아먹는데 이를 보다 못한 노승이 이무기가 사는 연못에 사금파리를 모아 쏘아
 부어 이를 막아 마을 사람들을 도왔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 동두천문화원 —

3) 소요산은 오데로 갔나...산행기

세 명이 매달 한 번씩 산행을 하다가 요번에 한 명을 추가로 영입할 기회가
 생겼다. 일행 중 한 명이 같은 아파트동에 사는데 참석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집 큰녀석 초등학교 동창의 아빠라는 것을 알고서 같이 산행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는데..., 그새 소문이 난 걸까? 우리 3인산악회의 군기(?)가 뻑세다는
 걸 눈치 챘는지... 아줌마만 쳐다봐도 강퇴 조치한다는 그 엄격한 군기(?)...
 그래서 회원이 강퇴될까 봐 인적이 드문 산만 선택해서 산행을 하는데...
 불참의사를 통보받고 3명이 산행에 나섰다.

노원역에서 버스 출발 시간이 06:50, 07:10분이다. 혹시 몰라서 노원역
 시외버스정류장(정확히 말하면 도봉면허시험장 건너편)에서 06:30 집합, 그러나
 한 명이 늦는 바람에 07:10발 버스를 기다린다. 시외버스가 도착하여 버스에
 승차하면서 기사분께 포천에서 내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나 잠이 들어
 목적지를 지나칠 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1인 3,000원)

버스에서 한숨을 자고 나니 포천에 도착했다(08:15). 아침을 먹기 위하여
 이리저리 돌아다녀 봐도 문을 연 곳은 김밥집뿐이 없다. 그 중 한 곳 김밥천국에
 서 음식을 주문하는데 먹을 만한 게 콩나물해장국하고 김치찌개가 있다. 그래서
 김치찌개 하나, 해장국 둘을 주문했고, 음식이 나오는 사이 슈퍼마켓을 찾아
 준비물을 샀다. 해장국을 먹는데, 헐~ 콩나물해장국에 웬 조개, 거기다가
 양파는... “아이고 이것 잘못시켰네.” 하면서 억지로 먹는데... 콩나물해장국의
 시원한 맛은 사라지고 양파의 달짝지근하고 매운 맛만(내가 제일 싫어하는 맛,

양파를 넣은 라면 포함) 느껴지는데 조개껍데기는 목구멍에 걸리고, 아~ 짜증난다. 이제는 음식 주문할 때마다 양파가 들어가느냐고 물어봐야 하니...

배낭도 내가 제일 무겁다. 오늘을 위하여 여름 배낭에서 겨울 배낭으로 바꿨으며, 가방 속에는 물병 3개(2000cc, 1000cc, 600cc)와 상의 한 벌, 디카 한 대(몹시 무거움), 비상용품 그리고 김밥 3줄이 들어 있는데, 물은 긴 코스를 갈 때는 항상 이 정도는 준비해간다. 사실, 나같이 물을 마시는 인간은 자연 도태되어 지구상에 얼마 안 남은 존재들이다. 따라서 멸종위기 종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마땅히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나같은 존재들이 없다면 누가 팔당호 물을 다 마시나...

식사를 끝내고 미리 준비해 둔 승용차(일행의 친구)로 왕산사로 올라간다. 왕산사에 도착하여 산행 준비를 마치고 바로 산행을 시작한다(09:10). 널찍한 임도는 곧 끝나고 계곡을 따라서 올라간다. 바람이 없어 무더위를 느낄 무렵 잠시 휴식하는데(09:30) 일행 중 한 명이 반바지로 갈아입는다. 한 명은 반바지로 출발했고, 또 한 명은 반바지로 갈아입고, 나만 긴~바지다. 걸리적거리는 긴바지를 입고 가는데 돌이서 신나게 나를 약 올리며 올라가는데 나는 아침 먹은 게 잘못됐는지 속이 영 꼴꼴하다.

이정표가 하나 보인다. 왕방산 정상 1.0km를 가리키는데 젊은이 4명이 식사 중이다(09:40). 어느 정도 올라갔을까 호병골 분기점 삼거리가 나온다(10:00). 119표시판(왕방산2-2 호병골 분기점)과 이정표가 있는데 이정표는 왕방산 정상 0.4km, 왕산사 1.2km, 한국APT, 천주교 4.7km를 가리킨다. 다시 한 번 휴식 후 출발하니 왕방산 정상 직전 헬기장을 통과한다. 헬기장에는 부부가 한쪽에서 식사 중이다. 이윽고 왕방산 정상에 도착한다(10:10).

왕방산 정상

정상석(왕방산 737.2m)은 정상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각점은 실제 정상에 있다. 정상에서 시야는 별로이다. 해룡산 너머가 잘 보이지 않으며, 소요산 뒤쪽의 마차산이 희미하게 보인다. 정상에는 우리 일행 3명과 또 한 명, 젊은이 4명이 있었는데, 아줌마 한 명이 재빠르게 올라와서 삼각점을 짹째 딱 찍고는 한 바퀴 돌아보고 내려간다. 멍~~~순식간이다. 까만 등산복을 입은 조그만 아줌마인데, 날렵한 몸매(?)로 보아 단숨에 왕방산 정상을 올라온 모양이다. 일행이 나에게 말한다. “단숨에 올라왔겠지?”, “그럴 거야, 저 날렵한

몸매에 익숙한 솜씨로 삼각점을 딱 찍는 품이...” 나는 일행의 아랫배를 바라보며 “우리는 두 번 쉬었는데...” 추측건대 아줌마 혼자 올라왔을 리는 없고 남편은 중간에 퍼졌거나 아래쪽 헬기장에 있는 모양이다.

4명의 젊은이들이 사과 한 개와 포도 한 송이를 갖다 주어서 우리 일행 3명과 먼저 올라온 연배분과 함께 먹고는(사과는 그동안 껍질 문제로 산행기가 시끄러웠던 점을 참작하여 껍질째로 먹었다) 잘 먹었다는 인사와 함께 출발한다(10:30). 정상 아래쪽에 삼거리 이정표는 새목고개 3.1km, 오지재고개 3.3km, 포천을 가리키는데 같이 국사봉 방향으로 출발하였던 연배분은 나중에 보니 보이지 않는다.

안부사거리에 도착(10:38), 이정표는 국사봉과 새목고개 2.8km, 깊이울, 심곡저수지, 왕방산 0.5km를 가리킨다. 직진하여 무명봉을 넘으니 교통호 2개를 건너고 다시 교통호가 가로지르는 무명봉을 넘는다. 송전탑(10:46)을 지나서 안부를 지나서 오르막길, 무명봉을 우회하니 능선길이 나오고 다시 오르막길을 올라서서 무명봉을 지나간다.

화살표가 있는 무명봉(10:53), 전망대 글씨를 지우고 화살표를 그려 놔다. 앞에는 동두천시립공동묘지가 보인다. 옛날에 보던 시립묘지와는 판판으로 잘 정비가 되었는데, 화장이 일반화되는 추세인데 저렇게 돈을 퍼부어 공동묘지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차라리 시립 납골당을 지었으면..., 화살표봉을 넘어서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좌측은 간목지대인데 된통 신고를 한다.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한 번 짹 미끄러지며 산신령님께 “제가 왔습니다.” 라고 신고를 올린다.

안부사거리가 나온다(10:58). 이정표 좌 : 임도(새목고개) 1.5km, 우 : 포천, 뒤 : 왕방산 1.6km를 가리키는데 직진하여 잠시 휴식 후 오르막길을 올라가니 무명봉이 나온다(11:12). 국사봉과 왕방산 사이에서 제일 높은 무명봉이다. 능선길을 따라가다가 조수보호구역 포천시 팻말 지나서 다시 오르막길, 큰 소나무가 많은 봉우리를 지나서 다시 무명봉이 나오는데(11:24) 조그만 공터에 큰 소나무와 작은 소나무가 마주보고 있다.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보니 119표시판(왕방-9)이 나무 기둥에 붙여져 있는데 다시 오르막길, 암릉길을 지나서 국사봉을 향해 올라가다 보니 119표시판(왕방-10)을 지나간다.

국사봉 헬기장에 도착(11:40). 널찍한 헬기장,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잠시 쉬는데 주위의 왕방산, 해룡산, 칠봉산, 소요산, 마차산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잠시 쉬다가 출발(12:05)하여 출입금지구역 왼쪽 철조망을 따라서 진행하는데,

출입금지구역에 '웬 여자 민간인?' 이상타 하면서 정문으로 내려선다. 정문부터는 잘 포장된 콘크리트 도로이다. 바로 앞 왼편에 널찍한 공터가 있는데 입구에 119표시판(왕방산 3-1 국사봉정상)이 서 있다. 기왕이면 헬기장 옆에 세웠으면 좋았을걸..., 아쉬움을 뒤로 하고 포장도로를 따라 내려가는데 소요산으로 이어지는 능선과 그 옆의 종현산 조망이 좋다. 아침 먹은 게 잘못됐는지 속이 영~답답했었는데 국사봉에 와서야 한결 나아졌다.

새목고개 도착(12:34). 지도상 새목고개로 적혀 있는데 동두천문화원의 자료에 따르면 새목고개가 맞는 것 같다. 포장도로는 새목고개 북쪽으로 내려오는데 포천방향은 비포장이다. 절개지 고개를 지나서 남쪽으로 가보니 국사봉 방향으로 임도가 보이고 입구에 산지정화초소와 왕방산 종합안내도가 있다.

그 옛날 호랑이가 줄담배 피던 시절인 10여 년 전 어느날, 새목고개를 걸어서 넘어간 적이 있다. 둘이서 차를 끌고 출장 나왔다가 이쪽길이 궁금하여 동두천에서 포천으로 넘어가는데 동두천시립공동묘지를 지나서 비포장으로 차량이 돌에 자꾸 걸려서 나는 차에서 내려 새목고개를 넘어서 포천 금동까지 걸어서 내려간 적이 있다. 그때는 절개지가 없어서 새목고개에 올라서자 국사봉의 출입금지구역이 한눈에 들어왔었다. 그런데 지금은 절개지가 만들어져 있다. 동두천에서 포장을 하느라고 절개한 것 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포천 방향은 비포장이다.

새목고개를 출발하여(12:30)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절개지 위 소나무가 인상적이다. 잠시 덩불을 헤치며 올라가자 전망장소가 나온다. 뒤쪽을 돌아보면 국사봉과 왕방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리고는 다시 잡목지대가 나온다. 나무가 작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이는데 중간중간 가시덤불도 지나면서 히~죽 웃음을 머금는다. '니그들 아까 올라올 때 반바지입고 자랑했지, 어디 한 번 당해봐라.' 다시 히~죽 미소를 머금고...

광고탑봉을 지나간다(13:00). 동두천시 지도에는 수위봉(649m)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뭐가 쓰여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생각하다가 그냥 지나쳤다. 광고탑 주위는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는데 좀 더 진행하여 내리막길 직전까지 간다. 그리고는 주저앉아 점심식사를 하려는데 반바지를 입은 두 명의 종아리는 지난주 나의 팔처럼 여기 저기 긁힌 상처가 보인다. 산악대장(산을 잘 타서가 아니라 세 명 중 산을 가장 많이 다녀서)이 준비물을 안 시켜서 종아리가 그렇게 뻐다면서 나보고 고소하냐고 한다. '그~럼~~~, 말로 표현 못하지~~~.'

점심은 김밥 3줄, 막걸리 3통, 족발 하나, 사과 3개... (나 혼자 다닐때는 달랑 김밥 2줄 끝) 앉자마자 목이 말라 막걸리를 한 컵씩 짹~악, 또 한 컵씩 짹~악 들이키니 갈증이 싸~악 가신다. 그리고는 김밥과 족발로 배를 채우면서 막걸리를 또 한 컵씩~ 얼큰하게 취기가 오르면서... 밥을 먹다말고 너무 졸리다. 그래서 밥 먹다 말고 대자로 누워 잠시 잠을 청했더니 일행이 깨운다. '아이씨~~~졸린데~~~왜 깨우는겨~~~.' 또 한 명도 취기가 올라 잠시 쉬어가자고 하는데 나는 30분만 더 자자고 애걸복걸, 그래도 막무가내로 가자고 깨우고 흔들고 차고... 해서 할 수 없어 일어나서 출발하는데(14:30), 아~왜~ 두 달 전 잡은 산행 날에 약속을 잡는 거야~~~. 대구에서 누가 올라와서 술 한 잔 해야 한다는 중차대한 약속이 있다면서 서두른다.

출발하여 싸리나무 군락지를 지나가고 병커를 지나간다(14:34). 병커를 지나자 내리막길인데 지나간 여름, 짝짓기를 못한 늑등이 매미가 마지막으로 연인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나 대답은 없는 것 같다. 능선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일행이 한마디 한다. 아니 저 친구 힘이 장사야, 그렇게 먹고도 끄떡없으니... 그렇게 말 이야 의성촌놈이라서 그런가... 그렇게 내려오니 임도와 만난다(14:52).

능선을 타고 진행해야 하는데, 일행 중 한 명이 자기가 와본 곳이라고 우긴다. 우기면서 하는 말, "여기 내 친구들과 와본 곳이야. 임도 따라 쭉~욱 가면 소요산 가는 능선과 다시 만나!" 외뻐다는데 할 말이 있다. 사실 꼭 능선을 타고 소요산 가란 법은 없고,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소요산만 가면 되니까... 결정적으로는 술기운 때문에 능선 타고 갈 기운이 없고, 혹 임도 따라 걷다보면 술이 깨지 않을까 해서... 좋다고 임도 따라 걸어간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루에 20~30km를 가는 프로 산꾼도 아니고 대충대충 산행하는 어중이떠중이 산꾼들이니 큰 문제는 없다.

임도는 짧은 콘크리트 포장길이 중간중간 뜨문뜨문 있으며, 대부분의 구간은 비포장 임도길이다. 왜 중간중간 뜨문뜨문 포장을 했는지 의아해하며 걸어가는데 산쪽으로는 야생화가 만발했고, 노랑나비 한 마리가 길을 인도한다.

다시 임도는 능선과 만난다(15:11). 잠시 휴식을 취하며 소요산을 어떻게 가야 하느냐며 설왕설래 하다가 임도 따라 가서 소요산을 치고 올라가자고 결론을 내렸는데, 아직도 술이 덜 깬다. 임도 따라 계속 고! 임도를 따라 가는데 저 멀리 마을이 보이고 우측으로 작은 임도길이 보인다. "우리 이제 저쪽으로 가야 하는 것 아냐~" 하니 곧바로 내려가자고 한다.(여기서 눈치챘어야 하는데~) 좌측으로

흑염소 농장을 바라보고 내려가는데 흑염소들이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을 동그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저거 한 마리면 30~40명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냐, 한 20명이면 돼~ 돼지들만 있나 그렇게 많이 먹게~ 아냐 저거 얼마 안 나와~.”

구시렁거리며 내려가는데 민가에 가까워졌는지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다 (15:36). 마을 초입 다리 난간에 걸터앉아 잠시 쉬는데 민가의 개 한 마리, 우리를 바라보고는 가끔씩 짖어댄다. 멋진 사냥개다. 점박이 무늬, 마르고 긴 다리, 사냥개의 날렵함을 갖춘 멋진 녀석!! 차량이 한 대 지나가는데 일행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다.

출발하여 마을에 들어섰다(16:10). 앞쪽으로는 소요산 능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간다. 파장 분위기다. 한 명은 저녁 약속 때문에 하산해야 하고, 나머지 하나는 술 때문, 또 하나인 나는 아침 먹은 게 영~ 안 좋은 데다 술기운으로 맥이 다 풀렸다. 그러나 파장 분위기를 감지하고 가는 데까지 가보자고 슬~쩍 한번 발버둥쳐 본다. 이 동네는 동두천시 걸산동이다.

북쪽으로 뿔동네가 있는 모양인데, 지형을 살펴보면 그쪽에서 소요산으로 곧바로 오르는 길은 없지만(철조망에 막혀서) 우리가 가고자 했던 능선으로 오르는 길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동네는 고립된 지역으로 먹고살 만한 충분한 농토가 없는 지역이다. 우리 일행이 마을로 들어오면서 한 첫마디가 “이 동네 사람은 뭘 먹고 사나~”였다. 그럼 봄에 나물이나 약초 캐러 산에 다닐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길이 있을 것이다. 물론 마을 사람들은 없다고 했지만 그것은 시각차이다. 우리가 산꾼이니까 등산로는 없다고 했지만 약초 캐러 다니는 길이 있다고 물었으면 있다고 했을 수도 있다.

걸산동

지구 최후의 오지마을, 아님 대한민국 최후의 오지마을, 아니면 경기도 최후의 오지마을. 이 동네의 위치를 보자. 북쪽에는 소요산이 가로막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소요산에서 왕방산에 이르는 능선이 막고 있고, 남쪽으로는 소요산-왕방산에서 분기된 능선이 막고 있다. 그러면 유일한 출입구는 서쪽이다. 그런데 여기는 미군기지가 막고 있다. 헐~ 나가는 길은 유일하게 지금까지 걸어온 임도가 유일하다. ‘아~하~ 그래서 임도길 중간 중간 띄엄띄엄 콘크리트 포장을 해놨구나~.’

저녁에 약속이 있는 일행 한 명, 몹시 몸이 단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약속 장소에 갈 수 있는데, 약속장소도 멀기만 하다. 신길동이니까 노원역에서 대각선으로 대략 1시간 정도 거리. 나머지 둘, 느긋하다. 우리 둘은 오늘 남는 게 시간이어~. 나와 약속이 없는 한 명은 오늘 재미있다고 한마디씩 한다. 서울 근교에 이런 오지마을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오늘 임도 따라 잘못 내려 왔으니 이런 곳도 구경하고.... 사실 왕방산-소요산 능선이야 많은 산꾼들이 지나갔겠지만 누가 여길 내려와 봤냐고...우리가 처음일 거라는 등...

마을 입구에서 만난 아줌마, 우리 중 한 명이 아픈 척하고 통장집에 부탁해보라고 한다. 통장이 바보도 아니고, 우리 중 그 정도로 연기할 위인도 없다. 정면 돌파하기로 하고 통장집에 부탁하러 갔는데 부재중. 삼거리 윗집에 있는 사람한테 기름값을 드릴 테니 버스 타는 데까지만 부탁한다고 해도 설레설레~, 지나가는 마을 트럭, 할머니 2분이 타고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도 설레설레~, 오늘이 갯날이란다. 도대체 얼마나 오지이길래~~~

결국은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마을 입구 다리에서 만난 차를 세워 겨우 얻어 탔는데, 아! 이 놈의 쏟아지는 잠~~~. 쏟아지는 것은 별이 아니라 잠이었다. 비포장 임도를 달리면서 덜커덩 덜커덩,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해도 쏟아지는 잠은 막을 수 없다. 결국은 몇 분을 못가서 쿵쿨쿨. 눈을 뜨니 동두천 미 2사단 정문 앞이다. 여기가 버스타기가 편할 것이라며 세워줬다(17:20). 이 자리를 빌려 동두천 오지마을에서 동두천 미 2사단 앞까지 차를 태워주신 분께 감사를 드린다.

2사단 정문 앞에는 택시들이 긴 줄을 서 있는데 길 건너 버스정류장에서 금방 떠난 3300번 시외버스(연천-분당 간)를 기다리다가 20분 후 또 다른 버스가 도착하였다. 버스에 올라타며 기사분께 “노원역에서 3명 내립니다” 부탁하고 잠을 청한다(17:40). 또 다시 쿵쿨쿨~~~. 버스가 의정부터미널에 들어갈 즈음에 잠에서 깨니 두 명은 아직도 쿵쿨쿨~~~. 버스가 출발하고 한 명이 깨고, 오늘 약속이 있다던 한 명은 아직도 한밤중이다. 노원역에 도착할 때쯤 잠을 깨우고 버스에서 내린다(19:10).

한 명은 약속장소로 가면서 배낭을 나에게 맡기는데, 나는 들고 있던 막걸리 통이 든 쓰레기봉투(어흐 냄새~)를 건네주며 처리를 부탁하고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후기

약속장소인 신길동에 갔던 일행한테 22:20분쯤 전화가 왔다. 맥주 한잔 하자고, “어딘데?” 하니 종각역을 지나고 있다고 한다. ‘그럼 대략 22시경 헤어졌구만. 한 명은 멀리 대구에서 올라오고, 한 명은 하루 종일 산속에서 헤매다가 만났으니까, 대략 한 시간 정도 만났구만. 대구에서 올라온 사람도 그렇지 모처럼 만났으면 좀 오래 있지. 영등포역에서 10시차로 땀구만. 새벽 1시 막차도 있을 텐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만남이구만~~~.’

‘그럼 뭐야, 그놈의 저녁 약속 때문에 산행도 제대로 못하고, 산행 후 뒤풀이로 소요산에서 매운탕도 못 먹고, 노원역에서 한 시간을 달려가서 한 시간 남짓 술 한잔. 그리고 한 시간을 달려서 돌아오고, 제대로 되는 게 없군~~~.’

교통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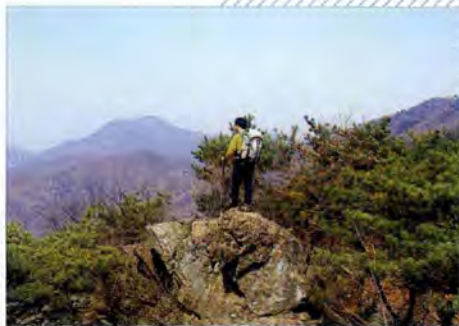
- 왕방산 : 상봉터미널, 동서울터미널에서 포천행 시외버스(수시)
- 소요산 : 의정부역 기차 매시 정각
- 수유역에서 좌석버스 : 셀 수 없이 많음
- 연천-분당 간 3300번 시외버스 매 20분 간격

2. 국사봉

1) 주말 산행코스

개척산행-국사봉(754m) · 경기 동두천-포천 왕방산~통재비고개 거쳐 오르는 새 코스

오지재고개에서 약 1시간 오른 장기바위에서 북으로 마주 보이는 새목고개~국사봉~왕방산 연봉(왼쪽부터). 포천 동쪽 운악산을 지나는 한북정맥은 수원산~죽엽산~용암산과 천보산(의정부-양주 경계)을 지나 불국산~한강봉~도봉산으로 이어진다. 이 한북정맥 용암산과 천보산 사이 287.3m봉(일명 백석이고개·축석령 서쪽 약 1km 거리)에서 북으로 가지를 치는 능선이 있다. 이 능선이 약 10km 거리에 이르면 또 다른 천보산(423m·양주-동두천-포천 경



계)을 빗어 놓는다.

이 천보산에서 서쪽으로 칠봉산(506.1m · 양주-동두천 경계)을 분가시킨 산줄기는 동두천과 포천 경계를 이루며 북동으로 나아가다가 해룡산과 오지재고개를 지나 약 4km 거리에 왕방산(王訪山 · 737.2m)을 빗어 놓는다.

왕방산을 얹혀 놓은 산줄기가 북서로 방향을 틀어 약 3km 거리에 우뚝 들어 올린 산이 국사봉(國師峰 · 754m)이다. 국사봉에서 계속 이어지는 능선은 수위봉을 지나 소요산으로 뻗어 나아간다. 국사봉은 족보상 형님뻘인 왕방산보다 6.8m가 더 높다. 그러나 산 높이를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왕방산 전위봉 쪽으로 생각하기 쉽다.

〈대동여지도〉에는 심곡산(深谷山)으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산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탐동계곡, 쇠목계곡, 왕방이계곡, 장림계곡, 깊이울계곡 등이 형성되어 있는 국사봉은 여름철 낚랑 장소로 인기 있다.

특히 정상 남서쪽 골짜기인 탐동 왕방이마을에는 신라 헌강왕 3년(872) 도선국사가 이곳에 머무르고 있을 때 왕이 이곳을 방문했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그래서 왕방이마을에서 동쪽으로 올라다 보이는 산을 왕방산이라 붙였다고 한다. 탐동에는 옛날 왕비가 나왔다는 설도 있다.

- (1) 왕방산과 국사봉구역이 나뉘는 곳인 통재비고개에서 올라다본 국사봉
- (2) 국사봉 정상을 대신하는 헬기장에서 북서쪽으로 조망되는 수위산(앞)과 소요산(뒤)
- (3) 국사봉 정상에서 남동으로 본 왕방산 정상(왼쪽)과 오지재 방면(오른쪽) 능선

등산로는 포천을 기점으로 하는 왕방산과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정상에 통신 부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등산을 꺼리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이유로 포천 방면에서 왕방산 정상에 오른 경우 국사봉 방면 통재비고개에 이르면 대부분은 포천 방면 깊이울유원지로 하산해버린다.

국사봉을 동두천 방면에서 오르내리는 코스가 있다. 이 코스는 대중교통이 불편했으나 최근 동두천행 광역 전철이 생긴 이후 새 코스를 찾는 등산인들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동두천중앙역(전 동두천역)에서 동쪽 골짜기 안으로 약 10km 거리에

왕방이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서 국사봉 산행은 북쪽 3km 거리인 새목고개에서 남동쪽 임도를 타고 약 1.5km 거리 갈림길에서 통재비고개로 오르면 간단하다. 그러나 이 코스는 짧기 때문에 하산코스로 이용된다.

국사봉을 길게 타려면 왕방이마을 남쪽 오지재고개를 기점으로 한다. 이 코스는 왕방산 남서릉~왕방산 정상~깊이울고개~통재비고개를 경유해 국사봉에 오른 다음, 새목고개로 하산하는 동두천 방면의 새 코스다.

북쪽 새목고개와 남쪽 오지재고개까지는 국사봉과 왕방산 서쪽 사면으로 7.5km 길이로 임도가 연결되어 있다. 오지재고개에서 왕방산 남서릉과 정상 북서릉 통재비고개까지 주능선에는 임도 방면으로 연결되는 등산로가 5가닥 있다. 따라서 주능선을 타다가 쉽게 임도로 하산할 수 있고, 반대로 임도를 이용해 주능선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오지재고개에 이르면 서쪽 해룡산 방면에 이동매점이 있다. 이동매점 건너편 산불조심 안내판 옆으로 난 길이 왕방산 남서릉 길이다. 낙엽송숲으로 이어지는 산길로 7~8분 오르면 꽃말(←왕방산 3.1km)이 있는 시계(市界) 능선인 남서릉 길로 올라선다. 이후 능선을 타고 5~6분 오르면 대진대학 방면 능선길과 만나는 삼거리다.

삼거리를 뒤로 하면 곧이어 어른 키 두 배는 뒹직한 케언이 있는 570m봉에 닿는다. 오른쪽 아래로 대진대학이 조망된다. 570m봉을 지나 15분 가면 왼쪽 임도 방면과 오른쪽 대진대학 방면 갈림길이 있는 사거리다. 사거리에서 15분 더 가면 포천 갈림길이 있는 삼거리에 닿는다.

삼거리에서 5분 거리에 이르면 암봉 아래에 닿는다. 길은 암봉을 피해 오른쪽 밧줄이 매인 급경사 바위사면으로 이어진다. 사면길을 올라 다시 능선에 붙으면 6~7분 거리에 헬기장이 나온다. 헬기장을 건너 5분 가면 능선길을 가로막는 약 15m 높이 절벽 아래에 닿는다. 오른쪽 우회길로 약 40m 가서 왼쪽 급경사 길로 30m 가량 오르면 암봉 꼭대기 너럭바위로 올라선다.

우산을 펼친 듯한 노송들이 그늘을 드리운 암봉은 장기바위라 불리는 곳이다. 20여 평 너럭바위에서는 왕방이계곡 상단부 새목고개와 국사봉이 조망된다. 그 오른쪽으로 왕방산 정상이 마주 보인다.

장기바위를 내려서서 남서릉을 타고 20분 오르면 왕방산 정상이다. 정상에서 오른쪽 헬기장 방면 북동릉 길은 보덕사(普德寺)나 문례현 약수로 가는 길이다.

왕방산 정상에서 왼쪽 북서릉을 타면 국사봉으로 이어진다. 20분 내려가면

깊이울고개에 닿고, 5분 더 올라 630m봉에 오르면 능선길은 오른쪽으로 휘돌아 국사봉을 마주보며 이어진다. 25분 거리에 이르면 통재비고개로 닿는데, 이 고개까지가 왕방산이다.

고개를 경계로 북쪽은 국사봉이다. 예전에는 이곳까지만 산행이 가능했고 무조건 하산했던 곳이다. 이곳에서 국사봉쪽은 요즘도 갑자기 군부대 훈련 상황이 생기면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1년에 한두 번이다.

마지막 풋말(←임도·새목고개 1.5km, 포천→)이 있는 통재비고개부터 국사봉 남릉을 타고 10분 오르면 흰색 말뚝(조수보호구역)이 나타나고, 이어 노송 군락과 철쭉나무들이 어우러진 바위지대를 기어오른다. 오를수록 더욱 가팔라지는 바윗길로 15분 오르면 국사봉 정상을 대신하는 헬기장으로 올라선다. 헬기장에서 북동쪽으로 약 80m 거리인 실제 정상에는 군부대 막사가 자리하고 있다.

조망은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에 떠있는 기분이다. 서쪽으로는 수위봉 뒤로 마차산이 멀리 감악산과 함께 조망된다. 북서쪽으로는 톱니 같은 산릉이 하늘금을 이루는 소요산이 종현산과 함께 마주 보인다. 북동으로는 깊이울계곡 건너 왕방산 북동릉이 마주 보인다. 왕방산 북동릉 뒤 멀리로는 광덕산, 백운산, 국망봉, 도마치봉, 민들기봉, 강씨봉, 귀목봉, 청계산으로 이어지는 한북정맥이 명지산, 화악산 등과 함께 펼쳐진다. 청계산에서 오른쪽으로는 왕방산 정상 뒤로 청계산, 운악산, 주금산도 시야에 와 닿는다. 남으로는 오지재고개와 해룡산, 칠봉산이 멀리 도봉산과 함께 눈에 와 닿는다.

헬기장에서 하산은 서쪽 지능선을 타고 내린다. 내려갈수록 길 흔적이 희미해지는 지능선으로 약 30분 내려서면 절개지에 식수시설이 있는 임도에 닿는다. 오른쪽 임도를 따라 8~9분 가면 새목고개 임도비석에 닿는다. 남쪽 임도를 따라 40분 내려서면 왕방폭포 입구 폭포수휴게소 앞이다.

오지재고개를 출발하여 왕방산 남서릉~왕방산 정상~왕방산 북서릉~깊이울고개~통재비고개를 경유해 국사봉에 오른 다음, 서쪽 지능선~임도~새목고개~왕방폭포 입구로 하산하는 산행거리는 약 11km로, 4시간 30분~5시간이 소요된다.

유의할 점은 국사봉 헬기장 서쪽 지능선 급경사 바위지대 길이 다소 위험하므로 초심자는 다시 통재비고개로 내려온 다음 서쪽 임도를 경유해 새목고개로 나오는 편이 안전하다.

2) 토정 이지함 글씨라 전해지는 암각문 바위, 동점마을 암각문

－ 토정이 직접 새겼다는 우리나라 중심

왕방폭포 입구에서 동두천 시내 방향으로 약 2km 나오면 동점마을 입구다. 이곳에서 북쪽 계곡 안으로 약 200m 들어서면 공터 앞 삼거리에 '남과 북의 중심지'라고 음각된 돌비석이 있다. 이 돌비석에서 오른쪽 농로로 약 100m 가면 왼쪽 계류 건너로 암각문(향토유적 제11호)이 있다.

‘일이삼사 육칠팔구 황중원길(一二三四 六七八九 黃中元吉)’이라 음각된 암각문은 오행설에서 유래된 내용으로, 이 마을이 우리나라 중심지이자 가장 길지이며,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토정 이지함이 직접 쓰고 새긴 것이라 전해지는데, 사학자들로부터 옛 생활풍습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아쉬운 것은 암각문이 있는 옆 사유지 땅을 고르면서 쌓은 석축과 함께 구분 없이 박힌 듯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언뜻 보면 석축을 쌓은 잡석으로 착각하게 된다. 석축공사 전부터 균열이 있었다는 암각문이 있던 그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일개 사유지 석축돌로 방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심각하게 파손되어가는 귀중한 문화재 보호를 위해 동두천시에서는 앞으로 암각문 뒤로 다시 석축을 쌓고 나무도 심는 등 암각문 보존을 위한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 한다.

3) 교통

- 인천·서울→동두천중앙역 평일 평균 30분 간격(1일 39회·05:20~22:30)으로 운행하는 소요산행 1호선 광역전철 이용
- 수유역(전철 4호선)→동두천 5분 간격(06:00~22:00)으로 운행하는 소요산행 36번, 37번(수유역~도봉산역~의정부~가능역~덕계동 경유) 버스 이용, 동두천에서 하차. 요금 교통카드 1,300원, 현금 1,400원
- 도봉산역(전철 4·7호선)→동두천 상기 버스 외에 39-5번(도봉산역~전곡) 버스가 10분 간격(06:10~22:30)으로 운행
- 동두천→탑동·오지재고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1일 6회[07:55(포천까지 운행), 10:00(송우리), 12:00(대진대), 16:00(송우리), 17:30(송우리),

19:40(포천)] 운행하는 50번 버스 이용. 요금 850원, 25분 소요

- 포천→오지재고개·탑동 1일 6회[09:10(포천 출발), 11:00(송우리), 13:05(대진대), 16:45(송우리), 18:30(송우리), 20:30(포천)] 운행. 요금 850원, 20~25분 소요
- 오지재고개→동두천 1일 6회(09:35, 11:25, 13:25, 17:00, 18:55, 20:55) 운행.
- 오지재고개→포천 1일 6회(08:20, 10:25, 13:00, 16:40, 18:20, 20:25) 운행
- 택시 전화 : (지역번호 031) 867-4301(개인택시조합), 865-3731(금강운수), 868-4118(미래교통), 862-3919(중앙운수)
- 동두천중앙역→서울·인천 평균 30분 간격(05:20~22:03)으로 운행

4) 식사(지역번호 031)

동두천과 탑동 사이에 있는 설렁탕 전문 진미옥(865-3626), 평남초계탕 막국수(861-2413), 떡갈비 전문 송월관(865-2428)과 예지원(869-9323), 삼계탕·수육·부대찌개 전문 은행나무집(862-9040) 등이 이 지역 미식가들에게 인기 있다. 왕방이마을 폭포휴게소(867-3554), 귀거래식당(867-9792), 산마루집(867-8426) 등 이용, 오지재 이동매점(주인 박수분, 011-9947-3436)에서 잔치국수(3,000원), 우동·라면(2,000원), 찰밥(3,000원), 마두즙(2,000원), 커피(1,000원) 등을 판다.

동두천 일원 등산코스 최신 정보 문의=송정덕(전 동두천시산악회 등반대장, 휴대폰 016-9628-2589) - [출처] [주말산행코스] 개척산행-국사봉, 754m·경기 동두천-포천작성자 동성

3. 자재암

1) 단기운이 휘도는 1,300년 전의 비수

- 허목의 원효폭포는 사라졌지만 차의 정기를 금세 되살려내는 젓같이 맛있는 찬물은 유유히

동양 3국 불교계의 거인인 원효스님은 차인들 사이에 차의 달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스님은 전국 곳곳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절을 세웠고 그 곳들은 하나 같이 좋은 차물이 나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곳이 경기 동두천시 상봉암동 1번지, 소요산 자재암의 원효샘. 1,300년 전 원효스님이 이 물로 차를 달여 마시며 수행한 곳으로 차물로는 손꼽히는 명수이다. 이곳에는 신라 고려 때는 물론 조선 중기까지도 시인·묵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 말부터 차 문화가 쇠퇴하기 시작한 탓인지 내로라 하는 차인들이 다녀간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서울에서 100리, 동두천시가지를 북쪽으로 2km가량 벗어나면 오른쪽에 소요산 입구가 나온다. 서울에서 가까운 명승지여서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자세하다. 소요산 들머리 주차장에서 아스팔트길을 따라 30여 분 걸으면 일주문과 원효폭포, 원효대가 차례로 눈에 들어온다. 원효대를 오른쪽으로 돌면 자재암으로 오르는 돌계단이 나타난다.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가파른 벼랑 위의 아슬아슬한 길이어서 ‘발을 포개야’ 오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지금은 바위 절벽에 단단히 축대를 쌓아 계단을 만들어 두었다. 탄탄하게 깔린 계단을 얼마 오르지 않아 자재암에 이른다.

350여 년 전 숙종 때 학자인 미수 허목(1595~1682)의 문집 『미수기언』의 「소요산기」는 “폭포 옆 높이 10여 인(1인은 8척으로 약 2.4m)이나 되는 벽에 비스듬히 걸린 나무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원효대가 나오고 이를 지나면 소요사가 있다.”라고 했다. 지금 원효대 원편의 나지막한 폭포를 원효폭포라고 부르지만 폭포의 위용은 없다. 폭우가 쏟아지면 모르지만 바위 사이로 졸졸 흘러 내리는 물을 폭포라고 하기에는 어딘지 낮간지럽다는 느낌이다. 수백 년 전에는 수량이 많아 장대한 물줄기를 떨어뜨렸던 폭포가 지금은 이런 초라한 모양으로 남은 것일까.

“자재암 동쪽 모퉁이에서 폭포 구경을 하는데 절벽 위에 5, 6장(1장은 약 3m)이나 되는 큰 바위가 서 있고 암벽 사이 돌구멍에서 샘물이 졸졸 흐르는데 이것이 원효샘이다.” 허목이 묘사했던 대로 지금 자재암 동쪽에서 건너편을 바라보면 바위에서 떨어져 내리는 옥류폭포가 있고 그 왼쪽에 끝이 뾰족한 촛대절벽이 보인다. 그 절벽 아래에 원효스님이 도를 닦던 자연석굴이 있고 석굴 속 바위 틈으로 흐르는 샘물이 바로 원효샘이다.

샘물이 솟아 나오던 석굴은 지난 1980년 입구를 막아 나한전 기도처로

만들었다.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닥에는 깨끗한 대리석이 깔려 있다. 샘물이 흐르던 석굴의 끝부분에는 돌을 깎아 만든 제단이 있다. 그 위에 부처를 모시고 주위에 16나한을 둘러 세워 '영산회상'을 재현해 놓았다. 불상 뒤 바위틈에서는 지금도 예나 다름없이 석간수가 흐른다. 이 물은 대리석 바닥 아래 묻어둔 파이프를 타고 나한전 입구 오른쪽으로 흘러간다. 돌을 조각해 만든 용의 입에서 물이 흘러나오도록 해 놓고 여기에 '약수정'이란 이름을 붙여 놓았다.

고려 때의 시인 백운 이규보(1168~1241)는 이 물맛을 "젓같이 맛있고 차갑다."고 했다.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을 나일론 끈에 매달린 플라스틱 바가지에 가득 담아 마셔 보니 역시 예사 물맛이 아니다. 무색, 무취, 무미 등 찻물의 기본을 고루 갖추고도 마시고 나면 단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오르는 그런 물이다. 800년 전 이규보가 맛보았던 물맛이나 350년 전 허목이 맛본 물맛이 이랬을까.

차칭 초보 차꾼이라는 정광 스님은 자재암에 온 지 5년째. 간디스토마에 걸려 약을 잘못 먹고 초죽음이 된 스님은 이 물 덕분인지 씻은 듯 병이 나았다고 했다. 동료 스님의 권유로 지난해부터 차 맛을 배우고 있다는 스님의 두어 평 남짓한 방에서 차 대접을 받았다.

차는 지리산 쪽에서 만들어진 일반 식당용으로 보리차처럼 가볍게 마시는 '무거리차', 그것도 지난해에 판 한물간 것이었다. 좋은 물에 어울리는 좋은 차라면 얼마나 좋을 것일까 하는 바람도 마음뿐, '무거리'든 뭐든 주인이 내놓는 차를 가지고 사족을 달 형편이 아니었다.

찰주전자에 차를 듬뿍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일단 따라낸 다음 그 물은 버렸다. 그리고는 어지간히 식힌 물을 주전자에 붓고는 약간 뜸 들여 우려냈다. '무거리' 맛이 아니었다. 농도는 약했지만 지리산 녹차 맛을 풍기고 있었다. 수돗물이나 다른 물을 써서는 이런 맛이 날 리 없다. 원효샘의 물이 지리산 차의 정기를 되살려 내고 있었다. 좋은 물이 어떤 것인지를 말없이 보여주었다. "어떻습니까, 차 맛이 쓸만하죠?" 스님은 결코 초보차꾼이 아니었다.

허목은 원효샘의 물로 달인 차맛에 대해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다. 그저 자신보다 400년이나 앞서 이곳을 찾았던 이규보의 시로 대신했다.

산 따라 위험한 다리 건너 발을 포개며 좁은 길 건너
원효가 일찍이 절을 지었네

신령한 자취는 사라지고 초상만이 흰 비단폭에 남았구나
차 끓이던 샘에 찬물이 고여 마셔보니 젓같이 맛있네
이곳에 예전에 물이 없었다면 중들이 살기 어려웠을 것인데
원효가 와서 거처하매 단물이 돌구멍에서 솟았네

-이규보

‘소요산, 자재암, 원효샘’ 한국일보 1997.08.26 22면 (문화 기획 · 연재)

- 김대성 편집위원

2) 알기 쉬운 차 입문

- 빈속에 짠 차를 한꺼번에 마시면 어지러움 느낀다

차꾼들은 차가 진한 것을 ‘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독히 진한 차를 마시는 차인을 들라면 단연 통도사 극락암 명정 스님이다. 스님의 차 맛을 본 차인들은 누구나 ‘짜다’고 한다. 입천장과 혀바닥이 얼얼할 정도이다.

소금을 넣는 것도 아닌데 짜다고 표현하는 것은 예전에 차를 끓일 때 소금을 조금씩 넣던 풍습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커피광(狂)은 커피를 끓일 때 소금을 약간 넣어 단맛 내는 걸 돕는다고 한다. 이를 중국에서는 농담으로, 일본에서는 농박으로, 서구에서는 강유(strong or mild)로 각각 다르게 표현한다. 그런 표현의 차이를 음미하면서 차를 마시는 것도 무척 즐거운 일이다.

차를 진하게 마시든, 싱겁게 마시든 자신의 기호에 맞춰 하는 것이지만 건강한 차 생활을 위해서는 하루에 마실 차의 양을 정해 두고 마시는 것이 좋다. 일본 측 자료는 하루 1.5ℓ 정도를 권하고 있다. 이를 다시 차의 양으로 환산하면 한 번 차를 마실 때 150ml의 물에 2~3g의 차를 넣을 경우 20~30g이 된다. 결코 적지 않은 양이다. 우리의 경우 아직 뚜렷한 기준은 없고 하루에 서너 차례 나누어 마신다는 정도로 돼 있다.

차를 오래 마실수록 점점 더 진한 차 맛을 찾게 된다. 한꺼번에 너무 진한 차를

빈속에 마시면 어지러움증을 느낄 수 있다. 속 쓰림증을 호소하는 예도 있다. 이는 차에 들어 있는 카페인과 카테킨이 지나친 각성작용을 하거나 위액분비를 촉진한 결과이다.

중국인들이 진한 차를 즐겨 마시는 것은 기름진 식사 때문이다. 차를 마실 때 땅콩과 같은 견과류를 곁들이는 것도 위를 보호하려는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인들이 진한 가루차를 마실 때 먼저 다과를 먹는 것 또한 단순히 차 맛을 돕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오랜 차 생활에서 나온 그런 지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루에 차를 몇 잔 마시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차 맛과 그 속에 담긴 맛을 즐기는 일이다. 차를 몇 년 동안 마셨다거나 얼마만큼 마셨다거나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차 생활은 차 맛과 차 맛을 익히며 삶을 건강하고 향기롭게 하는 일이 아닐까 한다.

— 박희준 향기를 찾는 사람들 대표

4. 걸산동

—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동두천시 걸산동, 분단과 동족상쟁의 ‘섬마을’엔 아이가 없다.

가곡 ‘고향의 봄’은 누구나 즐겨 부른다. 4월 18일, 경기도 동두천시 걸산동을 찾았다. 미군기지 초소를 거치지 못하고, 걸어서 꼬불꼬불 난 험한 임도를 5시간 동안 걸었다. 산과 골짜기의 아름다운 정경에 취해서 힘든 것도 잊었다. 노래가 저절로 나왔다.



양지 바른 언덕에 웅기종기 집을 짓고 평화롭게 산다.
그러나 아기도 어린이도 없다.



분단과 동족상쟁이 일지 않았던 나의 살던 고향이다.

동두천시는 소요산(587m), 국사봉(754m), 왕방산(737m), 해룡산(661m), 천보산(423m), 칠봉산(506m), 마차산(588m), 6개의 산이 시계 방향으로 빙 둘러 켜 있다. 이 산의 크고 작은 수십 개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개울물이 동두천 시내로 내려서, '동두천'이 되었다. 그래서 시의 명칭이 되었다. 동쪽에 있는 콩알만한 작은 개천 물이 모이고 합쳐서 냇물을 이루었다.

소요산 남쪽 능선 '칼바위', '의상대'를 지나 '공주봉'에서는 동두천시를 둘러싼 6개 산의 스카이라인이 한 눈에 들어온다. 세상에 이렇게 곱고 예쁜 산수의 도시 가 또 있을까? 탄복이 절로 난다.

그런데 이 보석 같은 산수의 복판, 넓은 골짜기(보산동, 결산동, 생연동 일부) 에 거대한 미군 기지가 자리하여 50여 년 역사를 이룬 것이다. 골짜기 가장 깊숙이에는 30여 가구에, 100여 명의 주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 예전에는 '탐개울'이라 불렀고, 지금은 행정동이 보산동에 편입된 '결산동'이다.

제 마을에 드나들 때는 미군초소에서 출입증을 제시한다. 거대한 미군기지 장벽에 갇혀 '섬마을'이 된 것이다. 60세가 안 된 남자들은 미군기지에서 경비, 청소, 건설 용역 일도 한다. 양지바른 언덕에 웅기종기 집을 짓고,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논농사, 밭농사도 짓고, 산에서 나물, 약초, 꿀을 채취하여 생계를 이어간다.

마을 언덕에는 1967년 개교, 1999년에 동두천초등학교에 통폐합되었다는 '결산분교장'의 빈터가 있다. 개교 당시에는 취학 연령의 어린이가 제법 있었는데, 점차 열악한 생활 조건과 교육환경 탓으로 40대 이하의 젊은이들은 다 미군기지 밖으로 빠져 나가고 지금은 아기도 어린이도 한 명 없다.

'탐개울'이란 옛 이름에 맞게 암자도 몇 있고, 전통 예절을 중시하는 경로당이나 문중묘소, 조상의 '추모재'도 있다. 6·25 전란에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피난



조상을 잘 모시는 문중 묘역



나물이나 약초를 채취하고 돌아가는 주민

도 안 갔단다. 가곡 '고향의 봄' 정경이 그대로 느껴져서, 하루 종일 내 고향의 옛날을 그리워하며 지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런데, 아기도 어린이도 없었다.

소요산까지 전동차가 다닌다. 많은 남녀노소 등산객들이 남쪽 능선 의상대나 공주봉에 오른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무심하다. 눈 아래 전개되는 동두천시 42% 넓이의 거대한 미군기지의 역사적 의미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외세에 의존하여 정신이 마비된 것이 아닌가. 꿀벌 같은 곤충들도 제 종족의 목숨은 저희들이 지킨다. 세계 11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룬 지금, 우리는 언제까지 어린이처럼 형님이나 부모에 의존해서 내 생계를 이어 간단 말인가.

2013년경에는 저 보석 같은 미군기지 터가 우리에게 이양된다고 한다.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피는 꽃 대궐 동두천시 걸산동에도 아기가 뛰놀고, 하루 빨리 역사의 새 봄이 찾아오기를 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동두천시 걸산동'

오마이뉴스 이의협

5. 뿌리식당

라면의 업그레이드, 보산동 뿌리식당

라면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음식이 되었다. 라면의 용도를 살펴볼까?

먼저 가난한 서민들의 한 끼 식사다. 어떤 육상 선수는 라면을 먹고 뛰었다는 교묘한 신문 기사 덕에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한동안 라면과 가난은 서로 연결고리가 강한 단어들이었던 것이 확실하다.

또 비교적 단순한 조리법 때문에 혼자 사는 고학생, 홀아비, 밥 짓기 싫어하는 아주머니들, 집에 남겨진 아이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군인들이 병영에서 야식 생각이 간절할 때 라면 봉지에 수프 가루를 뿌려서 뜨거운 물을 붓고 스팀이나 보일러 관 옆에 두어 먹는 일명 '뿌글이'도 그 편의성의 산물일

것이다.

우리 입맛에 맞게 제조된 지라 해외여행을 가는 여행객들의 행장에는 으레 이 라면이 들어가 있기 일쑤다.

그러나 라면은 맛있다. 그 얼큰한 국물 맛과 쫄깃한 면발은 라면을 단순한 열량 공급원이 아닌 식도락의 대상으로 변모하게끔 하기도 했다. 밤늦게 소주 생각이 날 때 라면은 훌륭한 안주 역할을 해내기도 한다. 겨울 밤 출출할 때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 작은 봉지 안에 들어간 라면이다. 학생들이 친구들의 집에서 모여 앉아 끓여 먹는 것이 바로 이 라면이요, 종로 거리나 대학로를 여기저기 다니다가 들른 분식집의 으름 메뉴가 라면이다. 어느 때는 이 라면의 국물 맛이 생각나 밥보다 먼저 찾기도 하거니와 또 사람에 따라 밥보다 라면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다.

한국 라면의 원조는 삼양라면이다. 원래 일본음식이던 라면을 가난한 시절 서민들의 대용식량으로 싸고 맛있게 만든 이 회사의 원조 라면인 삼양라면은 현재도 그 색시한 진한 주황색을 빛내면서 식품상회의 진열 칸을 채우고 있다. 삼양사에서는 이 원조 삼양라면 외에도 우유라면, 장수면과 같은 고급 라면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1970년대 후반이었다.

후발 경쟁사인 농심에서는 매운 맛으로 승부하여 안성탕면과 너구리 우동면으로 늦게나마 맛불을 놓았는데, 이후 불세출의 매운 라면인 신라면을 출시한 이후 20여 년간 라면 판매의 지존으로 군림하게 됐다. 아아, 1980년대 후반에 나온 혁명과 같았던 그 매운 맛!

세월이 흐르면서 생면을 주로 하는 우동류의 냉면과 짜파게티, 짜짜로니로 부딪친 인스턴트 짜장면류, 면을 튀기지 않고 건조시킨 칼국수류의 분야와 컵라면의 시장에서 이 두 회사는 지존의 자리를 놓고 경쟁했다.

그러나 옛날 공업용 우지 파동이라는 잘못된 신문과 방송 보도 기사로 인해 삼양라면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이 소동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삼양라면은 지금도 농심에 밀려 아득한 2인자의 위치에서 권토중래를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 오투기와 한국야쿠르트에서도 각자의 장기를 살려 라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개인적인 기호라는 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나는 삼양라면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일단 삼양식품의 생산철학이 있다.

가난한 인민 대중이 주리지 않도록 염원하는 기업정신이랄까, 이런 것이 더 어필하는 것이다. 또 기업윤리도 살아 있어서 그 서슬 퍼런 박정희 군부독재 시대에 이 삼양식품은 유한양행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곳이라고 한다.

또한 우지파동이란 것이 허무맹랑한 마녀사냥식 보도였던 것이 판명됐고 MSG를 넣지 않는 제조 공정이 맘에 든다. 지금도 국내산 원료를 주로 쓴다고 하는데, 가격의 마지노선을 지키면서 맛도 유지하고 국민 건강을 생각해주는 기업인의 심지가 가상하긴 하다.

얼큰한 맛이야 농심의 안성탕면, 신라면을 필두로 한 제품들이 더 매운 맛을 원하는 소비대중들의 기호에 맞춰주고 있지만 정도를 넘은 매운 맛이 어디 맛인가? 통증이지. 더 감칠 맛 나고 뒷맛이 개운한 것은 삼양라면이 윗길인 듯싶다. '짜짜로니'와 '짜파게티'를 비교해 봐도 그렇고 삼양의 '맛있는 라면', '안 튀긴 라면', '간짜뽕', '된장라면', '장수면', '바지락칼국수' 등의 라면을 보면 모두 매운 맛이 아니라 깊은 맛을 위주로 승부를 내고 기름기가 덜하고 화학조미료가 덜 들어간 느낌이다. 물론 농심 신라면, 무파마의 강렬한 매운 맛과 안성탕면의 얼큰함도 좋다(안성탕면은 생라면으로 먹으면 더 맛있다). 하지만 매일 매운 맛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또 짠 맛을 좀 덜어냈으면 하는 것이 내 작은 소망이다. 물론 내 개인적인, 자극히 개인적인 견해이다.

이제 라면은 사업적·국민 보건적 측면에서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먹을거리이고 다시 말해 한국 국민의 맛에 대한 통념을 두 라면 제조사 간의 차이에서도 볼 수 있다 하겠다.

이런 두 회사 간의 시장 주도권 다툼은 별도로, 라면이란 것이 다른 재료와 어떻게 섞이는가에 따라 그 맛을 달리하는 까닭에 라면에 여러 변주를 집어넣은 작품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골류에 라면을 넣는 라면 사리는 당연하고 떡볶이와 함께 조리하는 라볶이, 떡을 넣어 끓인 떡라면, 라파게티(라면에 파 넣고 계란 넣어 티 나게 끓인 것), 오뎅라면, 김치라면, 밥 한 공기를 같이 말아주는 라면밥(대학생 시절 한양대 앞 시장 골목에서 많이도 먹었다), 카레라면, 짜장라면 등 업그레이드가 속출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치즈를 한 장 얹은 치즈라면이나 해장용으로 물을 끓일 때 미리 콩나물을 흠뻑 넣고 끓인 다음 콩나물만 건져내고 그 물에 라면을 넣고 (이 때 라면은 미리 다른 물에 삶아 건져 기름기를 빼낸다) 스프를 2/3만 넣고 끓인 뒤 다시 콩나물을 얹어 낸 콩나물라면, 미리 익힌 라면을 올리브기름에 볶은

시금치, 마늘, 양파, 으깬 토마토, 바질과 같이 살짝 볶고 스프를 1/3만 뿌려 비벼 먹는 스파게티식 라면을 자주 먹는다.

그러나 라면 업그레이드의 최고봉은 역시 동두천 보산동 골목 라면집들의 라면이다. 지금은 쇠락의 징후가 확연한 이 보산동 미군 대상 클럽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 툼툼이 보이는 것들이 바로 튀김이나 라면 등을 파는 집들이다. 옛날 이 골목은 장사도 잘 되고 미군들이 그야말로 구름 떴처럼 몰려들어 번영을 구가하던 기지촌의 핵심 유흥가였다. 부끄러운 과거지만 실체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동두천의 미 2사단의 본부가 의정부로 이사 갔고 병력이 감축, 이동됐고 많은 영외 거주자들이 영내에서 거주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 보산동의 성세는 옛말이 됐고 문 닫는 상가가 속출하게 됐다.

미군들에게 튀김을 팔던 집들이 간단한 라면류 등을 팔게 되면서 여기에 치즈를 놓거나 하는 퓨전 라면들이 생기게 됐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토핑(?)을 얹으면서 라면의 업그레이드가 나타났는데, 내가 가장 맛있게 먹고 잘 가던 집이 뿌리식당이었다.

이 식당의 위치는 캠프 캐시 정문에서 신천 쪽으로 전철 고가를 지나 왼쪽으로 약기상을 지나 56하우스 식당 가기 전에 왼쪽으로 들어가 약 30~40여 미터 가야 한다. 아니면 지금 이 골목에 새로 생긴 광장에서 북쪽으로 난 작은 골목 사이로 보이는 곳이다.

이 집의 주 메뉴는 튀김이다. 주로 오징어, 양파, 감자, 고구마, 채소, 고추 튀김과 닭튀김이다. 그전에는 쇼트닝으로 튀겨 바삭한 맛이 더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포화지방산이나 다른 위험성 때문에 쇼트닝을 화끈하게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집은 친절하신 내외분이 같이 하시는데, 새벽까지 클럽에 오가는 미군 들이나 유흥업소 종사자, 그리고 나 같은 갑작스러운 손님들을 받느라 잠도 잘 못 주무신다.

이 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치킨치즈라면이다. 라면을 끓인 위에 치즈를 얹고 닭살을 잘 발라 큼직하게 얹은 것이다. 여기 쓰이는 닭살은 반드시 튀긴 닭의 살로 발라 놔야만 맛있다고 한다. 튀긴 닭이라야 아마 물기가 덜하고 씹는 맛도 생기는 것 같다.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생각해봐야 할 것이 집에서 이 치킨치즈라면 하려거든 튀긴 닭이라는 필수불가결한 재료가 궁해지므로 또 그 맛에 이미 훌쩍 빠진 탓에 가격은 상관없이 자주 가서 먹었다. 그 외에

불고기라면도 있었다. 이것은 불고기를 라면에 얹은 것인데 미군들은 오히려 이 메뉴를 좋아한다고 한다. 나는 불고기라면이 좀 짠 듯해서 갈 때마다 어김없이 치킨치즈라면을 먹었다.

라면이 주는 얼큰한 국물과 치즈가 주는 들척지근하면서도 감치게 다가오는 풍미, 그리고 쫄깃한 면발과 탱탱한 치킨 살이 어우러지는 질감은 라면요리의 최고봉이다.

소위 동두천의 신시가지라는 곳에서 밥을 먹거나 약속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 다보면 내가 이 신시가지의 매트릭스에 여지없는 일부가 된 것 같아 기분나쁘다.

모든 것이 편의 위주다. 밥, 술, 짬뽕방, 노래방, 여관까지 먹고 자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일체의 편의가 구비돼 있지만 웬지 누군가가 의도한 상업적 설계에 내가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 같다. 또 여기의 식당들은 얼른 봐서 모두 특색 있는 듯하지만 눈여겨보면 대개 상업적 공식과 상업적 프랜차이즈의 범람이다. 여기서 전통과 소비자 개인의 기호, 음식에 대한 경의는 찾기 힘들다. 아무리 맛있는 집이라 하더라도 신시가지에서는 소비자의 편의와 판매자의 수지타산이 맞는 지점에 내가 있는 것 같아 기분은 좋지 않다. 비록 음식점이라는 것이 영리가 목적인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좀 그렇다.

혹 그렇지 아니한 집이 있어 이런 나의 평가가 미안하기는 하지만 대개 그렇다. 아마 신시가지의 공간 구조와 상업적 일률성에 대한 마뜩잖음과 구시가지에 대한 미련이 신시가지에 대한 나의 평가를 혹독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래도 예전 구시가지의 괜찮은 집들이 이곳으로 와있는 것도 그 중 있는데, 그래도 예전의 장소에서 성가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다.

신시가지는 신시가지대로 번성하고 구시가지는 구시가지대로 면모를 유지 하계끔 도시계획이나 개발방향을 맞춰야 했는데 새로 생긴 한 곳 때문에 다른 곳이 죽는다는 것은 뭔가 칙칙한 구석이 있는 것이다. 개발은 언제나 지속 가능해야 하고 편중되지 말아야 하며 창조적이어야 하고 인간의 얼굴을 해야 한다.

동두천 신시가지의 개발은 이런 내가 원하는 조건들에서 모두 슬그머니 벗어나 있다. 아쉬워라.

아무튼 이 신시가지의 매트릭스 속에서 지인들과 만나 술을 좀 들이키다 보면 삼정 때나 새벽 미명에 은근 뿌리식당의 그 맛있는 퓨전라면이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식당이나 장소의 정취와 음식 만드는 이의 정도 함께 섭취하는 것인데 뿌리식당의 그 맛과 우리 동두천이 가진 부끄럽지만 기억해야 할 장소에서 주인 내외의 친절과 함께 튀김 냄새 났 테이블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먹는 맛을 따라올 라면집은 가히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구시가지의 모든 맛집들이 신시가지로 온다는 끔찍한 가정을 한다고 해도 이 뿌리라면 집은 계속 그 자리에 남아야 할 것 같다.

라면은 동양 음식이다. 치킨과 치즈는 서양 음식이다. 그러나 이 재료들이 동두천에서 만나 맛의 일가를 이루었으니 의미 있다. 부대찌개 만큼의 재미다.

신시가지에서 이곳 보산리로 튀김이니, 케밥이니, 또 치킨치즈라면이나 불고기라면을 드시러 오는 동지들을 많이 보고 싶다. 신시가지와는 또 다른 거리 거닐기와 맛의 재미가 쏠쏠할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옛날 항구도시 말라카라는 곳에 가면 약간 퇴락했다는 느낌을 주는 길거리들이 있다. 여기엔 마차도 다니고 어떤 집들은 안마당을 개방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물도 마시고 동리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차도 같이 마시고 한다. 서양의 관광객들은 오히려 이 거리를 걷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오히려 편안함을 주는 낡음의 미학, 좋지 아니한가? 말라카제국과 오래된 화교들의 문화,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구미 열강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독특한 도시가 이제는 옛날의 성세를 뒤로 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부러진 뼈와 상한 살을 솔직하게 드러내 준다.

차후 미군의 철수와 거기 따르게 되는 구시가지의 개발이나 보존 여부도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볼지도 하다.

— 정수구

6. 신천 1

— 동두천 신천서 ‘노랑부리저어새’ 발견

동두천 신천에서 멸종위기종 1급인 노랑부리저어새 (천연기념물 제205호) 한 쌍이 발견됐다. (사)한탄강지킴이 운동본부는 3일 오후 경기북부 주요 하천에 대한 생태모니터링을 하다 동두천 신천에서 노랑부리저어새 두 마리가 월동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동두천 신천서 월동 중인 노랑부리저어새. 한탄강 지류로 오염이 심각했던 경기도 동두천시 신천에서 천연기념물로 멸종위기종 1급인 노랑부리저어새 한 쌍이 겨울을 나고 있다.



겨울 철새로 알려졌던 가마우지가 최근 동두천시 신천에서 발견됐다.

한탄강지킴이운동본부 이석우 지역본부장은 “순천만과 제주도, 주남저수지 등 주로 남쪽에서 월동하는 노랑부리저 어새가 동두천 신천에서 발견된 것은 놀라운 현상”이라며 “신천의 수질이 개선되면서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노랑부리저어새의 이동경로와 잠자리 등은 연구해야 할 과제”라며 “지속적인 하천 감시와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수질 정화활동 등을 통해 신천 일대가 철새들의 서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탄강 지류인 신천은 1996년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 폐수가 무단 방류되는 바람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오염이 심해 정부가 환경청 고시로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을 제한하는 계기가 됐다. 최근에는 지자체와 환경단체가 힘을 모아 신천 살리기에 나서 수질이 개선되면서 민물가마우지,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백로, 왜가리 등의 철새가 찾아 들고 있다.

— 동두천(연합뉴스)

7. 신천 2

겨울철새가 한여름에 웬일?

— 동두천 신천에 민물가마우지 출현 주목

겨울 철새로 알려진 가마우지가 한여름 동두천시 신천에 출현했다. 지난 2006

년 신천에서 처음 발견된 후 2년 동안 개체 수가 10배로 늘어난 민물가마우지 집 단서식지가 확인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한탄강지킴이운동본부는 그동안 겨울 철새로 알려져 왔던 가마우지가 지난달 신천에서 발견됐고 개체 수는 37마리로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부터 신천 수질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이 일대에는 왜가리, 백로, 흰뺨검둥오리 등 철새들이 종종 관찰됐으나 가마우지의 집단서식처 확인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본부는 3마리 개체 수를 처음 확인한 지난 2006년 이후 집단서식지 발견은 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며 신천 수질 개선에 대한 희망메시지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민물가마우지는 중국에서 고기를 잡는 데 이용해 더욱 유명한 새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내륙지역에서 번식했던 텃새였으나 지금은 대부분 겨울 철새다. 민물가마우지는 사다새목 가마우지과의 조류로 몸길이 89~102cm 이며, 뺨과 먹은 흰색이고 몸 전체는 검은색을 띠고 있다.

- 오연근 oyk@kyeongin.com

8. 소요산 맛 기행

1) 전철로 더욱 가까이 다가온 산맛

동두천·신북온천 주변의 먹을거리 집들 소요산이 가까이 다가왔다. 지난해 12월 15일 경원선 복선 전철구간이 소요산역까지 개통되자 소요산은 수도권 2천만 명 시민들의 품 가까운 곳으로 다가섰다. 인천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산꾼 Y사장이 지난 2월 3일 토요일 직원들과 함께 소요산을 다녀 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그마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Y사장은 직원들의 복지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월 1회의 정기산행을 오랫동안 시행해오고 있다. 산행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은 물론 회사가 부담한다. 수도권 당일치기 산행에도 버스 한 대를 대여하는 것이 전례였는데, 지난 2월 3일의 산행에서는 과감하게 전철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토요일 아침 8시 정각 인천역을 떠나는 전철은 정확하게 2시간 30분만인 오전 10시 30분 소요산역에 도착했다.

38명이 참가한 이 산행에서 대원 모두가 만나는 장소는 전철 마지막 칸이었다. 제물포와 부평을 거쳐 전철이 부천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8시 31분, Y사장은 부천에서 승차했고 이 때 대원수는 21명이 되었다. 대부분의 직장이 휴무인 토요일이라 전철 안은 평일의 콩나물시루를 면했고 비교적 여유로웠다. 시발 역 가까운 곳에서 탄 대원들이 여러 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터라 큰 부피의 등산망태도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았다.

전철이 구로역에 도착했을 때 네 사람이 탔다. 이들 네 명은 천안~수원~안양을 경유한 전철에서 환승한 대원들이었다. 대원수 25명, 영등포를 지나 한강을 건너고 용산에 도착한 전철에는 9명이 더 탔다. 인천 방면과 천안 방면에서 용산역까지 오는 급행전철을 탄 사람들이다. 서울역에 도착한 시각이 9시 8분, 한 사람이 합류했고 종로3가역에서 또 한 사람이 합류했을 때의 시각이 9시 15분이었다. 9시 25분 청량리역에 전철이 도착하자 마지막 2명의 대원이 마지막 칸에 들어섰고, 대원들 모두가 환성을 지르며 크게 박수를 쳤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38명 전 대원이 전철 마지막 칸에서 '집합!'을 한 것이었다.

청량리역에서 도봉산역까지는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로 북적댔고 전철 속은 아침부터 축제분위기가였다. 전철은 9시 58분 의정부역에 도착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만 해도 소요산을 가자면 여기서 내려 매시 20분에 떠나는 신탄리행 열차를 갈아타야만 했었다. 전철은 인천역에서부터 타고 온 손님들을 그대로 모시고 가능역을 거쳐 종점인 소요산역에 10시 30분 도착. 경원선 복선 전철 구간이 소요산역까지 개통되면서 의정부북부역은 가능역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2) 소요산 산행거점 식당 - '뚝배기해장국'

어느 산에서나 마찬가지로 산꾼들, 특히 산악회에서는 거점이 될 수 있는 단골집 한 곳쯤 산자락에다가 지정해 두는 것이 좋겠다. 만남의 장소나 비상연락처로도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서 기상정보를 받을 수도 있겠다. 소요산역에서 산행나들목 방향, 도보로 2분 정도 거리에 있는 '뚝배기해장국(031-865-4197)' 집을 이런 곳으로 정해 두면 어떨지? 우선은 이른 아침 집을 나서며 해결하지 못한 가장 급한 민생문제(아침밥)를 해결할 수 있다. 챙겨온 장비나 식량 중에서 당일산행에서 불요불급한 것이라면 맡겨 두고 하산 때

찾으면 된다.

사실 많은 산꾼들이 이른 아침 집을 나서면서 고민하는 부분이 아침밥이다. 공복으로 산행을 시작한다는 것은 컨디션상 큰 문제가 따른다. 이런 집이라면 아침 몇 시 몇 분으로 못을 박고 대원들 모두가 여기서 모여도 된다. 전철역이 가까운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넓은 주차장도 바로 앞에 있다. 전날 밤 숙취를 해결해야 할 대원은 다른 대원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면 되겠다.

뚝배기해장국 주인 이영숙(59) 씨는 동네에서 인정 많은 아주머니로 알려져 있었다. 시험 삼아 아침 일찍 여기를 찾아갔는데 식당 문이 잠겨 있었다. 낭패를 당한 분풀이라도 하겠다고 오후 시간에 다시 찾아 가서 항의했더니 모처럼 그 날은 치과 예약 때문에 이른 아침 문을 열지 못했다며 정중하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뚝배기해장국 · 육개장 · 내장탕 · 동동주 각 5,000원, 도토리묵 8,000원, 해물파전 10,000원

- 박재곤

9. 소요산

소요산(逍遙山) 단풍 산행 에세이

-(2007. 11. 7 /소요산역-일주문- 원효폭포- 공주봉- 의상대- 나한대- 상백운대-선녀탕- 자재암- 백운암- 원효폭포/ 산내음산악회)

소요산 단풍 산행을 가자는 전화가 왔다. '소요산내음산악회' 청파님이었다. 그 다음 날 지리산 피아골 단풍 산행을 예약해 놓았다고 가볍게 거절하고는 곧 후회하였다. 정년 퇴직하면서 다짐한 것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누구든 부르면 나가자. 나가지 않으면 다시 부르지 않는 법이니-'

오늘 소요산을 다녀와서 내일은 지리산 피아골을 간다는 것은 무리이니 가볍게 단풍만 보고 뒤풀이나 합세하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그분들보다 두어 시간 먼저 소요산에 가서 몸에 무리가 되지 않게 산행을 쉬엄쉬엄 하기 위해서 새벽을 바라보며 6시경에 일산을 떠나 왔다. 그러나 막상 가서 보니 산에 대한 욕심이 그 일부분만 보게 되던가.

1) 왜 소요산(逍遙山)이라 했을까?

목적없이 슬슬 이리 저리 자유롭게 거니는 것을 ‘소요(逍遙)’라고 하니까, 소요산은 산책할 정도로 높지 않은 산이란 말인 것 같은데 소요산 어원으로는 또 다른 유래는 없는가?

화담 서경덕(徐敬德)과 봉래 양사언(楊士彦), 매월당 김시습(金時習)이 이 산을 좋아해서 늘 찾아와 소요했다 해서 소요산이라 했다는 문헌이 보인다.

이 분들은 조선조 때 분들인데 ‘소요산’이란 이름이 고려 광종 때 문헌에도 나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런 시인 묵객들이 자주 찾아와서 소요했다는 말로 고쳐야 될 것 같다. 화담, 봉래 선생처럼 ‘ilman’도 오늘 하루를 소요산에서 소요하려 남보다 일찍 넉넉한 시간을 보내려 왔다.

소요산역에서 큰길을 건너다보니 눈을 놀라게 하는 아치가 동두천 시민의 고향 사랑 냄새를 풍풍 풍기게 한다. 산 모양의 아치의 오선지 위에 초록, 노랑, 빨강 단풍잎을 그려 놓고 그 가사가 이렇다. ‘꿈이 있는 동두천시 소요산!’

거기서 얼마 오르니 비각이 있다. ‘志士閣(지사각)’이었다. 1919년 3월 장날 이 고장에서 만세를 주도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그 형독(刑毒)으로 타계한 이 고장인 홍덕문(洪德文) 열사 추모비였다. 그 분도 훌륭하지만 이를 기리는 동두천 노인회나 이 비각을 세운 김석경 옹도 그 분 못지않게 훌륭한 분들이다.

일주문(一柱門)을 향하고 있는데 친절한 건강 안내판(동두천보건소)이 있다.

“여기는 출발지점입니다. 이곳에서 일주문(약수터)까지는 1,700m입니다.

거기까지 걸어가신다면 산책(속도 50m/분)으론 71.4Kcal, 걷기론(속도 80m/분) 84.6Kcal, 손을 땀다 흔들며 가는 파워워킹(속도 100m/분)으론 115.9 Kcal입니다.”

나는 산책 속도로 빨간 단풍 터널을 뚫고 가고 있다. 여기저기 소요산의 멋을 빠짐없이 카메라에 담고 싶어사다.

국립공원에서는 매표소를 ‘시인의 마을’ 또는 ‘탐방 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입장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데 도립공원은 2,000원씩 받고 있다. 동두천 시민은 무료였는데 그 명분은 다음과 같았다.

“자재암 일원은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의거하여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사찰 문화재 관람료는 바로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보호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소요산 자재암

일주문(一柱門)을 통하여 본 단풍은 선혈처럼 붉은데 그 문에는 ‘소요산자재암(逍遙山自在庵)’과 ‘경기소금강(京畿小金剛)’이라는 현판이 있다. 소요산을 한강 북쪽의 소금강이라고 한다. 산세도 그렇지만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깊은 계곡에는 소담스러운 폭포와 함께 소요산은 사계절 따라 변화하는 모습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소요산은 산이 갖추어야 할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어 가진 산이기 때문에 소요산을 소금강이라고 하는 것이다.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유명하고, 가을 같은 가을의 소요산 단풍은 경기도에서는 으뜸으로 친다.

여름에는 하늘을 가리는 무성한 숲과 계곡이 그렇고 계곡에는 우리나라에서 는 보기 드문 유명한 폭포들이 곳곳에 있다. 게다가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낭 만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전설과 함께 전하여 오고 있고 그 결실이 신라십현(新羅十賢)의 한 분인 대유학자 설총(薛聰)이다. 설총은 한자의 음(音)과 새김[訓]을 따다가 우리말을 적던 이두(吏讀)를 집대성한 학자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비록 한자를 이용하여서나마 우리의 말을 우리말 순서대로 적었다는 것은 국어 학에서는 위대한 일이었다. 설총은 왕의 자문으로 있으면서 ‘화왕계(花王戒)’로 신문왕을 충고하였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다. 그래서 소요산은 국민관광지로, 도립공원의 하나로 지정하여 동두천시의 자랑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요석공주의 사랑

길 좌측에 있는 반공희생자 위령탑을 막 지나니 길가에 ‘요석공원’이 있어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사랑을 되돌아보게 한다.

요석공주는 원효의 부인으로 설총을 낳은 무열왕의 둘째 딸이다. 아버지 무열왕은 삼국통일을 이룩한 김춘추였다. 요석공주는 일찍이 백제와의 전투에서

남편을 잃고 홀로 된 몸으로 서라벌 요석궁에서 살고 있었다.

이 무렵에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나이 30대 초반의 원효라는 스님이 있었다. 誰許沒柯斧 我斫支天柱(수하물가부 아작지천주 :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빌려 주겠는가. 나는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찍으리라.)

왕이 그 노래를 듣고 '이 스님이 귀부인을 얻어서 귀한 아들을 낳고자 하는 것이로구나. 나라에 어진 이가 있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이익이 없다.' 하고 원효를 찾았다. 원효는 이를 알고 일부러 문천교에서 강 가운데로 떨어져서 옷을 적시니, 요석공주가 있는 요석궁으로 인도되어 공주에게 옷을 말리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짝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낳은 이가 경주 설(薛)씨의 시조 설충(薛聰)이다. 아버지 원효의 속성이 설 씨(薛氏)였던 것이다.

과계승이 된 원효는 세속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소성거사(小姓居士)라는 이름으로 '무애(無碍)'라 하는 표주박을 두드리면서 무애춤(無碍舞)을 추고 무애가(無碍歌)를 부르고 다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귀족 중심이었던 불교를 가난하고 몽매한 서민은 물론 어린이들에게까지 널리 부처를 알게 하여, 오늘날까지 민중불교(民衆佛教)의 시조로 추앙받게 되었다. 원효는 38세에 소요산에 들어와 원효대에서 참선을 하며 도를 깨우치고 있었다. 요석공주는 어린 자식 설충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 자그마한 요석궁을 짓고 아침저녁으로 낭군이 계신 원효대를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다 한다.

이 이야기는 백제 무왕이 선화공주를 서동요(薯童謠)라는 노래로 꾀서 아내로 삼았다는 이야기와 절묘하게도 과정이 비슷하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옛날에 독일의 '황태자의 첫사랑' 이상으로 멋진 사랑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다.

일주문 왼쪽에 있는 수량이 유난히 풍부한 약수터를 막 지나면 그 위 왼쪽 의자가 있는 휴게소 옆에 '원효폭포'가 있고 그 내 건너 오른쪽 굴 위에 지금은 전망대인 원효대사가 도를 닦았다는 '원효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소요산을 찾은 사람들을 반겨주고 있다. 거기서 속리교(俗離橋)라는 다리를 건너면 우리는 속세를 버리고 선경에 들어서게 된다. 소요산의 정코스는 자재암-하백운대-상백운대-나한봉-의상대 코스이지만 나는 우측 공주봉 코스를 택하였다. 산행 중에 '산내음산악회' 일행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공주봉 가는 길은 주 코스가 아닌 데다가 아침이라서 한적하였다. 좀 오르니 구 절터가 보인다. 옛날에 절이 있던 자리는 지금은 쉽터로 바뀌어 길고 둥근 의자와 기둥으로 만든 멋진 쉽터의 싱그러운 모습으로 서 있다. 유난히 초록

잎이 많다. 평생 한 번 세수도 하지 않은 풀잎이나 나뭇잎들이 어떻게 저리 깨끗할 수가 있을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풀잎마다 작은 털이 소복이 있어서 먼지를 잎에 닿지 못하게 하고 아침마다 이슬로 깨끗이 씻어내는 거란다.

산길은 오름길로 팍팍하였지만 우측에 굳게 박힌 쇠말뚝의 손잡이는 하얀 동아줄로 바뀌면서 계속되어서 잡고 오르기도 좋지만 안내 길도 되어주었다. 능선인가 했더니 다시 오름길은 공주봉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정상 가까이 토치카가 보이더니 드디어 그 위가 원효대사와 낭만이 어려있는 공주봉(526m)이었다. 널찍한 공터는 바닥에 나무를 깔았고 가에는 울을 만들었는데 헬기장도 있었다. 동두천시가 뿌연 안개 속에 한눈에 들어온다. 이럴 때 나는 걸리버여행기의 주인공 '걸리버'가 되어 소인국에 온 대인(大人) 같아진다.

정상(頂上)에서 굽어 보니
소인국(小人國)에 온 것 같다.

장난감 같은
저 건물, 자동차들

세상은
소꿉장난하는
동화 속의 이야기 같다.

일주문에서 공주봉까지 1.0km 거리였는데 공주봉에서 보이는 의상대까지도 1.0km이다. 산에 와서 목표하던 봉에 선다는 것은 '가난에서 벗어났구나!' 하고 생각하던 시절 같이, '고생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아무리 선선한 가을이라도 여기에 이르기까지 땀 흘려 전력을 다한 나를 대로의 역사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조금씩만 땀을 더하면서 등산의 즐거운 열매를 따 먹으며 가면 되는 거니까.

3) 왜 의상대(義湘臺)인가?

공주봉에서 의상대 가는 길은 동두천을 내려다보며 가는 가파른 절벽 돌길로 한참이나 내려가야 했다. 그러고는 또 한참 올라가야 하였지만 공주봉 오르는 길보다는 힘들지 않았다. 드디어 소요산에서 최고봉인 의상대(587m)의 정상에 올랐다. 표지석과 함께 Ham 안테나가 서 있고 화강암 정상 표지석이 있는 암반이었다.

이 정상에서 자재암을 향하여 서서 두 손을 활짝 펴면 왼손 끝이 공주봉이요, 오른손이 상백운대로 이어지다가 그 아래로 중백운대, 하백운대로 내려간다.

이곳 바위들은 석영암반으로 암벽은 능선을 이루며 병풍처럼 저 아래 자재암을 성벽 같이 둘러싸고 있는데 앞은 완만한 능선으로 이어져가지만 뒤로는 가파른 절벽 길이 천혜의 요새와 같았다. 이 산의 모습은 커다란 복주머니 같아서 일주문이 그 주머니의 입이라면, 이 산을 둘러싼 봉들은 주머니의 볼록한 부분의 일부인 것 같은 모양이었다.

의상대에서 공주봉을 뒤돌아보았다.

내가 밟고 지나온 의상봉서 여기 나한대까지 이어지는 능선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나의 나머지 인생도 저렇게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오죽 좋으랴 싶었다. 그러다보니 이 봉의 이름이 의상대(義湘臺)라는 데에 의문이 간다. 소요산은 요석공주와 원효대사의 전설이 어린 곳이다. 그 공주봉의 공주는 물론 원효의 아내 요석공주다. 그 공주봉을 이렇게 뻗히 바라다보고 있는 이 봉은 의상대라고 하는 것보다는 원효대란 이름이 더 어울린다. 그런데 왜 의상대란 말인가. 원효가 살아있다면 통곡할 일이다. 자재암도 원효가 세웠다는 절인데...

의상대사란 어떤 분인가. 의상대사는 원효대사와 같은 시대 사람으로 원효보다 9살 아래의 후배였다. 두 대사는 함께 두 번씩이나 당나라 유학을 꿈 꿔으나 첫 번째는 돌이서 육로로 요동까지 갔다가 고구려에서 잡혀 첩자로 오인받는 바람에 실패하고 돌아오고 말았다. 두 번째로 다시 해로로 가다가 의상대사는 10년 동안 중국에 가서 화엄을 배워 화엄종의 시조가 되었고, 원효는 해골의 물을 마시고 '진리는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고 의상과 헤어져서 그냥 돌아온 스님이다.

그는 70세에 입적한 원효보다 19년이나 더 살면서 88세 입적할 때까지 그의 문하에서 한국불교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진오, 지통, 표훈 등 10대덕 고승을

길러낸 사람이다. 원효가 살았던 시대의 모든 스님들이 부러워하고 따라야 하는 경지에 후배인 의상(義相)이 있었던 것이다.

의상대사가 불교의 정도를 걸어온 사람이라면 이에 비하여 원효는 파계승에 지나지 않는 기승(奇僧)이었다. 그래서 당시 불교계는 의상대사의 제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그래서 그 후배들이 이 봉을 ‘원효대’라 하지 않고 ‘의상대’라 이름 하였을 것이라고 유추해본다.

이 사방이 훤히 보이는 상봉 정상에서는 맑은 날이면 북으로 한탄강이 보인다. 다만 안개 속에 묻혀 있고, 서쪽에 있다는 감악산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산이란 그냥 솟아 있는 것이 아니라 봉우리가 능선에서 능선으로 이어지고 있어서였다.

그런데 소요산에서는 최고봉인 의상대의 높이는 모든 서적은 물론 의상대 바로 아래 이정표에도 568.7m인데 정상석만은 535.6m로 새겨져 있다. ‘이 무슨 망발인가’ 하고 어디서 세웠나 하고 비석 뒤를 보니 ‘동두천시청산악회’였다.

4) 나한대에서

의상대에서 상백운대로 가는 길에 해발 571m의 ‘나한대(羅漢臺)’가 있다. 이정표가 그 아래에 있어서 정상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정도의 평범한 곳이었다. 그곳에는 자세히 살펴 봐야 볼 수 있는 삼각점이 정상 표시일 뿐이었다. 내 또래의 노인이 있어 물어 보았다.

“나한대에서 ‘나한’이란 무슨 뜻이지요?”

“봉우리 이름이라구요? ‘나한(羅漢)’이란 ‘아라한(阿羅漢)’의 준말로 보통은 부처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한에는 16나한, 5백 나한 등이 있고요. 나한은 불제자들이 도달하고 싶어 하는 경지에 이른 분들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무학(無學)의 경지의 스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알면서 물어서 죄송합니다.”

나한대에서 상백운대로 가는 1.2km 도중에 칼바위 능선이 있다. 칼처럼 날카로운 크고 작은 편마암들이 200여m나 바위틈을 비집고 몇 백 년을 자란 아름다운 낙락장송이 바위와 어울려 한바탕 솔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소요산 칼바위는 둘로 나뉘는데 그 중간 안부예다가 ‘칼바위 능선 최고봉’이라고 써 놓은 것이 또한 가관이다. 그 위치도 올바르게 바로잡아 실추된 동두천시의 명예를 되찾아 놓아야 할 것이다.

상백운대를 300m 앞둔 갈림길에서는 한참이나 ‘산내음산악회’ 회원들을

기다렸다. 지금쯤은 상백운대에서 식사하고 올 시간이어서 혹시나 길이 어긋
날까 해서였다. 드디어 반가운 사람들을 만났다. 서로 그리워하면서 산을 좋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산길에서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황홀한 일인가. 청파,
조대흠 대장, 산이 좋아 연산(連山)이라 했다는 연산, 연산동, 거시기, 뭐야 님
등등 낯익은 얼굴들이다. 이 산악회 분들을 따라 다니면 더 많은 산들의 곳곳을
볼 수 있으면만, 이분들은 바위도 타는 준족(駿足)의 사람들이라서, 두려운
마음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지만 반갑고 그리운 사람들이다. '상장봉 산행' 후에
처음 만나는 것 같다. 함께 반가워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그러고는 각각 헤어져서
산하 뒤돌아서는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상백운대(上白雲臺, 568.7m) 정상도 칼바위능선의 일부처럼 바위와 그 사이에
노송이 함께 한 곳으로 평평한 곳은 아니었다.

상백운대에서 중백운대로 향하다가 530m의 봉에서 선녀탕으로 하산한다.

여기서 10분 거리에 중백운대가 있고, 거기서 다시 10분 거리에 하백운대가 있
지만 그곳은 여러 번 가 본 길에다가 소요산 능선 내내 '선녀탕' 이정표가 나를 유
혹하여서였다.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은 미끄러우니 이 길로 하산을 금한다'
'는 경고판을 뒤로 한 하산길은 몹시 길고 지루한 계곡도 없는 가파른 돌길이었
다. 그러다 나타나는 선녀폭포와 탕은 나뭇가지 사이로 차례로 잠깐 그 일부분의
모습만 보일 뿐 계곡 속에 숨어 있었다. 오히려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선녀탕 입구
가 요란한 절경이었다. 그곳에서부터 비로소 소요산 산 중에서 거의 못 보던 단
풍이 보이기 시작한다. 거기서 얼마 안 내려가니 엽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자재암 지붕과 연등이 보인다.

5) 자재암(自在菴)의 전설

자재암(自在菴)은 신라 무열왕 때 원효대사가 개산한 암자다. 개산(開山)이라
함은 절을 처음으로 세우는 것을 말한다.

원효 어머니는 별뚱 하나가 품 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원효를 잉태하였다.
만삭이 되어서 불지촌(佛地村)의 북쪽 밤나무 아래를 지나다가 산기(産氣)가 있어
할 수 없이 남편의 옷을 밤나무에 걸어서 가리고 거기서 원효를 낳았다. 그때 오
색 구름이 땅을 덮었다.

원효는 타고난 총명으로 스승 없이 스스로 학문을 깨우쳤다. 소년 시절에는 화

량이었다가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다. 요석공주와 인연을 맺어 설총을 낳아 파계승이 된 원효는 속인들의 옷을 입고 스스로 소성거사(小性居士, 小姓居士)라 하면서 전국을 떠돌다가 소요산에 들어와서 초막을 짓고 수행 정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몹시 온 후의 저녁이었다. 원효가 초막 주위를 소요하다가 약초를 캐는 한 여인을 만났다.

비에 젖은 옷은 몸에 착 달라붙어서 젊고 풍만한 몸을 드러내고 있는 여인이었다. 여인은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 유하기를 청하더니 밤 늦도록 원효를 끈질기게 유혹하는 것이었다. 그때 원효는 설법으로 그 여인의 유혹을 물리쳤다.

“心生則種種法生 心滅則種種法滅 自在無碍. 마음이 생(生)긴즉 갖가지 법이 생기는 것이요, 마음이 멸(滅)한 즉 온갖 법이 멸(滅)하는 것이니, 나는 마음에 막힘이나 거침이 없도다.”

이에 유혹하던 여인이 빙그레 웃으며 물러갔다. 그 여인은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일부러 젖은 몸매로 원효를 시험해본 것이었다. 원효가 감격하여 더욱 수행에 정진하여 관세음보살을 친견(親見)하고 그 자리에 암자를 짓고 자재무애(自在無碍)의 수행을 쌓았다. 그래서 암자 이름을 자재암(自在庵)이라 한 것이다. 자재란 자재무애(自在無碍)를 말함이요, 막힘이나 거침이 없음을 뜻한다. 근래 우정 스님은 자재무애를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다.

무애자재한 이의 일상생활이란 ‘송곳 끝에 올라가 있어도 그 뿔이가 온 세계와 같고, 비록 끓어 오르는 지옥에 있다 하더라도 극락세계와 다를 것이 없다.’

원효의 출생 과정과 생활은 이와 같이 ‘영웅의 일생’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영웅 전설의 주인공들은 고귀한 혈통에서 태어나고, 잉태나 출생이 비정상적이며, 어려서부터 비범하고, 기아(棄兒)가 되는 등의 과정을 겪어 성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도 석가도, 이야기 속의 홍길동도 다 그런 분들이었다.

소요산에는 이태조(李太祖)의 전설도 전하여 오고 있다.

함흥차사(咸興差使)의 주인공인 이태조가 어가(御駕)를 타고 서울로 돌아 오다가 소요산에 이르러 산으로 들고 말았다. 그래서 이곳에 왕궁 터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하여 온다. 이 소요산 남쪽에 있는 423m 천보산 기슭에 회암사가 있는데 이 절은 이태조의 왕사 무학대사가 수도하던 절로 여기에도 그와 유사한 전설이 있는 것을 보면 수궁이 가는 이야기다.



이 자재암을 유명하게 한 것 중에 또 하나는 1994년 암자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반야심경(세조 10년 간행)' 언해본으로 낙장 하나도 없는 완전한 것이었다. 언해(諺解)란 한문을 한글[언문]로 번역해 놓은 글을 말하는 것으로 국문학 고어 연구에 아주 귀중한 자료다.

소요산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재암을 먼저 찾지만 자재암 대웅전보다는 나한굴(羅漢窟)과 그 계곡 건너에 흰 물줄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높이 20여m의 청량폭포를 잊지 못한다.

원효가 고생 수도를 하다가 도를 얻지 못하매 투신자살하려던 순간 도를 통하였다는 굴로, 멀찍이서 보면 그 앞에 있는 바위 벼랑을 바라보면 사람의 옆모습 같은데 이를 사람들은 나한상이라 하여 그래서 굴 이름이 나한봉이라고 한다.

특히 나한전 입구에 있는 원효가 도를 닦을 때 저절로 솟아났다는 샘물은 최고의 물맛으로 예로부터 시인묵객들이 여기 모여 이 물로 끓인 차를 마시며 담론을 하며 차문화(茶文化)의 산실을 열었다는 이야기까지 전하여 오는 곳이니 꼭 이 물을 마시고 지나칠 일이다.

자재암에서 전망대를 겸한 최신식 나무 화장실을 지나 원효대 가는 길 우측에 있는 층계 위에 높이 있는 백운암(白雲庵)은 언제나 굳게 닫힌 것이 아마도 외부와 단절하고 참선을 하는 곳인가 보다. 전망대가 되어버린 원효대에서 굽어 보니 사방에 단풍이 절정인데 끝물인 것 같다.

산 위에서 하산해버린 이 단풍은 다시 남으로 내려가면서 금년 들어 우리 한반도를 유난히 아름답게 불태우려는 모양이다. 지금부터 '산내음산악회' 회원과의 즐거운 만남의 뒤풀이를 향한 곳으로 붉은 단풍의 터널을 빠져 나가고 있다.

10. 마차산

1) 호젓한 산행 원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마차산

— 부드러운 능선길과 울창한 숲이 일품

소요산역에서 산행이 가능한 곳으로는 소요산 외에도 마차산(磨叉山, 588.4m)이 있다. 동두천역에서 소요산역으로 가는 열차에서 왼쪽 창문을 통해 올려다 보이는 산이다. 3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소요산과 마주보고 있는 마차산은 찾는 이

들이 상대적으로 적어 조용하고 호젓한 분위기가 일품이다. 마차산은 기암절벽으로 치장된 화려한 소요산과는 거리가 먼 차분하고 수수한 산세가 특징이다. 완만하게 이어진 능선은 숲이 우거져 마음 편히 걷기에 그만이다. 크게 위험한 구간도 없어 가족끼리 즐기기에 좋은 산이다.

산행은 소요산역과 동두천역 두 곳에서 시작할 수 있다. 소요산역 앞의 사거리에서 서쪽의 소요교를 건너면 봉동마을이다. 이 마을 중간의 소요초등학교 정문 건너편 능선이나 신흥교회 왼쪽 능선, 골프연습장에서 시작되는 능선 길을 이용해 곧바로 정상으로 오를 수 있다. 봉동마을 안쪽의 기도원에서 주 능선으로 오르는 코스도 여러 갈래다.



마차산 정상에서 본 동두천 일대의 조망

동두천역→소요산역 코스

기도원~정상~소요초교 경유, 6km 4시간

마차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가장 짧은 코스는 동두천역에서 시작된다. 역에서 서쪽 출구로 나와 동두천지방 공업단지를 가로질러 도로를 건넌 뒤 안흥교를 넘으면 3번 국도 우회도로상의 사거리다. 이곳에서 직진해 100m 가면 오른쪽에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갈림길이 보인다. 이 마을길을 따라 안흥기도원 방향으로 계속 들어가면 독도골 안쪽의 기도원에 닿는다. 이곳에서 왼쪽 능선을 타고 정상으로 오를 수 있다.

마차산은 두 곳의 산행기점인 동두천과 소요산 역을 연결하는 코스가 무난하다. 동두천역에서 기도원까지 약 1.5km 거리를 걸어 들어간 뒤 이곳에서 왼쪽의 능선을 탄다. 오른쪽의 계곡을 통해 버섯재배장을 거쳐도 마차산 정상부로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왼쪽 능선이 거리가 가까워 오르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시골길을 벗어나 산으로 접어들면 하늘을 가리는 육중한 숲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5분 가량 가파른 사면을 치고 오르면 본격적인 능선이 시작 되고, 다시 10분 정도 능선을 타면 훨씬 굽고 평탄한 능선으로 오르게 된다. 평퍼짐한 능선과 만나는 곳에서 길이 갈리는데, 왼쪽으로 빠지면 담안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다. 정상으로 가려면 뚜렷한 오른쪽 길을 따른다.

정상으로 가는 빠른 길은 가장 가파른 것이 일반적이다. 마차산도 예외일 수는 없어, 평평한 능선과 가파른 산길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순식간에 고도를 높인다.



마차산 정상 바위지대에서 주변을 조망하고 있는 등산객들



동두천에서 정상으로 이어진 가파른 능선길

하지만 이런 가파른 능선에도 여기 저기 너른 공간이 있어 마차산 특유의 넉넉함을 보여준다. 40분 정도면 가파른 능선을 통과해 마차산 남쪽의 주능선에 올라설 수 있다. 주능선에 닿기 직전 동두천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거치게 된다.

주능선과 만나는 삼거리에서 북쪽으로 100m 정도 이동하면 널찍한 공터가 있는 마차산 정상이다. 반듯한 돌에 산 이름을 새긴 정상석이 등산객을 반긴다. 정상에서 의 조망은 동쪽 방향이 좋다. 정상석 바로 앞에 튀어나온 바위에 오르면 동두천과 소요산 등 주변의 지형이 한눈에 들어온다. 앞을 가리는 장애물이 없어 시원스러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정상 바로 옆에는 넓은 헬기장이 조성되어 있다. 마차산을 찾는 등산객의 중식 장소로 안성맞춤인 곳이다. 주변을 숲이 둘러싸고 있어 바람을 피하며 봄별을 즐길 수 있는 장소다. 헬기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북동쪽 능선을 타고 잠시 진행하면 오른쪽으로 동두

천역 방향의 버섯재배장으로 내려서는 갈림길이 나온다.

소요산역으로 곧바로 내려가려면 이 갈림길 직후 오른쪽으로 갈리는 능선을 타야 한다. 주능선을 계속 타면 땡땡이고개를 거쳐 밤골재 갈림길, 양원 리고개까지 산행을 연결할 수 있다. 주능선을 타더라도 중간의 고갯마루와 갈림길에서 소요산역 뒤편 봉동마을 기도원 방향으로 내려서는 것이 가능하다.



봉동마을 뒤편의 능선 갈림길



동두천역 부근 안흥교에서 본 마차산

소요초등학교 앞으로 연결되는 마차산 동쪽 능선은 유순한 산세와 푸근한 분위기의 산행코스다. 크게 가파른 구간이 없는 데다 아릅드리나무가 산길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 마음이 편하다. 등산로는 뚜렷하지만 산자락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별다른 이정표는 없다.

정상부에서 2km 가량 능선을 타고 내려오면 이정표가 세워진 갈림길이 나온다. 계속 능선을 타고 직진하면 신흥교회 옆으로 내려서게 된다. 왼쪽으로 약간 내리막의 능선은 마을 안쪽의 골프연습장으로 이어진다. 두 코스 모두 20분 정도면 하산을 마칠 수 있다. 하산을 마친 뒤 마을의 넓은 도로를 따라 소요교를 건너면 소요산 사거리다. 소요산역은 이곳에서 북쪽으로 100m 정도 떨어져 있다.

2) 교통 · 숙박

교통편은 소요산과 동일하게 1호선 전철을 이용한다. 동두천역이 종점인 열차도 있어 소요산역에 비해 전동차 운행 횟수가 약간 더 많다. 휴일에는 소요산역에서 많은 등산객이 타기 때문에 동두천역에서 탑승할 경우 앉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 등산객은 소요산역까지 다녀오기도 한다.

동두천역 부근에는 마땅한 식당들이 없다. 특히 마차산으로 접근하는 서쪽 지역은 공단이라 더욱 썰렁하다. 식사를 하려면 소요산 입구의 식당가를 이용하는 것이 선택의 폭이 넓다. 아니면 동두천 시가지인 동두천중앙영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방법이다.

11. 동두천록페스티벌

- 한여름 무더위 녹인 동두천록페스티벌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동두천록페스티벌'이 지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소요산 관광지 특설무대에서 전국의 록 마니아, 동두천 시민, 소요산 관광객 등 3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국 록의 발원지라는 자존심을 갖고 시작된 동두천록페스티벌은 전국 최고 수준의 아마추어 록밴드경연대회와



전문 록 뮤지션의 축하공연으로 이루어졌다.

축제 첫날인 8월 14일 치러진 아마추어 록밴드경연대회 본선에서는 전국에서 169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8월 1~2일 동대문 굿모닝시티 야외무대에서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부문별 고교, 대학, 일반부 등 총 15개 팀이 순위 결정전을 펼쳤다.

이날 본선 경연대회에서 최고의 영예는 고교부 'P.R.B 파란불(고교연합팀)', 대학부 '빈센트 앤 로즈(대학연합)', 일반부 '헤이즈'가 각각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록페스티벌 기간 중에는 예술의 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 래커 등을 이용한 그래피티 체험코너, 록 뮤지션 음반 할인 코너, 해나 무료시술, 네일아트 무료시술 등 볼거리와 체험코너를 마련하였다.

이번 축제에는 '김종서밴드, 백두산, 내 귀에 도청장치, 이현우밴드, 디아블로, 문희준밴드' 등 파워 넘치는 국내 유명 뮤지션과 일본의 TORN, 캐나다의 Over Hill And FarAway, 브라질의 SEITA 등 외국 밴드를 포함한 총 33개 팀이 참여하여 다양한 색깔의 공연으로 한 여름 무더위를 녹였다.

또한 공연 중 추첨을 통하여 '텍스터 기타'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관람객 4명이 공연도 보고 선물도 받는 행운을 가져갔다.

동두천음악록협회(중전 동두천록페스티벌조직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전철 이용객에게는 입장권 할인행사를 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관람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전철을 밤 11시 30분까지 추가 운행하고 운행구간은 기존 성북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연장했다.

제9절 동두천의 쟁점들

1. 〈어수정〉을 둘러싼 논쟁들

동두천시 생연동에는 조선 태조와 관련한 전설이 얹힌 우물이 있다. 이른바 〈어수정(御水井)〉이다. 명칭에 나타나는 의미는 ‘임금님이 마신 우물’이라는 뜻이다. 이 우물의 유래는 전해지는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체로 ‘왕자의 난으로 왕위에서 물러난 조선 태조가 함흥으로 가던 중에 이 우물물을 마시고 갔다’로 되어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존되어 있던 이 우물은 현재는 소멸되어 없고 대신 우물이 있던 자리에 유래만 전하는 표지(標識)만이 남아 있다.

이 우물을 둘러싸고 몇 가지 쟁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이 유서 깊은 우물을 복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적한 시골인 이곳 동두천에 조선의 국왕, 그것도 조선을 건국한 태조와 관련한 유적이 존재하였는데 이를 보존하지 못하고 그 유적이 없어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동두천 시민의 향토애와 문화의식을 제고하고 자라나는 2세들에게 향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복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 우물에서부터 유래하여 명명되었던 경원선 ‘어수동역’이 ‘동두천중앙역’이라는 평범한 이름으로 변경된 것 역시 부당한 일이니 ‘동두천중앙역’도 마땅히 ‘어수역’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련된 주장을 들어보자.

“동두천중앙역 역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전혀 기미가 없네요?”

[동두천중앙역의 역사]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2동

1911년 어수동역 - 영업 개시

1984년 동두천역 - 역명 변경

2006년 동두천중앙역 - 전철 개통과 동시에 역명 변경

2008년 동두천중앙(한북대)역 - 부역명 추가

[동두천역의 역사] -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1912년 동두천역 - 영업 개시

1983년 동안역 - 역명 변경

2006년 동두천역 - 전철 개통과 동시에 역명 변경

동두천시에는 현재 남쪽부터 차례로 지행역 - 동두천중앙역 - 보산역 - 동두천역 - 소요산역 등 5개의 역이 있습니다. 과거 신탄리~의정부 통근기차가 다니던 시절에는 동두천역 - 동안역 - 소요산역 이렇게 3개의 역 밖에 없었으나, 2005년 지행역이 신설되었고, 이듬해 전철이 연장 개통되면서 보산역도 생기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전철 개통과 동시에 역명이 바뀐 곳인데, 구 동두천역이 동두천중앙역으로, 구 동안역이 동두천역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다들 잘 알 것입니다.

이 과정이 어땠냐면, 우선 구 동안역은 본래의 지명인 동두천을 찾아준다는 의미도 있고, 전철 행선지로도 쓰이기 때문에 시 이름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상태에서, 개통 몇 달 전에 시에서는 남쪽부터 지행역 - 동두천역 - 보산역 - 구 동두천역 - 소요산역으로 결정해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동두천'과 '구 동두천'이 혼동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건교부에서 반려당하고, 다시 이름을 정하기 위해 시에서는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구 동안역은 동두천역이 1위, 구 동두천역은 어수역이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 동두천역은 동두천중앙역이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개통을 하게 되지요.

내력도 없는 잘못된 역명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인한 혼란이 큼니다. 역명 변경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역사에는 "이곳은 동두천역이 아닙니다. 동두천역으로 가실 분은 소요산 방면으로 두 정거장 더 가십시오" 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노인과 초행자들이 항상 헤매시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합니다.

(중략)

동두천중앙역의 역명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안 역 이름을 몇 개 적어봤습니다. 어떤 게 가장 괜찮을까요?

1) 어수(御水, Eosu)역

과거 이름인 어수라는 지명을 찾아준다는 의미가 있고, 실제로 동두천중앙역 앞 사거리도 어수동 사거리이며 어르신들은 아직도 어수역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음

2) 생연(生淵, Saengyeon)역

소재지인 생연동의 지명을 따서 착안.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함

중앙동에 있어서 동두천중앙역이 된 것이 아님. 이곳은 중앙동도 아님

중앙동은 멀리 구터미널-KT 북쪽일 뿐만 아니라, 중앙동이라는 지명 자체가 생연3동과 생연4동이 통합하면서 생긴 지명

3) 이담(伊淡, Idam)역

1981년 동두천시로 행정구역이 승격되기 전까지 이곳은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이었음

후자는 동두천시청역으로 하자는 말도 있고, 과거 기차 시절처럼 다시 동두천역-동안역으로 환원하자는 말도 있지만, 전자는 2000년대 중반 들어 조성된 신시가지로 인해 동두천의 중심지는 이미 생연동(동두천중앙역)에서 지행-송내동(지행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굳이 동두천이라는 이름을 동두천중앙역에 넣을 필요도 없고, '동두천시청'이나 '동두천중앙'이나 현 동두천역과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똑같다.

후자의 경우는 위에 적었듯이 애초 구 동안역이 역명을 동두천으로 변경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두천중앙역이 역 이름을 바꾸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주장은 그 요지가 '동두천중앙역'을 '어수역'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논지의 핵심은 '동두천중앙역'이 본래 어수정에서 유래한 '어수역'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수정'의 유래는 정확한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어수정'의 유래는 '정확하지 않다.' 조선 태조가 이 우물물을 마셨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유래의 상당 부분은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는다.

우선 조선 태조는 왕자의 난으로 왕위에서 물러난 후 '함흥'에 낙향하지 않았다. 왕자의 난으로 정권을 잡은 한씨 소생 왕자들은 우선 수도를 신도 한양에서 다시 개경으로 환원하였다. 이에 반발한 태조는 개성에 머물지 않고 여러 곳을 순행하는데, 안변 석왕사나 신도 한양의 여러 절, 그리고 동두천의 소요산이나 양주 회암사 등지로 떠돌았다. 그러다가 조사의의 난이 일어나자 그 반란에 합세하기 위하여 함흥으로 가지만 함흥에 머문 것은 불과 한 달 미만에 지나지 않았고, 반란에 실패하여 관군의 포로가 되어 평양과 황해도 금교를 거쳐 개성으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이성계는 함흥에 가거나, 아니면 함흥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두천에 들 수 없다.

당시의 수도인 개경에서 함흥에 가려면 황해도와 평안도를 거쳐야 하고, 한양에서 함흥으로 가려면 의정부, 포천, 철원을 거쳐 안변을 통하여야 하므로 개성과 한양 어디에서 출발하던 동두천 지역은 통과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태조는 언제 어수정에서 물을 마셨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하였지만 태조가 개경에 머물지 않고 여러 곳을 떠돌 때 그는 약 8개월간 소요산에 행궁을 짓고 머문 적이 있었다. 그때 태종은 아버지 태조를 찾아 두 번이나 소요산에 온 적이 있었고, 태조 사후에 포천 영평에서 강무(講武), 즉 사냥을 하다가 소요산에 찾아와 머문 적이 있었다. 한편 태조 역시 소요산에 머무는 동안 이웃 양주의 회암사를 찾은 적이 있었다.

개성에서 소요산으로 오는 경로는 장단에서 임진강을 건너지 않고 임진강을 따라 동진하여 한탄여울, 즉 대탄(大灘)을 건너 동두천의 소요산에 닿았다. 그런데 태종이 소요산으로 태조를 찾을 때 사냥을 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태종이 사냥을 겸하여 소요산을 찾았다면 이 과정에서 어수정 물을 마셨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태조가 소요산 행궁에 머물 때나 소요산을 떠나 회암사로 가는 도중에 역시 어수정 우물에서 물을 마셨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즉 태조와 태종 모두가 이 우물물을 마셨을 충분한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수정', 즉 임금이 마신 우물은 그 유래의 역사성이 충분하다.

단, 이 우물의 유래를 '함흥차사'에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2. 시인 정지용(鄭芝溶)은 소요산에서 죽었는가?

‘향수’의 시인 정지용(鄭芝溶·1902~?)의 생몰 연대에 남아 있는 의문부호를 지울 수도 있을 증언자료가 북한에서 입수됐다.

박태상(48·문학평론가) 한국방송대 국문학과 교수는 29일 정지용의 마지막 행적을 밝혀줄 자료로 시인 박산운이 북한의 「통일신보」 1993년 4월 24일자, 5월 1일자, 5월 7일자에 3회에 걸쳐 연재한 회고문 ‘시인 정지용에 대한 생각’을 재일 조총련계의 조선대 김학철 교수로부터 입수, 국내 학계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박산운의 회고문은 1992년 여름 북한에 살고 있는 정지용의 셋째 아들 구인(69) 씨가 자신을 도 방송위원회에서 중견기자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편지를 보내왔다는 글로 시작된다.

박산운은 이후 구인 씨가 다시 찾아와 “자기 아버지의 최후를 목격했다는 소설가 석인해 교수의 집이 어딘가 물어 이튿날 그를 데리고 석 교수 집으로 찾아갔다.”면서 “이야기는 정지용이 최후를 마친 1950년 가을 전쟁 시기로 돌아갔다.”고 회고문에 적고 있다.

이때 석 교수는 “그날이 그해 9월 21일이었나 본데...”라며 당시를 회상한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그는 전쟁이 터지자 남으로 내려가 문화공작대의 임무를 수행하고 귀환 도중에 동두천에서 정지용을 만났다는 것이다. 친분이 있던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동두천 뒷산을 넘었는데 그 산이 ‘소요산’이라는 말을 들은 정지용은 이름이 매우 풍류적이라며 껄껄 웃었다고 한다.

박산운은 “9월 21일 아침에 강원도 태백산 줄기를 타는 동쪽으로 길을 잡고 (정지용과) 함께 오고 있었는데 불시에 미국 놈들의 비행기가 하늘을 날며 날아왔다. 일행을 발견한 비행기는 곧바로 기수를 숙이더니 로켓 포탄을 쏘고 기총소사를 가하였다.”고 석 교수의 증언을 소개했다.

석 교수는 “비행기가 사라진 뒤 정지용을 찾아보니 기총소사에 가슴을 맞고 이미 숨져 있었다.”면서 “그 때 정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동무(구인 씨)의 아버지 시신을 대충 묻고 통일이 되는 날 친구들과 함께 찾아가 봉분을 해드리자고 했는데 참... 안됐소...”라고 말한 것으로 회고문에 기록돼 있다.

이후 구인 씨도 1995년 6월 「통일신보」에 “아버지가 북으로 오던 중 경기도 동두천 소요산 기슭에서 미군 비행기의 기총탄을 맞고 숨을 거뒀다.”고 밝힌 바

있으나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남한에서는 정지용이 평양교회소(교도소)에서 폭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990년 사망한 계광순 전 국회의원은 1950년 12월에 펴낸 회고록에서 “정지용이 우익활동 혐의로 1950년 7월 북한군에 의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으며 이후 평양교회소로 이감돼 춘원 이광수와 같은 방을 썼다.”고 밝힌 바 있다. 계씨는 그해 9월 23일 유엔군의 폭격 때 자신은 평양 감옥을 탈출했지만 정지용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갑을 앞두고 2001년 12월 20일 완간된 30권짜리 『조선대백과사전』 제17권은 정지용의 사망 원인이나 장소에 대해 밝히지 않은 채 ‘9월 25일 사망했다’고 적어놓았다.

정지용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어느 날 오후 경기도 고양군 녹번리(현 서울 녹번동) 자택에서 “문안에 좀 들어갔다 오마.” 하고 집을 나간 뒤 행방불명돼 그의 사망과 관련된 갖가지 추측과 소문을 낳았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박산운은 회고문에서 석인해 교수의 목격담을 근거로 정지용이 자진해서 월북하던 중 동두천의 소요산에서 미군의 폭격에 의해 사망했다고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서술했다.”면서 “이것은 북한이 정지용 시인의 부활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그의 죽음을 미화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는 북한 당국이 그동안 정지용을 기교에만 치중하는 부르주아 반동작가라고 매도했다가 갑자기 애국시인으로 평가하는 데 따른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교수는 반세기 가까이 ‘부르주아 반동작가’의 오명을 씻지 못했던 정지용이 1994년 이후 사실상 북한에서 복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대백과사전』의 제17권에 김소월, 한용운, 윤동주 등과 함께 정지용 시인이 수록된 것은 그의 문학이 북한문학사에서 완전하게 부활한 것을 의미한다.”면서 “박산운의 회고문에도 ‘북에서 발간된 현대조선문학선집의 1930년대 시인선집에는 선생(정지용)의 작품들이 김소월과 함께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의 대학들에서는 선생의 시들과 문학적 업적이 강의되고 있다’고 적어 놓아 그의 문학적 복권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3. 원효와 요석공주는 정말 소요산에 왔을까?

—“소요산 원효설화 위작되었다?”

“동두천 향토사학자 이명수 씨, <경기향토사학 제7집>서 밝혀 자재암 불력 높이려 설화 끌어와 전국 90개 사찰 원효 이름 빌려, 요석공주 아닌 월명공주가 올라...”

신라 선덕여왕 14년(645)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동두천시 소요산의 자재암이 불사 건립에 있어 불력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원효대사 설화를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는 논문이 발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동두천 이명수 향토사학자는 지난해 12월 출간한 <경기향토사학 제7집> ‘소요산 원효설화의 재검토’를 통해 그동안의 통설을 뒤집고 자재암의 원효 창건 설화는 후세에 의해 위작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향토사학자는 원효대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양양의 청련암, 시흥의 삼막사, 양산의 원효산 등 전국 91개 각 사찰들이 원효의 이름을 빌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절로 꾸며 많은 신도를 불러 모으려 했으며, 절 곳곳마다 신라 명승인 원효의 이름을 붙여 관광지로 만들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효대사는 스님이자 학자며 번역가, 저술가로 생전에 중국 불교서적 200여 권을 번역했다. 이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했을 터인데 재벌가도 아닌 원효가 무슨 재력으로 91개라는 절을 창건했겠으며 교통이 불편한 그 시대에 그 많은 곳을 어떻게 다니며 사찰을 지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위의 기사는 동두천의 향토사학자 이명수 씨가 집필한 논문의 내용을 한 지방지가 보도한 것이다. 위의 논문은 기존의 소요산, 동두천 안내서 및 소개문에 상식처럼 등장하던 설화에 대한 정면 공박이다. 즉 원효대사가 소요산에 와서 수도하였고, 그를 흠모한 요석공주가(아들 설총을 데리고) 소요산 아래로 원효를 찾아와 머물렀다는 것이다.

“소요산에는 곳곳에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이야기가 스며 있다. 요석공주가 머물렀다는 별궁터와 원효가 수도했다는 원효대도 있고 정상인 의상대 옆에 있는 공주봉(원효가 요석공주를 두고 지은 이름)도 있다.

산 중턱의 ‘자재암’은 원효대사가 도를 깨친 곳으로 원효가 요석공주와 인연이 있는 후 심산유곡인 이곳을 찾아와 수행하다가 절을 지었다고 한다. 수행 도중 관세음보살과 친견하여 자재무애의 수행을 쌓았다 하여 자재암이라 했다고 한다.”

－〈한국의 산천〉

“소요산관광지에는 신라시대 고승인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애절한 설화가 스며 있는 요석공주 별궁지와 상징아치 연리지문, 조선 초 태상왕 이태조가 별궁을 짓고 지냈다는 행궁지 유적이 있으며 원효대사가 고행 수도하였다는 것과 관련된 지명의 자재암, 원효폭포, 원효대 등으로 이루어진 명소들이 있다.”

－〈동두천 사랑〉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설화의 역사성에 대한 의문의 표시는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이며 어느 쪽의 견해가 보다 많은 역사성을 확보하고 있을까?

먼저 원효의 생애와 요석공주와의 관계를 문헌 자료를 통하여 검토해 보자.

원효에 관한 사실(史實)적 기사는 다음과 같다.

1. 원효는 신라 진평왕 39년(617)에 압량군 불지촌(현 경산군 압량면 신월동)에서 태어났다.
―『삼국유사』
2. 34세 때 당에 유학하기 위해 의상(義湘)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요동까지 갔다가 그곳 순라꾼에게 잡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되돌아 왔다. 45세에 이번에는 해로로 당에 가기 위하여 백제땅 당주계(唐州界)까지 갔으나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돌아왔다.
3. 불교학의 연구와 저술 그리고 대중교화에 몰두하였다. 여러 문헌에 의하면 그의 저술은 100여 종 240여 권(또는 86부 180여 권)으로 알려져 있다.
4. 원효가 과부가 되어 있는 요석궁의 공주와 짧은 인연으로 아들 설총을 낳고, 스스로 승복을 벗어던진 채 소성거사(小姓居士)라 자처하며 무애(無涯)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 시기에 여러 곳을 방랑 순회하였다.
5. 보살행(菩薩行)으로써 민중교화행을 마친 그는 소성거사가 아닌 원효성사로 되돌아가 혈사(穴寺)에서 생애를 마쳤다는 기록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신문왕 6년(686) 3월 30일의 일이었다.

위의 자료에 나타나는 것처럼 만일 원효가 소요산에 왔다면 그가 요석공주와의 파계를 통하여 아들 설총을 낳고 스스로 세속인으로서 무애행을 실천하던 시기의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위의 자료와 정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면 소요산의 원효설화는 사실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소요산에서의 원효는 보살, 무애행의 세속승이 아니라 보다 깊은

깨달음을 이어가기 위한 입산수도자의 모습이며 심지어는 관음보살을 친견하는 최상의 경지에 다다른 고승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당시 전국을 떠돌았다는 원효의 모습은 승복을 벗고 민중의 아픔과 괴로움을 끌어안은 채 민중의 삶 안에 침잠하던 모습이기 때문이다.

파계한 이후, 원효대사는 스스로를 소성거사라 하면서 광대들이 들고 춤추는 큰 박을 본 떠 무애(無碍)박을 만들어 저잣거리를 돌아다니며 무애가를 부르고, 무애 춤을 추며 민중들을 교화하였습니다.

- 〈구인사 홈페이지〉

아울러 소요산의 원효 설화는 당시의 시대상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우선 자재암이라는 사찰의 이름이 문제이다. 설화는 원효가 “관세음보살과 친견하여 자재무애의 수행을 쌓았다 하여 자재암이라 했다고 한다.”라고 전한다. 그러나 자재암이라는 사찰 명은 근래에 지어진 것이며 본래 자재암 자리에는 조선시대 중기까지도 ‘소요사’라는 사찰이 위치하고 있었다. 자재암은 조선 말기에 절을 중창하면서 얻은 이름이다. 따라서 소요산 원효설화의 이 부분은 설득력이 없다.

둘째는 소요산에 사찰을 창건하였다는 사실이다.

원효는 일심(一心)사상, 화쟁(和靜)사상, 무애(無涯)사상을 기반으로 민중을 교화하였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수행을 실천하였지만 여전히 교종적 불교의 범주 안에 있었다. 불교가 도심을 벗어나 소요산처럼 깊은 산중에 사찰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선종(禪宗) 불교의 도입 이후인 통일신라 말기부터의 일이다. 따라서 원효 당시의 사찰은 도심에 있었고 승려의 수행과 교화 역시 도심 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점에서 원효가 당시 신라 국토의 최북단인 소요산에 와서 여기에 사찰을 창건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요석공주와 원효와의 관계이다.

설화는 요석공주가 소요산에 입산한 원효를 사모하여 소요산까지 찾아와 산 아래에 머물렀다고 전한다. 그러나 요석공주와 원효의 관계는 지금처럼 부부관계나 연인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를 전하는 기록들은 둘의 관계가

철저히 계산된 단기적인 것이었다고 전한다.

원효는 어느 날 비틀거리며 거리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빌리겠는가. 나는 하늘 떠받칠 기둥을 찍으리.”
태종무열왕이 이 노래를 듣고는 “대사가 필경 귀부인을 얻어 귀한 아들을 낳고자 하는구나. 나라에 큰 현인이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는 요석궁의 과부 공주에게 원효를 데려가라고 했다. 명을 받은 궁리(宮吏)가 원효를 찾으니 이미 남산에서 내려와 문천교를 지나는 중이었다. 이때 원효는 일부러 물에 빠져 옷을 적시고, 옷을 말리기 위해 요석궁을 찾아갔다. 3일간 요석궁에 머문 원효는 그 길로 궁을 나서고, 공주에게는 태기가 있더니 신라 십현(十賢)의 한 사람인 설총을 낳았다.

(중략)

원효가 기거하는 혈사(穴寺) 바로 옆집에 설총이 살았으며, 원효가 죽은 후에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유골을 조상으로 만들어 분황사에 모시고 공경의 뜻을 표했는데, 어느 날 설총이 예배하자 소상이 갑자기 돌아다보았다.

— 『삼국유사 원효불기조』

위의 기록은 원효와 요석공주의 관계가 애정이나 연모(戀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동기가 다분히 내포된 단회적인 관계였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동시에 원효가 말년에 거처한 절이 <혈사(穴寺)>였으며, 그 곳에서 원효를 모신 이는 요석공주가 아니라 아들 설총이었다고 확인한다. 그리고 이 <혈사(穴寺)>는 소요산이 아닌 경주에 위치하고 있다.

원효대사는 신라 진평왕 39년인 617년에 압량면 불지촌에서 출생하였고, 신문왕 6년인 686년에 지금의 경주 남산 혈사에서 입적하였습니다.

— <구인사 홈페이지>

원효는 만년에 무애행을 거두었다고 하지만 그 후반 생애의 대부분 무애행 실천으로 보냈다. 주지하는 바 무애행은 깊은 산에 들어 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와 촌락에 거하는 민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화이다. 동시에 그는 100여 종에 가까운 저술을 남겨 중국, 일본은 물론 인도에까지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바 이 모든 정황이 원효의 소요산 설화를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원효의 소요산 수도와 요석공주의 소요산 거주는 아마도 사실이 아닌 듯하다. 그러나 고려, 조선을 거치며 많은 시인, 묵객과 불심 깊은 신도들은 원효가

소요산에 와서 수행했다고 굳게 믿었다.

아폴로는 달에 토끼가 살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맑은 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달 한가운데의 계수나무 아래서 떡방아를 찧고 있는 토끼가 선명히 보이는 것처럼 단풍 곱게 물든 소요산 계곡 원효폭포 아래서 물소리를 듣는 모든 착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수행하는 원효와 그를 연모하는 요석공주의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 모양이다.

4. 동두천의 바른 한자 표기는 무엇인가?

현재 사용되는 우리 시 동두천의 한자 표기는 <동두천(東豆川)>으로서 이 한자 음만으로는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다. <東豆川>은 시냇물을 뜻하는 <천(川)>과 이를 수식하는 <동두(東豆)>로 구성되어 있으나, <동두(東豆)>의 의미가 동녘과 콩이어서 이를 억지로 푼다 하여도 <동쪽의 콩> 또는 <동방의 제기(祭器)>로 해석되어 그 의미가 불분명해진다.

그렇다면 <동두천(東豆川)>의 본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표기되어야 바른 표기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제의 바른 해답에 접근하려면 먼저 고문헌에 등장하는 우리 지역의 지명부터 검토하여야 한다. <동두천(東豆川)>의 어원으로 검토될 수 있는 옛 자료는 서유구가 편찬한 『임원경제지(林苑經濟誌)』 등 조선 후기의 경제상황을 기록한 여러 문헌에 나타나는 <동도천(東道川)>을 우선 들 수 있다. <동도천(東道川)>은 우리 지역 유산리(楸山里)에서 열리던 정기시, 즉 5일장인 <동도천장(東道川場)>에 나타나는데 그 의미는 <동쪽에서 흘러오는 개울>이다. 아울러 같은 문헌에는 지금의 봉양리 일대에 서던 장인 <북도천장(北道川場)>이 함께 나타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북도천(北道川)>은 그 뜻이 <북쪽으로 흐르는 개울>로 현재의 <신천(莘川)>이 분명하다.

동두천시의 중심부를 지나는 이 <신천(莘川)>은 표기된 한자만으로는 <길다란 개울>로서 한자어의 의미는 통하지만 특별히 우리 지역의 지리적 특징을 함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신천(莘川)>은 양주군 남면 신산리(莘山里)에서 발원하여 흐르므로 이를 <신천(莘川)>이라 하였다는 설명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

어 보인다. 즉 현재의 <신천(莘川)>은 조선 후기에 <북도천(北道川)>이라고 불렸던 것이다.

이렇게 <북도천(北道川)>과 <동도천(東道川)>을 나란히 놓고 보면 우리 지역 하천의 지리적 구조가 확연히 드러난다. 즉 북류(北流)하는 신천과 서류(西流)하는 동두내가 동두천시의 중심에서 북(卜)자(字) 형으로 합류하는 형상이 지명에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동두천(東豆川)은 그 지명(地名)의 원형(原形)이 <동도천(東道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동두천(東豆川)>이라는 현재의 지명은 <동도천(東道川)>에서부터 파생되었으며 서류하는 동두내에서 그 명칭이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동도천(東道川)>의 정확한 의미는 <동쪽으로 흐르는 개울>로 하류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 동두내는 서류하지 동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감안하여 새로이 나타난 지명이 바로 <동두천(東頭川)>이다. 지명의 도(道)를 두(頭)로 바꾸면 '동쪽에서(서쪽 방향으로) 흘러오는 개울'이라는 의미로 변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도천(東道川)>에서 바뀐 <동두천>의 한자 표기는 <동두천(東頭川)>이어야 정확하다.

실제로 <동두천>이라는 지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구한말 <동두천>의 한자 표기는 <동두천(東頭川)>이었다. 다음의 자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傳說을 得聞호 則 楊州郡伊淡面基衝村 居호 洪元甫爲名人이 自來生活이 誘引子弟호야 賭技奪財호는者이라호디 抱川郡東頭川 居호는 李聖奎氏가 家貧親老에 勢不得已호야 舌耕糊口호더니 日前에 該氏가 親患을 因호야 問醫次 基衝村으로 過去호는디 不知何許人이 朴主事爲名人家로 誘入호더니 居無何에 金之 李之가 李聖奎氏를 無數毆打호며 滅倫敗傷者라 冒稱호고 一場惹鬧之際에 洪元甫가 該李氏를 救護호는 搢호으로 誘引호기를 錢二千兩만 用호는호면 無事妥帖호마 호거날 李氏가 答호기를 吾無犯罪어날 何以用錢耶아 호앗더니 洪元甫가 休紙 一張으로 座中에 聲言曰 吾家券을 典執債用호는 것시니 李氏는 二千兩을 持來호라고 威脅이 滋甚호되 李氏가 分錢도 不給호앗더니 李聖奎氏의 農牛 一匹을 牽去호앗다니 該洪元甫는 無異賊徒인 즉 嚴治懲習호 만호다더라
- 「황성신문」, 1907년 6월 1일

往十里 居호는 金某는 五六日前에 紙貨 百餘圓假量을 白米石中에 藏置호고 白米 一駄를 楊州郡東頭川附近으로 過去호다가 強盜 幾名이 突出호야 米駄를 奪取호야 山林中으로 牽去호는지라 金氏가 追去호앗더니 該盜 等이 金氏의 脾胃를 以刀刺호고 米石中에 百圓金을 奪去호앗다더라
- 「황성신문」, 1907년 4월 21일

楊州郡東頭川憲兵分遣所에서 補助員 六名이 歲前に 逃去하였다. 六名中에 開城 居る 洪俊成이가 暴徒에 投入하였다가 十餘日前에 歸家留宿할 際に 當地分遣所에서 捕捉하였다더라
- 「황성신문」, 1909년 4월 9일

이상의 자료에는 동두천이 '東頭川'으로 분명히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 시기의 자료라 하여도 일본인들이 작성한 각종 자료에는 동두천이 '東豆川'으로 되어 있다. 동두천이 '東豆川'으로 표기된 가장 이른 시기의 문서는 1908년 5월 19일 牟田敬九郎(韓國駐劄軍參謀長)이 한국통감부 한국주차군 内部警務局에 보낸 賊情通報綴에 나타난다.

이와 함께 '東豆川'으로 표기되는 일제 강점기의 자료들을 보자.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 1912년도

시기	이름	소속	관직
1912	中澤謙治	조선총독부직속기관	>철도국 >역(驛) >東豆川역
			書記

23rd, Tuesday, Beautiful, Pleasant.

Seoul home. To 逍遙山 with cousins 致昭 and 趙寔. The walk from the 東豆川 Station to the Temple would have been pleasant but for the fact that I had a very poor sleep last night

- 「윤치호 일기」, 1928년

동시에 일제 강점기의 여러 신문들과 잡지 및 관보 등에도 동두천은 일관되게 '東豆川'으로 나타난다. 특히 위에 제시한 자료인 윤치호 일기처럼 경원선 개통 이후 '동두천역(東豆川驛)'이 설치되면서 우리 지역은 기존의 '가정자(柯亭子)', '유산리(楸山里)', '이담(伊淡)' 등의 대표 지명 대신에 '동두천(東豆川)'이라는 지명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명으로 정착되게 된다.

'동두천역(東豆川驛)'이 설치된 곳이 본래 '짜리말', 즉 '유산리(楸山里)'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원선 '동두천역(東豆川驛)'이 지역의 대표 지명을 확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자의 의미상으로는 '동두천(東頭川)'으로 써야 하는데 왜 한문 표기가 '동두천(東豆川)'으로 변용되었을까? 우리는 '동두천(東頭川)'은 주로 한국인이 작성한 문건에 나타나고, '동두천(東豆川)'은 주로 일본인이 작성한

문서에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본래 맞는 표기인 '동두천(東頭川)'을 일본인들이 '동두천(東豆川)'으로 표기한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일본인들은 어렵고 복잡한 한자를 편의상 간편하게 줄이거나 비슷한 음의 다른 글자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를 그들은 약자(略字)라고 하였다. '두(頭)'의 일본식 약자가 바로 '두(豆)'인 것이다. 그러므로 '동두천(東豆川)'은 '동두천(東頭川)'의 일본식 표기인 것이다. 일본인들이 자기 식대로 '두(頭)'를 '두(豆)'로 대체하였고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와 같은 일본식 지명이 정착되어 이제는 '동쪽에서 흘러 오는 개울', 즉 '동두내'의 의미를 짚어낼 수 없는 의미 불명의 지명이 되고 말았다. 이제라도 조금 복잡하지만 '동두천'은 '동두천(東頭川)'으로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5. 동두천의 고대 지명 '내이미'는 무엇을 뜻하는가?

동두천시청 누리집에는 동두천의 연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다.

고구려 시대 - 내을매현에 속함

고구려는 4세기 말 광개토대왕의 영토확장사업의 성공으로 한강선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이 무렵 양주지역에는 남평양이라고도 한 북한산군과 함께 훗날 건주로 개명되니 매성현(買省縣) 및 내을매현(內乙買縣) 등이 설치되었다. 매성현은 지금의 양주군 주내면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비정해 볼 수 있으며 고구려 때의 내을매현도 현재의 동두천 일대라고 볼 수 있다. 백제시대에는 매성군, 또는 마홀(馬忽)이라고도 하였으며 신라 경덕왕 16년에 내소군(來蘇郡)으로 개명되었다. 내을매현은 양주의 북쪽에 있었던 지역으로 신라 경덕왕때 사천현(沙川縣)으로 개명되었다.

- 〈동두천시 홈페이지(연혁)〉

동두천 지역의 백제 이전 지명을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동두천 지역의 지명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자료는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통치하던 당시의 지명으로 이때는 이 지역을 내을매(內乙買) 또는 내이미(內爾米)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내을매(內乙買) 또는 내이미(內爾米)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지명의 의미를 이해하는 단초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매(買) 또는 미(米)라는 이두(吏讀)로 표현된 고대 우리말인데 이는

마홀(馬忽), 매성(買省), 미추홀(味鄒忽), 관미성(關彌城) 등의 고대 지명에 나타나는 마(馬), 매(買), 미(味), 미(彌)와 같은 지명으로 이는 강(江), 또는 하천(河川)을 뜻한다. 그렇다면 내을매(內乙買) 또는 내이미(內爾米)는 내을(內乙), 내이(內爾)를 접두사로 가진 하천(下賤), 즉 내을천(內乙川), 내이천(內爾川)이라는 하천, 강 지역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다면 <내을(內乙)>, <내이(內爾)>는 무슨 뜻일까? 이 지명의 뜻을 이해하는 열쇠는 경덕왕이 삼국통일 이후에 고대 우리말 지명을 한역(漢譯)하면서 동두천 지역의 지명으로 채택한 사천(沙川)이라는 지명에 있다.

경덕왕의 한자식 지명 개정은 대부분 현지의 우리말 지명을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을 겪었으므로 사천(沙川), 즉 <모래내>는 <내을매(內乙買)> 또는 <내이미(內爾米)>의 한자식 번역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내을(內乙)>, <내이(內爾)>는 <모래>의 우리말 표기임을 알 수 있다. 즉 <모래가 많은 하천>, <모래내>의 우리 고대어가 <내을매(內乙買)> 또는 <내이미(內爾米)>로 이두식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내을매(內乙買)>, 즉 <모래내>가 바로 우리 동두천을 관통하여 북류(北流)하는 “신천(莘川)”의 본래 우리 이름인 것이다.

「여지도서」를 비롯한 여러 고지도에 현재의 신천을 ‘사천(沙川)’으로 표기한 것도 이 사실을 방증한다.

6. 마차산의 한자 표기는 무엇이 맞는가?

<마차산>은 동두천의 서북쪽 진산으로 동북 진산인 소요산을 마주보고 있다. 그 높이는 588.4m이며 위치는 상봉암동이다.

쟁점이 되는 것은 이 마차산의 한자 표기가 각색이어서 이를 확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까닭이다.

옛 자료에 나타나는 마차산의 한자 표기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마차산(磨嵯山)

이 표기의 의미는 산이 험하고 수목이 빈약한 악산(惡山)이라는 뜻이다. 마차산(磨嵯山)으로 표기되어 나타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1556년(효종 7)에 편찬된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 주(양주)의 북방 60리에 있으며 적성 감악산과 연결되었다.

(2) 1757년(영조 33)~1764년(영조 40)에 간행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이담면에 있다. 홍복산의 맥이 나뉘어 흐르다 바뀌어 적성 감악산이 되고 이 감악산으로부터 감돌아 이 산이 된다.

(3) 대한제국 광무연간(자세한 간기는 불명)에 편찬된 양주군읍지(楊州郡邑誌)에 부록으로 첨부된 지도에 나타난다.

(4) 실록에 나타난다.

연산 61권, 12년(1506 병인/명 정덕(正德) 1년) 2월 2일(임자) "명하여 금표(禁標)의 한계를 정하였는데, 서북은 고임진(古臨津) 석벽 고랑이(石壁古郎伊)를 기점(起點)으로 하여 무미동(無迷洞) 뒷고개 · 저구리(猪仇里) · 차유령(車踰嶺) · 상수역(湘水驛) 남쪽 고개 · 소라산(所羅山) · 마차산(磨嵯山) 대탄(大灘)을 거쳐 실장산(室藏山)에서 그치고, 동북은 종현산(鍾懸山)에서 시작하여 오방산(五方山) · 천보산(天寶山) · 석문 고개[石門峴] · 백련천(白連川)을 거쳐 수중산(水鍾山) 대탄에서 그치고, 남쪽은 대고현(大羔峴)에서 시작하여 소고현(小羔峴) 작은 내에서 그치고, 서쪽은 경안역(慶安驛)에서 시작하여 마산(馬山) · 선장산(禪場山) · 문현산(門懸山) · 현릉(獻陵) · 남산(南山) · 천천현(穿川峴) · 장성곶(長成串) · 양재역(良才驛)을 거쳐 습은현(習隱峴)에서 그치고, 서남은 양화도(楊花島)에서 시작하여 고부평(古富平) 뒷고개에서 그쳤다. 그리고 옛 길을 막고 새 길을 닦는데, 서쪽은 노랑(鷺梁) · 고부평(古富平)을 거쳐 낙하(洛河)에 이르고, 동쪽은 과천(果川) · 고광주(古廣州) · 경안역(慶安驛) · 덕연(德淵) · 차유암(車踰巖) · 구라역(仇羅驛)을 거쳐 조종 고현(朝宗古縣)에 이르니, 옛 길과 비교해 보면 모두 수일(數日) 길을 돌게 되었다."

2) 마차산(磨嵯山)

- 1851(철종 2) ~ 1856년(철종 7)에 편찬된 여도비지(輿圖備志)에 나타난다. 양주의 치소로부터 북으로 60리에 있다고 되어 있다.

3) 마차산(磨嵯山)

- 1863년(철종 14)에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지지(大東地志)에 나타난다. 역시 양주의 치소로부터 북으로 60리에 있다고 되어 있다.

4) 마차산(磨叉山)

(1) 이항복의 문집인 『백사집』 제2권 『묘지(墓誌)』 중 <고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 정군(鄭君)의 묘지명>에 나타난다.

(2) 지금 장지(葬地)는 양주(楊州)의 마차산(磨叉山) 아래에 있다. 다음과 같이 명한다.

누가 재능은 풍부하면서 베푸는 덕 인식했단고 / 孰賦之豊而施之嗇

높이 날아오를 듯하다가 중도에 넘어졌네 / 若軒舉也而中躓

마차산은 성대하게 정령이 쌓여 있으니 / 磨叉蔚其蓄靈

선인을 따라서 길이 복을 받으리라 / 從先人而受祉

이 자료들을 정리하면 대체로 4개의 표기가 나타나지만 그 4개의 표기는 다시 2종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산세의 모양을 따라 산이 험하고(嵯, 嵯) 높으며(摩) 숲이 빈약(磨)한 것을 묘사한 것과 산에 다른 하나는 전해지는 전설 - 비녀를 갈았다(磨叉) - 에 따라 작명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앞에 제시한 여러 문헌과 자료에 나타나는 표기에 따르면 산세를 형상한 것이 대종을 이루고 그 중에서 <마차산(磨嵯山)>이 주종을 이룰 뿐 아니라 특히 조선시대의 기본 사료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도 이 표기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이 실록의 표기가 가장 이른 시대의 것이라는 점에서 표기를 통일한다면 <마차산(磨嵯山)>이 가장 설득력을 가진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2010년 동두천시지명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마차산 지명의 한자 표기를 <마차산(磨嵯山)>으로 확정하 바 있다.

7. 어유소 장군은 정말 술개를 쏘아 떨어뜨렸을까?

동두천시가 배출한 걸출한 향토인물 정장공(眞莊公) 어유소(魚有沼)에 관하여 동두천에 전해지는 흥미로운 전설이 있다.

어유소가 왕과 함께 어등산에 올랐는데 마침 산 상공(上空)에 술개가 날자 왕이 어유소에게 그 술개를 쏘아 떨어뜨리도록 명하였고 이 명을 받은 어유소는 즉시 활을 당겨 술개를 쏘아 떨어뜨렸다. 이에 어유소의 활숨씨에 감탄한 왕은 그 술개가 떨어진 곳을 기증하여 그 일대를 어유소에게 사패지로 하사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전설은 역사적 사실일까? 어유소가 뛰어난 활숨씨를 지닌 명궁이었다는 사실과 동두천에 막대한 사패지를 분급받았다는 사실은 확인이 가능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에 관련된 자료를 보자.

1) 공은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활쏘기와 말 달리기에 뛰어난 재주가 있었다. 성질이 너그러워 남에게 거스르는 일이 없었고, 널리 사람을 사랑하여 친절하였고 일을 처리함에 상세하고 주밀하여 선비의 기질이 있었다. 진(陣)에 임해서 적을 대할 때에도 생각이 한가하였다. 활 무게가 백 근이나 되었으나 쏘면 반드시 명중하였다. 『연려실기술』 - 〈세조조의 명신〉

* 성종 29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4월 24일(갑신)

후원(後苑)에 나아가서 활쏘기를 구경하였다. 봉원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영안북도절도사(永安北道節度使) 어유소(魚有沼)·평안도절도사(平安道節度使) 정문형(鄭文炯)·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박건(朴健)이 술잔을 올리고, 많이 맞힌 김서형(金瑞衡) 등 일곱 사람에게 활과 화살을 차등이 있게 하사하였다.

2) 성종 62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12월 9일(갑신)

후원(後苑)에 나아가 관사(觀射)하였다. 무신당상관(武臣堂上官)에게 사후(射侯)를 명하여 많이 맞힌 자인 우참찬(右參贊) 어유소(魚有沼)에게 표피(豹皮) 1장을, 첨지중추(僉知中樞) 박양신(朴良信)·지중추(知中樞) 허형손(許亨孫)·동지중추(同知中樞) 김견수(金堅壽)·공조판서(工曹判書) 김교(金嶠)에게 호피(虎皮) 각 1장씩을 하사하였다.

* 성종 11년(1480 경자 / 명 성화(成化) 16년) 1월 5일(병술)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여, 어유소(魚有沼)를 경기(京畿)의 농장(農莊) 근처에 중도부처(中途付處) 하도록 하였다.

위의 자료에 나타나는 것처럼 어유소는 명궁으로 그 명성이 자자하였고 왕을 모신 자리에서 활쏘기 경연에 참가하여 상을 타는 것이 상례였다. 아울러 그가 왕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유배형을 받았으나 경기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 중도부처하도록 감형하였다는 기사는 그가 사패지로 받은 전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어유소가 받은 사패지가 전설처럼 왕과 함께 어등산에 올라 하늘에 떠있는 술개를 쏘아 떨어뜨린 공로로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왕과 함께 산에 오르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그가 모신 세조, 예종, 성종의 경우 동두천에 행행한 기록이 없다.

왕이 지방에 행행하는 경우는 대략 3가지의 사유로 인함이다.

첫째는 강무(講武)이다.

- 이는 사냥의 형식을 빌린 군사훈련으로 전국에 미리 지정된 강무장에서 행해졌다.

양주의 경우 풍양, 녹양, 해등촌 등에서 강무가 행하여졌고 여기에 동원되는 군사는 수천에서 수만에 이르는 규모였으며 짐승을 몰고 이를 쏘아 잡는 것은

엄격한 규례에 따라 이루어졌다. 잡은 짐승 역시 어느 부위에 화살을 맞았는지를 엄격히 구분하여 종묘에 드릴 것과 대비전 등 윗전에 올릴 것과 임금의 연회에 사용할 것을 각각 확정하였고 강무의 진행 역시 진법(陣法)과 병법(兵法)에 따라 규정대로 시행되었다.

* 세종 95권, 24년(1442) 임술 / 명 정통(正統) 7년 3월 9일(경오)

하교하기를, “옛날에 우리 태종(太宗)께서 병조(兵曹)에 의논하기를, ‘매양 강무(講武)할 때를 당하여 군사들에게 화살을 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훈련하는 본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니 군사들로 하여금 달리며 활을 쏘게 함이 어떨까.’ 하니, 판서 조말생(趙末生)과 참판 황상(黃象)이 대답하기를, ‘만약 군사들에게 치사(馳射)하게 하면, 군령(軍令)이 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항오(行伍)를 잃고 제자리를 벗어나 혹 활쏘기를 다투다가 사람을 상하게 할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옵니다.’ 하므로 태종께서 그 의논을 따르셨기에, 나도 역시 이 법을 좇아 다만 대군들만을 치사(馳射)하게 하였더니, 이때에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이것은 대군만 위하는 강무(講武)이다. ‘고 하였고, 또 장수(將帥)들을 치사(馳射)하게 하였더니, 또 이르기를, ‘이것은 장수만 위하는 강무다. ‘고 하므로, 곧 옛날 사람의 삼구(三驅)하는 법에 의하여 한쪽 면을 띄워 놓고서 에워싼 후, 그 에워싼 둘레 안을 셋으로 나누어 깃대를 세우고서 대군과 여러 종친들의 치사(馳射)하는 한계를 구별하고, 새와 짐승이 둘레 밖을 빠져 나간 뒤에야 군사들이 달려가서 쏠 수 있게 하니, 이 때문에 군사들의 치사하는 기회가 아주 드물고 적다. 그러므로 그들 군사를 나누어 윤번(輪番)으로 둘레 안에 들어가 쏘게 하여 전군이 강무(講武)할 수 있게 하고저 하노니, 그 편부(便否)를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좌참찬 황보인(皇甫仁)이 행궁(行宮)에 나가서 도승지 조서강(趙瑞康) 등과 함께 아뢰기를, “그 삼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에 수십만 명의 대중(大衆)을 수천 리나 되는 넓은 지역에 배치하였을 때에, 성인(聖人)의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짐승이라도 차마 다 잡아 죽일 수 없다는 뜻에서 한 면을 띄워 놓고 몰되, 거슬러 가는 것은 버리고 순순히 잡히는 것만 취하는 법입니다. 우리 나라 같은 데는 겨우 수천의 군병으로 산(山)하나 산기슭 하나쯤을 둘러싸고서 몰아가는 것이니, 비록 4면을 다 에워싼다 하더라도 짐승 잡는 것은 삼구법으로 하는 것보다도 가벼울 것입니다. 또 강무(講武)하는 날씨는 적고 군사들의 수효는 많으니, 아무리 윤번(輪番)으로 치사(馳射)를 시켜도 그 군사를 고루 다 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러면 우선 경등의 의논대로 따르리라.”

실록에 따르면 세조, 예종, 성종이 동두천 지역에서 강무를 행한 바가 없고 설사 행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자료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사roi 짐승을 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법도에 따르며 더욱이 술개는 사냥의 대상이 아니므로 더더욱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임금의 지방 행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능묘 배알이다.

－ 왕이 선대 능침을 찾아 배알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영조가 양주의 온릉을 찾아 제사한 적이 있고, 정조가 광릉에 참배하는 도중에 양주 관아에

묵으며 활쏘기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과거를 진행한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 역시 어유소의 생존 기간에 능침 배알을 하러 동두천 인근에 찾아 온 예가 없어 이 역시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셋째의 경우는 왕의 개인적인 행행이 있다.

－ 질병 치료를 위한 온천행이나, 사사로운 원유(遠遊)가 있을 수 있다. 양주의 경우 태종이 여러 차례 홍복산에 원유(遠遊)한 적이 있고, 태조가 퇴위 후 소요산에 머물거나 평주온천에 거둥하는 과정에서 양주를 거쳐 간 일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동두천, 어유소와는 연관이 없어 역시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왕은 산 등성까지 오르지 않는다.

혹시 왕이 어등산에 행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강무가 되었건, 능침 참배가 되었건, 원유 행행이 되었건 산등성에 오르는 법은 없다. 왕의 행행은 적어도 수천 명에 달하는 인원이 호종하는 국가적인 행사이다. 지방에 내려오는 왕과 그를 영접하는 연도의 백성과 수령, 그리고 국왕 일행의 숙박과 식사, 이동에 따르는 여러 수행시설의 설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고 필수 인원을 남겨놓고 수행인원이 반차와 역할을 분정하는 일과 도로와 교량의 정비, 일기의 변화에 따르는 급발 상황예의 대처 방안, 대규모 인원이 이동하는 데 따른 농토의 침해 등 한 번의 행행은 그야말로 복잡한 절차와 준비, 희생이 수반되는 국가의 중대사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국왕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였다. 신변의 안전은 물론, 음식과 숙박시설, 예정된 일정의 순조로운 진행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국왕이 한가롭게 어등산에 오르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도 안 되는 엄청난 사건이다. 따라서 이 전설은 전설로서의 의미 외에 사실(事實)이나 사실(史實)로서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 사패지는 국왕이 임의로 하사하지 않는다.

사패(賜牌)지는 다른 말로 공신전(功臣田)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공신에게 지급하는 토지이다. 물론 왕의 자녀들이나 인친들에게도 지급하지만 핵심은 공신에게 지급하는 공신전이다. 따라서 사패지는 그 지급의 절차와 규모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절차에 따라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한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다.

어유소가 받은 사패지는 그가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여 적개공신(敵愾功臣) 1등이 되고 성종의 즉위에 따른 훈급으로 좌리공신(佐理功臣) 4등에 봉해지면서 분급받은 토지이다. 결코 술개를 쏘아 떨어뜨렸다는 이유만으로 공신전을 받지는 않는다.

사안을 정리해 보자.

전설은 그의 뛰어난 활솜씨와 그가 하사받은 토지를 반영하여 나름대로 사실성을 갖추려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다 꼼꼼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이와 전혀 다르다. 확인하거나 전설이 전하는 그런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다. 어유소 장군에 대한 동두천 사람들의 애정과 그를 향한 공지가 빚어 낸 공신(空信)과 소담(笑談)일 뿐이다.

8. 소요산의 현 지명 유래는 맞을까?

동두천시의 명산인 소요산의 지명 유래를 설명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화담 양봉래와 매월당이 자주 소요하였다 하여 소요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 〈한국의 산하〉

2) 소요산(逍遙山)은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해발 고도 536m의 산이다. 산세가 수려해 경기의 소금강이라고도 불린다. 645년, 신라고승 원효가 세운 자재암이 있다. 단풍으로 유명한 산이며, 1981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다. 화담 서경덕, 봉래 양사언과 매월당 김시습이 자주 소요하였다 하여 '소요산'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 뜬금없는 주장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에 마치 정설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심지어는 동두천시에서 설치한 도로 변의 동두천 안내판에도 버젓이 등장한다.

3) 태종 2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11월 17일(신축) 임금이 태상전(太上殿)에 나갔으니, 태상왕께서 중사(中使)를 보내어 불렀기 때문이었다. 태상왕이 잠저(潛邸) 때의 일과 무진년에 회군해서 집[家]을 화(化)하여 나라를 만든 등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날이 저물어 임금이 환궁하였다. 태상왕이 장차 소요산(逍遙山)에 행행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밤을 이용하여 동가(動駕)하였다. 임금이 이날 저녁에 또 태상전에 나가니, 태상왕이 과연 행하지 못하였다.

4) 을사년 4월 보름날에 서울을 출발하여 보제원(普濟院)에서 유숙하였다. 정묘일에 90리를 가서 입암(笠巖)에서 유숙하였다. 무신일에 소요산(逍遙山)을 지나서 큰 여울을 건너 60리를 갔다. 연천(連川) 거인(居仁)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 남효온 「금강산기」

5) 자재암(自在庵)은 『봉선본말사지(奉先本末寺誌)』 「자재암(自在庵)」조에 의하면 654년(신라 무열왕 1) 원효 스님이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그 후의 연혁은 알 수 없으나, 전하는 바에 의하면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974년(광종 25) 각규대사(覺圭大師)가 태조의 명으로 중창하고 소요사라 했다고 한다. 그리고 1153년(의종 7)에는 화재로 소실된 것을 이듬해 각령(覺玲)이 대웅전과 요사만을 복구하여 명맥만 이어왔다고 한다.

－〈전통사찰 관광종합정보〉

위에 제시한 자료들은 소요산의 지명 유래가 화담 서경덕, 봉래 양사언, 매월당 김시습 등이 소요하여 이를 소요산이라 하였다는 유래담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고려시대 광종 어간에 소요사라는 절이 창건되어 고려 의종 무렵에도 존속하고 있었고 조선 시대에 들어와 태조가 주필(駐蹕)한 연고로 이 절을 태조의 원당(願堂) 사찰로 지정하였다면 〈소요(逍遙)〉라는 산명은 이미 고려 초부터 존재하였던 것이고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것처럼 태조가 주필(駐蹕)할 당시에 절 이름이 〈소요사〉였다면 서화담, 양봉래, 김매월당의 시대의 훨씬 이전에 이미 실록이라는 국가 공식 문서에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일부 자료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지명의 유래는 시급히 수정되어야 한다.

참고로 화담 서경덕의 생몰년은 1489(성종 20)~1546년(명종 1), 봉래 양사언의 생몰년은 1517(중종 12)~1584년(선조 17)이다. 매월당 김시습의 생몰년은 1435(세종 17)~1493년(성종 24)으로 소요산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고도 수백 년이나 지난 후의 인물들이니 하필 이런 후대의 인물들의 행적과 산의 지명을 연관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소담(笑談)에 지나지 않는다.

소요(逍遙)라는 단어는 본래 〈장자(莊子)〉에 등장하는 말로 ‘아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거닌다’는 뜻이며, ‘궁극적인 자유’ 또는 ‘자유의 절대적 경지’를 보여주기 위한 개념으로서, 인간의 삶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어떠한 가치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노장 사상의 핵심사유는 선(禪)과 그 맥이 통하여 이를 불교적인 개념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9. 소요사는 어디로 갔을까?

소요산에 위치하였던 사찰 <소요사>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최초의 기록은 「세종실록」에 나타난다. 이를 먼저 살펴보면 그 사찰의 격과 규모가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해당 기록의 일부를 우선 살펴보자.

1) 세종 24년,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4월 5일(경술)

“..... 또 서울과 지방에 사사(寺社)를 세워, 각 종(宗)에 분속(分屬)시켰는데, 그 수효가 엄청나게 많으나, 중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절을 비워두고 거처하는 자가 없으며, 계속하여 수증(修葺)하지 않으므로 점점 무너지고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계(曹溪)·천태(天台)·총남(悤南) 3종을 합쳐서 선종(禪宗)으로, 화엄(華嚴)·자은(慈恩)·중신(中神)·시흥(始興) 4종을 합쳐서 교종(敎宗)으로 하며, 서울과 지방에 중들이 우거할 만한 곳을 가려서 36개소의 절만을 두어, 양종에 분속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전지를 넉넉하게 급여하고 우거하는 중의 인원을 작성하며 무리지어 사는 규칙을 작성하여, 불도(佛道)를 정하게 닦도록 할 것입니다. 이어 승록사(僧錄司)를 혁파하고, 서울에 있는 흥천사(興天寺)를 선종 도회소(禪宗 都會所)로, 흥덕사(興德寺)를 교종 도회소(敎宗 都會所)로 하며, 나이와 행동이 아울러 높은 자를 가려 뽑아 양종의 행수장무(行首掌務)를 삼아서 중들의 일을 살피게 하기를 청합니다. 이제 분속하려는 서울과 지방의 사사(寺社)와 우거하는 중의 정원과 급여할 전지의 결수(結數)를 가지고 날날이 아뢰입니다.

선종에 예속된 것으로는 절이 18개소, 전지(田地)가 4,250결입니다. 서울 흥천사는 원속전(元屬田)은 16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항거승(恒居僧)은 120명입니다. 유후사(留後司) 숭효사(崇孝寺)는 원속전이 100결인데, 이번에 100결을 더 주고, 항거승은 100명이며, 연복사(演福寺)는 원속전이 100결인데, 이번에 100결을 더 주고, 항거승은 100명이며, 개성 관음굴(觀音窟)은 원속전이 45결인데, 이번에 105결과 수륙위전(水陸位田) 100결을 더 주고, 항거승은 70명이며, 경기 양주(楊州) 승가사(僧伽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항거승은 70명입니다. 개경사(開慶寺)는 원속전이 400결이고, 항거승이 200명이며, 회암사(檜巖寺)는 원속전이 500결이고, 항거승이 250명이며, 진관사(津寬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90결과 수륙위전 10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이며, 고양(高陽) 대자암(大慈菴)은 원속전이 152결 96복(卜)인데, 이번에 97결 4복을 더 주고, 거승은 120명입니다. 충청도 공주(公州) 계룡사(鷄龍寺)는 원속전이 1백 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 경상도 진주(晉州) 단속사(斷俗寺)는 원속전이 100결인데, 이번에 10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 명이며, 경주(慶州) 지림사(祇林寺)는 원속전이 100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 전라도 구례(求禮) 화엄사(華嚴寺)는 원속전이 100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이며, 태인(泰仁) 흥룡사(興龍寺)는 원속전이 80결인데, 이번에 7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 강원도 고성(高城) 유점사(楡岾寺)는 원속전이 205결인데, 이번에 95결을 더 주고, 거승은 150명이며, 원주(原州) 각림사(覺林寺)는 원속전이 300결이고, 거승은 150명입니다. 황해도 은율(殷栗) 정곡사(亭谷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 함길도 안변(安邊) 석왕사(釋王寺)는 원속전이 200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20명입니다.

교종(敎宗)에 소속된 것으로는 절이 18개소, 전지가 3,700백 결입니다. 서울 흥덕사는 원속전이 250결이고, 거승은 120명이며, 유후사 광명사(廣明寺)는 원속전이 100결인데, 이번에 10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00명이며, 신암사(神巖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이며, 개성(開城) 감로사(甘露寺)는 원속전이 40결인데, 이번에 16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00명이며, 경기 해풍(海豐) 연경사(衍慶寺)는 원속전이 300결인데, 이번에 100결을 더 주고, 거승은 200명이며, 송림(松林) 영통사(靈通寺)는 원속전이 200결이고, 거승은 100명이며, 양주(楊州) 장의사(藏義寺)는 원속전이 200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20명이며, 소요사(逍遙寺)는 이번에 속전이 150결이고, 거승은 70명입니다. 충청도 보은(報恩) 속리사(俗離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14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00명이며, 충주(忠州) 보련사(寶蓮寺)는 원속전이 80결인데, 이번에 7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 경상도 거제(巨濟) 견암사(見巖寺)는 원속전이 50결인데, 이번에 10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이며, 합천(陜川) 해인사(海印寺)는 원속전이 80결인데, 이번에 12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00명입니다. 전라도 창평(昌平) 서봉사(瑞峯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이며, 전주(全州) 경복사(景福寺)는 원속전이 100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 강원도 회양(淮陽) 표훈사(表訓寺)는 원속전이 21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50명입니다. 황해도 문화현(文化縣) 월정사(月精寺)는 원속전이 100결인데, 이번에 10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00명이며, 해주(海州) 신평사(神光寺)는 원속전이 200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20명입니다. 평안도 평양(平壤) 영명사(永明寺)는 원속전이 100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 “釋氏之道, 禪敎兩宗而已, 厥後正傳傍傳, 各以所業, 分而爲七宗, 傳誤承訛, 源遠而末益分, 實有愧於其師之道. 且中外多建寺社, 分屬各宗, 其數猥多, 縑流四散, 曠廢莫居, 修葺不繼, 漸致頹毀. 乞以曹溪天台摠南三宗, 合爲禪宗; (華嚴)(華嚴)慈恩, 中神, 始興四宗, 合爲敎宗, 擇中外堪寓僧徒之處, 量宜置三十六寺, 分隸兩宗, 優給田地, 酌定居僧之額, 群居作法, 俾之精修其道. 仍革僧錄司, 以京中興天寺爲禪宗都會所, 興德寺爲敎宗都會所; 揀取年行俱高者, 以爲兩宗行首掌務, 令察僧中之事. 今將分屬中外寺社居僧定額, 田地結數, 開坐啓聞. 禪宗屬寺十八, 田四千二百五十結. 京中興天寺元屬田一百六十結, 今加給九十結, 恒居僧一百二十. 留後司崇孝寺元屬田一百結, 今加給一百結, 恒居僧一百. 演福寺元屬田一百結, 今加給一百結, 恒居僧一百. 開城觀音堀元屬田四十五結, 今加給一百五結, 水陸位田一百結, 恒居僧七十. 京畿楊州僧伽寺元屬田六十結, 今加給九十結, 恒居僧七十. 開慶寺元屬田四百結, 居僧二百. 檜巖寺元屬田五百結, 居僧二百五十. 津寬寺元屬田六十結, 今加給九十結, 水陸位田一百結, 居僧七十. 高陽大慈菴元屬田一百五十二結九十六卜, 今加給九十七結四卜, 居僧一百二十. 忠清道公州鷄龍寺元屬田一百結, 今加給五十結,

居僧七十。慶尙道晉州斷俗寺元屬田一百結, 今加給一百結,
 居僧一百。慶州祇林寺元屬田一百結, 今加給五十結, 居僧七十。
 全羅道求禮華嚴寺元屬田一百結, 今加給五十結, 居僧七十。
 秦仁興龍寺元屬田八十結, 今加給七十結, 居僧七十。
 江原道高城楡岾寺元屬田二百五結, 今加給九十五結, 居僧一百五十。
 原州覺林寺元屬田三百結, 居僧一百五十。黃海道殷栗亭谷寺元屬田六十結,
 今加給九十結, 居僧七十。咸吉道安邊釋王寺元屬田二百結, 今加給五十結,
 居僧一百二十。教宗屬寺十八, 田三千七百結。京中興德寺元屬田二百五十結,
 居僧一百二十。留後司廣明寺元屬田一百結, 今加給一百結, 居僧一百。
 神巖寺元屬田六十結, 今加給九十結, 居僧七十。開城甘露寺元屬田四十結,
 今加給一百六十結, 居僧一百。京畿海豐衍慶寺元屬田三百結,
 今加給一百結, 居僧二百。松林靈通寺元屬田二百結, 居僧一百。
 楊州藏義寺元屬田二百結, 今加給五十結, 居僧一百二十。
 逍遙寺今屬田一百五十結, 居僧七十。忠清道報恩俗離寺元屬田六十結,
 今加給一百四十結, 居僧一百。忠州寶蓮寺元屬田八十結,
 今加給七十結, 居僧七十。慶尙道巨濟見巖寺元屬田五十結,
 今加給一百結, 居僧七十。陝川海印寺元屬田八十結,
 今加給一百二十結, 居僧一百。全羅道昌平瑞峯寺元屬田六十結,
 今加給九十結, 居僧七十。全州景福寺元屬田一百結, 今加給五十結,
 居僧七十。江原道淮陽表訓寺元屬田二百一十結, 今加給九十結,
 居僧一百五十。黃海道文化縣月精寺元屬田一百結, 今加給一百結,
 居僧一百。海州神光寺元屬田二百結, 今加給五十結, 居僧一百二十。
 平安道平壤永明寺元屬田一百結, 今加給五十結, 居僧七十。”從之。

이 기사에 따르면 소요사는 조선 개국 이후 치밀하고도 강력하게 진행된 정권의 불교 탄압 속에서 전국의 사찰이 36개소만 남기고 모두 폐출되는 엄청난 법난 속에서 살아남은 사찰이며 동시에 항거승 70명에 허여된 토지만 150결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사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함께 살아남은 다른 35개의 사찰과 비교해 봐도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소요사에 관련된 또 다른 자료 역시 『세종실록』(지리지의 양주 조)에 실려 있다.

2) 소요사(逍遙寺)【소요산(逍遙山) 허리에 있다. 태종(太宗) 3년 임오에 태조(太祖)가 절 남쪽 행전(行殿)에 머물러, 여러 달을 두고 절의 온갖 그림을 새롭게 하였으며, 금상(今上) 6년 갑진에 태조(太祖)의 원당(願堂)으로 하여 교종(敎宗)에 붙이고, 발 150결(結)을 주었다.】

이 두 개의 기록을 검토하면 소요사라는 사찰은 그 사찰 이름처럼 소요산에 있었고 상당량의 토지와 승려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국찰이 현재는 소요산 지역에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그 실체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과연 소요사라는 절은 어떤 경로로 소멸 되어버린 것일까?

이 소요사의 실체와 연혁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나타나는 문헌 자료를 다음과 같이 추적하여 보았다.

(1) 이 시사가 작성되기 이전에 이미 소요사는 소요산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 가설의 근거는 바로 앞에 예시한 「세종실록지리지」의 기사에 있다.

해당 기사는 “...태조(太祖)가 절 남쪽 행전(行殿)에 머물러, 여러 달을 두고 절의 온갖 그림을 새롭게 하였으며...”라고 기록하였다. 절의 온갖 그림이라는 것은 아마도 절의 벽화와 단청을 의미한다고 보여지는데 이를 ‘새롭게’ 하였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미 있는 그림이 퇴락하여 이를 고쳐 다시 그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기사는 단순히 그림만을 고쳐 그린 것이 아니라 절을 중수하여 새롭게 중창하였다는 의미를 그렇게 기록하였다고 추측된다. 그렇다면 소요사는 태조가 이 절 남쪽 행전에 와서 머물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다는 뜻이 된다. 문제는 실록에 〈소요사〉라는 사찰명이 등장하는 예가 세종 6년의 기사와 지리지의 기사뿐이므로 소요사로 나타나는 이 절의 이름이 태조가 머물며 새롭게 중창하기 이전부터 불리던 이름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2) 이 소요사는 태조의 원찰이었다.

전국의 사찰을 36개소만 남기고 모두 폐출하는 상황에서 소요사가 살아 남은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단서가 바로 「세종실록지리지」의 “6년 갑진에 태조(太祖)의 원당(願堂)으로 하여”라는 기사이다. 즉 전국의 사원 대부분이 폐찰 당할 때에 소요사가 살아남은 이유는 소요사가 바로 태조의 원찰(願刹)이었다는 사

실이다. 사실 당시 폐출에서 살아남은 상당수의 사찰이 조선 왕실과의 인연을 근거로 하여 생존이 가능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사찰이 승가사, 진관사, 회암사, 대자암, 석왕사, 장의사, 경복사 등이다.²⁾

(3) 이 절의 규모가 컸다는 사실이다.

전국의 사찰을 선종, 교종 각각 18개소로 제한하고 나머지 사찰을 폐출하는 과정에서 소요사에 주어진 속전(屬田)이 150결이고 항거승(恒居僧)이 70명이라고 정액(定額)을 구체화하였다.

이와 같은 사찰 폐출 조치가 있기 이전에 태종은 회암사 등에서 일어난 사비 간통사건을 기회로 각 절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찰 노비를 모두 관속(官屬)하고 그간 사찰에 배정된 남녀 노예가 담당하던 절의 취사, 세탁, 청소 등의 일상 업무 일체를 승려들에게 맡기는 제한 조치를 강행한 바 있다.³⁾ 따라서 사찰에 상시 거주하는 인원은 그 수요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소요사의 항거승이 70명이라면 이는 절이 상주하는 순수 수도자의 숫자로서 하·동절기에 운수를 끝내고 안거에 들어가면서 사찰에 임시로 거주하게 되는 수행자를 포함하면 소요사는 적어도 승려만 100여 명이 거주하는 규모의 절집을 보유하여야 하고 불사에 동참하기 위하여 절에 오르는 신도들까지 합하면 절의 규모는 더욱 커야 한다. 다른 사찰과 비교하면 해인사나 월정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는데, 현재 소요산 지역에는 이 정도 규모의 사찰이 존재하기 위한 지리적 입지를 갖춘 곳을 찾아내기 어렵다. 소요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참작하여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면 소요사를 이해하기 위한 위 3개 항의 전제를 염두에 두고 자료를 추적해보자.

태조의 소요산 주필(駐蹕)은 태종 1년(1401 신사) 11월 26일에 시작되어 태종 2년(1402 임오) 6월 9일(신유)⁴⁾까지 약 7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왕자의 난으로 정권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아들들이 형들에게 주살당하는 광경을 목도한 데다 자신이 이룬 대업의 상징으로 자긍(自矜)하던 새 수도 한양에서 납치되다시피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 태조는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여 개경에 머무르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1401년 소요산에 들어온 것은 나름대로 상당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2) 대자암이나 진관사의 경우 왕실의 원찰로서 수륙재 등의 행사를 주관, 진행하는 사찰이었고, 석왕사, 회암사 등은 태조의 주필처로서 이에 따른 국왕의 행행, 진연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왕실과 인연을 맺고 있었다.

3) 세종 1년(1419 己亥) 11월 28日(戊辰)

4) 태상왕이 소요산에서 회암사(檜巖寺)로 행차하였다. 태상왕이 회암사를 중수(重修)하고, 또 궁실(宮室)을 지어 머물러 살려고 하니, 임금(그 뜻을) 어기가 어려워서 대부(臺諫) 1백 50명을 보내어 부역(徒役)하게 하였다. 어느 한 사람이 망명(亡命)하였으므로, 태상왕이 체포하여 죽이라 명하였다.

5) 조사의는 안변부사로 발령되어 반란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였다.

6) 이후 조사의의 난이 전개되는 과정은 좋고 '조사의의 난' 연구 '경 기항토사학'을 참고할 것

7) 태종 2년(1402 임오) 1월 8일(신묘)

8) 태종 1년(1401 신사) 12월 17일(신미)

필자가 다른 논문에서 다룬 것처럼 이때 이미 태조는 자신을 실각시킨 아들(구체적으로는 태종)을 몰아내고 정권을 되찾기 위한 역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다. 후일 '조사의의 난'으로 알려진 이 쿠데타는 자신의 심복 조사의가 동북의 군 지휘관으로 부임한 것⁵⁾을 계기로 현지에서 정변을 조직하고 일의 진행 상황을 보아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동북으로 이동하여 군사를 지휘하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졌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동북으로의 이동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으므로 여건을 따져 자신의 주필지로 소요산이 선택된 것으로 추론된다. 이후 동북으로의 이동이 보다 간편한 회암사로 주필지를 옮길 때까지 약 7개월이 태조의 소요산 주필 기간이 된다.

이 기간 중 태조는 소요산 지역에 행궁을 지었고, 또 수시로 소요산에 올라 승려들과 교류하는 한편, 자신을 회유하려 찾아오는 태종과 만나는 등 쿠데타 의도를 숨기고 은밀히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다.⁶⁾

소요사와 관련하여 이 기간 중 나타나는 실록의 기록은 다음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다.

3) 임금이 소요산(逍遙山)으로 가서 태상왕에게 조회하려고 하였으나, 몸이 불편하여 행하지 못하자, 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을 보내서 문안하였다. 태상왕이 말하였다.

"이 절에 명사(名師)가 있으니, 절 아래에다 집을 짓고 거처하고자 한다."⁷⁾

4) 판승녕부사(判承寧府事) 정용수(鄭龍壽)·승녕부윤(承寧府尹) 유창(劉敞) 등이 소요산(逍遙山)의 태상왕(太上王) 행재소(行在所)에 나아갔다. 용수 등이 문안하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오래 머물면서 영선(營繕)하는 폐단을 자세히 진달하였더니, 태상왕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만 장차 나의 후사(後事)를 닦으려는 것이다. 경들은 돌아가라. 내가 치재(致齋)하겠다. 경의 주상(主上)은 설 뒤에 와서 보는 것이 좋다.' 하셨습니다."하였다.

임금이 소요산에 가려 하다가, 이 말을 듣고 정지하고 설 뒤를 기다렸다. 태상왕이 소요산에 이르러 근처의 본궁(本宮) 노예(奴隸)와 좌도(左道)·강원도·충청도의 가까운 고을의 사람들을 징발하였는데, 날은 차고 얼음이 얼어 쉼 불피워가며 땅을 파서 터를 쌓고 대궐을 경영하여 연말(年末)에 이르니, 백성들이 몹시 괴롭게 여기었다.⁸⁾

이 두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태조는 소요산에 이르러 먼저 절의 중수(重修)를 시작하였고 이에 잇대어 행궁(行宮)의 건축에도 착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동일 기사 중 앞의 내용은 영선(營繕)의 폐단을 아뢰는 정용수 등에게 "장차 나의 후사를 닦으려는 것이다."라고 하여 그 영선이 불사임을 알게 하고 있고 이어지는 아래 기사에서는 대궐을 경영하였다고 한 것을 보아 전후를 잇대어 사찰 중수와 행궁 건설이 동시에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세종실록』의 소요사 관련 기사와 함께 검토하면 『태종실록』의 태조의 소요산 주필에 나타나는 절이 결국 소요사라는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문제는 『세종실록』과는 달리 『태종실록』의 기사는 절 이름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소요사라는 이름의 절이 다른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세조 때의 일이다. 단종

폐위 이후 정치에 뜻을 잃은 매월당 김시습이 소요산에 머물며 쓴 시 〈소요사〉에 시제(詩題)로 소요사라는 절 이름이 등장한다.⁹⁾ 더욱이 매월당의 이 시귀에는

예전에 상왕께서 머무시던 곳이언만 (上王會駐輦)
지금은 길 무너지고 사람자취 드무네 (逕廢少人行)

이라 하여 태조가 주필하였던 이 절이 이미 황폐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선 후기의 문인 정전창과 그의 아들 정치상의 시에도 역시 소요사라는 절 이름이 등장한다.¹⁰⁾ 그러나 이 두 명의 시에 등장하는 소요사라는 사명이 고유명사인지 아니면 단순히 〈소요산에 있는 절〉이라는 통칭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를 전후하여 〈소요산사〉라는 통칭이 상당수 등장하기 때문이다.¹¹⁾

한편, 조선시대 이전의 문헌에는 아마도 이 소요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다른 이름이 등장한다. 예컨대 이규보가 소요산을 유람하고 소회를 읊은 시에는 다천약수(茶泉藥水)라는 지명이 등장한다.¹²⁾ 아마도 현재의 자재암 구내에 있는 약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찰되는데 이 추론이 맞다면 이 지명은 소요사의 원형을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시의 다천약수를 현재의 자재암으로 추론하는 근거는 시구에 나오는 다음 내용 때문이다.

산을 휘돌아 위태로운 다리를 건너 (循山渡危橋)
종종걸음으로 좁은 산길을 따라가면 (疊足行線路)
아득한 산봉우리 아래 (上有百刃嶺)
원효성사 찾아와 지은 암자 있다네 (曉聖來結宇)

이 시에 나오는 ‘원효성사 찾아와 지은 암자’라는 표현이 현재의 자재암 창건 연기와 부합되는 까닭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구는 이 다천약수가 바로 현재 자재암의 원효굴을 묘사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¹³⁾

그렇다면 소요사라는 이름의 사찰이 고려 중엽 무렵에는 이미 현재의 자재암 자리에 존재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이규보의 시와 더불어 주목되는 것이 태고선사가 노래한 소요산 시이다.¹⁴⁾

이 시는 제목이 〈백운암가〉로 되어 있는데 그 서두에

9) 〈소요사(逍遙寺)〉

10) 정전창 〈소요사의 스님이 불러 주는 운을 따라 지은 시(逍遙寺應僧人呼韻)〉

정치상 〈소요사벽에 쓰인 시를 차운하다(逍遙寺壁上韻)〉

11) 정현원 〈소요산사에서 놀다(遊逍遙山寺)〉

최일관 〈소요산사에서 놀다(遊逍遙山寺)〉

정전창 〈봄날 소요산사에서 놀다(春日遊逍遙山寺)〉

12) 이규보 〈다천약수(茶泉藥水)〉

13) 신령스러운 그 자취는 이제 간 곳 없어도

남기신 모습은 흰 앵무에 머물렀네 (遺形留素鸚鵡)

다천샘에는 차디찬 옥수가 고이 는데 (茶泉貯寒玉)

한 모금 마시니 모든 것을 씻어 내리네 (唇漱味如流)

14) 태고 보우 〈백운암가〉

15) 이후 백과사전 <소요산>

16) 조선 태조 <백운봉에 올라>

소요산 위에 든 저 흰 구름이(逍遙山上多白雲)

달과 더불어 한가히 흐르네(長伴逍遙山上月)

이라 하여 이 시 창작의 장소적 배경이 소요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시의 본문 가운데 제목으로 나오는 백운암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적취(摘取)할 수 있는 단서는 보이지 않지만 시의 끝부분에 나타나는

청하노니 그대여 이리와 함께 머무세(請君來此保餘年)

배고프면 나물 먹고 목마르면 샘물 마시고(飢有蔬分渴有泉)

라는 구절에 앞의 이규보 시가 노래한 다천약수를 상응할 수 있다고 보면, 이규보의 시에 나타나지 않는 절 이름을 <백운암>이라고 상정해볼 수도 있겠다. 백운암이라는 절 이름과 관련하여 현재의 자재암이 위치하는 소요산 일대를 모두 일러 통칭 백운대라고 부르는 것을 감안하면 본래 이 소요산에 백운암이라는 사찰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당히 근거 있게 추찰(推察)할 수 있을 것이다.

지리지 등에 나타나는 관련 지명은 다음과 같다.

5) 입구에 있는 청량폭포 부근을 하백운대(下白雲臺)라 하고 그 위쪽에 원효폭포가 있는 곳을 중백운대라고 한다. 중백운대에는 신라시대 원효가 세운 자재암(自在庵)이 있고, 그 위쪽으로 나한대·의상대 등을 거쳐 돌층계를 오르면 원효대에 이르는데, 이곳을 상백운대라고 한다.¹⁵⁾

동시에 이 소요사에 주필하며 사찰의 면모를 일신하였을 뿐 아니라, 절 아래에 행궁을 짓고 머물렀던 조선 태조 역시 <백운봉>이라는 지명의 시를 써서 <백운암>이라는 사찰 이름의 존재를 방증하고 있다.¹⁶⁾ 시제는 <백운봉>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시구 안에 시제 백운과 관련된 사찰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넝쿨을 휘어잡으며 푸른 봉우리에 오르니(引手攀蘿上碧峰)

흰 구름 높은 속에 암자 하나 놓였네(一庵高臥白雲中)

한편, 보우의 법제자인 나옹 해근의 시에는 같은 곳의 사찰 이름을 〈소요굴〉이라 달리 불렀다.¹⁷⁾ 아마도 소요산에 위치한 사찰이므로 산 이름과 연계하여 〈소요〉라 하였고 특히, 현 자재암의 원효굴을 특징하여 〈소요굴〉이라 하였던 것 같다. 그런데 이 시의 첫머리에는 주목할 만한 묘사 하나가 등장한다.

스스로 소요산에 머물러 얼마를 지내었던고 (自在逍遙經幾劫)

깊은 산 석굴은 공부하기 좋았네 (深山石窟愛空觀)

라는 구절인데 여기에 나오는 '자재(自在)'라는 표현이 아마도 현재의 자재암과 인연이 있을 듯하다는 생각이 든다.¹⁸⁾

이상 살펴본 소요사 혹은 백운암은 모두 그 사찰의 특징으로써 〈맑은 샘〉과 〈석굴〉을 들고 이를 시구에 표현하였다. 이 두 장소는 소요사의 연혁과 정체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왜냐하면 현재 소요산에 위치하는 고찰은 오로지 자재암 하나뿐인데 정작 자재암의 연혁에는 〈백운암〉도 〈소요사〉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재암의 연혁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6) 654년(무열왕 1) 원효(元曉)가 창건하여 자재암이라 하였고, 974년(광종 25) 각규(覺圭)가 중건하였다. 1153년(의종 7) 불에 탄 것을 각령이 복구하고, 1872년(고종 9) 원공(元空)·제암(濟菴)이 중건한 뒤 영원사(靈源寺)로 고쳤으나, 화재로 소실되자 1909년 성파(性坡)와 제암이 중창하고 다시 자재암이라 하였다.¹⁹⁾

논점을 다시 명확히 하면

소요사라는 절이 세종 연간의 전국적인 사찰 폐출에도 살아남았는데 그 절은 속전이 150결, 향거승이 70이라는 큰 규모의 절이었고 조선 태조의 원찰이었다. 그런데 그 사찰에 관한 기록이 이후 나타나지 않는다.

소요사라는 절이 기록에 나타나기 이전 고려조의 문헌에는 소요산에 위치한 〈백운암〉, 〈소요굴〉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의 자재암과 여건이 상당히 부합한다.

그런데 자재암의 연혁에는 백운암, 소요사, 소요굴 등의 사찰명이 나타나지 않고 처음부터 자재암이라고 부른 것으로 나타난다.

17) 나옹 해근 〈소요굴 천생석나한〉

18) 이담문화회에서 펴낸 〈이담에 핀 천년의 향기〉라는 책에서는 이 첫 구절을 "자재암에 소요하며 지내기 몇 겁이었나"로 옮겼는데 이는 자재를 현재의 자재암에 지나치게 결부한 오역인 듯하다.

19) 자재암 홈페이지 〈자재암의 연혁〉

20) 이에 관련하여 동두천의 대표적 향토사학자 이명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자재암 원효 창건 연기를 사실이 아닌 전설에 불과하다고 논정한 바 있다.
경기향토사학 제7집 <소요산 원효설화의 재검토>

결국 핵심은 소요사가 자재암인가를 다른 문헌에서 찾아 입증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자는 조선 후기에 소요산 지역을 탐방한 기록을 남긴 미수 허목의 해당 기행문을 검토하여 보았다. 해당 기록에서 소요사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7) “...가장 높은 곳에 백운대가 있고 조금 아래 중백운이 있고 또 조금 아래 동북으로 하백운이 중대 위에 있다. 궁터 위엔 폭포가 있는데 높이는 8-9인(인은 8척)이 되고 그 밑으로 계곡을 따라 중대로 올라가면 큰 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빈터만 남았다. 폭포 옆 높이 10여 인이나 되는 절벽에 비스듬히 걸쳐있는 나무 사다리를 올라가면 원효대이고 원효대를 지나면 소요사가 있다.
소요사 벽기에 「신라의 중 원효가 이 절에 머물러 있었고, 그 뒤 300년 갑술년에 고려의 중 각규(覺圭)가 태상왕의 명을 받들어 정사를 지었고, 그 뒤 200년 계유년에 이 정사가 불에 탔고 그 이듬해 갑술년에 관동의 중 각령(覺玲)이 불전과 법당을 중건하였다.」 하였는데, 목암(牧庵)의 기(記)에는 「원효는 신라의 태종과 문종 때의 중이니 그 연대를 따져보면 신라의 태종 때부터 우리 강헌대왕 갑술년까지는 767년이 되고 또 만력 갑술년까지는 180년이 되는데 벽기에 300년이라 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였다. 동쪽 모퉁이에서 폭포 구경을 하는데, 그 위에 5-6장이나 되는 큰 돌이 절벽 위에 서있고 암벽 사이의 돌구멍에서는 샘물이 줄줄 흐르는데 이것이 원효정이다.(이하 생략)”

이 문장은 조선 후기까지 남아있던 소요사를 직접 보고 묘사한 기행문이라는 점에서 그 어떤 사료보다 중요한 증언적 가치를 지닌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필자 허목이 답사한 곳에 분명 소요사라는 절이 존재하고 있었다는데 이를 묘사한 내용이 현재의 자재암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를 적취하면

- (1) 절의 중창 연혁이 자재암과 동일하다.
- (2) 절의 지리적 위치가 동일하다.
- (3) 절의 내부를 묘사한 내용이 동일하다.

로 정리할 수 있겠다. 특히 (3)항의 절 주변 풍경 묘사는 현재 자재암의 경내에서 사방을 바라보는 광경을 그대로 묘사했다고 하여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 이에 필자는 본고에서 전개해온 논지에 따라 소요사는 현재의 자재암 자리에 있었고, 자재암의 옛 이름은 조선 이전에는 백운암, 조선 태조 중창 이후 조선 후기까지는 소요사, 그리고 영원사가 되었다가 근년에 이르러 자재암으로 고정되었다고 추단하게 되었다. 단 자재암 연혁에 나오는 대로 원효가 창건할 당시에 자재암으로 불렸다는 내용은 이후 다시 엄중한 고증을 요한다.²⁰⁾

제10절 동두천의 축제

1. 동두천록페스티벌

동두천록페스티벌은 1999년에 시작된 대한민국의 대표적 록(Rock) 음악 축제로 매년 8~9월 중에 열린다. 국내외 유수의 록 그룹이 수일에 걸쳐 공연 하며, 각종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신인들의 경연장으로서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동두천록페', '동록페' 등의 약칭으로도 불린다.

1) 연혁

- 제1회 - 1999년 9월 11일 ~ 9월 12일 동두천시종합운동장에서 첫 공연
- 제2회 - 2000년 7월 28일 ~ 7월 30일 '소요 록 페스티벌 2000'이라는 이름
으로 동두천시종합운동장에서 개최
- 제3회 - 2001년 7월 26일 ~ 7월 29일 '소요 록 페스티벌 2001'이라는 이름
으로 동두천시종합운동장에서 개최
- 제4회 - 2002년 8월 23일 ~ 8월 25일 '소요 록 페스티벌 2002'이라는 이름
으로 소요산에서 개최
- 제5회 - 2003년 8월 14일 ~ 8월 16일 '한·일 월드 록 페스티벌'이라는 이름
으로 소요산에서 개최
- 제6회 - 2004년 8월 13일 ~ 8월 15일 동두천시종합운동장에서 개최
- 제7회 - 2005년 8월 20일 ~ 8월 21일 동두천시종합운동장에서 개최
- 제8회 - 2005년 8월 19일 ~ 8월 20일 동두천시종합운동장에서 개최
- 제9회 - 2006년 8월 19일 ~ 8월 20일 동두천시종합운동장 보조 경기장에서 개최
- 제10회 - 2007년 8월 17일 ~ 8월 19일 소요산 특설무대에서 개최

2) 의의

동두천은 대한민국 록의 발상지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동두천시의 교사, 예술인, 출판인, 문화원 관계자, 교수 등이 관의 간섭을 일절 봉쇄하고 자체적으로 록 페스티벌을 구상했다. 동두천시는 종전까지 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과도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심하였다. 동두천 시민들은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새로운 동두천의 미래를 위해 록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구상을 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동두천은 대한민국 록 음악의 발상지이자 신중현을 비롯한 초창기 록 밴드들의 주 활동지이기도 했다. 이러한 록 음악의 역사는 일견 부정적 문화의 한 단면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동두천 시민들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동두천을 다시금 대한민국 록의 중심지로 부상시킨 것이다. 또한 신인 발굴을 위한 경연을 중시하여 신인 등용문으로도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동두천 시민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일회성 공연으로 끝나기 쉬운 음악 축제가 2010년 현재 12회째 공연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록 마니아들은 '동록페' 라인업의 해외와 규모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적 여건 때문에 명성에 걸맞은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3) 진행

동두천록페스티벌은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며 2010년의 추진위원장은 박수호 씨가 맡았다. 이 페스티벌은 공연 부분과 경연 부분의 두 파트로 나누어지고 페스티벌 공연은 경연부분 예비심사를 거쳐 결선에 진출한 아마추어 팀과 초청된 전문 록 공연팀이 시간대별로 출연하게 된다. 초창기에는 동두천종합운동장에서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페스티벌의 규모가 커지면서 소요산 특설 무대로 옮겨 진행하고 있다.

역대 '동록페' 출연진은 블랙홀, 레이저본, 크라이넛, 로렐라이 등 주로 한국 아티스트들이었으나 이후 메가데스, 앤스



랙스 등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그룹들도 참여하고 있다.

소요산관광지 내 특설무대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4일간 진행되는 동두천록페스티벌은 이제 동두천을 대표하는 축제로 상징되어 넓은 부지에 초대형 무대와 최상의 장비를 갖추고 환상적인 공연을 연출하며, 전국에서 록 매니아는 물론 일반 관람객들이 몰려오고 있다. 공연, 경연과 함께 레커를 이용한 미술작업인 '그래피티' 체험코너, 동두천록페스티벌역사관, 록 뮤지션 음반 할인코너, 디지털 카메라 사진 즉석 인화코너, 머그컵·타올·티셔츠·모자 등 기념품 판매코너, 인터넷 서핑 코너 등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로 관람객 지향의 축제로 진화했다.

한편, 행사 주최 측은 냉방 화장실, 쓰레기 분리수거함, 상시 운영되는 행사장 내 청소시스템, 매점, 휴식 공간, 외국인 안내부스, 행사장 뒤편 언덕에 위치한 캠핑장 등 쾌적하고 질서 있는 행사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관람객에게 제공했다.

관람은 유료이며, 인터파크 온라인 발매와 기아자동차, 판도라TV 등 대형 업체의 티켓 이벤트 행사, 현장 판매 등으로 체계적인 티켓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신분이 확인된 동두천 시민들은 무료입장이 가능하게 하여 시민을 위한 축제로서의 성격도 강화하고 있어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인순이밴드, 김종서, 문희준, 마야, 넥스트, 크라잉넛 등 국내 유명 뮤지션과 세계 4대 슬래시 로커인 미국의 '앤스랙스', 일본 최고의 록 밴드 '아웃레이지', '서바이브', '니코틴', '404 Not found' 등 외국 밴드를 포함한 초청공연 팀과 경연에 참가한 아마추어 팀 등 60여 개 팀이 다양한 색깔과 파워풀한 무대를 제공하여 관람객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전국 아마추어 록밴드 경연대회를 록페스티벌과 함께 진행해 온 행사 조직위는 고등학교 및 대학으로 참여 폭을 확대하여 ‘일반부’를 처음 도입하는 등 명실상부한 전국 아마추어 록밴드의 등용문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행사에 앞서 진행되는 예선에는 서울 두산타워 야외공연장에서 100여 개 팀이 1차 지역예선을 치르고 엄선된 15개 팀이 본선 경연을 행사장에서 치렀다.

경연대회 우승팀에게는 최고의 상인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여하여 대회의 위상을 크게 높였으며, 이는 경연대회의 인지도와 인기를 폭발적으로 높여 이후 대규모의 경연 참가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소요단풍문화제

가을의 소요산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단풍의 절경을 담고 있으며 ‘소요단풍 문화제’는 단풍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86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10월 말경이면 동두천시 전역과 소요산에서 펼쳐지는 동두천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이다.

‘소요단풍문화제’는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역량이 결집된 공연예술을 통해 동두천시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하였고 특히 단풍의 절정기에 소요산에서 펼쳐지는 소요단풍축제 때는 다양한 참여 이벤트와 친숙한 연예인이 출연하는 공개방송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하나 되는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며 2010년에 25회째가 이어졌다.

아울러 10월 문화의 달에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일 년 동안 준비한

2010년 10월15일부터, 아름다운 단풍이 물든 소요산의 여러 장소에서 과거와 오늘을 잇고 시민대화를 위한 제25회 **소요단풍문화제**가 펼쳐집니다.

전통문화예술의 진수를 느껴봅니다.
시립이담문화관, 동두천청소년문화의집, 동산합창단, 국악합창단, 송서합창
각종인형 전통시계문화제를 선보입니다.
동원서도회관, 소요산한국서예대전
유서 깊은 방주원씨 종향문화제의 고문서를 공개합니다.
방주원씨 종향문화제가 고문서 상설전시관을 개관식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합니다.
시립동두천 전시관
주요길은 선물을 즐겨드립니다.
동두천청소년문화의집, 정기공연
전통놀이체험(주호, 제기차기, 윷놀이 등), 떡볶이, 가을 싸우기, 방재 전통가
제 25회 **소요단풍문화제** 전체행사일정안내

일차	일시	내 용	장 소
초대	10월15일 10:00~12:00	제 25회 소요산 단풍제 개막식 (10:00~11:00)	150 시민회관 200 시민회관
1차	10월15일 13:00~15:00	제 25회 소요산 단풍제 개막식 (13:00~14:00)	동두천중앙역(주회)
2차	10월15일 15:00~17:00	제 25회 소요산 단풍제 개막식 (15:00~16:00)	전통놀이체험
3차	10월16일 10:00~12:00	제 25회 소요산 단풍제 개막식 (10:00~11:00)	소요산 단풍제전
4차	10월16일 13:00~15:00	제 25회 소요산 단풍제 개막식 (13:00~14:00)	+
5차	10월16일 15:00~17:00	제 25회 소요산 단풍제 개막식 (15:00~16:00)	+
6차	10월17일 10:00~12:00	제 25회 소요산 단풍제 개막식 (10:00~11:00)	소요산 단풍제전
7차	10월17일 13:00~15:00	제 25회 소요산 단풍제 개막식 (13:00~14:00)	+
8차	10월17일 15:00~17:00	제 25회 소요산 단풍제 개막식 (15:00~16:00)	+
9차	10월18일 10:00~12:00	제 25회 소요산 단풍제 개막식 (10:00~11:00)	소요산 단풍제전
10차	10월18일 13:00~15:00	제 25회 소요산 단풍제 개막식 (13:00~14:00)	+
11차	10월18일 15:00~17:00	제 25회 소요산 단풍제 개막식 (15:00~16:00)	+
12차	10월19일 10:00~12:00	제 25회 소요산 단풍제 개막식 (10:00~11:00)	소요산 단풍제전
13차	10월19일 13:00~15:00	제 25회 소요산 단풍제 개막식 (13:00~14:00)	+
14차	10월19일 15:00~17:00	제 25회 소요산 단풍제 개막식 (15:00~16:00)	+
15차	10월20일 10:00~12:00	제 25회 소요산 단풍제 개막식 (10:00~11:00)	소요산 단풍제전
16차	10월20일 13:00~15:00	제 25회 소요산 단풍제 개막식 (13:00~14:00)	+
17차	10월20일 15:00~17:00	제 25회 소요산 단풍제 개막식 (15:00~16:00)	+
18차	10월21일 10:00~12:00	제 25회 소요산 단풍제 개막식 (10:00~11:00)	소요산 단풍제전
19차	10월21일 13:00~15:00	제 25회 소요산 단풍제 개막식 (13:00~14:00)	+
20차	10월21일 15:00~17:00	제 25회 소요산 단풍제 개막식 (15:00~16:00)	+

* 행사일정 및 프로그램은 이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종 전시회, 전통공연, 무대예술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동두천시 전역에서 펼쳐졌다.

1) 2010년 25회 소요단풍문화제의 내용

(1) 10월 23일

송서·율창 보존회 정기공연, 청소년풍물축제, 이담풍물놀이보존회 정기공연이 진행됐다.

(2) 10월 24일

문화제의 핵심인 '소요단풍축제'의 날로, 동두천 신시가지 '차 없는 거리'에서 어유소 장군 행렬을 재연했다. 행렬은 어유소 장군을 기리면서 역사 속에서의 동두천시를 찾는 의미 있는 행사로 2009년 100여 명이었던 행렬 규모가 2010년에는 군인 100여 명, 군악대 30명 등 모두 215명으로 확대됐다.

시가지에서 어유소 장군 행렬이 재연되는 동안 소요산에서는 국악협회 공연과 소요단풍가요제가 열렸다. 이어 7080그룹사운드의 공연과 바다, 김종환, 주병선, 우연이, LPG 등 연예인이 출연하는 라디오 방송도 진행돼 푸짐한 볼거리, 들을거리를 제공하고 단풍차 시음, 특산물 판매 등 홍보부스와 체험부스 등이

운영되었다.

‘소요단풍문화제’는 3일 동안의 축제 기간에만 연인원 2만 5,000명이 참여한 동두천시 최대의 문화축제다. 경기의 소금강인 소요산은 아름다운 자연 풍광뿐 아니라 원효대사와 요석공주, 설총에 대한 이야기와 조선의 태조가 머물렀던 행궁 터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성 있는 관광지로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더욱이 2006년 전철이 개통되면서 수도권에서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3) 10월 25일

동두천 무형향토문화재 제1호 동두내옛소리보존회 정기공연, 봉산탈춤보존회 정기공연, 시립이담풍물단 정기공연이 있었다.

3. ‘한미우호의밤’축제



동두천에 주둔하는 미군과 동두천 시민들의 우정과 화합을 추진하는 축제로서 2010년에 제6회째를 맞이한 ‘한미 우호의 밤 축제’는 ‘Do Dream Festival’이라는 또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다. 주한 미군과 지역사회의 우호 증진을 위해 마련하는 이 축제는 외국인관광특구 내 한미문화의 광장에서 열리며, 외국인관광특구상 가연합회가 주관한다.

2010년의 한미우호의 밤 축제는 동두천 내 비보이 댄스팀 등 4개 동아리 공연과 국악사물놀이, 거리마술, 마임, 저글링 등 거리공연을 비롯해 한·미 화합의 비빔밥 퍼포먼스, 임희숙·이정식의 재즈밴드 공연 등이 무대에 올랐다.

또한 특구 내 전철 교각 밑에서는 미 2사단 가족과 시민, 관광특구 상가인들이 참여하는 벼룩시장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주한미군과의 우호 증진 및 유대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축제를 기획했다.”라고 말했다.

4. 자원봉사축제



자원봉사활동 사례를 널리 알려 자원봉사 나눔 문화 확산과 공동체 사회로서의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 축제는 2010년에 제6 회째를 맞아 2010년 8월 9일 동두천시 신시가지

‘차 없는 거리’에서 자원 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동두천 시민 등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6회를 맞은 자원봉사축제는 “사랑의 비로 마음을 적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역의 130여 개의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하여 독특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2만여 명에 가까운 동두천 시민이 참여해 동두천의 가장 큰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축제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큰 행사가 동두천에서 열려 자녀들과 즐길 수 있고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자원봉사센터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나눔, 봉사, 기부라는 것이 부담이 아닌 행복이라 생각하며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동두천시가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5. 동두천만화영화축제

동두천시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대상 축제로 만화영화를 통한 가족사랑, 향토사랑이 주제이다.

2002년에 시작된 이 축제는 동두천의 어린이들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우리 아이들에게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애니메이션 축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동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함께 애니메이션 영화를 감상하면서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동두천시민연대, 동두천양주전교조지회, 동두천여성상담센터, 대한성공회 동두천나눔의집 등이 공동 주최하고, 동두천시민연대가 주관하며 동두천시, 한국애니메이션제작협회, 에펙스디지털 등이 후원했다.

토요일 오후에 동두천 신시가지 야외 음악당에서 개최된 이 축제는 2007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어린이들과 가족이 동참하는 따뜻하고 정감 있는 소규모의 축제이다.

1) 주변 행사

- (1) 동두천여성상담센터 - 어린이 각종 심리 아동상담소, 매점 운영
- (2) 어린이 백일장(글사임당 동두천지사 주관 및 심사)
- (3) 대한성공회 동두천나눔의집 - 노곤인형만들기(오후 3~7시 정시에 15명씩 5팀 선정), 평화팔찌 만들기(오후 3시 20분~6시 20분, 매시 30분에 10명씩 4팀), 페이스 페인팅, 수박화채 무료 제공
- (4) 전교조동두천양주지회 - 어린이 목공체험

2) 사전 행사(오후 6시30분 ~ 7시 40분)

- (1) 개회식
- (2) 봉산탈춤 한마당(김유경 · 류봉산탈춤보존회)
- (3) 수화 공연
- (4) 어린이 노래무용 공연
- (5) 어린이 재즈댄스(유현아 지도) 공연



3) 본 행사(7시 50분 ~ 9시 20분)

(1)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 : 〈파이스토리〉

6. 동두천 생연음식문화거리축제

동두천에 생연음식문화거리가 조성되면서 이를 홍보하고 시민과 함께 특성화된 거리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9년부터 시작된 거리 축제이다.

축제의 명칭에 나타나는 것처럼 음식문화와 지정 거리의 동시 홍보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 진행됐으며 인기 가수의 공연, 시민노래자랑, 기타 행사로 구성되고 축제가 진행된 동안 생연음식문화거리에 소재하는 여러 음식점과 사회단체들이 부스를 만들어 특색 있는 음식들과 특산물들을 제공하기도 했다.

2010년 10월 2일(토)에 진행된 제2회 생연음식문화거리축제는 전년도에 이어 동두천시 인근 군부대를 대상으로 군장병 집단 태권무 경연대회를 가져 국군의 날을 기리고, 군인과 주민이 서로 상생하는 한마당 자리를 마련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축제에는 2,500여 명의 시민과 군 장병의 부모 등이 축제를 관람하며 식사와 체험을 즐기는 등 동두천 지역의 음식 우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경기북부 대표 음식문화 축제임을 상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태권무 경연대회와 함께 시작된 행사는 28사단 군악대 퍼레이드, 이담풍물패 공연, 6군단 소속 특공무술시범이 펼쳐졌으며, 특히 한북대학교의 응원팀 공연과 식품영양학과 의 영양상담 그리고 동두천중앙성모병원의 무료 진료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제공됐다.

7. 동두천청소년별자리과학축전

‘동두천청소년별자리과학축전’은 2000년에 사회단체 어수회에서 순수 민간 축제로 시작되었다. 과학 활동을 테마로 현장 과학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축제의 목적이다. 동두천청소년 별자리과학축전은 새벽에 시작된다. 별뿔별이라도 볼 수 있을까? 아이들의 진지함이 가을축제장에 가득하다. 고무동력기를 이용한 비행 경진대회와 이동 천문대인 아스트로카를 통하여 낮에 태양의 흑점을 관측할 수 있고, 과학 부스 체험, 과학교재 조립 및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밤에는 천체 강연 및 별자리 관측,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다.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자 모두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경기과학축전 및 제10회 동두천 청소년별자리과학축전 행사가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7일 폐막 됐다. 이날 축전 개막식에 참석한 김문수 경기 도지사를 비롯한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개막식 연설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우수 과학문화를 확산하고, 경기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별자리축전 행사로서 청소년들에게 우주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축전은 경기도와 동두천시가 공동 주최하고, 사회단체 어수회가 주관하는 별자리과학 축제로 2010년 열 번째를 맞이한 가운데 김문수 경기도 지사와 오세창 동두천시장, 김경호 경기도의 회부 의장을 비롯한 이원영 과학 기술원장, 도의원, 시의원 및 한일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행사를 가졌으며, 17일 폐막식까지 3만여 명의 인원이 찾은 것으로 집계 됐다.

특히 이번 2010경기과학축전 및 제10회 별자리과학축전 행사에는 우주인 모형을 비롯한 우주 복과 소유즈로켓, 우주왕복선 등을 전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색다른 과학의 기초를 보여주어 즐거움을



선사하였으며, 또한 초·중·고생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과학 프로그램과 전문 강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된 별자리 강연은 우주의 신비와 놀라운 천체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청소년들에게 우주여행을 떠날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됐으며, 축전 첫날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 놀이는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쏘아 올린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됐다. 또한 만화적 상상력을 현실로 실현하는 골드버그대회에는 초·중학교 14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경연을 가졌으며, 초등부에서는 생연초등학교 카우스팀이, 중등부에서는 마노이스팀이 각각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10회 축전에는 외부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한북대 셔틀버스가 지행역부터 축전 행사장까지 수시 운행됐으며, 미 2사단 장병들로 구성된 태권도 시범을 비롯한 아프리카문화권 공연 등은 동두천을 찾은 방문객에게 큰 볼거리를 제공했다.

8. 보마축제

신흥고등학교, 신흥중학교, 보영여자고등학교, 보영여자중학교의 연합 축제이다. 본래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네 학교는 2001년부터 매년 가을에 연합 축제를 열고 있다. '보마'란 기존의 따로 열리던 '보영제'와 '마차제'의 머리말을 딴 합성어이다.

4개 학교 중 신흥고등학교와 보영여자고등학교에서 해를 바꾸어 각각 주관 하는 이 축제는 특히 남학교와 여학교가 어울려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한편, 본래 하나였던 학교가 각각 뿌리를 확인하며 동질감을 추구한다는 점과 두 학교가 동두천의 오래된 사립 명문이라는 점에서 일찍이 동두천 사회와 동문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본래 신흥중·고등학교에서 진행하던 마차축제와 보영여자중·고등학교에서 진행하던 보영제를 통합하여 각각의 축제



에서 한자씩 파서 보미축제로 명명된 이 축제는 각개 학교의 동아리들이 평소에 연마한 기예와 작품을 전시하고 경연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체육, 문예 행사가 함께 어우러진다.

제11절 동두천에서 사라져버린 것들

1. 어수정

태조 이성계가 함흥행차 때 이곳 우물에서 물을 마셔 갈증을 덜었다는 유서 깊은 동두천시 생연동 61번지의 어수정(御水亭)이 한 독지가에 의해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었다. 이 어수정은 시민인 계운환(桂雲煥) 씨(당시 58세)가 지난 4월 10일 사재 300만 원을 투입, 샘터 위에 높이 6m나 되는 네 기둥의 조선조 양식의 팔각정을 세워 착공 3개월 만에 준공했다. 어수정은 지금으로부터 576년 전인 서기 1400년(정종) 이성계가 왕자들의 권력다툼에서 빚어진 괴로움을 씻기 위해 함흥 나들이를 하다가 더위를 피해 이곳 샘물을 마셨다는 유래로 어수정으로 불리었다가, 6·25전쟁 때 샘터가 폐쇄되었다. 둘레 3m, 깊이 약 1m의 샘은 심한 가뭄에도 좀처럼 물이 마르지 않고, 세차게 솟아 예부터 주민들이 약수로 마셔왔다. 문화재보호협회 양주군지부는 이 일대 대지 1백평을 소유주 이종길 씨로부터 기증받아 주변에 철책을 두르고 관상수를 심어 소공원으로 가꾸기로 했다. 지금은 어수노인정이 자리하고 있다.

2. 돌다리

아낙네들과 주민들이 장을 보고 용무를 보기 위해 물이 없을 때는 동광교 돌다리로 건넜고 물이 많이 있을 때는 배를 이용하였다.

3. 공설시장

공설시장은 1962년 10월 20일 설립되었으며, 생연동 820번지에 있다. 대지는

3,860평이고 건평은 1,427평에 점포 수는 106개이다. 업체별 점포 수를 살펴보면 피복 10개소, 육류 5개소, 고무 3개소, 식료 6개소, 기름 7개소, 철물 2개소, 씨앗 2개소, 음료수 6개소, 음식점 8개소, 잡화 59개소였다. 그 후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소비구매력의 향상에 따른 백화점, 도매상가의 경쟁에 밀려 시장기능은 점차 약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시장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두천 시청에 의해 용도폐기 조치되어 1990년 10월 20일자로 폐쇄되었으며, 그 자리에 현재 세아프라자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다. 세아프라자는 1993년 3월 19일 생연동 809번지의 17,461㎡ 면적에 364개의 점포가 개설되어 있다.(소유주는 윤상수)

4. 바다상가

1983년 4월 4일 생연동 592-2번지에 개설된 바다상가는 2,279㎡의 면적에 30개 점포가 입주하여 의류, 액세서리, 완구, 가방, 수입품, 화장품, 가구 등을 주로 취급하였다. 1983년부터 2000년대까지 흥성길이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건물이 완전 철거되었다.

5. 퇴비 증산

퇴비 증산은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전국 농촌에서 식량증산 차원에서 힘들다고 하여, 포기할 수 없는 근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필코 이루어야 하는 '농가 잘살기 운동 제1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퇴비증산 운동은 사라지고 대신 비료만 쓰고 있는 실정이다.

6. 소주밀식

소주밀식이란 1970년대 초 식량증산에 몸부림치던 때에 식량증산 시책 중의 일환으로 쓰인 행정용어이다. 글자 그대로 풀자면 적은 주수로 충충히 심는다는 말이다. 주 3~4주에 벼 모수를 적게 해서 조밀하게 심는 것이다. 결국 3~4년 후에는 전 농민들이 이 방법을 선호하게 되었다.

7. 성병관리소

1965년 5월 8일 양주군성병관리소 설치 조례에 의하여 생연동 678번지에 양주군성병진료소가 개설되었으며, 1973년 1월 15일 동두천 상봉암동 130번지에 청사 신축과 동시 이전하였고, 성병진료소는 1974년 8월 12일 동두천시에 산재하였던 민영진료소 4개소를 통합하여 개소하였다.

진료 실적을 보면

1977년 성병검진 146,055명

1978년 성병검진 112,621명

1979년 성병검진 120,040명

1980년 성병검진 57,270명이다.

현재 성병관리소 건물은 학교법인 신흥학원의 소유로 되어 있다.

8. 우리 고장의 이담원지

동두천동에 있는 동보초등학교의 북동쪽으로 7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과거 영천, 철원 등지로 통하는 대로와 포천에서 파주로 이어지는 길에 고려시대 이래로 나 있던 4거리로 오랜 옛날부터 군사적 요충지이며, 약 1km 떨어진 곳에 북창이 있었다.

이곳에 설치되었던 이담원(伊淡院)은 자좌우향으로 자리를 잡았고, 규모는 초석과 기와조각이 산재한 것으로 미루어 백여 칸이나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150여 년 전에 원은 폐지되고 원이 있던 곳이라 하여 원터[院址(원지)]란 마을 이름이 되었다. 지금은 동두천역과 철도 그리고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원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관리들이 공무로 지방 등지에 출장 나와 유숙(留宿)하는 숙소 같은 곳을 뜻한다. 1445년(세종 27)에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 원주(院主)를 삼아 이를 관리하게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원주에게 대로이면 1결 35부(1결은 100부), 중로이면 90부, 소로이면 45부를 주어 원을 유지하게 하였다. 원은 한 때 크게 번성하였으나, 국한된 이용자로 인하여 후기에는 점차 쇠퇴해 갔다.

9. 백백교(百百敎) 천원금광 터

상봉암동 소요초등학교에서 마을길을 따라 마차산 방향으로 진행하면, 좌측으로 골프연습장이 나온다. 이 골프연습장을 지나 200m 정도 올라가면 소망기도원에 못미쳐 판잣집을 볼 수 있는데, 이 집 앞을 흐르는 계곡을 건너면 작은 골짜기가 보인다. 골짜기를 따라 50여m 올라가면 우측에 천장으로 가로막은 폐광이 위치한다. 이곳은 1937년 초까지 사이비종교집단인 백백교가 사기와 살인 행각을 벌이던 장소로 알려져 있다. 백백교는 1923년 차병간이 경기도 가평에서 포교를 시작하였는데, 처음부터 뚜렷한 교리나 깊은 사상적 근거를 갖지 못한 사이비종교로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걸었다. 더구나 전용해가 교주가 되면서, 백백교는 범죄단체화해 민중을 현혹하여 그들의 재물을 갈취하고 여신도들을 속여 간음을 자행하였다. 이 같은 범죄행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자들을 심산유곡으로 끌고 가 가차 없이 살해하였다. 이 천원금광은 그 중 한 곳으로 금광을 가장하여 투자를 목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재물을 갈취한 뒤 살인을 저지른 곳이다. 백백교가 해체할 당시 천원금광과 마차산 일대에서 확인된 시신이 7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10. 순정효황후 생가

이 생가 터는 동점마을 입구 영탑을 지나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 곳에서 탑동 웨미리랜드 방향으로 직진하면 탑동 웨미리랜드 조금 못 미친 곳에 민초란 토속음식점이 나온다. 생가 터가 이 음식점과 주차장 그리고 경작지 일대이다. 생가는 해방을 1~2년 남겨두고, 조선총독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이경모'에 의해 철거되었다고 한다. 바깥채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가져가고, 안채는 헐어서 그대로 서울 마포에 이전하였다고 한다. 순정효황후(1894~1966)는 조선왕조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황후로 본관은 해평(海平)이고 해풍부원군(海豐府院君) 윤택영(尹澤榮)의 딸이다. 황태자비 민씨가 1904년에 사망하자 1906년 12월 13세에 황태자비로 책봉되었고, 이듬해 순종이 즉위하자 황후가 되었다. 당시의 자자한 소문에는 민택영이 엄비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쳐서 간택되었다고 한다. 1907년에 여학(女學)에 입학하여 황후궁에 여시강(女侍講)을 두었다.

1910년 국력이 강탈될 때 병풍 뒤에서 어전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엿듣고 있다가 친일파들이 순종에게 합병조약에 날인할 것을 강요하므로 황비가 이를 저지하고자 치마 속에 옥새를 감추고 내놓지 않았으나 숙부인 윤덕영(尹德榮)에게 강제로 빼앗겼다. 만년에 고독과 비운을 달래기 위해 불교에 귀의, 대지월(大地月)이라는 법명을 받았고, 낙선재에서 심장마비로 승하였다. 유릉에 순종과 합장되었다. 생가복원을 꼭 하여야 한다.

11. 동두천은 ‘권번’의 고향

동두천은 풍류(風流)의 고장이었음을 상기하게 된다. 이미 타계하여 망각 속의 인물이 된 소설 『김유신전』의 작가 윤승한(尹昇漢) 씨 그리고 일제 시대 빅타레코드사 전속인 경서도창(京西道唱)의 김난홍(金蘭鴻) 씨, 또한 그 누구도 추종할 수 없을만치 경기잡가의 독보적 존재였던 김옥심(金玉心) 씨, 그들은 모두 이 고장이 낳은 숨은 자량이 아닐 수 없다. 동두천은 이곳에서 근세인 일본 강점기에는 동두천 권번(기생들의 노래를 가르치는 곳의 이름)이 있어 차병숙(1886년생) 선생이 일명 사부로서 포도넝쿨이 있는 큰 집이었다. 따라서 포도나무집이라고도 했다. 이 집에서 재야 명창인 김옥심 씨가 사사했고, 그 외 김정순, 차월이, 산옥, 춘란, 강옥례, 순실, 한옥순 등을 배출하여 동두천을 경기소리 타령의 고장인 애향으로 자리잡았던 것이다. 그 명성이 경기북부 타 지방 사람들이 동두천에 가서는 소리하는 척도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12. 사라진 상수도

동두천읍 상수도 공사가 1970년 5월 6일 11시에 ‘동두천읍 상수도 공사 준공 및 통수식’이 동두천읍 지행리에서 거행되었으며, 이 공사는 국비 6,600만 원과 군비 1,765만 원 등으로 1966년 8월 4일 착공, 철근 195톤, 시멘트 2만 3,000포대, 목재 7,600만 입방미터, 주입관 264톤을 사용해 연 18,500명의 민원을 해결해주었다. 이 상수도는 취수시설로는 집수암거 1, 집수정·취수정·양수정 1, 정수시설 침정지 2, 여과기 2, 정수정 1, 송수관 2.2km, 배수지 1, 배수관 3.2km, 1일 생산량 5,400t을 공급하여 점차 시설을 확장해오다 사라졌다.

13. 신천 남산교 준공

동두천읍과 은현면 상패리를 잇는 남산교가 미군의 도움으로 완공되어, 1969년 10월 15일 14시에 장용순 양주군수와 각 기관장, 미군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이 다리는 미 7사단 제7보급중대 수송대대 13중대 상사의 주선으로 1968년 8월 13일 착공, 1969년 10월 15일 개통되었으며, 교량의 길이는 120m, 폭은 1,200m이다. 다리가 없는 장마철에는 약 4km를 돌아서 다녀야 했다.

14. 자유의 봉화대 점화

1969년 8월 15일 오전 생연3리에 있는 케네디기념문화회관에서 전 유엔대사 임병직 씨와 재미교포 오봉도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의 봉화대 점화식이 있었다. 동두천읍 때까지 봉화대가 계속 점화되어 있었으나, 시로 승격되면서 서서히 없어졌다.

15. 사라진 보금자리 문전옥답 (6·25 전쟁 때 유엔군에 징발된 땅)

6·25전쟁 때 유엔군에 징발당한 토지를 보상받기 위해 10여 년간 정부 당국을 상대로 소송해오던 관계 토지주들은 정부의 무성의함과 결말 없는 오랜 소송으로 거지가 되고 말았다. 가난에 지쳐 있는 틈을 이용, 약삭빠른 악덕상인들의 감언이설에 빠져 문제의 땅들을 평당 20~25원씩 헐값에 마구 팔고 말았다. 동두천읍 결산리, 보산리, 동두천리 생연 1~4리와 생연리 일대 임야 및 대지 275만 평은 6·25전쟁 당시 군용지로 유엔군에 의해 징발당한 채 해지되지 않고 있다.

휴전 이후 이상덕(광암동) 외 40명과 토지주 362명은 피난길에서도 보상을 받기 위해 10여 년 동안 30여 차례나 정부와 미 8군 관계 요로에 보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때마다 관계 당국에서는 곧 보상이 실시될 것이라는 거짓 약속만 하여 왔다.

이렇게 되어 실망된 토지로 변하여 평당 20~25원씩 마구 사들이는 서울사람들이 나타났다. 철조망 바로 밖에만 해도 평당 500원씩 거래되는 땅이건만 당장 밥을 굶는 실정인지라 울며 겨자 먹기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내

버리듯 팔아버리고 고향을 떠난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들 주민들 말에 의하면, 토지를 매수한 서울 사람들은 우리 농민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싼값에 사들인 땅을 국방부와 환지 평당 200원씩 폭리를 취해 부자되고, 무지하고 돈 없는 선량한 농민들만 울렸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80여만 평이 서울 사람들에게 팔려버렸다는 것인데, 대표자 이상덕 씨는 정부가 국민의 재산도 수해나 화재가 발생해도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너무나 성의가 없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제 와서 우리 국방부는 서울 사람들처럼 악덕상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조선일보 1967. 1. 11

16. 신천의 대검교

이 대검교는 다리 없이 돌다리 또는 배를 이용, 나들이하던 주민들의 애로 사항이었던 동두천 시민들과 은현면 면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5년 9월 16일 미군 제7사단에서 가설하여 준공했으며, 대검교로 인하여 현재의 동광교가 이어져 오고 있다.

17. 사랑의 배(소요초교 어린이에게)

비만 오면 신천물이 불어 등교를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상봉암리 소요초교 어린이들을 위해 각계에서 보내온 성금으로 1966년 7월 24일 사랑의 배를 마련하였다. 이 배는 양주군수 김대근 씨와 이진용 국회의원 등 각계에서 보내온 성금 5만 원으로 장만하였다. 한편 경기도는 이곳에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약속했다.

18. 걸산분교(동두천초등학교)

동두천초등학교 걸산분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빈터로 남아 유적비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1967년부터 1999년까지 총 11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폐교되었다.

19. 아리랑교

1964년 미 7사단 13공병대대의 지원을 받아 밧줄을 이용한 도보 통행전용 목조다리를 설치하였다. 드디어 동두천리와 안흥리를 잇는 첫 다리가 놓여진 것이다. 사람들은 이 다리를 출렁다리라 불렀다. 몇 년은 이것만으로도 흐뭇하고 고마운 것이었으나, 차량은 물론 우마차도 다닐 수 없는 나무다리인 탓으로 자주 보수가 필요했고, 이에 따른 불편과 위험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춤추듯 출렁거리며 다닌다 하여 아리랑교라 하였으며, 이 다리로 인하여 미 제7사단의 사단가가 아리랑으로 되었다.

20. 방축저수지

방축저수지는 1930년대 축조되어 구시가지(집이 없을 때) 전답에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던 중요한 저수지이자 이 지역의 젖줄이기도 하다. 1950년 6·25전쟁 이후 이곳 주민들의 생활 본거지였던 동두천동과 보산동에 유엔군이 주둔하게 됨에 따라 피난을 갔다 온 후 고향땅을 못 찾고 이 들판에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북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일부 피난민들이 더 이상 올라 갈 수 없어 이곳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전국에서 미군부대 주변으로 벌어먹고 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시가지 형성에 주역할을 하여 왔고, 이곳 원주민들은 이것저것 체면 때문에 뒤로 밀려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저수지가 이용자들이 점점 없어져 기능을 상실하였다. 그리하여 1979년 이곳 저수지를 매몰하여 양주군군립회관으로 건축하게 되었으며, 건축 중 1980년 7월 1일 시 승격이 되면서 청사가 비좁다는 이유로 제2대 시장이 설계 변경하여 시청사로 건축하게 되었으며, 청사로 사용해 저수지의 역할을 마감하게 되었다.

21. 동두천읍청사가 사라지다

이 동두천읍청사 이담면사무소는 생연동 688번지에 있었으며, 1963년 1월 1일 동두천읍으로 승격(법률 제1177호)되었으나 청사가 협소해 1967년 11월 19일 생연동 594-1번지 1,300여 평의 대지 위에 새로 건축해 이전하여 13년간 사용하다 1985년 10월 10일 생연동 438번지에 새로 신축하여 이전하였으며, 그

청사는 생연3동사무소로 사용해오다 생연3동과 생연4동이 합쳐지면서 생연3동사무소는 생연4동사무소로 이전하였다. 그 후 2002년 최용수 시장 재임시 100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2층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읍청사와 구시청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2. 사라진 어수동 역명(생연동 688번지)

‘어수’란 이름은 이태조인 이성계가 함흥행차 시 생연동 612번지에 있던 우물물을 마셔 갈증을 덜었다는 이유로 어수정이라 지어졌으며, 그로 인하여 그 주위 부락이 어수부락으로 불렸다.

1955년 2월 1일 어수동역이 새로 생겼으며(당시는 간이역으로 시작), 1969년 10월 1일부터 보통역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1984년 2월 10일 역명을 동두천역으로 변경하였으나 전철이 개통되면서(2006. 12. 15) 다시 동두천중앙역으로 개칭되었다. 이제는 다시 원명인 어수동역으로 다시 환원했으면 한다. (※ 서울~원산 개통 1914. 8. 16)

23. 국민은행 동두천지점(생연동 588번지)

국민은행 동두천지점은 옛날 변화가였던 생연로를 기준하여 1968년 11월 21일 개점하였으며, 그 후 중앙로가 개설됨에 따라 상가가 중앙로를 기준하여 발전하게 되었다.

그 후 신시가지가 생김으로써 2000년 이후 이전하여 생연로와 그 인근이 폐허가 되다시피 하였다.

24. 경기은행 동두천지점 철수

경기은행 동두천지점은 생연4동 586번지에 1974년 1월 8일 은행을 개설하여 유지해오다, 1990년경 인천지점과 합하였다.

25. 경기북부노인대학

경기북부노인대학은 1984년 5월 30일 생연2동 696-3번지에 설립됐고 초대학장에 김홍남 씨가 선출되어 2010년 초까지 상패동에서 운영하다 현재는 의정부시로 이전하였다.

26. 금강피혁공장이 문을 닫다

금강피혁공장은 1978년 3월 20일 종업원 400명으로 상봉암동 54-1번지에 설립됐고 〈대표 김민식〉 생산품목으로 의류용 피혁, 가구용 피혁, 구두 및 핸드백용 피혁을 연간 매출액 50억 원, 연간 수출액 7,000만 불의 실적을 올린 큰 회사였으나, 1990년대 가죽제품의 사양으로 인하여 문을 닫고 말았다.

27. 동두천지구 탁주 합동제조장

소재지는 생연1동 503번지에 위치하고 대표자는 이기창 씨이다. 설립 일자 1971년 9월 13일 설립하여 탁주 연생산량 1,280,000ℓ 이었다. 1990년대 소주의 소비가 늘어나고 맥주 등 다량의 술이 나오면서 탁주가 사양길에 들어서기 시작하여 점차 쇠퇴해 문을 닫고 말았다.

28. 주식회사 북두, 문을 닫다

주식회사 북두는 동두천동 245-1번지에 대표자 서석민 씨가 1972년 10월 13일 개설, 가동 개시일은 1982년 5월 17일이며 스피커, TV 부품 등 연간 스피커 2,500만 개, 솔로노이드 백만 개, TV부품 백만 개 등을 생산한 공장이었으나, 1990년대 초 노조운동으로 인하여 회사가 문을 닫고 폐허가 되었다.

29. 동두천의 귀신불(전깃불)

현대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 불가결하고, 문명의 이기로 첫 손을 꼽는 것은 역시 전기라 하겠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믿기 어려운

일이겠으나 일제시대는 물론 6·25전쟁 후까지 이 고장 동두천에는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일제시대에는 소위 남선전기와 금강산전기라는 두 개의 전기회사가 있어, 금강산전기는 전곡까지 배전하고, 남선전기는 의정부까지 배전한 관계로 이웃 덕정과 동두천만 전기라는 이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은 남곶불이요, 그렇지 못하면 등잔불로 만족해야만 했던 것이 해방이 되고 6·25전쟁 후 수복해서도 역시 전기 없는 암흑생활은 계속되었다. 전세의 호전으로 수복이 되었으나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에서 현 생연2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터전을 잡고 판잣집으로 부락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밤이면 암흑이 되었고 전기라는 것은 다른 먼 세상의 것으로 생각되었다. 판잣집 유흥가에서는 촛불로 말미암아 화재가 자주 일어나 항상 불안 속에서 살았다.

그러던 차에 유평발전소(옛 생연4동사무소 자리, 지금 동두천성모병원 자리)라는 사설 발전소(대표 장수달)를 설치하고, 제한된 송전을 시작한 후부터는 생활하는 데 다소 도움을 주었으나, 잦은 정전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주민에게 만족을 주기에는 미흡하였다.

그 후 한국전력에서는 이 지역에 주둔 중인 미 7사단에 전기를 공급하게 된 것을 기회로 배전선을 일반 주민에게까지 연장할 것을 목적으로 1962년 4월 동두천한전전기가설추진위원회(회장 김진각, 부회장 황두중·이두표)를 결성하여 유치에 노력한 결과 크게 진전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1964년 말경 일부 주민들이 수용자회(회장 장관호)를 구성하여 전기공급에 따른 내선공사를 함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수용자회 간에 분규가 끊이지 않던 중, 1965년 4월 수용자회를 해체하고 가설된 내선공사를 추진위원회에 인계함으로써 모든 물의가 해소되었으며, 급기야 한전에서 약 2,400세대에 대하여 직접 배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비로소 동두천시민이 전기의 혜택을 입게 되었는데 바 기간의 우여곡절 속에 법정문제로까지 비화되었으며, 수용자회의 사문서 위조로 형사사건까지 발생하였다. 그 후 시 관할 구역 어디에나 전기 없는 곳이 없고, 한국전력공사 지점이 이곳에 설치되었다.

30. 전국원에영농의 시조 동두천(농협 구판장의 원조 동두천)

지금은 농사에도 과학의 발전과 고도로 개발된 첨단기술에 의하여 계절의

구별 없이 어디서고 싱싱한 과일과 채소를 구할 수 있어 별로 신기하고 귀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 유전공학이란 학문의 발달로 동·식물의 생성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이고 보니, 동지선달에도 상치와 오이가 무슨 신기하리오만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던 일이었다. 전에 모랫말에서 <광덕농장>을 경영하고 있던 김덕필 씨가 최초로 온실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데 성공하여 이 지방 농민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며, 지방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해방 전부터 건실한 농민으로 항상 이상적인 농촌을 꿈꾸어 왔다. 6·25전쟁 후 일시 상업에 종사하였으나, 뜻한 바 있어 모랫말에도 농토를 마련하고 특수작물 재배를 시작하기로 했다. 교회에 외국인 선교사에게서 들은 외국의 영농방법과 덴마크의 부흥 등을 생각하며 황무지에도 남이 하지 않는 방법을 구상하여 특수작물 재배를 시작하였다. 각목과 대나무를 이용하여 온실을 가꾸고 기름종이와 거직으로 지붕을 덮었다. 퇴비와 석회질로 토지를 개량하고, 안에는 난로를 피워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데 힘썼다. 온상에다 씨를 뿌려 모종을 키운 뒤 밭에 옮겨 심어 남보다 조기생산을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피나는 각고 끝에 5월 하순경 남보다 먼저 참외와 오이를 생산하여 서울로 출하하였다. 그 당시 서울 근교에서 참외가 조기생산 되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고, 따라서 기대 이상의 값을 받고 팔게 되었다. 그해 겨울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참외와 오이를 서울에 출하하니 상인들이 놀라고 소비자도 놀랐다.

이 지방의 농민은 물론 특수 영농에 관심을 가진 다른 지방의 농민이 찾아오기도 하였으며, 온실재배를 실험, 연구하던 건국대학교에서 직접 와보기도 하였다. 온실에서 모종을 키우는 방법이 동두천 주변 많은 농민에게 보급되면서부터는 생산량이 과잉되고 그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면서 유통과정에서 오는 불이익이 심하게 되었다. 김덕필 씨는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상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을 막고 모두가 합심 단결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앞장서 원예조합을 조직하고 생산된 소재류의 공동판매를 시작하였다.

그 후로는 상인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 없이 적절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울 등지의 상인이 동두천으로 몰려들게 되어 생산자의 소득증대는 물론 시장발전에도 크게 도움을 주었다.

동두천의 인구가 많아지고 하우스를 이용하여 채소를 생산하는 농민이 증가하여 원예조합에서 직영하던 공동판매사업이 농협구관장으로 이관되었는데 이것이 기초가 되어 전국에서 우수한 농협구관장으로 발전한 계기가 되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이루고 나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듯 하우스영농은 이제 상식화 되고 어디서나 이용하고 있다. 엄동설한에도 싱싱한 과일과 채소가 풍성하다. 하지만 별로 신기하거나 놀랄 일이 못된다.

그러하지만 40여 년 전 남이 하지 못한 점에 착안하고 온실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데 성공하였음은 그 당시로서는 경이적인 성과라 아니할 수 없다. 한때는 2천여 평 철제 비닐하우스가 폭설로 붕괴되는 쓰라린 경험을 씹어가며 계속 그는 동두천지방 하우스영농의 원조답게 앞서가는 이상 영농을 위하여 묵묵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 원예농민들이 동상이라도 세워야 하지 않을까?

31. 거대했던 동두천 향진회가 무너졌다

향진회는 1966년 9월 4일 결성(회장 김성현), 18개 분회 회원 1,026명(1967년 8월 30일 당시)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분회별로 살펴보면 송내분회 94명, 화성분회 32명, 행단분회 42명, 광암1리분회 55명, 광암2리분회 54명, 걸산분회 1명, 생연1리분회 66명, 생연2리분회 110명, 생연3리분회 79명, 생연5리분회 37명, 생연6리분회 42명, 생연7리분회 78명, 동두천리분회 57명, 안흥분회 67명, 영진분회 52명, 봉동분회 65명, 소요동분회 17명, 하봉암동분회 59명, 이사회 21명으로 구성하였고 회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믿고, 도움의 정신과 같이 뭉치고 일하고, 배우고, 연구하는 회훈을 가지고 있었던 최대의 조직이라 할 수 있다.

회원 수는 1,100명이요, 가족 수는 7,000명이란 방대한 조직이었다. 1978년 해체되었다.

32. 신영극장(대표 이근영)

신영극장은 동두천에 1954년 맨 처음 극장으로 개장하여 처음에는 동두천 극장으로 오다가 나중에 신영극장으로 명의 변경하였으며, TV가 각 가정마다 설치되면서 서서히 1970년대 후반기에 폐쇄되었다. 장소는 현재 중앙역 앞에서

100여m 서쪽으로 우측에 있었다.

33. 유한극장(대표 류충국)

유한극장은 현재 중앙동 노인정이 있는 뒤쪽에 위치하였고, 동두천에 한참 경기가 좋을 때인 1960년대에 문을 열고, 약 10년 이상 번창하였으나 TV가 출현 하면서부터 서서히 관람객이 줄면서 1978년경 자진 폐쇄하였다.

34. 남북 등짐교역의 장소

사랑하는 우리 고장 동두천을 높은 공장 굴뚝하나 없고 농토래야 형편없다. 여기서 7만 인구가 바글거리고 먹고 사니,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란 말과 통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동두천이라면 초라한 모습과는 달리 돈이 끊고 있는 곳이라고들 한다. 하긴 그런지도 모른다. 왜정 때에는 목재와 장석이 동두천역에서 적재되어 돈이 풍성하였고, 해방 후에는 38선을 넘나드는 남북교역이 성행하였다. 남과 북의 모든 물건의 유통이 끊어지고 남과 북의 상인들 간의 등짐교역이 시작되었다. 쌍방 점령군의 태도가 점차 경색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위험을 각오한, 처절하리만치 극단적인 상행위가 3·8선 접경에서 밤에 이루어졌다. 동태, 북어, 오징어가 북에서 오고 페니실린, 다이아몬드, 인차지가 남에서 갔다. 이것이 생명을 걸고 등짐으로 옮겨지는 주요 교역 대상물이었다. 소위 3·8 무역으로 돈 푸대가 우마차에 실려 다녔고, 거리는 흥청거렸다. 해방의 혼란이 점차 정돈되고 질서가 회복되어감에 따라 남북의 등짐교역은 단절되었고, 따라서 흥청거리던 명태 경기도 과거의 옛이야기가 되었다.

35. 경기실업고등기술학교

위치 : 생연동 산65번지

설립인가 1961년 2월 28일 재단법인 경기학원 설립인가(이사장 민주식) 동년 4월 16일 미용 2학급, 이발 1학급, 양재 1학급, 학생 160명으로 경기고등기술 학교를 개교하였다. 이사장 및 교사는 급변하는 정보사회의 시대적 감각을 살려

새로운 지식, 과학, 기술 정보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초대교장에 원종구 교장과 교육활동을 해오면서 1975년 2월 1년제 이발과 양재과를 폐과하고, 3년제 전자과와 상업과를 인가받았다. 1962년 2월 제1회 졸업생 92명으로 시작하여, 1998년 제36회 미용과 50명 졸업까지 미용과 2,449명, 이용과 217명, 양재과 351명, 전자과 43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36. 송내초등학교

송내초등학교는 1944년 10월 10일 실업강습소(19명)로 개교하여 1946년 11월 19일 동두천초등학교 지행분교장으로 승격되었다. 1949년 10월 20일 송내초등학교로 승격되어 3,04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학생 수의 감소로 1975년 2월 20일 폐교되고, 지금은 중앙중고가 자리하고 있다.

37. 3·1대한독립만세를 부르던 장터거리

홍병준은 구한말 애국지사로서 자는 덕문(德文), 본관은 남양이며, 북영의 아들로 고종 1년(1864년) 10월 1일 길산동에서 태어났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천성이 강직하여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품성을 지녔고, 충과 의를 중시하였다. 선생은 항시 한일합병에 대하여 분노하던 중 1919년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경향 각지에 진동함을 기하여 동년 음력 2월 25일 동두천 5일장날 정오에 일천여 명 군중을 인솔하고, 선두에서 만세 운동을 지휘하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온갖 고문과 악형을 당하였다. 이 장터거리는 지금 동두천 제2교로부터 현재의 연탄공장까지 3번 국도를 이용하였다.(당시는 차의 왕래가 없었던 도로였다) 그리고 면사무소 앞 부근을 이용하였다 한다. 지금은 미 2사단 연병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연동 큰시장 거리에서 5일장이 개설 운영되고 있다.

38. 6·25전쟁 이전 5일장

이 5일장은 3번 국도인 동두천 제2교~정원연탄 앞까지 5일장이 개설되었다.

왜냐하면 동두천역이 있고 3번 국도에는 차가 다니지 않았으며, 2리 면사무소가 부대연병장(동두천동 196번지)에 있었으며, 동광양조장과 도로변 옆으로 생가가 20~30곳이 있었으며, 현재 연병장의 일부가 시장터였으며, 윗 장도 상당히 번성했었다. 그리고 각 관공서가 이담면사무소 주위에 모두 있었다. 6·25전쟁 이전에는 현재의 시가지는 모두 문전옥답이었다. 따라서 역전과 면사무소를 위주로 하여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청산면과 전곡, 남면, 은현면 등 인근 주민들이 장보러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6·25전쟁 때 인민군이 이곳에 맨 처음 진주하자마자 시가지를 불을 질러 시가지를 모두 불태워버렸다. 이후 이곳에 장이 설 수 없었고, 송내리에 5일장이 섰으며 얼마 안 가서 생연동으로 5일장이 서게 되었다.

39. 어유소 장군의 생가

동두천시 지행동 214번지에 있었다. 26.6평의 초가로 된 장군의 생가 앞에는 연못과 천고의 신비를 간직한 노거수 은행나무가 우뚝 서 있어 한 층 더 명인의 생가를 운치 있게 해주고 있다. 생가는 무수한 세월 속에 개축을 거듭해 원형이 변모되었고, 지금은 타성인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나 뜻밖에 집주인이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현대식으로 건축하여 살고 있다. 국가에서는 유명한 장군의 생가를 복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0. 1,000년 묵은 은행나무와 연못

천보산의 험찬 지맥이 서북으로 휘몰아 칠봉산을 일으켜 놓고 그 여세를 몰아 북으로 뻗으면서 서쪽으로 아늑하게 분지를 이룬 곳이 바로 어유소 장군이 태어난 동두천시 지행동 214번지인 행단마을이다. 장군이 태어난 생가 앞에는 1천 년 된 노거수가 웅자를 자랑하고 우뚝 서 있어 명인의 고향답게 거룩한 향수를 깃들이고 있다. 노거수 아래에는 200여 평 되는 연못에 사시사철 푸른 물결이 출렁이고 있어 유소(有沼)라는 장군의 이름이 이 연못에서 연유되어 지어졌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고기는 연못이 있어야(有沼), 자(字)를 자유(子遊)라고 지어주었다고 한다. 500여 년이 지난 뒤에도 당시의 연못이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이 연못은 마르지

않는다. 이 연못은 어유소 장군의 명성과 함께 이 고장을 대표하는 유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곳의 땅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5, 6년 전 아파트 건설업자가 매수하여 현재는 완전 매몰되어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시에서 매수해달라고 건의하였으나 허사였다. 우리 시에 역사적 유물로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41. 사라진 재건중학교

동두천시 생연동 268번지에 위치하고, 재건중학교는 당시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기 위하여 재건국민운동본부 동두천읍위원장이던 김성현 위원장과 재건위원이던 홍수직 위원이 뜻을 모아 1967년 3월 지금의 동두천시 생연4동 521번지 케노샤직업학교에서 20여 명의 학생에게 정규중학교 교육과정을 시작하면서 개교하였으며, 초대교장으로 김성현 교장이 취임하였다.

1967년 3월 생연4동 케노샤직업학교에서 시작한 재건중학교는 그 해 11월경 동두천읍사무소로 학교를 옮겼다가 다시 김성현 교장이 운영하던 동광양조장 2층으로 배움의 터를 이동하였으며 1969년에는 현재의 조흥아파트가 있는 생연동 268번지(당시 생연6리)에 교실 4실, 수위실 1동, 변소 1동을 신축하여 이동하였다.

재건중학교는 당시 재건국민운동본부 산하의 교육기관으로 중학교 과정이었으며, 저렴한 학비로 청소년들에게 면학의 길을 열어준 학교였다. 고등학교 진학 시 고입 검정고시 합격률 80~90%로 높은 학업성취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학교의 부지는 향진회에서 구입하여 희사하고, 미 7사단 예하의 공병단에서 건축에 필요한 철근 1톤을 후원받았으며, 기타 비용은 김성현 교장의 사재로 신축하여 완공하였다. 1970년 2월 17일 제1회 졸업식이 거행되어 23명의 졸업생을 처음으로 배출하게 되었다. 매년 학생 수가 증가하여 1976년 2월 19일 7회 졸업생 수는 140명이 되었으나, 1980년 2월 9일 12회 졸업생 35명을 끝으로 폐교되었다. 이로써 재건중학교는 그 막을 내렸고, 그 자리에는 현재 조흥아파트가 있다. 1981년 2월 18일 폐교, 12회에 걸쳐 총 77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42. 사라진 송유관

이 송유관은 미 7사단이 있을 당시 휘발유를 관을 통하여 운반하기 위하여 송유관을 철도변을 이용하여 매설하였다. 당시 중간에 송유관에 틈이 생겨 이것을 받아서 파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다. 이 송유관은 1970년도에 매설하여 약 10여 년간을 사용하다 단절하고 말았다.

43. 기차를 이용한 물품운반(보따리 장사)

생계를 유지할 수단으로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물건(예 : 휘발유, 고기, 과자, 술, 기타 등등)들을 서울보따리상과 이곳 보따리상인 여자들이 그 전날 준비해 두었다가 다음날 새벽 첫 기차 또는 두 번째, 세 번째 기차를 이용하여 서울에 가서 팔고는 하였다. 1일 평균 40~50명의 여자들이 매일 운반 하였는데, 기차는 앞의 의자 밑에 넣고 다니고, 버스는 앞의 의자 밑에 앉아 치마를 내리고 매일 다녔다. 그런가 하면 서울 여자들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 2번씩이 보통이었다. 어떤 때는 기차를 타면 휘발유 냄새가 진동할 정도였다. 이렇게 1950~1970년대 말까지 계속 미제물품이 보따리장사를 통해 서울로, 서울로 운반되었던 옛 시절이 있었다. 이것이 보따리장사의 원조가 아닐까 생각한다.

44. 광덕고등공민학교

광덕고등공민학교는 1968년 4월 1일 지금의 지행동 483-2번지에 동두천시온 고등공민학교로 개교되었으며, 초대교장으로 김응호 교장이 부임하였다. 당시 학교 건물은 시멘트블럭 6개 교실, 숙직실 1동, 화장실 1동으로 문을 열었으며, 1970년 9월 26일 광덕학원으로 인가, 교명을 광덕고등공민학교로 변경하였다. 그 후 4회 5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1973년 2월 28일 폐교되었다.〈내행동지 204-9〉

45. 이담고등공민학교

6·25전쟁 후 1954년 동두천에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경향 각지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다. 그 후 인구가 1만여 명에 이르러 중등교육 시설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면 단위의 열악한 재정상태로는 학교설립이 어려워 부득이 미 7사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자재를 지원받고, '이담고등공민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시 송내초등학교 기성회장 목태신 씨를 선임, 독지가들의 협조로 지행동(현 애신보육원자리)에 교실 2개와 교무실, 화장실 등 160여 평에 교사를 신축, 이담고등공민학교로 인가를 받고 개교하여 동두천에서는 중학과정을 교육하는 유일한 학교로 발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 후에 겪는 어려운 경제난으로 학교운영에 많은 차질이 생겨 개교 3년 만에 애신보육원에 넘겨주고, 1957년 3월 현재 동두천고등학교 본관 건물(당시 교실 2개, 교무실 1개)을 신축하고, 교명을 동두천고등공민학교로 개칭하여 3학급(학생 100명)을 경영하여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그 후인 1959년 2월에 청룡중학교(현 동두천중학교 전신)로 재인가되어 이담고등공민학교 명칭은 사라졌다.

46. 사라진 고인돌

시대는 청동기, 소재지는 지행동 242번지, 소유자 안병철

고인돌 터의 주변지세는 뒤는 북서향으로 산으로 둘러싸고 앞쪽은 동남향으로 구릉성 산지가 있다. 사이에는 강화천(신천)으로 유입되는 실개천의 합수 지점이 고인돌 터 앞을 흐르는 등 당시 사람들의 생활 터로 적합한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고 안병철의 증언에 따르면 덮개돌의 장축 방향이 동서향으로 위치하고, 남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졌으며, 아래에는 꺾돌 2개가 놓여 있었다고 하였다.

덮개돌은 아이들 5~6명이 올라가서 놀았을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덮개돌은 6·25전쟁 직후 인근 주민들이 난방을 위해 구들돌로 사용함으로써 현재는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부근 지표조사에서 격지 1점, 토기편 3점 등이 수습되었다.

1) 격지 : 앞부분이 부러져 찌르개류의 이격지는 석영을 돌감으로 사용하였다. 양쪽 옆날 부분에는 뎀 자국이 남아 있다. 크기는 7.0×3.9×2.0cm이다.

2) 토기편 : 구연부가 안으로 약간 굽은 회백색 경질토기편으로 구연부와 평행을 하고 있는 폭 2~3mm의 물결 모양이 새겨져 있다. 두께는 0.5~0.6cm이다.

3) 토기편 : 작고 둥글게 밖으로 심하게 벌어져 암회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두께는 0.7~1.0cm이다.

4) 토기편 : 회백색의 유약이 입혀진 조선시대 자기의 몸통 부분이다. 두께는 0.7~1.0cm이다.

※ 이와 같이 주요한 자료를 현지에서 찾을 수 없었다.(2009년 최무장 박사와 김택기)

47. 열녀문터(수원 윤씨)

시대는 조선시대이며, 소재는 송내동, 송나마을 옛 성황당 옆 수원 윤씨의 남편 한진구(韓鎭九)는 청주인으로 병자호란 당시 무관으로 전쟁에 출전했는데, 어느날 그가 타고 갔던 말이 홀로 돌아왔다. 이에 수상하게 생각한 부인 윤 씨가 말에게 “너는 어찌하여 주인을 모시지 않고 혼자 집에 돌아왔느냐?”고 묻자 말이 눈물을 떨구며 서 있었다. 부인은 말에 올라 타고는 “네가 주인 있는 곳을 안다면 나를 그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였다. 말이 부인을 태우고 개성 방향으로 달려가 싸움터에 도착하여 주인이 누워 있는 곳으로 안내하였다. 부인이 남편을 만져보니 벌써 전사해 있어, 그 시신을 안고 고향에 돌아와 예를 다하여 장사 지내고, 3년상을 치른 다음 부인도 따라 죽었다.

부근 유생들은 부인의 열녀정문을 세워줄 것을 호소하였고, 조정에서도 정문(旌門)을 내려 열녀 윤 부인을 추모하였다. 열녀문은 6·25전쟁 당시 불타 없어지고 지금은 주춧돌만 남아 있다.

48. 서당교육과 4년제 보통학교

1) 서당

조선시대 세조 12년(서기 1466년)에 양주가 목으로 승격되면서, 방리 34개 면 가운데 하나인 이담면이 형성되었다. 양주목의 중심지는 유양리였으나, 교육의 중심지는 양주향교가 있던 주내면 고읍리였다. 따라서 이담면은 자연적으로 지방교육의 중심지인 고읍리 향교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후에 고읍리 향교는

양주목이 있는 유양리로 이전하게 되어 지금도 유양리에 향교가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우리 고장은 이조 말엽의 중등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향교는 없었지만 싸리말, 송내리, 안골, 방축골 및 생골에 한문글방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글방(서당)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마친 이들은 고읍리와 유양리 향교에 다녔다 하니, 걷는 길이 30~40리는 족히 되었다고 생각된다.

한문글방 시대의 서당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목찬식을 중심으로 5군데의 글방이 융성했다는 전언만을 들을 수 있다. 서당교육은 양주목의 북부지역으로 지역 유지들을 중심으로 성했으며, 융성했던 양주향교의 영향을 받아 유교문화의 융성을 가져왔던 지역이라고 옛 어른들은 말씀하신다.

2) 1923년의 개교(4년제 보통학교)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본인들은 우리 민족에게 보통교육과 기술교육을 시키려고 시도했다. 이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보통교육 및 기술교육을 시켜 생산력 증대에 염두를 두었다는 것이 교육사학자들의 견해이다. 이리하여 이들은 우선 1개 군에 1개의 보통학교를 설립하게 하여 점차 확대해갔던 것이다.

양주목에는 지금의 의정부중앙초등학교의 전신인 양주보통학교가 지금의 유양리 근처에 1899년에 설립되어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이 학교를 1919년에 의정부읍 내로 옮긴 후 새로 개교하게 하여 6년제 보통학교로 개칭하게 하였다. 이 학교도 처음에는 4년제였다. 따라서 1회부터 14회까지는 4학년까지 본교에 다녔으며, 5~6학년은 의정부보통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런 까닭에 의정부중앙초등학교는 1899년에 개교하고 지금까지 73기의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1919년 이전의 역사는 없어지게 된 것이다. 1923년 6월 22일 조선총독부령으로 보통교육 확충계획에 의거, 학교는 지금의 동두천리(창리)에 설립인가가 났으며, 같은 해 8월 30일에 5개의 교사가 준공되어 1923년 9월 1일 드디어 동두천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였다.

3) 결과

일본인 구마사키만지로 선생이 초대교장으로 부임하였다. 구마사키 교장은 부임하자마자, 불과 수십 명의 학생만 학교에 다니고 나머지는 싸릿말 등에 있던 서당에 다니는 것을 보고 한국인 교사 한 명과 함께 서당에 다니는 학동들이

보통학교에 다니도록 설득도 하고, 위협도 했다고 한다.

서당에 다니면서 나이가 많은 학동은 공립보통학교에 다니도록 권장했으나 많은 수의 학동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서당에 다니게 됨에 따라, 일본인 구마사키 교장은 나이 많은 학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서당을 폐쇄하겠다고 위협을 해서 점차 학생 수가 늘어 각 학년에 50여 명의 학생들이 다녔다고 한다. 따라서 5개 교실 가운데 한 교실은 교무실과 교장실이었고, 4개 교실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쓰게 되었다고 한다.

49. 옛 생연5리 골목 주점의 불야성

옛날 생연5리 골목(현재 중앙동사무소 앞~전 국민은행)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 매일 밤이면 흥겨운 노랫가락이 흘러 퍼지는 유명한 골목이었다.(이 골목에는 양쪽으로 약 50~60여 점의 주점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이 골목에는 미군부대 종사원들이 퇴근하면 성향을 이루고 있었으며, 또 술을 좋아하는 일반인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부대종사원들이었다. 그들은 하루의 노고를 회포하면서 즐겁고 유쾌하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때가 동두천의 경기는 제일 좋은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이로 인하여 그 일대가 먹자골목을 지정받아 깨끗이 정비하여 손님을 기다리고 있으나, 옛날 경기는 가고 지금은 불경기를 맞이해 고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50. 황해예식장(대표 한재근)

황해예식장은 생연동 824번지에 1962년도에 개장하였으며, 동두천에서 유일한 예식장으로 번창일로에 있었으나 198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6~7개소의 예식장이 생기기 시작해 황해예식장은 폐업을 하게 되었다.

51. 동광주조합자회사

동광주조합자회사(대표 김성현)는 생연동 824-5번지에 위치하여 탁주와 약주를 주 생산품목으로 1960년도에 개업하여 운영해오다가 1975년경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으며, 그 후 재개하였으나 1979년 판매 부진으로

인하여 폐업을 하게 되었다.

52. 중앙로 터미널이 없어졌다

동두천의 처음 버스터미널은 생연로인 전 국민은행 자리에 있다가 다음에는 동광극장 사거리 북쪽 편에 있었으며, 그 후 1970년경 중앙로가 개통되면서 생연동 592번지에 있었으며, 2000년에 업주가 자진 폐업하였다. 버스터미널이 없어지면서 중앙시장이 위태롭게 되었다.

53. 미보병 7사단(아리랑사단), 본국으로 떠나다

미보병 7사단은 1952년부터 1970년까지 17년간 동두천 지역에 있었다. 한국과 인연이 깊어 우리 민요인 아리랑을 사단가로 정하여 부른 유일한 사단이다. 미 8군사령관인 맥아더 원수는 주일 7사단과 신편한 미 제1해병사단으로 편성한 제10군단을 상륙군단으로 새로 편성한 다음 5,000대 1의 도박인 상륙작전을 개시하기 위하여 9월 15일 사령선인 마운트매킨리함을 위시한 함선 261척으로 구성된 상륙군단을 인천에 상륙시킨 후 이어서 김포비행장과 서울을 탈환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낙동강의 한미 양군이 총반격을 개시하기 시작하였고, 미 7사단 일부 병력이 영등포에서 수원으로 남진하여 인민군의 후방을 위협하자 인민군은 낙동강 전선의 주력부대들의 퇴로가 끊길 것을 두려워해 9월 23일 드디어 총 후퇴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미 제7사단이 서울의 동남쪽을 포위함으로써 9월 28일에 함살된 지 98일 만에 수도 서울을 다시 탈환하게 되었다.

한편 낙동강의 한미 양군은 9월 16일 09시를 기하여 총반격을 개시하였으며, 휴전 후 우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가 1970년 귀국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리나 시에 주둔하고 있으며, 한미 팀스리피트훈련 시 수차례에 걸쳐 참여한 사단이기도 하다.

54. 정장로 지하도

정장로 지하도는 동두천시에서는 유일하게 철도를 관통하는 지하도였다. 이 도로는 1986년도에 개통되어 동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준 역할을 하다가

복선화 전철공사가 시작되면서 전철 철도가 고가화하면서 지하도가 사라지고 일반도로로 2000년에 개선되었다.

55. 새바위가 사라지다(봉암규석광산)

하봉암동 192번지에 있던 봉암규석광산의 대표자는 이원학 씨이고, 설립 연도는 1968년 5월 15일, 생산품목은 규석(질이 아주 좋은 규석임)으로 연간 생산 실적은 40,000톤이었다.

이 광산은 연천계 규석층의 발달로 매장량이 풍부하다. 그러나 이 광산의 개발로 인하여 이 지역 명칭의 상징물인 새바위가 사라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미관을 해친다고 하여 앞면은 중단했지만 형식적인 복구만 해 놓았으며, 그 후부터는 국도변에서 보이지 않는 뒤편을 채광하다가 1980년 후반경 폐업하였다.

56. 미 2사단 연병장에 있는 이담면사무소

1950년 6·25전쟁 이전에는 인구 6,000명으로 면사무소 소재지는 동두천동 196번지상에 있었으며, 이담면 시가지가 이곳에 위치하고 각 관공서도 이곳 부근에 위치하였으며 5일 시장, 우시장과 특히 동두역이 바로 앞(동두천동 245번지)에 있어 이곳이 이담면의 중심지였으나 6·25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

57. 일제시대 일본 신사(神社)

동두천 지역에서도 일제시대(1910~1945)까지 일본의 신사가 있었으나 해방과 더불어 사라졌다. 위치는 창말언덕에 있는 공병부대로 북쪽으로 고개 넘기 전 좌측 양지쪽(현재는 부대 안)이며, 옛 조선시대에 창이 있었고, 그 후 동두천보통학교가 있었던 자리이다. 이곳에 일본인들이 신사를 건립하여, 우리 민족을 일본인으로 교화하려는 목적으로 세웠던 것이다. 그곳에서 500m 남쪽 전방에 주재소(지금의 경찰서)가 있었다.

58. 진해농장

1970년경 한 노인이 지행동 동편 일대(광암동과 경계 지점)에 산을 가꾸고 손질하여 이곳 일대에 밤나무를 심기 시작하여 수 년에 걸쳐 나무를 가꾸고 있었다. 이곳에 밤나무와 다른 나무들이 자라면서 경치가 좋고, 나무숲이 무성하여 그 자제(김태진)가 이곳을 재정비하여 진해농장이라 이름하여 관광지로 변모하였다.

그 후 1980년경 후반에 관리가 부실하여 점차적으로 폐농장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 후 1990년경 대진대학재단에서 이곳 토지를 인수해 대진대학교 부속병원을 건립하기 시작하여 지상 13층의 건물을 세워놓고 동양 최대의 병원으로 운영할 야심찬 계획이 있었으나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고, 교주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분쟁이 생겨 현재까지 이 좋은 건물이 폐허된 안타까운 실정이다.(특히, '수도권 정비법'에 묶여 있다)

59. 생연동공동묘지

생연동공동묘지는 생연동 산47번지에 위치, 서향으로 동두천 전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현재는 현충탑 부지와 생연초등학교 부지)

이 공동묘지는 당초부터 이담면의 소유로 있었으며, 양주군수에서 동두천시장 명의로 있었다. 이곳 공동묘지에는 수백 기의 묘가 있었는데, 이 묘들은 1970년도 중반기부터 이장 공고를 통하여 모두 이장 처리하고, 이곳에 현충탑을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생연초등학교 부지가 일부 시 소유 부지로 들어가 있었지만 1990년대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우리의 현충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연초등학교 부지가 들어 있다 하여 최종구 시장은 분할하여 넘기지 않고, 생연동 산47번지를 불법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몽땅 이관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지금의 현충탑 부지는 시소유가 아닌 타 소유지에 현충탑이 외로이 우뚝 서 있는 것이다.

60. 상봉암동공동묘지

상봉암동공동묘지는 상봉암 산40번지 상에 있었으며, 시소유로 되어 있었다.

이 공동묘지에도 수백 기의 묘가 있었는데, 1980년대 초반에 이장 공고를 하여 정리해 개발이란 미명 하에 현재는 공장부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산으로 남았다. 이러한 공동묘지는 공원으로 잘 가꾸어주어야 할 터인데, 개발이란 이름 아래 모두 없어졌다.

61. 잊혀진 판자촌

3·8선에 가장 근접해 있는 동두천은 가장 먼저 공산군에게 유린되었다. 9·28수복으로 안도감을 맛보기도 전에 북한과 더불어 뒤따라 닥쳐온 1·4후퇴에 밀고 밀리는 처참한 전쟁 속에서 동두천은 처참하게 초토화되었다. 1953년 동족 간의 혈전은 한 곳에서 교착상태를 지속하였고, 흩어져 피난 중인 주민들의 수복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너와 나를 막론하고 집이 없었다.

오랜 세월 시운(時運)에 따라 오순도순 살아온 동두내는 간 곳 없고 어지럽게 쌓여 있는 것은 무너진 흙담뿐이었다. 게다가 수복이 되었다고 하나 당시 주둔 중인 미군에 의해 원위치의 입주가 저지되었고, 적수공권으로 수복해 올라온 주민들은 부득이 송내리와 지행리에 임시 정착을 하기에 이르렀다.

무기력하고 또한 악조건하에서 주민들의 재기의 몸부림이 시작되었다. 천막촌이 형성되고 송내리 내동에는 면사무소, 우체국, 금융조합, 경찰지서가 수복되어 행정과 치안기능을 되찾기 시작하였다. 5일장이 서고 음식점, 술집도 생겼다. 그리하여 수복한 주민들은 허탈 속에서 어렵게 웃음을 되찾고 생활터전을 마련하려는 몸부림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기에 오직 미군부대만이 유일한 주민경제의 주축이 되었다. 단 한 치라도 부대에 접근하려는 욕망에서일까 아니면 폐허가 되었을망정 내 집이 있었고 내가 살던 터전을 되찾으려는 본능에 서였을까 원위치 복귀가 불가능하였던 수복민은 싸리말(보산동)에 터전을 잡고 자 판잣집을 짓는 한편 각자의 생업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미군에 의해 지금의 모랫말까지 쫓겨났다. 누구를 원망하고 한탄할 마음의 여유 없이 옮겨온 각목과 상자를 이용하여 판잣집을 세우는 데 혈안이 된 한편, 어렵게 교섭한 결과 다행히 미군 민사처의 허락으로 현재 생연2동 신천교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지점까지 입주하게 되었다.

민간 주도의 변영회를 조직하고 새로운 시가지를 설계하였다. 미군부대에서

유출되는 폐품을 건축자재로 사용하여 순식간에 판자촌이 형성되었으며, 면사무소와 지서가 옮겨오고 5일장도 옮겨졌다. 그리하여 전쟁 중에 비록 비정상적이긴 하나 수복민들은 그런대로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고, 실향민을 위시하여 전쟁으로 생활터전을 상실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판자촌 시가지를 형성해나갔다. 상가가 형성되고 이방인 상대 윤락가도 생겼다. 미군부대로 인하여 인구가 점점 증가되었으며, 이 판자촌은 1980년대 초반까지 있었다.

62. 제일 큰 들판이 영원히 사라지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문전옥답이고 동두천에서 제일 큰 들이었다. 1980년대 말까지 황금들판이요, 비닐하우스 원조로 잉어가 많이 올라왔다. 장마철이면 잉어잡는 어장이던 들판이 개발이란 이름 아래 매몰되어 아파트단지(신시가지 형성)로 변신하고 말았다. 농자천하지대본이란 팽과리 소리와 징소리도 살며시 사라져갔다.

여기 들판에 얹매인 애환의 들 이름은 다음과 같다. 일등전, 이등전, 방아논, 우미네, 웅그머리, 황새개울, 월두물, 장구논, 벳뽕, 달래피, 한섬지기, 고분논이, 삼패기, 거북마루, 동터지기, 칠성배기, 구레논, 대전때, 구렁발, 살미리, 잉어보, 서낭당벌, 상수통진터벌, 무당모루, 가라니 등의 별판의 이름이 있었으나 이제 불러볼 날이 있을지!

63. 찾아도 없어지는 문화

찾아도 없었던 3,000~1,000년 전 거석문화의 상징인 선돌(입석) 5점과 고인돌(추정) 7점 등을 발견하였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영원히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리고 고대생활의 유물인 토기편들이 기계의 사용으로 모래로 변모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유물들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 확실해진다.

64. 찾으려야 찾아 볼 수 없는 서당(書堂)

- 1) 생연1동 연동 홍재길의 할아버지가 약 20여 명을 서당에서 가르쳤다.

2) 생연1동 방축동 김정차 씨 댁에서 연천에서 피난을 나오신 이병직 선생이 서당을 차리고 약 30여 명을 가르치고 그 후 이우명 선생이 계속 가르쳤다.

3) 탑동 동점마을에서 김상우 씨 댁을 이용하여 서당을 차려 박종운 선생이 가르쳤다.

4) 탑동 왕방이에서는 임서준 선생이 약 10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다.

5) 탑동 왕방이(전 사격장 인근) 당시 이곳에 집이 세 채 있었는데, 이곳에 서당을 차려 놓고, 이규백 씨 부친이신 이덕재 선생이 가르쳤다.

6) 탑동 낙모루에서는 황대현 씨 조부이신 황학성 씨가 서당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가서도 서당을 운영하였던 대학자이다.

7) 송내리에서는 목찬식 선생이 서당을 운영하였으며, 우리 지역에서는 목찬식 선생을 중심으로 글방이 운영되었다 한다.

8) 송내리 안골 조영목 씨 댁에서 이종악 씨 할아버지 이우필 선생이 서당을 운영하였으며, 이영기 부친 이우명 형제분들이 서당을 운영하였다.

9) 상패동에서는 김용범 선생과 허추봉 선생이 서당에서 가르쳤다.

10) 지행리에서 이종학 씨 할아버지가 가르쳤다.

11) 길산동 탑개울에서는 홍만중 할아버지가 서당을 차려놓고 가르쳤다.

이와 같이 한문은 우리 조상이 개발하여 계속 사용한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간교에 빠져 중국글이라 하여 내던져지고 있으니 한심한 세상이다.

65. 천대받고 있는 우물물

사람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한다. 인근에 물이 있어야 집을 짓고, 공동우물이 있어야 마을이 형성되었다. 큰 저택은 반드시 집안에 우물을 파서 집안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모두 우물물을 길어다 식생활에 활용하여 왔다.

우물이 있는 곳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송내동 안골 우물

송내동 안골 목태신 씨 댁 북쪽 50m 언덕에 뱀우물이라 불리는 우물이 있다. 옛날부터 이 부락에는 이 우물을 공동우물로 사용해왔었다. 이 우물 주위에는 돌담을 쌓아서 사용하였고, 또한 우물 아래쪽에는 자그마한 연못이 있었다 하나 지금은 없어졌다. 이 우물 주변 돌 사이에서 뱀이 많이 나왔다 하여 뱀우물이라

불리었으며, 현재도 원형은 남아 있다.

2) 송내동 안골 윗동네 우물(송내동 86번지)

송내동 86번지 상에 우물물이 있었으며, 이 우물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줄지 않아 가물 때에는 더욱 사랑을 받았던 우물이다. 86번지 소유주는 이호연 씨이다. 이 우물은 윗동네 주민들이 애용하던 유명한 우물이었다.

3) 송내동 안골 중간동네 송내동 120번지에 위치한 이 우물은 옛날 한 참봉을 지내신 분(한상은 전 조합장)이 살던 집 아래에 있다. 이 우물도 항상 마르지 않는 우물이라고 하며, 지금은 이 우물가에 조그마한 팻말이 세워져 있다. 그 내용은 '마르지 않는 우물'이라고 적혀 있다. 지금은 어운빈 씨가 살고 있으며, 허드렛물로 사용하고 있다.

4) 생연1동 옛 우물은 현재 애신보육원 뒤에 있으며, 아랫마을 우물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우물은 보존이 잘 되어 있다.

5) 방축동 홍오섭 씨가 살고 있던 집 앞에 우물이 있었으며, 가운데마을 우물이라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아파트가 들어서 우물은 없어졌다.

6) 방축동 북쪽 도랑 건너편 홍귀섭 씨 댁 뒤편에 엇바위 우물이 있었다.(예전에는 이곳에 엇바위라는 바위가 있었다.)

7) 연동(못골)에는 연못 동쪽 위에 우물이 있어 못골 사람들이 이용하였다.

8) 황매동(전 간이상수원 터)은 마을 맨 위쪽에 우물이 있어 이용하였으며, 현재도 간이 상수도로 운영하고 있다.

9) 중앙동에는 어수물(생연동 612번지)이 유명하며, 인근 사람들이 이 우물을 이용하였다. 지금은 이 자리에 어수노인정이 서 있다. 하루 빨리 어수정을 복원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다.

10) 중앙동 4통 551번지 상에 우물이 있었으며, 이 인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였으며, 펌프 시설을 하여 현재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11) 안흥동 담안마을에서는 현재 307번지 위에 위치한 우물을 간이 상수도 식으로 하여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다.

12) 상봉암 황희터마을에는 상봉암동 36번지 골짜기에 옛날부터 사용하던 우물이 현재도 있으나, 원형만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13) 현재 에이스아파트 단지 중앙에 옛 우물이 있었으나, 아파트 건립 때 매몰 하여 현재는 흔적도 없고, 아파트만 우뚝 서 있다.

14) 지행동, 종이골에는 이상진 씨 집 앞에 있었고, 안덕환 씨 댁 뒤편에 우물이

있었으며, 안병철 씨 집 앞에도 있었다. 또 중앙중고등학교 뒤 안 씨 댁 앞에도 우물이 있어 마을사람들이 자주 이용하였다.

15) 지행동 사당골에는 박양희 씨 집 앞에 우물이 있었고, 박재희 씨 댁 앞에도 우물이 있어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였다.

16) 고개약수

광암동 쇠목부락에서 동점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있는데, 사시절 풍치도 좋거니와 항상 일정량의 용수가 흘러나와 소화불량, 특히 해수병에 효험이 있어 예부터 약수를 복용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교통이 불편하여 찾아오는 사람이 드물다.

66. 케네디기념회관

고(故) 존 F. 케네디 미국대통령을 추모하고, 그의 뉴프론티어의 열을 한국에 심어보고자 하여 건립하였다.

1964년 3월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인 로버트 F. 케네디 상원의원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미 7사단에 들르게 되었는데, 미 7사단 PX 초상화부에 근무하던 송두영 화백이 그린 케네디 대통령의 초상화를 선물로 준 것이 인연이 되어 케네디기념회관 건립을 도와주기로 약속받고, 그해 5월 송화백은 사재를 털어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동 616번지의 땅 500평의 대지를 마련하고, 총 공사비 680만 원으로 정하고, 본관 2층, 자유의 봉화탑은 5층으로 설계하여 착공을 하였으나, 자금과 자재가 부족하여 공사가 부진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 후 자금을 마련하여 겨우겨우 1969년 11월 22일에 개관하였으나, 빌려 쓴 돈을 갚지 못하여 결국 타인의 소유로 넘어가고 송두영 화백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말았다. 따라서 케네디기념회관은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

67. 맨 처음 설립된 가내공업센터(심경직물 대표 박인경)

동두천읍 가내공업센터는 1973년경 새마을운동과 함께 옛 이담면사무소 터인 생연동 689번지에 설립(대표자 박인경), 의류가공업체(종업원 100명)로 출발하여 일본 등지로 가공수출, 외화 획득과 함께 고용창출을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다 중간에 명의 변동이 있었으며, 그 후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 운영해

오다 자진 폐업하였으며, 그 옛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는 상가로 6층 건물이 우뚝 서 있다.

68. 시대에 밀려난 제재소

동두천에도 제재소가 여러 곳에 있었으며, 원목들이 많이 쌓여 있었으므로 1960~1970년대 건축붐에 발맞추어 기계소리가 요란스럽던 시대가 있었다. 대표적인 제재소로는 철원제재소(대표 유용한)와 대양제재소(대표 이기창, 김송봉, 간병수), 덕흥제재소(대표 공덕봉), 대원목재 등 목재 판매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제재소 역할은 사라지고 재단하는 데 약간 사용할 따름이다.

69. 다방이 살며시 물러나다

동두천에는 1960~1980년대 중반까지 60여 개의 다방이 있었으나, 인건비의 상승과 각종 공장 종업원으로 취업하면서 생긴 인력난으로 인하여 서서히 폐업하기 시작하였으며, 커피산업이 발달하면서 각 직장에서는 기계를 이용한 커피와 더운 물만 있으면, 커피를 타먹게 됨으로 인해 서서히 문을 닫고 지금은 단 10여 개소의 다방이 있을 뿐이다.

제12절 동두천의 사건·사고

1. 윤금이 씨 변태적 피살

동두천시 보산동 1992년 10월 28일 자신의 전세방에서 이마를 둔기로 맞고 체내에 콜라병과 우산대가 박혀 있는 시체 한 구가 발견되었다. 그녀는 윤금이 씨(26·주한미군 접대부)였다. 용의자는 동두천시에 위치한 미 제2사단 소속 케네스 마이클 이병(20)으로 10월 31일 피가 묻은 바지 등을 입고 귀대하다 부대 정문 앞에서 한국 경찰에 검거됐으나 곧바로 미군범죄수사단(CID)에 인도됐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상 대한민국 안전에 관한 범죄일 경우 한국 측이 요청할 때에만 미군측이 신병을 반드시 인도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외의 경우는 우리 측의 요청에 미군당국이 호의적 고려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변태적 살인에 대해 우리 경찰 측은 수사권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동두천 민주시민대회와 대학생회 등 13개 단체가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전우섭 목사)를 구성, 공동대응에 나섰다. 대책위는 이 사건의 용의자가 한국경찰의 기초수사도 없이 미군 수사당국에 넘겨진 것에 항의, 한국 법에 의한 사건의 처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미군범죄에 대한 수사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11월 4일부터 가두에서 유인물을 배포했다. 한편 전우섭 공동대표는 “지금껏 미군에 의한 범행의 처리를 한국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때문”이라며 “이제는 한국인의 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굴욕적 삶의 잔재를 떨쳐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법당국이 재판권 행사를 확보하게 되었다. 의정부경찰서는 11월 6일 오후 평택 미군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마이클 이병을 미군범죄수사단

(CID)으로부터 넘겨받아 사건 당일 행적 등을 집중추궁하게 된 것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마이클 이병이 범행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나 사건현장에서 찾아낸 마이클 이병의 운동화와 바지에서 추출한 혈흔과 머리카락 등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거쳐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늦게 마이클 이병의 신병을 미군 측에 다시 넘겼다가 7일 재소환, 조사한 뒤 구속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1992년 11월 7일 오후 4시경에도 윤금이 씨 살인 만행 시민 규탄대회가 전개되었다. 동두천시 미 2사단 포병여단 정문 앞에서 백기완 씨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고광석 의장 등 재야인사와 동두천시민주시민회 등 49개 단체 8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금이 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가 주최한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미 2사단장의 공개사과, 범인에 대한 한국 법정에서의 납득할만한 처벌, 적절한 피해보상, 주한미군에 대한 인신구금권 확립 등을 요구했다.

같은 해 11월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6백여 명의 시민들이 강당과 복도를 가득 메운 가운데 ‘윤금이 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찬국)’ 주최로 주한미군에게 죽임을 당한 윤금이 씨 추도식 및 시민규탄대회가 열렸다.

“동두천 여자들은 이 나라 국민들이 아니지 / 펄럭이는 성조기 아래 이 나라 여자들이 내버려지는 치외법권지대 /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고함쳤어도 아무도 보지 않았지 / 좋은 세상 만들 때까지 우리들 가슴 속에 살아 있어다오.”

소복한 오정은(23) 씨의 춤사위가 허공을 가르자 강당 구석구석에서 북받치는 흐느낌 소리가 터져 나왔다. 영정 앞에 놓인 순백의 국화송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추도식이 거의 끝날 무렵 찢어지는 비명소리와 함께 윤 씨의 어머니 강공례(51) 씨가 쓰러지듯 강당 안으로 들어왔다. “금이야.” 전주에서부터 먼 길을 달려온 강 씨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애절한 추도의 끝은 분노로 이어졌다. 범인 케네스 마이클 이병을 구속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규탄과 결의문 낭독, 탑골공원까지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아일랜드에서 왔다는 미리암(52·가톨릭여성사목복지회원회 소속) 수녀는 “이번 사건은 너무도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했다. 이 모(23·D대 경영4) 군은 “우리의 딸이 처참하게 죽어갔는데도 단지 교도소에 양변기가 없고,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조차 하지 않는 우리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

고 했다. 만장을 앞세운 행렬이 종로를 따라 걸을 때 인근 시민들은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했다.

윤금이 씨 살해 피의자 케네스 마이클 이병에 대한 첫 공판이 1993년 3월 11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부장판사 정호영) 심리로 열렸다. 푸른 군복 차림의 마이클 이병은 수갑과 족쇄를 찬 채 입장했으나 재판부의 지시에 따라 수갑 등을 풀고 재판을 받았다.

공판부 김정기 검사의 짙막한 기소장 낭독에 이어 검찰 신문이 시작됐다.

“사건 당일 윤 씨와 함께 윤 씨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는?”

“그녀는 취한 데다 아팠었고 화가 나 있어 데려다주러 갔을 뿐입니다.”

“피고인에게 콜라병으로 얻어맞고 쓰러진 윤 씨 몸에 세제를 뿌리고 콜라병과 우산을 꽃은 사실이 있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마이클 이병의 대답은 대부분 완전 부정으로 끝났다. 2백 석 법정을 메운 방청석에선 욕설과 한숨이 흘러나왔다. 마이클 이병의 진술은 화대를 내놓으라며 콜라병을 휘두르는 윤 씨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콜라병을 빼앗아 윤 씨의 머리를 4차례 내리쳐 실신시켰다는 것으로 요약됐다. 재판은 45분 만에 끝났다. 마이클 이병의 일방적인 부인으로 재판이 끝나자 흥분한 대학생 1백여 명은 “윤금이를 살려내라.”며 호송버스를 건어찼다. 윤 씨의 어머니 강공례(53) 씨는 “뻔뻔스럽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검찰은 마이클 이병의 법정 진술과는 상관없이 피 묻은 옷과 여러 가지 증거를 이미 확보해 놓은 만큼 그의 살인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1993년 3월 24일 서울지검 김정기 검사는 윤금이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케네스 마이클 이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93년 11월 17일 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는 1993년 인권상 수상자로 주한미군 윤금이 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찬국·문요안나·박순금·전우섭)를 선정했다.

1993년 12월 16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윤금이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주한미군 제2사단소속 케네스 마이클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994년 4월 29일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윤금이 씨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미8군 소속 케네스 마이클 이병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윤 씨를 난행,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동기 수단 등에 비춰 정당방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은 곧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미군당국에 형 집행을 위한 신병인도를 요청, 외국인 범죄자 수용시설이 있는 천안소년교도소에 수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4년 5월 28일 대검은 윤금이 씨를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된 케네스 마이클 이병의 신병을 이날 오전 11시 미군으로부터 넘겨받아 천안교도소에 수감했다.

2. 1998년 집중호우 강타에 주민들 망연자실

동두천시에 324mm 가까운 기습폭우가 1998년 8월 5일 저녁부터 6일 새벽 사이에 쏟아져 저지지역이 완전 침수됐다. 5일 자정부터 한 시간 동안 86mm의 기습폭우가 쏟아지는 등 6일 새벽 3시까지 263mm의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시내를 가로지르는 신천이 범람, 생연3·4동과 동안동, 광암동 지역 등이 거의 수몰됐으며 일부 지역에선 통신도 두절됐다. 또 미군부대인 캠프 케이시도 침수됐다. 한 주민은 “미군부대에 있던 컨테이너가 물에 떠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보산동 상가 주민들은 이날 밤 랜턴을 머리에 이고 상가로 들어가 어둠 속에서 물건에 쌓여 있는 진흙을 씻어냈다. 미군부대 앞 잡화점, 주점 등 5백여 개 가게가 들어선 이곳에서 선물가게를 운영하는 박정구(45) 씨. “수 년간 쌓아올린 장사가 순식간의 폭우로 무너지다니 기가막힙니다.” 박 씨는 인형들을 하나하나 물에 씻으며 말을 잊지 못했다. 그 옆에서 군 장병들이 대형 양수기를 동원해 밤늦게까지 물을 퍼냈지만 힘겨운 모습이었다. 미군부대 내 탄약고에서 보관 중이던 탄약 일부가 비에 쓸려갔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공포감마저 느끼는 듯했다.

시내는 온통 진흙바다였다. 8월 7일 낮 12시를 넘어서면서 생연동, 보산동 일대를 잠גיע 했던 물은 차츰 빠졌지만 시내버스가 다니던 도로는 갯벌을 연상케 했다. 미군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던 보산동 상인들은 삽과 빗자루로 진흙을 퍼내기 바빴고 자신들의 상처를 씻듯 수돗물로 운동화와 가죽점퍼를 일일이

씻어냈다. 애써 가꾸어온 터전을 잃은 일부 상인들은 “세차장, 목욕탕에 보관 중이던 폐유가 흘러나와 물건들을 몽땅 버렸다.”며 눈물을 삼켰다. 지하에 있는 다방, 소규모 공장 주인들은 가득 들어찬 물을 빼낼 방법이 없어 속만 태웠다. 어떤 사람들은 청소를 포기하고 보험 청구를 위해 사진을 찍어두기도 했다. 큰 길가에 널브러져 있던 자동차 50여 대는 뒤늦게 찾아온 주인이 시동을 걸어 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한 50대 아주머니는 길모퉁이에 불쌍사납게 쓰러져 있는 토크 판매소를 애써 일으켜 세우며 한숨을 내쉬었다.

8월 7일 연천군 주민들 90여 명이 동두천에서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1996년 한탄강 독이 무너져 논과 가옥이 수몰됐던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주민 30여 명은 6일 밤 마을총회를 열어 수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짜자고 뜻을 모았다. 이장 이연구(45) 씨는 “농사일로 바쁘지만 주민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나섰다.”며 “동두천과 의정부 지역 수해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나로 뜻을 모은 이들은 망설임 없이 덤프트럭과 펌프차량 등 마을주인이 갖고 있던 각종 장비를 끌고 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동두천시로 들어왔다. 황톳물에 잠겼던 처참한 도시를 보고는 옛일이 생각나는 듯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그러나 곧 팔을 걷어붙이고 복구현장에 뛰어들었다. 남자들은 동두천 시내에 산 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토사를 긁어내는 등 거리 환경을 정비했고 여자들은 각 가정에서 물을 빼내고 옷가지와 가구, 가전제품 등 가재도구를 씻고 말리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40대 가정은 초등학생 아들의 손을 잡고 와서 흙 범벅인 냉장고를 닦았다. 방학 중인 학생들은 삽과 들것으로 골목을 가득 메운 쓰레기와 진흙을 퍼 닦았다. 주일예배를 마친 교인들도 힘을 합쳤고 떡집 아주머니는 수해 가정의 아이들 먹이라며 가래떡과 절편 10여 말을 내놓았다.

8월 9일 비가 멈춘 뒤 본격적으로 시작된 복구현장에는 온정의 물결이 밀려들었다. 수재민들도 이어지는 봉사의 손길에 다시 힘을 냈다. 스티로폼을 깔고 밤을 샌 권영하(54·동두천시 생연4동) 씨는 “자원봉사자들이 건네는 밥 한 끼와 따뜻한 위로의 말을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야겠다.”고 했고, 가방가게를 하는 김남규(52·동두천시 보산동) 씨는 “호우 첫날 젖은 가방 1천여 개가 이틀날 비로 다시 젖었다.” 면서도 흙탕물을 뒤집어 쓴 가방을 씻느라 여념이 없었다. 군부대 장병과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5백여 명의 복구반원은 수재민들과 함께 하천이 다시 범람하지 않도록 하루 종일 흙마대를 제방에 쌓고, 도로보수와 쓰레기 청소작업을 벌였다.

동두천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은 1996년과 1998년에 이어 1999년에도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해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곳으로, 피해액만 해도 3년에 걸쳐 1조 7,036억 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이에 1999년도에는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등 10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수해방지기획단을 결성했다.

기획단은 우선 임진강 유역에 다목적댐을 짓고, 진행 중인 임진강 수계 치수사업과 강우 레이더 설치를 2008년 우기 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문산천-동문천 정비를 위해 배수펌프장을 확충, 파주-연천-동두천-철원 일대 홍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3. 결산동 탱크사격장 인근 야산 산불, 7명 순직

결산동 미군 2사단 내 탱크사격장 인근 야산에서 1996년 4월 23일 오후 산불 발생, 진화작업에 나섰던 동두천시 산림계장 이강욱(38·임업 6급) 씨와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6명 등 7명이 숨졌다. 또 공익근무요원 김원기(20·생연1동) 씨는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동두천시와 경기도소방본부는 “미 제2여단 503보병대대 소속 미군 14명이 산에서 연발사격훈련 중 기관 포탄이 야산에 떨어지면서 마른 활엽수 잡목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불은 마침 불어오던 바람 때문에 빠른 속도로 번져나갔다.

동두천시는 오전 11시 50분쯤 동두천소방서 생연파출소로부터 산불 신고를 연락받고 공무원 3명과 공익근무요원 24명 등 27명을 현지로 보내 진화작업에 나섰다. 이들은 2개 조로 나뉘어 산(정상 305m)의 양 측면을 타고 올라가면서 갈퀴로 낙엽을 긁고 팽이로 땅을 파면서 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방화선을 만들어 나갔다. 그 중 10여 명은 20리터들이 물통을 멘 채였다. 그러나 1시간여의 작업 끝에 불길을 거의 잡았다고 생각할 무렵, 갑자기 골짜기 아래쪽에서 불어 닥친 회오리바람을 타고 높이 4m가 넘는 불길의 산의 오른쪽을 타고 오르던 이계장과 공익근무요원 일행을 덮쳤다. 창졸간의 일이었다. 숨진 동료들보다 20m 앞서 간 탓에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김원기 씨는 “불길이 아래쪽에서 회오리치면서 동료들을 좌우로 에워쌌으며 도저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불길을 피할 수 있었던 나머지 공익요원들은 이날 오후 2시 40분쯤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서 이 계장 등 7명이 뒤엉켜 쓰러져 숨져 있고, 김 씨가 신음 중인 것을 발견했다. 김 씨는 골짜기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들의 시신은 의정부의료원으로 후송됐다. 불이 확산되자 소방서와 시 등 소속 공무원 150여 명과 미군 70여 명 등이 헬기 2대와 대형 펌프카 등을 동원, 진화작업에 나서 오후 5시 30분쯤 불길을 잡았다.

순직자는 이강욱(38·임업 6급), 광정근(25·상패동), 박명신(20·보산동), 박종식(20·동안동), 김동환(23·생연3동), 윤상희(20·생연동), 김태훈(22·생연2동) 등이며, 4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은 순직자들의 빈소에 조화, 조의금을 보내 유족들을 위로했다. 한편 산림청은 이강욱 산림계장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고, 공익근무요원 6명에게는 각각 근정포장을 수여했다.

제13절 동두천의 무속신앙

1. 무속신앙의 개관

엑스터스[忘我·脫我·恍惚]와 같은 이상심리 상태에서 초자연적 존재와 직접 접촉·교섭하여, 이 과정 중에 점복(占卜)·예언·치병(治病)·제의(祭儀)·사령(死靈)의 인도(引導) 등을 행하는 주술·종교적 직능자인 샤먼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현상을 말한다. 북아시아의 샤머니즘이 가장 고전·전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역에 따라 여러 샤머니즘의 형태가 있으며, 다른 종교현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샤먼이란 말은 17세기 후반 트란스바이칼 지방과 예니세이강가에서 통구스인(人)을 접했던 한 러시아인에 의하여 알려졌는데, 이 말의 어원에 대하여 19세기의 동양학자들은 샤먼의 관념 내용과 병행하여 산스크리트의 승려를 뜻하는 시라마나(siramana), 팔리어(語)의 사마나(samana)에서 샤먼의 어원을 찾는 수입어설을 주장하였고, 20세기에 들어와서 J. 네메스와 B. 라우퍼 등은 통구스계 제 종족 사이에서 주술사의 일종을 지칭하는 saman, s'aman 등에서 유래하였다는 통구스 토착어설을 주장하였다.

이같이 샤먼의 어원에 대한 해설은 구구하나, 대체로 통구스 토착어설이 유력하다. 그러나 실제로 샤먼이란 말은 통구스·부랴트·야쿠트족에서만 쓰이는 말이며 샤먼의 역할이 북아시아 제 종족 사이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유사하지만 샤먼을 지칭하는 명칭은 여러 가지이고 그 의미도 다양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샤먼을 한자(漢字)로 무격이라고 쓰는데 무(巫:여성), 격(覲:남성)을 차용한 말이다. 따라서 샤머니즘을 무격신앙·무속(巫俗)신앙이라 하며, 샤먼을 무(巫)·무녀(巫女)·무당(巫堂)·무자(巫子)·무복(巫卜)·신자(神子)·단골·만신·박수·심방 등으로 부르지만, 대개는 남녀의 성에 따라 박수

(남성)·무당(여성)의 호칭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한국 무속의 샤머니즘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긍정·부정으로 학설이 나뉘며, 또한 북부의 강신무는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계통이고 남부의 세습무는 남방계의 주술사 계통이라는 설도 있으나, 무속은 그 전체가 샤머니즘이라는 것이 학계의 통념이다. 한국 무속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지만 아주 오랜 고대사회 때부터 한민족의 주요한 신앙 형태였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국조 단군이 무당이라는 설도 있지만 무속이 문헌상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삼국시대로, 신라 2대왕 남해차차웅(南解次次雄)은 왕호(王號)이자 무칭(巫稱)을 의미하며, 이 외에도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단편적으로 무당의 기록이 보인다. 이렇듯 오랜 역사를 가진 무속은 오랜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대다수 민중 속에서 크게 변질됨이 없이 존속되어 왔다. 무당의 형태는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데, 남부 지역은 혈통을 따라 대대로 무당의 사제권이 계승되는 세습무가 지배적인 데 비해, 중·북부 지역은 신(神)의 영력(靈力)에 의해 무당이 되는 강신무가 지배적이다. 이 같은 무당의 성격 차에 따라서 무속의 신관(神觀)·신단(神壇)·제의식(祭儀式) 등 전반에 걸쳐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무당들은 일반인과는 혼인을 할 수 없으며, 동성동본 불혼률이 적용된다. 씨족외혼을 원칙으로 하고 무당끼리 혼인하는 직업내혼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 또 무업을 하도록 유리한 모방친척(模倣親戚)을 확대하여 넓은 관계망을 형성한다. 무당사회에는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어 있으며, 혈연·직업 등으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무는 역사시대를 거치면서 사회·종교·문화적 위치를 외래문화에 빼앗겼지만 불교·도교 등의 여러 종교와 융합하는 과정에서 관념적 토대를 형성했다.

2. 동두천의 무속신앙

동두천의 무속신앙은 현재 전통적인 마을 굿의 형태로 남아 있으나 전통적인 마을 제의의 모습은 대단히 줄어들고 오히려 문화재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도 일부나마 마을 제의로 남아 있는 동두천의 마을 굿은 상패동 산고사, 지행동의 행단제, 지경땃이, 소요산 산제사, 하봉암동 도당굿 등이 있으며 그 중

하봉암도당곳은 최근 동두천시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무속인들의 단체로는 경신연합회와 새남굿보존회가 있어서 제의의 전통을 보존하고 연희자를 육성하는 일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3. 동두천 무속신앙의 실제

1) 동두천시 송내동 안골마을

(1) 마을 개관

송내동 안골마을은 동두천시의 남쪽에 위치하며, 양주시에서 동두천으로 향하는 국도에서 약 1km 떨어져 있다. 마을은 동남쪽으로 펼쳐진 천보산 자락에 자리를 잡았다. 이 마을에는 함중 어씨(咸從 魚氏)들이 많이 살며, 사천 목씨(泗川 睦氏), 윤씨도 많이 산다. 함중 어씨는 이 마을에 입향조가 들어온 지 14대째가 되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으며 밭농사를 주로 하고 논농사는 조금 짓는다. 밭작물로는 곡식인 보리, 밀, 조를 많이 심었으나 요즘에는 호박이나 콩을 주로 재배하며 논농사는 대부분 벼농사이다. 이 마을에서는 약 2km 떨어진 동두천장을 보러 다닌다. 걸어 다닐 때는 마을 뒤편의 지행동을 거쳐 장으로 다녔으나, 지금은 마을에 들어오는 버스를 이용한다. 학군은 지행동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현재는 생연동에 있는 학교로 다닌다. 중학교는 동두천중학교로 다니며, 고등학교는 동두천보다 양주고등학교가 더 가깝다고 한다.

안골 주민들은 마을 인근의 천보산에 있는 '대도사'라는 절에 다니고 있다. 대도사가 들어서기 전에는 그곳에 보살이 운영하는 보현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보살이 작고한 뒤 무속인이 들어와 절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마을에 교회는 들어오지 않았다.

지금도 마을에서는 공동제의인 '산제'를 지내는데, 2년에 1번씩 2월 초순에 날을 잡아서 지낸다. 산제를 지내는 곳은 마을 앞쪽 산 중턱의 빈터이다. 산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며칠 전부터 제관을 정하고 부정을 가리며 제물을 준비한다. 제일이 정해지면 부정을 막기 위해 일단 마을로 들어온 사람들은 제사가 끝날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밖에 있던 사람이 마을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돈을 내고 들어와야 할 정도이다. 제일의 자시(子時)에 제관들이 산제 터에 올라가 제를 지낸다. 제물을 준비하는 집에서는 떡(백설기), 돼지고기, 닭, 과일 등의 제물을 준비하고, 하루 전에 담가서 산제 터에 미리 묻어둔 '조라술'을 올린다. 조라술은 쌀 한 뿔 정도 정도의 양으로 항아리에 술을 담가 산제 터 주변에 파묻은 후 불을 때서 익히는데, 지금도 직접 조라술을 빚어 올릴 정도로 정성을 기울인다. 제사에 올리는 백설기도 예전에는 직접 쌀을 뿔아 올라가서 산제 터 옆에서 시루를 찌 준비했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떡집에서 시루째 찌와 올린다. 산제에는 남자들만 참여하며, 제사 비용은 예전처럼 집집마다 추렴하지 않고,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충당한다. 밤에 제사가 끝나면, 아침에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먹는다. 산제 외에 마을 앞쪽에 있었던 느티나무에 제사를 지내기도 했는데, 이는 마을에서 지내는 것은 아니었고 보현사에서 지냈다. 보현사가 없어지면서 제사도 지내지 않게 되었으며 느티나무도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2) 가정신앙의 실제

① 신앙대상

가. 지석(제석)

지석은 윗방 구석 윗목에 모셔두는데, 항아리 형태로 모신다. 이 항아리에는 해마다 처음 쪼은 쌀을 부어두고, 1년에 1번씩 갈아준다. 집안에 쌀이 다 떨어지고 나면 맨 나중에 그걸로 밥을 해먹는데 주로 여름철에 꺼내어 먹게 된다. 대체로 여름철에는 쌀이 불어서 새파랗게 변해 있기 마련인데 이 쌀을 떨어서 밥을 지어 가족들끼리 먹는다. 그런 다음 가을에 추수를 하여 새로 쌀이 나면 또 채워넣는 식이다.

제보자 이형순 씨는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윗방에 모셨던 지석항아리를 치웠다고 한다. 지석항아리는 쌀을 담고 위에 짚방석을 덮은 검은색 질항아리였는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어도 깨끗하게 두어야 하기 때문에 광에다 잘 두었다고 한다. 크기는 쌀 5말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중간 크기 독이었다.

제석은 따로 모시지는 않고 집에서 고사를 지낼 때면 항아리에 떡을 해서 올리는 정도였다. 그러나 항아리를 치운 다음에는 새로 항아리를 모시지는 않고, 고사 지낼 때 윗방의 항아리가 있던 자리에 떡만 가져다 두는 것으로 대신했다. 현재는 집을 새로 지어 윗방이 없으므로 안방에 가져다 둔다.

나. 성주

‘성주는 곧 대주’라는 말이 있듯이 성주는 집 주인과 동일하게 인식된다. 주로 마루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 지을 때 올리는 상량을 성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량 올리는 것을 ‘성주 올린다’고 하기도 한다. 상량을 올릴 때 창호지에 쌀과 동전을 넣어서 쌓은 다음 상량에 매달아 올리는데 이는 부자가 되라는 의미라 한다. 이형순 씨의 집은 2~3년 전 새로 지었는데, 이 집을 지을 때도 상량대를 올리지는 않지만 상량문을 써서 올리고 창호지에 쌀과 동전을 넣어 함께 싸서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천장이 막혀 있어서 보이지는 않는다. 상량을 올릴 때 목수들은 광목에다 상량대를 붙들어서 당겨 올리는데, 조금씩 올릴 때마다 상량대에 돈을 엮어주어야 하므로 이 날은 목수들이 돈 버는 날이라고 한다.

다. 삼신

고사를 지낼 때면 삼신을 위하여 안방구석에 따로 제물을 차린다. 이때는 상에 떡 한 접시와 정화수를 떠놓고 자손들이 잘되라고 비손한다. 별도의 신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안방구석이 삼신의 터라고 여기고 그곳에 제물을 놓는다.

또 자녀를 낳았을 때와 낳고 난 뒤 3, 7일이 되었을 때는 삼신 터에 미역국 한 그릇과 밥 한 그릇을 차려 올린 삼신상을 놓는데, 이때는 아기가 무병하게 잘 자라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아기가 돌이 되었을 때에도 국과 밥, 떡(백설기)을 상에 차려서 삼신 터에 가져다 놓는다. 생일 때는 따로 위하지 않는다. 이형순 씨 집에서는 시할머니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삼신을 위했다고 한다.

라. 조왕

부엌 부뚜막 뒤에는 조왕이 있다고 하여 고사를 지내면 그곳에 떡을 떼어 가져다 둔다. 위치는 부뚜막의 가운데 솔과 뒷벽 사이이다. 조왕에 올렸던 떡은 부엌 살림을 맡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며느리가 먹는다고 한다.

마. 터주

터주는 가운데에 나무막대기를 하나 세우고 그 위에 짚 주저리를 엮은 터주 가리 형태로 모신다. 짚 주저리에는 원새끼를 둘러둔다. 이형순 씨 집에는 뒤꼍에 터주가리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시루를 따로 써서 올렸다. 시할머니가 돌아 가시고 난 뒤에 터주가리를 없앴다고 하는데, 터주를 더 이상 모시지 않으려면 그동안 모시던 사람이 돌아가실 때 함께 치우면 된다고 한다.

바. 칠성

칠성은 ‘칠성님’으로 부르며 장독대에서 모시는 것이라고 한다. 고사를 지낼 때

백설기와 막걸리 혹은 청수를 떠놓는다. 이형순 씨 집에서는 고사 때 외에 따로 위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② 정기적·일상적 의례

가. 정월고사

정월에 지내는 고사는 지난해 가을에 고사를 지내지 못한 경우에 지낸다고 한다. 대개 정월 열 나흘날 지내며, 순서와 내용은 10월에 지내는 상달고사의 내용과 동일하다.

나. 홍수맥이(횡수막이)

홍수맥이(횡수막이)는 정월 보름에 한다. 이형순 씨의 경우 시할머니께서 정월 보름에 아랫마을(현재는 국도변)의 '서낭당'이라는 곳에 가서 '홍수맥이' 한다고 하여 밥을 지어 따라 간 적이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그곳은 예전에 서낭당이 있어서 '서낭당'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으로, 소나무 몇 그루와 수종이 다른 큰 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큰 나무에 여러 가지 천을 걸어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큰길이나면서 큰 나무는 없어지고 소나무 몇 그루만 남아 있다.

만약 정초에 무꾸리를 하러 가서 그 해에 가족 중에 수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시할머니가 그곳에 가서 밥과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나쁜 것을 풀어냈다고 한다. 이형순 씨는 이때 밥과 음식 등을 들고 함께 날랐다고 한다. 서낭당에 음식을 차린 후 나쁜 것 없게 해달라고 축원하고 나서는 그 음식들은 주변에 뿌리고 돌아왔다. 이형순 씨의 시할머니는 '미신을 엄청 믿어서' 가족 중에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밥을 해서 풀어버리고 칼산을 보았는데, 칼을 던져 칼끝이 밖으로 나가면 나은 것이라고 하고 간단히 비손을 하기도 하였다.

다. 칠석고사

7월 칠석날 아침이면 밀떡을 부쳐서 집안 곳곳에 다 돌려둔다. 밀떡은 밀가루 반죽에 호박을 채썰어서 넣은 다음 동그랗게 부쳐서 만든다. 부쳐낸 밀떡을 상달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집안의 여러 곳에 가져다 놓는다. 이형순 씨 집에서는 시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매년 칠석고사를 지냈으나, 20년 전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는 지내지 않고 있다.

라. 상달고사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지내는 고사를 '상달고사'라고 한다. 고사를 지내는 음력 10월을 상달이라고 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으로, 이때는 그 해 농사를 지어

얻은 햇곡으로 떡을 올리며, 한 해의 수확에 대해 감사하다고 집안 곳곳에 놓고 비는데, 기독교에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제보자들은 설명한다.

고사의 날은 좋은 날을 잡아서 지내는데, 대개 말날[午日]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달력을 보아 말날로 정하기도 하고, 절에 가서 좋은 날을 물어봐서 정하기도 한다. 말날 외에도 소날이나 돼지날이 좋다고 한다. 이렇게 상달에 고사를 지내는 경우에는 정월에 지내는 고사를 생략하기도 하는데, 부정이 생기거나 하여 고사를 지내지 못한 경우에는 정월 열 나흘날 다시 고사를 지낸다.

고사는 집안의 안사람(부녀자)들이 주관하며, 고사일 하루 전에 대문에 술가지를 꽂아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는다. 부정한 일을 당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대개 술가지를 꽂아두면 가족들 외에는 그 집의 출입을 삼간다. 또한 하루 전에 집안의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상달고사에 올리는 제물은 떡(팥 시루떡), 막걸리, 북어, 과일(사과, 배)을 준비한다. 팥 시루떡은 예전에는 2말 정도를 준비하여 집에서 직접 시루를 찼는데, 두 시루를 찐다. 이 중 하나는 성주에 놓는 시루이며, 나머지 하나는 터주에 놓는 시루이다. 팥 시루떡을 찌는 것은 재료로 사용되는 붉은 팥의 붉은색이 부정을 막기 때문이라고 한다. 요즘은 떡의 양이 줄어들어 1말 정도로 준비하고, 시루도 떡집에서 찌운다. 두 개의 시루 중 성주에 놓는 시루는 양을 좀 많이 하는데, 쌀가루와 팥을 쪄켜이 올린 다음 맨 위에 하얗게 쌀가루만 조금 얹어서 백설기를 찌낸다. 이 백설기는 나중에 따로 떼어서 장독대에 가져다 두는데, 이는 칠성님께 올리는 (바랜다'고 표현한다) 것이다. 지금은 백설기는 따로 찌지 않는다.

떡이 익으면 마루의 성주에 먼저 가져다 두고 빈다. 성주에는 상 위에 떡시루를 올리고 옆에 과일, 북어, 막걸리를 놓고 비손한다. 그런 다음 떡을 쏘아 잘라서 집안 곳곳에 가져다 둔다. 터주와 칠성에 올리기 위해 따로 마련한 떡은 시루째 혹은 덜어서 가져다 두고 비손한다. 터주에는 떡시루와 막걸리를 그릇에 부어 두고 간단하게 빈다. 이어 떡을 덜어서 자른 후 안방과 건넌방, 부엌, 대문간, 우물, 외양간, 화장실, 굴뚝 등에 가져다 둔다.

이형순 씨는 굴뚝에 놓는 것은 '불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하며, 외양간에 놓는 것은 '소가 무병하고 잘 자라게 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우물에는 '물이 잘나게 해달라'는 의미라고 하였으며, 화장실의 경우 의미는 잘 모르지만 예전부터 시할머니께서 필히 가져다 놓으라고 하셨다고 한다. 집안 곳곳에

떡을 가져다 둔 후 조금 지나면 다시 떡을 걷어 들어 가족들끼리 나누어 먹고, 이웃에게도 돌려 나눠 먹는다.

최옥희 씨 댁에서는 매년 가을에 고사를 지냈는데, 2002년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뒤부터는 지내지 않는다. 최옥희 씨의 남편은 2004년 정월에 작고하였다고 한다. 집안이 무고해야 고사도 지내는데, 나쁜 일이 생기니까 고사도 소홀해 지더라는 것이다. 또, 최 씨는 '고사는 농사를 지어 가을걷이한 것으로 지내야 하는데, 농사를 짓던 남편이 작고를 하여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구입한 것으로 고사를 지내야 뭐 하냐고 하면서 이제는 고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고사를 지낼 때는 집에서 시루를 쪼는데, 많이 할 때는 5말 정도까지 하여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기도 하였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예전처럼 떡을 잘 먹지 않기 때문에 2~3말 정도만 해서 나눠 먹었다고 한다. 시루는 마루의 성주에 먼저 놓는데 여기에 올리는 것은 팔시루떡과 막걸리이다. 안방에도 아이들을 낳은 곳이기 때문에 삼신을 위하는 것이라 하여, 조그맣게 찐 백설기와 물 한 그릇을 상에 올려서 갖다 둔다. 백설기 시루는 따로 찌서 올리며, 삼신상을 차려두고는 '아이들 잘되게 해 달라'고 빈다. 그런 다음 시루의 떡을 쏘아 쪼개어 접시에 담아 막걸리 한 잔과 함께 집안의 곳곳에 가져다 둔다.

제보자들은 고사는 집안이 다 무사하고 편안하게 해달라고 지내는 것이며, 딱히 신령이 있어서 고사를 지내지 않으면 해코지를 해서가 아니라 고사를 지내고 나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지낸다고 한다.

마. 동지

이 마을 중 특히 어 씨와 목 씨 집안에서는 예전부터 동지 때 팔죽을 쑤지 않는다. 두 집안 모두 윗대 조상 중에서 어느 분이 열병(흔히 '염병'이라고 한다)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동지 때 팔죽을 쑤지 않는다.

바. 집 고사

집을 지은 날을 '성주생일'이라고 하여 이 날 집 고사를 지낸다. 상량대를 올리는 날 상량고사를 지내면서 상량문에 집 지은 날을 써 놓는데, 그 이듬해부터 이날이 되면 집 고사를 지낸다. 하지만 집 고사는 모든 집에서 지낸 것은 아니며, 잘 사는 집에서나 했다고 한다. 제보자인 이형순 씨는 자신의 집에서는 집 고사를 하지 않았지만, 마을의 기와집(사천 목씨의 큰댁)에서는 매년 집 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때가 되면 매년 시루떡을 해서 집에서 고사를 지내고, 마을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집 고사를 지내는 집은 없다.

③ 비정기적 의례

가. 신체봉안 관련 의례

㉠ 성주받기

집에 우환이 끊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하여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집에서 성주가 떠났다고 하여 성주를 새로 받는다. 집안이 무탈한 경우에는 하지 않고,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겨 무당에게 무꾸리를 하러 가서 성주를 새로 받아야 한다고 할 경우에만 받는다.

성주를 새로 받을 때는 창호지에 대주(大主, 가장)의 나이만큼 쌀을 조금씩 떠 넣고 동그랗게 접어서 묶은 다음 벽에 못을 박고 매달아 둔다. 이때 새로 받은 성주는 마루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쪽 벽에 걸어둔다.

나. 치병 관련 의례

㉠ 동법잡기

집안에 있던 물건의 자리를 옮기거나 새로 물건을 들여온 경우, 까닭 없이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동법이 났다'고 하여 동법을 잡는다. 동법 잡는 것은 안주인들이 주관하는데, 무쇠 솥에다 물을 붓고 사발을 얹은 다음 이궁이에 고추를 넣고 불을 땀다. 이렇게 하여 동법이 잡히면 사발 안으로 물이 쏙 들어간다고 한다.

동법이 난 곳을 찾기 위해서는 앵두나무나 복숭아나무 가지를 꺾어 부엌에 가서 조왕 앞에서 뭐라고 하면 대가 내리는데, 그 대를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동법이 난 곳을 찾는다. 나무를 다루어 난 동법일 경우 '나무 동법'이라고 하여 그곳에 가서 대가 내린 가지로 두드리고 나서 버리며, 천을 들여와 생긴 동법인 경우에는 천을 꺼내어 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동법을 잡은 후 밥을 해서 갖다 버리면 앓던 사람이 낫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 상문예방

문상(問喪)을 다녀와서 앓는 가족이 있는 경우 어디서 물어보아 상문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상문을 풀기 위해 무당을 찾아가서 풀기도 하고, 간혹 집에서 푸는 경우는 밥을 해서 내버리고 칼을 던져 칼산을 본다. 문상을 간 모든 사람에게 상문이 드는 것은 아니며, 수가 나쁜 사람에게만 상문이 든다고 한다.

수가 좋지 않은데도 문상을 가야 할 경우 상문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담가 놓은 '계장'국물을 몸에 찍고 간다. 계장을 조금 먹거나 국물을 찍어 정수리에 바르고 가면 상문이 예방된다고 하는데, 이 방법은 지금도 쓰고 있다. 이외에 문상을 다녀온 사람은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변소에 먼저 들어갔다 나오기도 한다.

㉔ 병긔

가족 중에 오랫동안 병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 장님(동경하는 사람)을 데려다 3일 정도 경을 읽는다. 또 지금처럼 약이나 병원이 없었던 시절에는 아프면 무당을 찾아갔으며, 집에서는 죽을 쑤어 버리기도 하였다.

㉕ 학질떼기

옛날에는 학질('말라리아'를 일컫는다)이 걸리면 저녁부터 앓기 시작한다. 학질을 떼기 위해서는 짚을 넣어 죽을 쑤 다음 이것을 바가지에 담아다가 덩불 속에 버리고 바가지까지 내다 버린다.

다. 일생 관련 의례

㉖ 잔치 액막이

집안에 환갑이나 혼례 잔치 등 잔치를 해야 할 경우, 날을 미리 잡는다. 그런데 정한 날이 좋지 않으며, 잔치에 나쁜 일이 생길까 봐 미리 고사를 지내 풀어내는 경우가 있다. 요즘에도 '환갑날 굴뚝에 연기도 내지 말라'는 말이 있어서, 집안에서 잔치는 하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먹는 집도 있으며, 여행을 다녀오는 길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㉗ 자리걸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자리걸이를 하는데, 이는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다. 무당이 와서 곳처럼 하는데, 이 마을에서는 예전에는 다 했지만, 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고 한다.

㉘ 기타

가. 부적붙이기

정월이 되면 절에 가서 그 해 운수를 보고, 안 좋다고 하면 부적을 써와 몸에 지니거나 집에 붙인다. 보통 입춘 전에 예방을 해야 한다고 하며, 각 집안에 따라 개인에 따라 내용은 다양하다. 이 마을에서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로 절에서 부적을 써오며, 일러주는 대로 부적을 몸에 지니거나 베개 속에 넣거나 집의 문 위에 붙이기도 한다.

나. 엄나무걸기

대문에 엄나무를 걸어두면 잡귀를 쫓는다고 하여 예방차원에서 엄나무를 걸어둔다. 이 일은 남자들이 맡으며 산에서 아무 때나 엄나무를 꺾어다 묶어서 대문 위쪽에 가로로 매달아둔다.

다. 소코뚜레걸기

새로 이사를 갈 때 소코뚜레를 걸어두는데, 이것도 잡귀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차원이라고 한다. 요즘에도 소코뚜레를 거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거는 코뚜레는 소의 코에 꿰었던 것이라야 효험이 있다고 한다.

⑤ 제보자

최옥희(여·73) 씨 친정은 파주시 적성으로 동주 최씨(東州 崔氏)이며, 시집은 사천 목씨(泗川 睦氏)이다. 매년 가을고사를 지내왔으나 남편이 병으로 작고한 후부터는 고사를 지내지 않고 있다. 2남 3녀를 두었는데 현재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으며, 마을에서 가게를 운영한다.

이형순(여·70) 씨는 양주시 회천면 고암리(현재는 덕정리)에서 시집을 왔다. 시집을 와서 당시 살림을 맡았던 시할머니께서 살림과 각종 의례들을 배웠으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예전처럼 모시지는 않고 상달고사만 지내고 있다.

2) 동두천시 가정신앙의 특징

조사대상인 송내동 안골마을은 동두천시의 남쪽에 위치하며, 천보산 자락에 자리하였다. 이 마을에서는 마을공동체 신앙으로 '산제'를 지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제 터를 새롭게 꾸며놓을 만큼 전통적인 민간신앙의 전승이 남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당을 불러다 굿을 하는 사례가 많이 없었다고 하며, 제보자들에 의하면 집안의 주부가 각종 의례를 담당하여 가정신앙을 전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마을에서는 남아 있는 가정신앙의 신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나 가을고사 등의 의례는 남아 있다.

신앙대상은 지석(제석), 성주, 칠성, 삼신, 조왕, 터주가 조사되었는데¹⁾ 다른 지역에서 조사되었던 업은 전승되지 않았다고 하며, 대감독에 대해서는 들은

1) 동두천시 안흥동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지석, 성주, 터주, 업(업암 가리), 조왕 등의 신체가 조사되었다. 경기도박물관, 『경기민속지』-신앙편, 1999

적이 없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마을은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못자리고사는 하지 않는다고 하며, 상량 올린 날을 기념하여 매년 지내는 집 고사는 일반적으로 행하던 의례가 아니라 사천 목씨네 큰집(제보자들은 이곳을 ‘기와집’이라고 표현했다)에서만 행했다고 한다. 즉, 경제력이 뒷받침되었던 집에서 행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특정 가정신앙 의례의 전승이 집안의 경제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제보자가 “부잣집들에서는 자손들 잘 되라고 안방에 제석을 모시기도 하였다.”라는 말이 주목된다.

가정신앙 의례력

월	의례 명칭	대상 신령	비고
1	정월고사	지석, 성주, 터주 등 집안의 모든 신	상달고사를 지내지 못한 경우에 지냄
	홍수맥이		
2			
3			
4			
5			
6			
7	칠석고사	지석, 성주, 터주 등 집안의 모든 신	밀떡
8			
9			
10	상달고사	지석, 성주, 터주 등 집안의 모든 신	
11	동지고사		어씨 목씨 집안에서는 팔죽을 쑤지 않음
12			
기타	집 고사	지석, 성주, 터주 등 집안의 모든 신	사천 목씨네 큰집에서 지냄
	성주받기, 동법잡기, 자리건이, 병굿		